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

A Conference on COVID-19 and
the Korean Church Hereafter

디지털 시대,
예배하는
교회

Toward
a Worship
Community
in the Digital
Generation

일시

2020. 6.15. (월)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



A Conference on COVID-19 and
the Korean Church Hereafter



디지털 시대,
예배하는
교회

Toward
a Worship
Community
in the Digital
Generation

일시

2020. 6. 15. (월)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CONTENTS



01 인사말

4p

1 총회장 인사말씀

김태영 목사

2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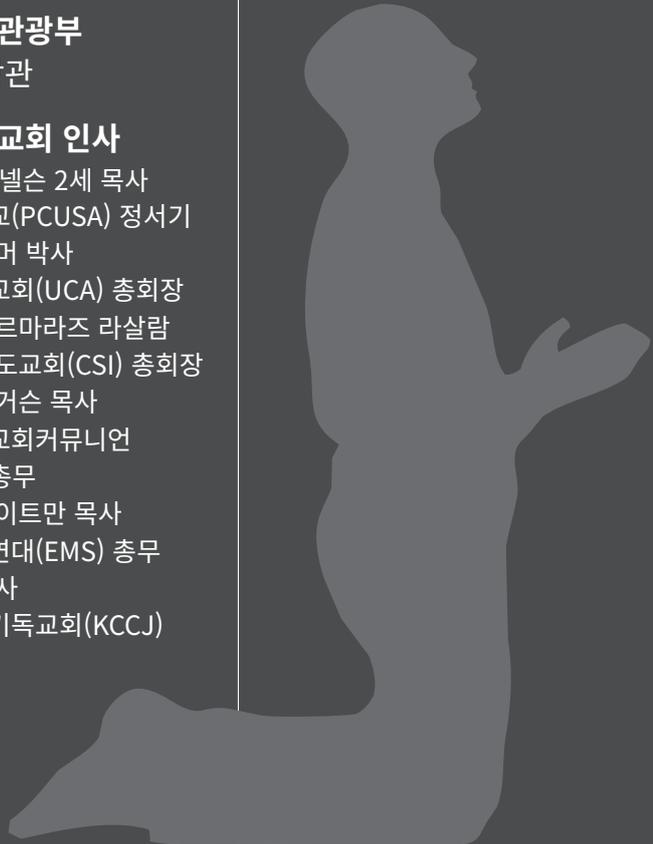
박양우 장관

3 해외동역교회 인사

-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
미국장로교(PCUSA) 정서기
- 디이더 팔머 박사
호주연합교회(UCA) 총회장
- 알버트 다르마라즈 라살람
주교 남인도교회(CSI) 총회장
- 크리스 퍼거슨 목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CRC) 총무
- 디이터 하이트만 목사
복음선교연대(EMS) 총무
- 조영철 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장

02 일정표

32p



03

강연

34p

- 1 김호기 박사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 2 김기태 박사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
 - 2-1 논찬1 정무성 박사
 - 2-2 논찬2 김선욱 박사
- 3 임성빈 박사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 3-1 논찬1 채수일 목사
 - 3-2 논찬2 이상화 목사



04

설문조사결과

116p

해설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지용근 대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설문조사 1차 보고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첨부
설문지

05

코로나19 대응사례

252p

338p

- 1 총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 2 지역교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CONTENTS

1 총회장 인사말씀

김태영 목사

2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3 해외동역교회 인사

-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
미국장로교(PCUSA) 정서기
- 디이더 팔머 박사
호주연합교회(UCA) 총회장
- 알버트 다르마라즈 라살람 주교
남인도교회(CSI) 총회장
- 크리스 퍼거슨 목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총무
- 디이더 하이트만 목사
복음선교연대(EMS) 총무
- 조영철 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장

1

총회장 인사말씀

김태영 목사



오늘 우리 총회가 개최하는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가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월 중순 대구 신천지에서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세계보건기구(WHO)가 판데믹을 선언한 후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구촌 재앙으로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제인가 종식 되겠지만, 그 영향은 국제 질서, 교육, 종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이고 세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광범위하고도 깊으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New Normal) 사회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언컨택트(Uncontact)로의 전환과 비대면적인 행위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앙공동체를 결코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불과 3-4개월 지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많은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멈추고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고, 지금도 교회당 예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회학교는 여전히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모임과 행사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현장의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섬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의와 발제로 참여하시는 학자와 목회자, 재정을 후원해 주신 교회, 장소를 제공한 온누리 교회와 이 행사를 섬겨 주신 위원들과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이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접촉문화’ 대신 비대면 온라인 ‘접속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계, 특히 우리 교회도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나 교육 등을 통해 안타깝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직도 현장 예배나 소규모 모임 자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 될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교회도 목회나 신앙생활에 새로운 표준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통찰해 무엇을 변화시킬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변화에도 잘 대비해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발전적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해외동역교회 인사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 | 미국장로교(PCUSA) 정서기

Greetings from Rev. Dr. J. Herbert Nelson II, the Stated Cle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reetings on behalf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the gathering that has taken an opportunity to bring each and every one of you together. I'm J Herbert Nelson, Stated Cle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I am really sorrowful that I am NOT able during this particular time to be with you but to know that we are still brothers and sisters in the fai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ith the work that we have done historically as well as through the ways by which we have continually communicated. I have been in Korea recently within the last few years, or at least I should say, during my first term, and I was looking forward to coming back to visit again.

We are in the midst of a coronavirus as many of you are aware. I do want to thank you for the way by which you all in Korea actually set the tone for the way by which we could press through this virus and although we are not yet fully out of it, and we're still under quarantine in many instances. We are still grateful to, again, your partnership and the work that you have done as well as your ability to help us to learn from you.

We've always known of the way by which South Korea has truly been about the business of technology. We also know the work that you have done with regards to the ongoing aggressive work in furthering the way that we are able to move a lot faster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s you may already be aware we are moving toward our General Assembly in just a few weeks and we have been feverishly struggling with what it really means to do a virtual General Assembly. And so it is an exciting time for us on one space and yet on another space it can be frightening some days.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is in the midst of all of this and Jesus Christ has already made



the way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guide us through all that we are doing.

To whom much is given much has been required and we have been given much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we truly believe that much is still required of us to lead the way, t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and to remember always that everything we need has already been given by God. It is just our responsibility to use that which God has given for the glory of the one who gives us life, health, and strength.

As old folks in South Carolina used to say where I grew up, "you pray for me and I'll pray for you."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Rev. Dr. J. Herbert Nelson II)

미국장로교(PCUSA) 정서기

미국장로교(PCUSA)를 대표하여 이번 대토론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미국장로교 정서기 목사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대토론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섭섭합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많은 사역들을 함께 동역해왔기에 미국장로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최근 첫 번째 임기동안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한국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를 놓여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교회로부터 배울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교류 사업과 관계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기술 사업에 관한 방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장로교는 몇 주 후에 진행될 제 224회 미국장로교 총회를 향해 가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될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했을 때 즐거웠던 시간이 가상의 다른 공간에서 진행 된다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택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미국장로교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부여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장차 나아가야 할 바를 인도해야 할 사명을 요구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건강, 그리고 힘을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의 속담으로 끝나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외동역교회 인사

디이더 팔머 박사 | 호주연합교회(UCA) 총회장

Greetings from Dr. Deidre Palmer, President of the Uniting Church of Australia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My name is Deidre Palmer, President of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I bring you greetings on behalf of our National Assembly.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bring these greetings to your conference.

It was a joy to meet with a number of your leaders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ere in Australia last year, as we celebrated together the 130th years of the Australian mission in Korea.

Our prayers are with you as you gather for your conference and set directions and goals for your future. It is a challenging time for our world and our churches, as we respond to the pandemic COVID-19.

As churches we have creatively embraced opportunities to worship in new ways, and connect with the wider community with online worship, pastoral care and compassionate advocacy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We share in your commitment as the church to be bearers of Christ's love and hope and peace in our societies.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financial contribution to our disaster and recovery ministry during the recent bushfires that devastated communities and ecosystems.

We are grateful for the partnership we share with you as churches, and look forward to our ongoing collaboration together.

May the Holy Spirit bless you with wisdom, courage and joy, as you look to the future with hope.



디이더 팔머 박사(Dr. Deidre Palmer)

호주연합교회(UCA) 총회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호주연합교회 총회장 디이더 팔머 입니다. 호주연합교회 총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주최하는 대토론회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호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10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많은 지도자들께서 친히 호주를 방문하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토론회로 함께 모여서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토의하실 때 호주연합교회도 이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취약계층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함께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하여 지역 사회와 계속해서 연대해 왔습니다.

호주연합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호주사회에서 공감합니다. 최근 호주 산불로 인해 호주사회와 생태계가 고통을 겪었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호주연합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의 교류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와 기쁨으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외동역교회 인사

알버트 다르마라즈 라살람 주교 | 남인도교회(CSI) 총회장

Greetings from Most Rev Albert Dharmaraj Rasalam, Moderator of the Church of South India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arly Beloved in Christ,

Greetings in the Matchles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our sustainer even at times like these. The PCK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ere constantly in our prayers as we were together combating COVID-19 and my heart goes out with all the people suffering across the world. Many have died, many are positive, many are struggling to be treated, many have lost their jobs, many people are struggling on their way back home, many are still longing for the day when they can be home, many are starving and in spite of all these we continue to trust in the Lord Almighty with full assurance and hope that even this shall pass. Our Lord is a Lord of healing and is able to heal us totally from this pandemic also and in the Lord's time we will be back to the new-normal of life, including ecclesial life.

I am glad that the PCK as you prepare for the General Assembly is organizing a digital discussion on the Way of the Korean Church after COVID-19. We at the Church of South India has had the opportunity to know closely the passion of the people of Korea for the church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through the several exchange visits you had been gracious in organizing across the years. And now at least for sometime there will be a shift in the way we conduct ourselves as the church. Our God is not just our Creator God but is also a Creative God. I am sure we will be guided to make re-adjustments, re-alignments and re-formulations of our mission and ministry strategies along with our general church life. It is in this context that your digital discussion today on the Way of the Korean Church after COVID-19 becomes very significant.



We are not sure when will this “after COVID-19” be. For quite some time we might have to seek the way forward “with COVID-19”. Masked and distanced our Church life will be very different. The digital church has its advantages but also comes at the cost of making real human touch and fellowship next to impossible. However we will have to adapt to cope with the rampant changes that is happening around and that makes this discussion very significant.

Even as we discuss on worship in the digital generation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lose focus on the last, the least and the lost who are generally missed out in the din and buzzle of digital life. We will face new discriminations and new exclusions and the justice eye of the church should not miss out on that. As we discuss our mission strategies we should not forget that primarily it is proclaiming that Jesus Christ is the Saviour of the world. While it is good to be prophetic trying to read the signs of the time I would urge you to be practical, trying to read the hearts and desires of the common people.

Yes, there is tremendous suffering in South India also and my church is trying to offer as much hope as possible. We are thankful for your prayers and solidarity and on behalf of all the congregations blessed by the PCK here in India we say “THANKYOU” and offer our sincerest greetings to you praying for complete healing and as your theme suggest- An After COVID-19 Return to the Normal that we are used to.

May I conclude quoting Psalm 42:5-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Why are you disquieted within me. Set your hope in God. He is my Savior- the one who will bring a smile back to my face.”

May God richly bless each one you and specially this digital discussion. Amen.

알버트 다르마라즈 라살람 주교(Most Rev Albert Dharmaraj Rasalam)
남인도교회(CSI) 총회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을 때, 남인도교회는 한국과 전 세계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직장을 잃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갈 날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희망 속에서 감염병이 곧 지나가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며,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과 교회 생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새로운 일상의 형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합니다. 남인도교회와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은혜 가운데 교류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교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창조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와 일상적인 교회생활을 포함하는 목회 전략을 재조정, 재배



열, 재구성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의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가 언제 올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시간을 “코로나19와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둔 우리 교회의 일상은 큰 변화일 것입니다. 디지털 교회는 그만의 장점이 있지만, 대면하여 친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건잡을 수 없이 시작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이번에 진행될 대토론회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디지털 세대의 예배를 논할 때 디지털 생활의 소음과 소란 속에서 놓칠 수 있는 나중 된 자, 작은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할 것이기에 교회는 정의에 관심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선교 전략을 논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언자적 관점으로 읽어내는 것도 좋지만, 대중들의 마음과 그들의 열망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맞습니다. 남인도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으며, 남인도교회는 이곳에 가능한 한 많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기도와 연대에 남인도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토론회의 주제처럼 저희 남인도교회는 한국교회가 완전한 회복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인용하며 인사를 맺으려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편 42:5)

하나님께서서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이번에 진행될 대토론회를 풍성하게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3

해외동역교회 인사

크리스 퍼거슨 목사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총무



Greetings from Rev. Dr. Chris Ferguso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My name is Rev. Dr. Chris Ferguso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On behalf of myself and our President, Rev Najla Kassab, I am greatly honoured to extend official greetings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ts Moderator and General Secretary and all participants on the important occasion of the conference: “The way of the Korean Church after COVID-19” and “Toward a Worship Community in the Digital Generation”.

First of all, in the name of the God of Life I give thanks for the faithful life and witness of the PCK as a vital and significant member of our global koinoia. “Called to Communion and Committed to Justice.” Together with our other member churches in South Korea we have been inspired by your tireless efforts in service and witness as part of the NCKK and with the Ecumenical Forum for Korea to give Global leadership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together with all our member churches and as a Global family we are all centered on the crucial task of discerning where God is calling us and the church in times of Global crisis. We are thankful for your dedicated and faithful efforts to read” the signs of the times” according to Jesus example and in the light of scriptures and the best of our critical theological legacy as Reformed Christians.

The COVID-19 Pandemic has forced us all to dramatically change our patterns of meeting and mode of worship. It has lead us to play a strong role in encouraging people to stay at home and keep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safe with physical distancing, and all the health measures necessary. The Spirit

has renewed our understanding in this crisis that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church does not happen on Sunday mornings in our buildings only but, mostly in witnessing to the God of Life and serving God and neighbors and this can happen digitally, virtually in many other ways.

Before COVID-19 struck, we were just on the edge of naming the ravages of injustice being revealed in a system of Global Apartheid that pits the interest of the 1% of worlds people against the other 99% and leaves the bottom 50% without hope for Life or livelihood and endangers our planet. COVID-19 has exposed the truth of our world situation. We live in a massively wounded world.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So in our task to adapt to new forms of worship and new ways of being church we realize that our task is always both pastoral and prophetic. That In our tradition Worship must fulfill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to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We commend to your conference the insight that COVID-19 has revealed that the real crisis is not only a health crisis but a global justice crisis. In this time of Pentecost we stand with Jesus as he declared: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Luke 4:18)

Strength, Blessings and Peace to you in your conference be uplifted in your discernment because in the words of the prophet Micah, We know what the Lords requires of us” To do justices, Love Kindness, and walk humbly with our God.” (Micah 6:8) Amen.



크리스 퍼거슨 목사 (Rev. Dr. Chris Ferguson)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총무

저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의 총무 크리스 퍼거슨입니다. 회장 나질라 카삽 목사를 대신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 대토론회(“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디지털 세대의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신실한 삶과 증언을 통하여 “공동체로 부름 받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의 회원교단의 사명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적 지도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과 같은 한국교회의 다른 회원교단들은 저희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의 가족인 모든 회원 교회와 함께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분별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결정적인 유산인 말씀의 빛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노력하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은 우리 모두의 만남과 예배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 교회 성도들이 집에 머물며 자신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번 위기를 통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섬기는데 있다는 새로운 이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 우리는 전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¹⁾ 제도에서 드러난 불의의 참혹함을 규정하기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1%의 인구가 나머지 99%와 대립하고, 전 세계인구의 절반을 생명과 생계의 희망이 없는 곳에 놔두었으며, 지구를 스스로 위협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가 처한 이러한 민낯을 여실 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상처 입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둑들에게 둘러싸인 세상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새로운 교회 존재 방식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역할은 항상 목회적이며 예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에서 예배는 도둑들에게 둘러싸인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은 한국교회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통찰이 단지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지구촌이 처한 정의의 위기라는 것을 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섭니다.

1) 인종차별정책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18)

미가 선지자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통찰과 축복,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들과 이번 대토론회 위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해외동역교회 인사

디이터 하이트만 목사 | 복음선교연대(EMS) 총무

Greetings from Rev. Dr. Dieter Heidtman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ar brothers and sister,

I greet you from the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the EMS, in Stuttgart/German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Peace be with you!

PCK and PROK are member churches of the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a fellowship of 28 churches and mission agencies all over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It is my joy and my honour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you,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It is indeed heart breaking to see the impac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upon the world just in few months. It spared no nations and cultures, no faith and context. Every nation has responded in their respective distinctive way. We were very much impressed by the immediate response from Korea both from the government and the Churches addressing the infection. We have closely followed and prayed for Korea, and we continue to uphold each other consistently.

In the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we have immediately started a joint action plan after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We called the appeal: “Living. Solidarity. Worldwide. Together Against Corona.”

The Biblical guideline for this joint action is a verse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And though one might prevail against another, two will withstand one. A threefold cord is not quickly broken.” (Ecclesiastes 4:12)

Our activities against the Corona pandemic are indeed threefold:

- We share information.
- We share our faith and our hope.
- We share our resources.



The digitalisation provides new opportunities to remain connected by listening to God's word and praying together. It cannot replace a “real” worship service, but it allows us to reach new people.

We appreciate the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as a new focus for the church to be a Youthorientated church as well an Elder friendly church, a community friendly church, a victims and poor friendly church, a women friendly church and above all a missional church to reach out to those who are outside the experience of the tent.

Digitalisation allows us to take part in the life of our brothers and sisters, although they might not live around the corner. Some of our Christian fellows, e.g. in India, in Indonesia or in Africa, find themselves in a much more difficult situation as we are in South Korea and in Germany. Digitalisation opens new connections and I am grateful for all the contributions and all the support from Korea to other churches in the EMS fellowship.

The virtual reality can strengthen our fellowship and we should make any possible use of it. The first apostles used at their time all available means of communication and we should do the same in our time. Who knows? If Paul were living today, he might have produced his letter to the Romans as a video call!

I come back to our biblical guideline: “A threefold cord is not quickly broken.” God’s love is the third element that binds the people together. His love knows no borders. The Holy Spirit uses all possible means to connect people with God and with each other – and we should do the same.

We wish the PCK, that this conference on the theme ‘Towards a Worship Community in the digital Generation’ may bring a creative vision and missional manifestation to be even more a love-driven, relevant and dynamic church post COVID-19. God bless you all. Amen.

디이터 하이트만 목사(Rev. Dr. Dieter Heidtmann)

복음선교연대(EMS) 총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복음선교연대(EMS)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안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P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PROK)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유럽 전역에 있는 28개 교회와 선교단체와 함께 복음선교연대의 회원 교단입니다.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유행한 코로나19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세상에 초래한 충격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가와 문화, 믿음과 상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교회의 발 빠른 대처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한국이 대처하는 방식을 따르며 기도했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복음선교연대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에 공동행동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삶, 연대, 전 세계적 협력, 함께 코로나에 맞서자.”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공동행동계획은 전도서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합니다.

- 우리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 우리는 믿음과 희망을 공유합니다.
- 우리는 자원을 공유합니다.

디지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한 교회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를 위한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희생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여성 중심적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건물 밖으로 뻗어 나가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데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소셜미디어(SNS)의 활용가능성을 인식해 봅니다.

디지털화는 교회의 형제자매된 자들의 바로 옆에서 생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일부는 한국이나 독일이 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새로운 접촉의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교회가 복음선교연대의 다른 구성원 교회들을 위해 해주신 많은 기여와 지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상현실은 우리의 친교를 강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는 가상현실을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도들은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영상통화로 로마인에게 편지를 보냈을지 말입니다!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성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서로 묶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디지털 세대의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창조적 비전과 선교적 표명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더욱 사랑에 기반한 역동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

해외동역교회 인사

조영철 목사 |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장



조영철 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에서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영철 목사입니다.

먼저, 저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금년에 선교 112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동안 귀 총회에서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본 내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증경총회장이시며 오사카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연원목사님과 현 총회 총간사로 수고하시는 김병호 목사님을 비롯한 좋은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서 귀 총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히 교회가 나아갈 길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일본의 상황도 한국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비교적 신속한 방역과 여러 대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방역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반면, 이곳 일본은 동경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방역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책이 늦어졌으며, 지금도 정보와 통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대토론회를 가지기도 하고, 신학자나 전문가들을 통하여 많은 논문이나 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교회는 아직 이렇다 할 세미나 혹은 토론회 등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 혹은 한인사회(상가,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인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일본 내 우익 단체들에 의한 혐한 시위(Hate Speech)도 대단했을 겁니다.

저희 재일대한기독교회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과 더불어 신속하게 전국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 예배, 집회, 각종 회의 등에 대한 지침을 보내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재정적인 감소는 이제부터 지고 가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금번 귀 총회의 대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소망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바라며, 해외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대신하며, 금년 가을 9월21일부터 도림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총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일정표



시 간	프 로 그 램
10:00 - 10:30	<p>등록 접수와 사전 행사</p> <hr/> <p>총회장 인사말씀과 개회기도</p>
10:30 - 10:50	<p>사 회 : 조재호 목사총회 서기</p> <p>인사와기도 : 김태영 목사총회장</p> <p>인 사 :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위임</p> <p>영 상 인 사 : 미국장로교회 정서기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 외 해외 동역교회 대표 인사</p> <p>안 내 :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p>
10:50 - 12:00	<p>프로그램 ① 주제강연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p> <hr/> <p>사 회 : 신정호 목사부총회장, 총회 코로나19대책총괄본부장</p> <p>기 도 : 김순미 장로부총회장</p> <p>강 연 : 김호기 박사연세대학교 교수</p>
12:00 - 13:00	<p>점심식사 (온누리교회 제공)</p> <hr/> <p>프로그램 ② 패널토의(1)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p>
13:00 - 14:30	<p>사 회 : 김운성 목사총회 세대별특별위원회 위원장</p> <p>기 도 : 황순환 목사총회 세대별특별위원회 서기</p> <p>강 연 : 김기태 박사호남대학교 교수</p> <p>논 찬 : 정무성 박사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선욱 박사송실대학교 교수</p> <p>약정토론 :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김의신 목사광주다일교회</p>
14:30 - 15:00	<p>휴식</p> <hr/> <p>프로그램 ③ 패널토의(2)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p>
15:00 - 16:30	<p>사 회 : 손신철 목사총회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p> <p>기 도 : 윤석호 목사총회 부서기, 총회 미래비전위원회 서기</p> <p>강 연 : 임성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p> <p>논 찬 : 채수일 목사경동교회, 이상화 목사서현교회</p> <p>약정토론 : 조건희 목사예능교회, 임영숙 목사대구 예원교회</p>
16:30 - 17:00	<p>폐회 기도</p> <hr/> <p>인 도 : 양원용 목사총회 회록서기</p> <p>나눔행사 : 김덕수 목사총회 부회록서기</p> <p>기 도 : 림형석 목사직전총회장</p>

CONTENTS

- 1 김호기 박사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 2 김기태 박사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
 - 2-1 논찬1 정무성 박사
 - 2-2 논찬2 김선욱 박사

- 3 임성빈 박사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 3-1 논찬1 채수일 목사
 - 3-2 논찬2 이상화 목사



1.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코로나19 폭풍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디쯤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입니다. 동아시아를 휩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최근 남반구 라틴 아메리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다시 북반구에 제2차 파고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은 지난 20세기 스페인 독감에 필적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인 1918~19년에 발생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이들보다 많은 5,000만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세 페스트 이후 서구사회에 큰 시련을 안긴 전염병이었습니다.

지난 100년의 의료기술 발달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망자는 스페인 독감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야기한 사회적 불안은 정보사회가 활짝 열린 현재 외려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지구사회를 규정짓는 일차적 요소는 ‘초연결’입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불안과 각자도생이 더욱 확산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팬데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의 의학적 질문이 하나입니다. 결국 관건은 증상을 치료하는 항(抗) 바이러스제와 완전히 퇴치시키는 백신의 개발입

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에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와 과학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사회적 질문이 다른 하나입니다. 팬데믹을 신속히 저지하는 게 일차적 목표이지만, 이 가공할 팬데믹이 가져올 우리 삶과 사회의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2003년 사스가, 2009년 신종플루가, 2015년 메르스가, 올해 코로나19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지구적 혼돈을 낳음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문턱 위에 올라 서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독하고 싶습니다.

1) 글로벌 위험사회로서의 팬데믹

첫째, ‘글로벌 위험사회로서의 팬데믹’입니다. 위험사회란 말을 주조한 이는 사회학자 울리히 벡입니다. 위험사회란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위험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둘째, 위험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의 발전에 비례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넷째,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으로 생산되는 소비재가 됩니다.



위험사회론이 이전 시대보다 현대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백이 전하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직면한 위험의 현재적 성격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 이전의 오래된 위험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새로운 위험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발전이 낳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이 위험사회의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백이 강조하려는 것은 현대화가 가져온 우리 삶의 사회적 조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이러한 위험사회론에 기반하여 백은 ‘글로벌 위험사회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위험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백이 주목하는 세 가지 글로벌 위험은 기후 변화와 같은 생태적 위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험, 자살폭탄과 같은 테러의 위험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인류가 직면했던 9·11테러, 금융위기, 기후 위기를 지켜볼 때, 백의 글로벌 위험사회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요컨대, 글로벌 위험사회란 위험이 세계화된 사회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질병 또한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원전이나 기후위기처럼 새로운 위험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던 페스트는 오래된 위험입니다. 그러나 도시화, 교통수단 혁신,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이런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밀도’, 즉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의 증가는 오래된 위험 또한 세계화시켜 왔습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이나 2009년 신종플루는 전염병의 세계화가 갖는 위험과 위력을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위험은 지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인류에게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위험의 세계화에 따른 ‘불안과 공포의 세계화’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전염병의 세계화는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는 만큼 그 으스스한 불안과 공포가 예고 없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위험의 불평등’ 현상입니다. 새로운 위험의 영향은 국가·계급·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빈곤한 나라의 국민, 사회적 접촉이 빈번한 서비스부문 노동자, 독거노인이나 미취학 아동 등과 같은 특정 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국면사로서의 팬데믹

둘째, ‘국면사로서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말한 사건사를 넘어선 국면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시간은 무엇보다 사회적 창조물입니다. 그는 사회적 시간을 시간 지속의 길이와 측정 대상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구별합니다. 단기지속, 중기지속, 장기지속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시간 지속에는 각각 사건사, 국면사(사회사), 구조사가 대응합니다. 국면사의 프레임은 나날의 사건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유 및 행위를 결정하는 데 기본틀을 제공합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지하철을 탔을 당시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승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기침을 하자 놀람과 짜증과 두려움이 담긴 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놓인 자리가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지의 바이러스가



건드린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심층이 개인과 사회라는 세상의 표층으로 올라오는 순간, 울리히 벡이 강조했듯, 안전이라는 가치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단숨에 몰아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광풍이 유럽과 미국 등 서구사회를 강타하자 분석과 전망의 담론들이 쏟아졌습니다. 스웨덴식 집단면역 전략과 중국식 봉쇄 전략에 대한 빠른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계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코로나 모멘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존중입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경증상 상태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6월 8일 현재 지구적으로 확진자는 7백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5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전염성과 상당한 치사율이 낳고 있는 이 지구적 공포가 언제 종식될지를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선 신종플루 사례는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신종플루는 2009년 멕시코에서 발병해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종식을 선언했지만, 동남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극심해 28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가공할 바이러스들이 불시에 우리를 방문할 수 있고, 체계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삶의 터전이 일거에 황폐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자들에 따르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자연 파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여기에 물적, 인적 세계화가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지구화된 위협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은 전염병의 위협과 이로부터의 안전이 프레임의 핵심을 이룹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문제 해결을 위한 백신 개발에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현재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때, 코로나19 국면은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팬데믹

셋째,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팬데믹’입니다. ‘뉴노멀’은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열린 새로운 불확실성의 지구적 경제 질서를 지칭합니다. 지식사회보다는 언론에서 자주 쓰이는 대중적 개념입니다. 최고경영자(CEO)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2008년 출간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뉴노멀로 파악한 것이 중요한 계기를 이뤘습니다.

경제학자 이일영과 정준호는 이 개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미국 방송 ABC뉴스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뒤이은 불황이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뉴노멀의 세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 개념은 신문과 방송의 공론장에서 두루 사용돼 왔습니다.

뉴노멀을 상징하는 대표적 현상은 저성장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전반적 투자 부진,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기술혁명이 가져온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복지부담 증



가 등이 꼽혀 왔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는 시기가 곧 뉴노멀 시대입니다.

기업가 피터 힌센과 경제학자이자 미국 재무부장관인 래리 서머스는 뉴노멀의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힌센은 새로운 디지털 혁명, 다시 말해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여정’을 뉴노멀로 규정했습니다. 서머스의 문제의식은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는데도 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장기 침체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뉴노멀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말이 ‘신창 타이(新常态)’, 즉 뉴노멀입니다. 이 신창 타이의 4대 특징으로는 중고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렇듯 뉴노멀은 이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일들이 이제는 상식적인 현상들로 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좁게는 저성장을 위시한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로 특징지어지는 저성장 시대를 뜻하고, 넓게는 여기에 새로운 정보기술혁명까지 더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로 변화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바로 뉴노멀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제의 뉴노멀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염병이라는 지구화된 위협의 불확실성이 새로운 뉴노멀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경제의 뉴노멀과 위협의 뉴노멀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뉴노멀이 긴밀히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뉴노멀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낳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과 경제적 방역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전염병의 세계화에 있는 만큼, 이 복합 뉴노멀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불평등의 '역습'이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인공지능의 '공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기치 않게 코로나19의 '기습'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역습, 인공지능의 공습, 바이러스의 기습은 우리 인류를 새로운 시험대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섯 가지 코드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인류의 선 자리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갈 길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저는 다섯 가지 코드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생태학의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명의 성찰’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코로나19는 앞서 지적했듯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생물학자 최재천은 “예전 같으면 에피데믹(국지적 유행) 수준으로 끝났을 일을 사람이 팬데믹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네이션 올프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살인자 바이러스들이 비규칙적 폭풍으로 몰아쳐 인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생태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구화된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주체는 역시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기반한 국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히 증거한 사례입니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내건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규칙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전염병 대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하고 유능한 정부’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증유의 ‘경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수 억 명이 실업과 빈곤의 공포를 체험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각국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하는 전방위적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DT)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설

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가족·국가의 성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방역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했다면, 한국의 경우 확진자 동선 공개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가 재발견되어 왔습니다. 나의 자유 못지않게 우리의 안전을 중시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조화시키는 ‘협력주의적 상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택트사회의 도래’를 열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습니다. 온라인 학습·쇼핑·문화생활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만개가 인류의 오랜 걱정인 전염병의 폭풍을 통해 예기치 않게 이뤄진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 팬데믹이 낳고 있는 대면과 비대면의 결합 방식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어 조직되는 ‘네트워크화된 대면·비대면 문화’가 그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탈세계화의 촉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적 세계화는 강화돼온 반면, 포퓰리즘의 분출로 정치적 세계화는 후퇴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 세계화에 제동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국 도생(各國圖生)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훼손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이라는 역설적 과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전망은 낙관보다 불확실성



에 무게 중심이 놓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인류에겐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는 더욱 진화하고 팬데믹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미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 등 공공성의 강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생산적 공존,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른바 ‘K 방역’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명명하긴 어렵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해 어떤 대안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망을 불허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경제가 아닌 전염병에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불러올 파장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위험의 뉴노멀이 경제의 뉴노멀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인과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위험의 경제학’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경제 살리기와 소득 보전을 위한 확대 재정 추진, 2)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모색, 3)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대타협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적 측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국가의 귀환이 토론돼 왔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분명한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자 그 동안 세계화가 얼마나 과장되었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위험의 정치학’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2) 점증하는 미증갈등을 대비한 현실주의적 외교 추진, 3) 선도국에 걸맞은 지구적·지역적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적극적 기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언택트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비대면의 장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19 광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제3의 자리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위험의 사회학’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온라인에 소외돼 있는 세대와 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2) 비규칙적 바이러스 폭풍에 대비한 공공의료 강화, 3) 고령세대 등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입니다. 세계화를 거역할 수 없고 자연 파괴가 계속된다면, 우리 인류는 주기적인 바이러스 폭풍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환경 파괴의 계몽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생태적 실천의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국면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무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자연과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는 ‘위험의 생태학과 문명학’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의학을 위시한 과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 2)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계몽과 실천, 3)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종교를 포함한 문명사적 성찰, 4)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종교를 포함한 사회 주요 조직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 숙고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텍스트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가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저작에서 전한 말입니다. 삶의 미완성성, 이해의 불완전성, 실존의 유한계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조건들입니다. 이에 맞서서 사도 바울과 니부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통한 구원입니다.

소망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본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지는 과제 중 하나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되, 그 이성이 갖는 한계를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



씀드리면, 삶의 미완성성, 이해의 불완전성, 실존의 유한계성에 대한 새로운 영성적 자각이 요구되고, 이러한 영성적 삶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소망, 믿음, 사랑을 통한 구원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구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변화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됩니다. 무엇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성과 영성의 새로운 성찰, 새로운 공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더욱 활발한 탐색과 토론이 이뤄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

김기태 박사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머릿글

달히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 정신없이 달리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코로나19는 지구촌 모두를 일시적이지만 달고 멈추게 만들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새삼스럽게 보이는 것들도 많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변화와 변혁의 원동력으로 여기고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으로 무장하는 각성의 계기로 삼는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자본과 이익추구에 집중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극단적 국가주의의 만연 그리고 속절없이 오염되고 파괴당하고 있는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지구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투어 상호 배려와 존중 그리고 관계성과 같은 공존의 가치보다는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그야말로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 질병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사회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리적으로는 교회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예배를 비롯한 신앙 생활의 여러 형식과 관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분출되었다. 일부는 불편하고 걱정스러워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다수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 왔던 교회의 부흥과 외형적 성장에 대한 재검토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왔던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진정성있고 의미있는 거리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크고 웅장한 예배당으로 대표되는 대형 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거리도 다시 던져 주었다. 교회는 크기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역할의 내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당연하면서도 새삼스러운 명제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영적 신앙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시적인 대면 예배의 중단으로 인한 교인들의 신앙적 느슨해짐이나 이탈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비롯되는 평가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공교회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목소리도 컸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세계적 전염병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묵묵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웃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이런 미증유의 재난이 닥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회들이 힘을 모으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일부 교회와 단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 교회 전체의 각성과 공동 대처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숨어있던 신천지라는 이단집단의 속살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 데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개교회 차원의 이단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및 실천 수준이 이들 이단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2.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에 바란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주문과 다름 아니다. 일시 닫혔다가 다시 열린 과거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회귀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면 당연히 지키고 유지해야 했을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다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재난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 그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본 교단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당시의 개혁 과제를 다시 챙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공교회성,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교회성이란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교회 존립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일치를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등장하듯이 공교회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여전히 공교회성이 부족하다는 세상의 지적과 함께 전 세계적 전염병 재난에 빠진 세상에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서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교회 또는 관련 집단을 중심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과 권유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한국 교회를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실제보다 크게 부각시키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신앙생활에 열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 동안 본 교단 총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 및 연합체들이 관련 당국의 지침과 권고에 따라 선도적으로 교회문을 닫고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교회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일부 사례들이 훨씬 강력하게 부각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히 교회의 공교

회성 회복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여전히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과 부흥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버리고 사회윤리적인 책임 의식과 실천에 적극적인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실천이 시급한 시대이다. 말과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주술종교, 마술종교에서 계몽종교, 도덕종교로의 전환을 통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고 손을 내미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또한 재난과 재앙의 시대에 창궐하는 각종 혐오와 편견,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책임 회피를 위해 상호 비난에 열을 올리는 국제 사회와 정치인, 정치계에도 절대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는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회의 대 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었다.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게 뿌리박힌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일시적인 홍보 활동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해당 기사의 축소나 중지를 위해 기자들에게 사정하는 식의 구걸 홍보는 벌써 사라졌어야 할 악습이었다. 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정신은 구체적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보다 열린 자세로 다가가고 세상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여기는 현실 밀착성과 민감성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는 갈수록 세상 속의 섬처럼 고립되고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 만의 성(城)’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채널 확보와 효율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쏟아내던 ‘홍보’방식을 탈피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쌍방향적 ‘소통’방식으로 세상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필요하고 세상을 살리는 선한 사회적 기관이자 도구로 사람들에게 재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다양한 세상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 무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미 노출된 문제 뿐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잘못되어가는 조짐이 보일 때 교회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앞서 제기하기는 커녕 이미 드러난 문제,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조차도 드러내거나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고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심지어는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갖가지 파렴치한 범죄의 주범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기독교인과 교계지도자들을 감추고 비호한다는 비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가 교회를 세상과 유리시키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한국 기독교가 마치 온갖 비리와 부패 또는 비윤리적 사건으로 가득찬 문제 집단으로 세상에 알려지는데 대한 보다 효율성있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반사회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일부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신속하게 표시하고 관계를 단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고발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독교의 참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까지 나아가 소리없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을 드러내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세상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교회의 메시지는 기독교인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선한 도구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 하나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진리(말씀)를 세상에 외치는 역할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변화하는 유연성과 민감성의 과제이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존재로서의 자세 전



환이 시급하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외롭고 소외받는 사람들이나 계층과 함께하는 교회의 따뜻한 모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다. 사태의 전개 추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제공하는 방역 단계별 이행 지침을 총회의 이름으로 재작성하여 노회와 개교회에 전달하고 총회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 앞장섰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 구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관련 부서 및 책임자 지정을 주문한다. 그리고 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비롯한 부문별 대표자들이 수시로 기자회견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세상 언론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야 한다. 평소 언론인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좋은 의미에서의 호의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교회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홍보만 가지고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발언을 해야 할 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부문별 자문 또는 조언을 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전문적

식견이나 풍부한 경험적 지식이 없이는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그런 만큼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세부 사안별 특별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찬기도회나 특정 정파와 관련이 있는 모임에는 불참하거나 개선을 요구, 선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조찬기도회는 물론 일부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 세력의 들러리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도회 참가를 마치 권력의 과시나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 정도로 여기는 정치적인 교계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고 일부 순서를 맡은 지도자들의 편향되고 순수하지 못한 언행들로 인해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격한 사회 변화는 교회가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확장, 심화시킨다. 그런 만큼 구색맞추기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총회 내 기존 기구나 위원회 활동으로는 제대로 된 대 사회적 메시지 생산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만큼 기존 위원회가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속도감 있게 대처 하고 교단 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의제 발굴 및 분석을 위한 연구 기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또한 세상의 지탄 대상이 되는 교단 소속 성직자나 교인 또는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전제로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 산하 치리 관련 기구나 제도들이 양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 또는 불의에 대해



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과하고 차단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받는 교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공적 의제들에 대해 교회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정치개혁, 언론개혁, 경제정의, 디지털 시대 대책, 4차산업 혁명시대 대비, 남북화해와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종교인 과세, 환경 보호, 생명 존중 등 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공적 의제들에 대해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바로 이런 공적 의제에 대해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교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신천지 등 이단집단을 차단,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규모와 실체를 적나라 하게 고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집단의 공격적이고 교묘한 포교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회적으로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점점 신천지 집단의 교인수가 증가하고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신자인 이른바 ‘31번 환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삼시간에 신종코로나 집단 발병지로 만들었다. 그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오던 코로나19 사태를 하루 수백명 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공포와 혼란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몰아넣었던 장본인으로 신천지 이단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이단 집단의 교인 구성 분포, 지역적 교세 상황, 집단적 집회 모습, 소그룹별 모임 방식, 다양한 포교 방법 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 그동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내용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에 대한 대책과 실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단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윤리적인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서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건강한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신학적인 기준과 함께 실제 현실 속의 교회 모습 안에서 보여주어야 세상과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당 앞에 커다랗게 써서 붙여둔 ‘신천지 교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류의 포스터 만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 생활에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는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신천지 이단 집단 대책 중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청년 사역이다. 신천지 이단 집단의 주요 포교 수단인 취업을 미끼로한 청년 대상 취업 특강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취업 관련 설문지 작성으로 시작해서, 취업 특강이나 세미나 참석을 유도하고, 점차 관련 교육으로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이단교리 공부모임에 합류시키는 수순이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설문지 조사, 특강과 세미나 초대 방식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 방식 등이 모두 청년들의 요구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다. 여기서 한국 교회 청년 대상 사역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해야 한다. 청년세대 뿐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이자 동시에 이단 집단 대책의 하나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가 신천지 이단 집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가정, 가정 교육, 가정 예배의 회복과 이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가정, 가정 예배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새삼스럽게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예배의 귀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더욱이 교회에서도 각기 다른 예배 시간 때문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주일 모임이나 예배는 가족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주일에는 모든 교회 일정을 마친 후에나 겨우 식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교인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코로나19는 이런 가정과 가정예배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가정, 가정예배를 발견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가정, 가정예배에 보다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명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가정과 가정예배의 발견이었지만 이런 좋은 경험과 기억을 코로나19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 회복과 거룩한 예배의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정의 회복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회복과 변화의 토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교회학교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교회학교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일부 지도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가지고 교회학교를 운영해도 어린이들의 교회 출석과 실천은 대부분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협력과 지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과 가정예배 즉, 가정 사역을 위해 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귀중한 선물이다. 효율적인 가정 사역을 위해 교회 내 다양한 계층별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가정예배를 위한 각종 콘텐츠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 더없이 중요한 한국 교회의 사명이 된 셈이다.

5) 온라인 소통, 온라인 예배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역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온라인 소통,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소통 수단을 전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었다. 예배당 문을 닫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 대책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점차 익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온라인 회의가, 시장에서는 온라인 가게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었다. 물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겪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안정화되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 예배를 병행하게 될 것



이다. 전염병 사태가 모두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그동안의 소통 또는 예배 경험은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온라인 소통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봉사할 인원을 미리 확보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인들에게도 각종 교회 모임이나 회의 또는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서 온라인 시대 즉,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어도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었다. 디지털은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이런 환경과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교단 총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이미 중요한 교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동안 대규모 교인들이 모여서 대면 상황에서 진행하던 각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비대면화 할 것이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구역예배, 온라인 남녀선교회, 온라인 새벽기도회, 온라인 성경공부, 온라인 선거, 온라인 평신도 교육, 온라인 헌금 등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곧 다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단 총회 또는 노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6) 작은교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높이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수많은 개척교회, 농촌교회 등 미자립교회에 특히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들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장비도 인력도 없어 속절없이 예배를 중단하면서 그나마 모이던 교인들도 떠나가고,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사실상 교회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진 교회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개교회 차원에서 또는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함께 나선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이런 일시적인 구제 차원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작은 교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작은 교회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작은 교회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인종별, 직업별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교회가 필요한 세상이다. 교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회가 많아야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다. 교회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교인들의 수는 많으나 교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군중 속의 교회로 전략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인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지속적으로 영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이런 작은 교회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힘을 모으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와 선교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노회와 총회도 이들 작은 교회를 위한 대책으로 관련 위원회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어 기도하고 방문도 하며 일정한 금액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지속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



이다.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세상의 경제 논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권력있는자가 세력을 과시하는 힘의 논리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이렇듯 세상과 구별되는 논리가 작동하고 세상 논리로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은 교회를 우대하고 구별하여 높이 세우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해 본다.

7)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영성은 건강한가?’를 묻는 기회를 제공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 모습은 교인들의 건강한 영성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물음도 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영적인 교회, 영성이 풍부한 교인의 삶은 어떻게 표출되고 실현되며 이웃과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까?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이런 영성을 심어주고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교회 생활을 교육하고 안내해 왔을까? 전 세계인을 괴롭혔던 고통스런 전염병 사태는 역설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대면 예배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동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교회 내 다양한 활동이나 개인 신앙 생활에 대해 되돌아 보는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계속해왔던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가졌다. 교회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어린이들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온라인 교회학교를 경험하는 색다른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잘 모르던 새롭고 귀중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호의적인 반응과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 때문에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반응이 공존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이 두가지 상반된 반응 모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얼마나 신실하고 그들의 영성은 충분히 건강한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대안은 한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 건강성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3. 맺음글

그동안 세계적 질병으로 인류가 고통받은 사례는 많다. 코로나19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 사례마다 다소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도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질병의 공격에 대비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대책 마련에 활용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본 발제문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평신도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교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였다. 본 원고는 평신도 차원의 발제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명제는 건너뛰었고,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제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한 학술적인 진술 또한 생략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제 앞 뒤의 발제문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가스펠투데이 2020년 5월 14일자 포스트 코로나 관련 기사 참조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20), <긴급좌담,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 발제집
- 김기태(2019), “교회에 대한 비판적 언론과 위기 관리”, <총회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 정기포럼> 자료집
- 김기태(2018),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단의 대응을 위한 제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 세미나> 자료집
- 손재익(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크리스천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2020),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2020).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논찬 1 |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에 대한 논찬

정무성 박사 |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발제자의 코로나19의 영향 고찰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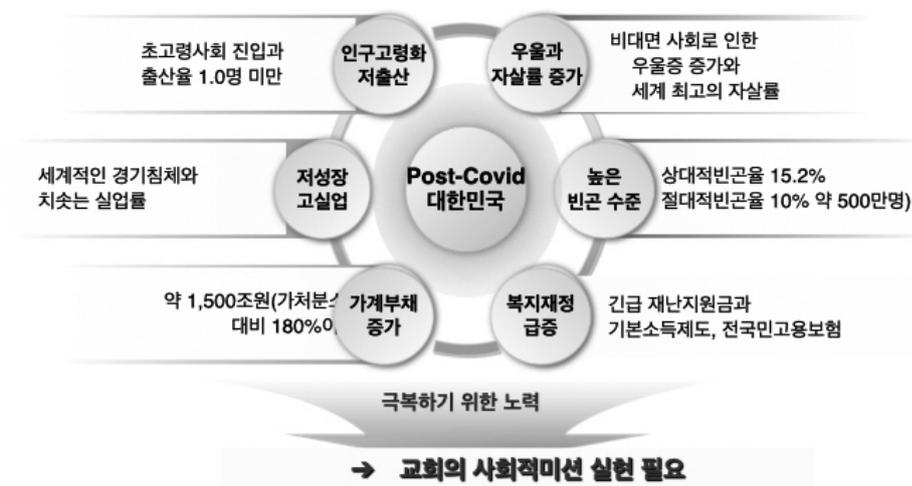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2. 극단적 국가주의의 위험성 고조
3. 환경문제에 대한 성찰
 - 상호배려와 존중, 관계성 등 공존의 가치 중요

<교회에의 함의>

1.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 필요
2. 교회의 외적 성장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 작은 교회 지원
3. 비대면 상황의 교인들의 영적 건강성 회복 방안 강구
4. 교회의 공교회성, 사회적책임, 윤리의식 강화 필요
5. 지역사회와 소통과 공감 능력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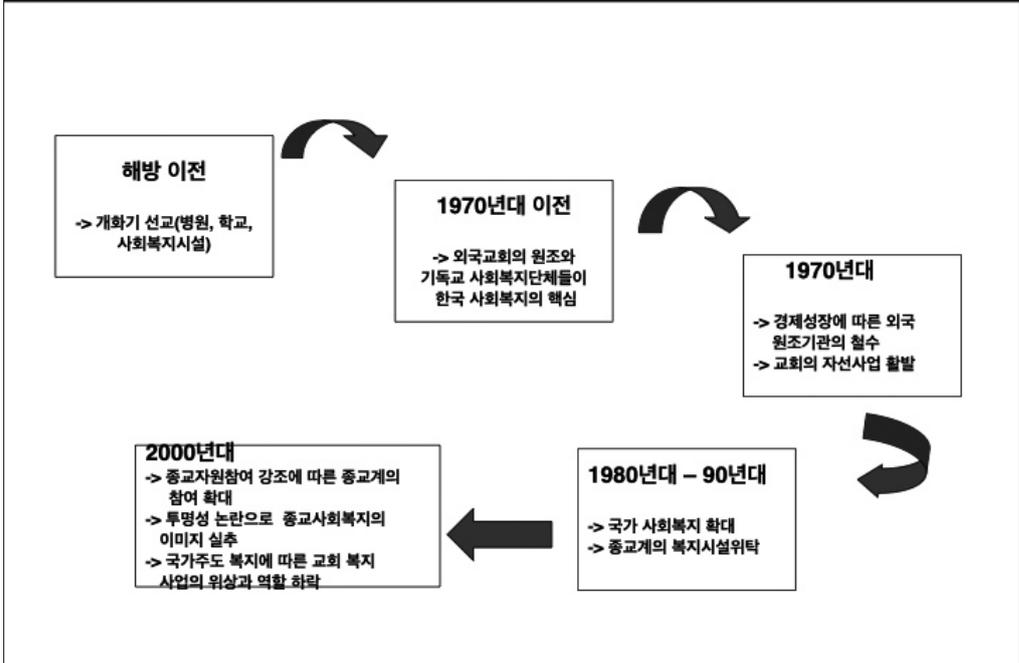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과제를 하고자 합니다.

Post-Covid19의 한국사회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의 좋은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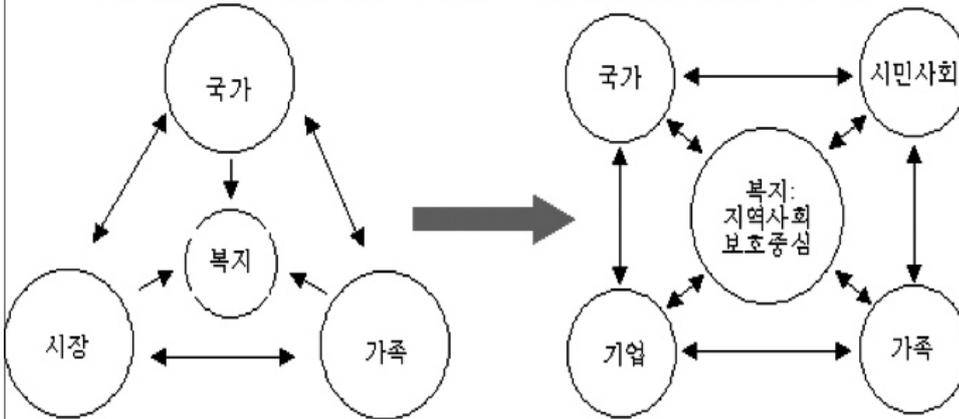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적 의의

- 1) 근대적 사회복지의 태동
- 2)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대처
- 3) 사회적 위기에 대한 즉응적 대응
- 4) 헌신성과 전문성의 겸비
- 5)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재정의 보충 및 나눔문화 활성화
- 6) 선도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복지서비스의 변화: 지역중심

한국의 가치가 반영된 지역사회보호:

공동체(Community), 가족, 노인공경 → Community Care: 민간역할 중요



전통적 복지국가: 중앙정부 주도

지역의 민간조직(교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Community Care 가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 종교사회복지와의 접점





한국의 Community Care 방향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케어를 넘어, “관계”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 구축으로 확장 필요
 -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구축은 단순히 인프라와 제도 도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지역사회 나눔문화의 구축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참여 및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함
- 지역사회내 교회의 복지적의 역할 중요

과제: (1) 공동체성의 가치 회복

- 공동체성의 가치는 상호의존성과 상호권리, 시민권, 규범성, 공공성과 진실성 사이의 긴장과 조율, 상호부조와 연대, 참여 및 자지와 정지, 호혜성 등의 하위가치로 구성
-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 연대, 책임 배려, 공정성, 신뢰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치 이면서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정부가 강요해서 얻어질 수 없는 가치들을 포괄

(2) SDGs 글로벌 목표 참여

지속가능발전(SDGs) 목표(2016~2030년) 17가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년) 종료에 따라 지난해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 인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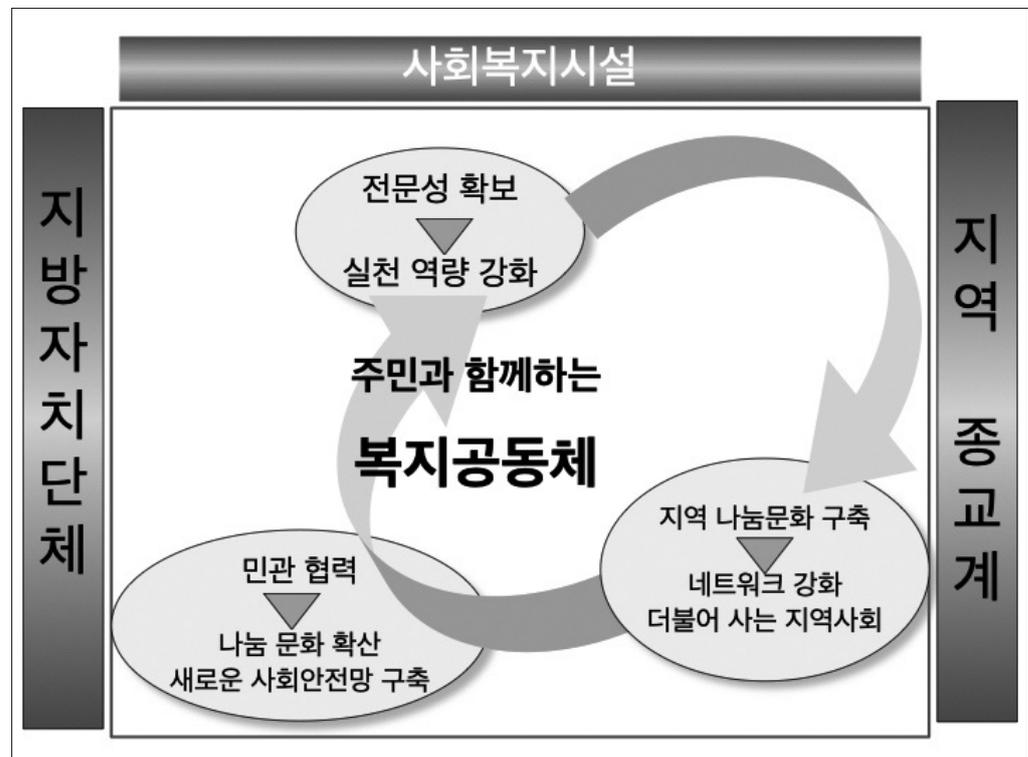
(3) Collective Impacts를 위한 협력체계

1. **Outcomes 시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관심 고조: United Way of America의 노력을 통해 로직모델(Logic Model)확산**
2. **Capacity Building 시대: 21세기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기존의 논리모델(logic model)에서 강조한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 외에 외부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 강조**
3. **Collaboration 시대: 2010대 들어 collective impacts를 강조하면서 관련 지역사회 내 조직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 부각**



교회 사회복지실천 방향

- 1) 비대면 시대 개인의 영적 건강성 강화를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담당하도록 지원
-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교회간 연대적 접근
- 3) 재원의 적극적 투입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4) 교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 지지
- 5)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논찬 2 |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에 대한 논찬

김선욱 박사 | 송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기태 교수님은 패널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면서, 현 상황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7가지 모습을 적시하고 있다. 교회의 공공성 강화, 소통과 공감 능력 제고, 이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회복,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사역,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 유지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마땅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체크해 볼 중요한 준거점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교수님의 말처럼 이 시대는 우리 사회와 교회에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성찰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떻게 명제화되고,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지 묻게 된다. 논찬의 자리에 초청된 철학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성찰의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논찬자는 근본적 성찰의 바탕에서 현 사태를 보기 위한 키워드로 ‘원리(principle)’라는 말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은 라틴어 principium에서 왔으며, 그리스어 archē에 상응하는 말이다. archē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요한복음 1:1은 “en archē ēn ho logos”라고 되어 있고, 개역성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archē는 단순히 시작이라는 시점을 의미하기 보다는, 시작과 더불어 작동하고 있는 핵심적 힘과 경향성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이 세계는 로고스가 작용함으로써 시작되어 그 로고스의 작용으로 세계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수많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갑자기 다가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워버린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한 원리가 새롭게 작용하여 다른 여러 원리들을 압도해버린 상황임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로 전파되면서 작동시킨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다. 바이러스 사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을 명료하게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원리를 따르도록 한다. 죽지 않으려면 말이다. 여기에는 장난이 통하지 않고, 꾀가 통하지도 않는다. 바이러스의 유통 방식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대처할 것만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원리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필연이 작용하고, 강제가 뒤따른다.

(생명의 원리의 강제성과 필연성이 작용할 때, 우리의 자유는 제약을 받는다. 이동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자유가 가장 크게 위협을 받으며, 집회의 자유도, 또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도 제한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필연과 자유는 서로 모순을 이루는 원리들이다. 필연 즉 강제가 있으면 자유가 없고, 자유에 대한 주장은 강제와 필연을 배척한다.)

지난 3월에 유발 하라리가 FT를 위해 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글에서 중국과 한국의 방역의 방식을 비교한 이래로 유럽은 과연 한국의 모델이 방역을 목적으로 자유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하라리는 한국이 적절한 균형 속에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지만, 프랑스의 기 소르망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은 동양의 유교 전통 가운데 있는 한국 등의 국가는 권위에 대한 복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게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지난 5월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또 하나의 원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확진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이태원 클럽발로 확진자의 증폭이 이루어진 후 작은 클러스터들을 통해 확진자가 수십 명씩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각 급 학교들은 등교를 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시민들은 식당으로, 마트로 가고 있다.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다. 코로나19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생업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 활동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굶어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가동된 경제도 기본적으로 생명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용한다. 여기에도 역시 필연과 강제가 작용한다. 경제활동이 완전히 멈추어 서면 코로나 19 사태와 똑 같은 생명의 위기가 온다. 그런데 자본과 금융이 야기한 생명의 원리와 코로나가 작동시킨 생명의 원리에는 차이가 있다. 자본과 금융에는 탐욕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이 탐욕이 지구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파란 하늘과 맑아진 냇물을 다시 보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깨달음은 지속되지 않고, 우리는 곧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에 익숙해져 버릴 것 같다. 인간의 탐욕은 회복될 것이고, 폭력은 지속될 것이며, 정치가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 정책을 세울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the post-corona era)는 프리-코로나 시대(the pre-

corona era)와 겉모습만 달라질 뿐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질 것 같다. 물론 이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인류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상을 겪고 나서도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켰고, 600만 유대인을 죽인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경악하고 나서도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인류의 모습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도 코로나였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백신이 나와 코로나19에 대응한다고 해도 의학자들은 코로나가 마치 풍토병처럼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종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라 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삶의 양상은 달라질지라도 “다른 시대”가 그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를 생각해 보자. 기독교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작동시킨 원리 또한 생명의 원리였다.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물질주의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층위에서 작용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사회에는 공공성과 사랑의 나눔과 소통과 공감의 이루어지며, 크고 작은 교회들 사이에 형제애가 형성된다. 이것은 과학이 다루는 생물학적 생명이나 자본주의가 지지하는 물질주의적 생명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담보해야 할 교회는 오히려 과학에 압도되고 물질주의에 휘둘러버렸다.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 그 성찰은 교회로부터 나와야 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 그 외의 여러 일들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비하면 부수적일 뿐이다.

가장 근본적인 일은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생명에 대해, 그 생명이 참으로 무엇이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다. 삶과 죽음, 인간의 가치, 속죄와 구원 담론을 새롭게 열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참되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은 과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미를 묻는 모습으로, 정부가 정의와 공공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비판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물질주의적 탐욕에 스스로 휘둘리지 않은 채 인간 욕망의 죄성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것에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또한 자연을 보살피며 함께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앞서 우리는 원리라는 단어가 ‘시초’를 의미하는 archē에서 온 말임을 보았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다. 또한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우리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radical)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담론을 구성하는 일은 대중에게 먹혀들 멋진 카피를 뽑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치열한 신학적 숙고를 요청하는 일이다.

평신도의 입장에서 드리기에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한 사람의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신학교가 그 신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뒤흔든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교회가 신학교를 흔들어 신학자들을 교회에 복무하게 만든 모습은 종종 보았던 것 같다. 김 교수님의 발제 가운데 “지난 2018년 본 교단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강조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로 당시의 개혁의 과제를 다시 챙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한다. 사실 우리 교단 총회는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전개하면서 ‘지구생명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성공적이라는 스스로의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노력이 더욱 근원적이고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한다. 이런 점에서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의 힘이 신학자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져야 할 세계의 모습에 대한 상상과 성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때,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또 달라질 전망이 어두운 만큼, 우리의 성찰은 뿌리로 더욱 다가가야 한다. 기독교가 세상에 작동시키는 생명의 원리는 원래(原來)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로컬과 글로벌에 형성된 세속 질서에 새로운 기운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1. 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은 미증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각 영역을 막론하고 일상적인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활 세계의 풍경을 맞이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나 수업, 재택근무가 시도 되는 등 일하고 여가를 보내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의 내용이다. 새롭게 변화된 개인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삶의 내용과 방식의 급속한 도래는 재난적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만큼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할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공감대를 확장토록 한다.

분명한 것은 향후 수십 년 후에나 도래할 것이라 예상했던 미래를 갑작스레 맞이하는 이 문명사적 분기점에 있는 한국교회 역시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공동체는 공적 역할 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대변화와 도전 속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과거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사적으로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리스본 대지진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재난에 대한 교회의 응답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지 목회-신학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재난과 교회1』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에 실린 필자의 “재난과 사회변동, 교회의 역할”과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안전한 교회에서 위험한 교회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2. 역사적 재난,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해석과 응답²⁾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 대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했다. 엄숙한 축일인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리스본 성당에 빈틈없이 들어찼을 때였다. 이 지진으로 리스본에서만 3만에서 4만에 달하는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가장 기독교적인 도시라 할 수 있었다. 12세기 이후 지어진 주교좌성당 이외에 교구성당이 40군데가 넘었고 90개의 수도원과 150곳의 수도회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체 인구 25만 명 중에서 약 10%가 수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이 난 이후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폐허가 된 도시, 그중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낸 성당과 종교 재판소의 붕괴는 거의 정교일치 사회라고 할 만한 포르투갈 사회의 종교적 신념과 권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재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또한 교회와 사회, 당대 명망 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은 이 대재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1) 신앙적 관점에서

신정 일치 사회라 불릴 만큼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리스본의 대중들은 재난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사제들은 ‘지진은 죄악에 물든 도시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했고, 생존자들을 ‘꾸짖으며’ 심판을 초래한 죄목

2) 니콜라스 시라디, 강영이 역, 『운명의 날: 유럽의 근대화를 꽃피운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서울: 에코의 서재, 2009), 18-19, 159, 161-62, 165, 149-150, 171, 175쪽 참고.



을 열거했다. 그들의 ‘탐욕과 방종, 나태, 부패, 그리고 이교적 신앙, 즉 신교도들을 묵인한 악한 신앙심’이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 인식은 신앙적 응답으로 '회개'를 요청했다.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거짓과 오류를 떠나 진리를 분간하고 진리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교회는 재난의 원인을 신심과 종교적 헌신의 부족으로 간주하고, ‘명상과 참회기도’ 등 내면 지향적인 태도를 강화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런 응답 방식은 현실도피나 반사회적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도시 복구나 사회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지리적으로 멀고 신앙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네덜란드의 엄격한 칼뱅교도 성직자들도 리스본 지진을 신의 응징으로 해석했다. 다만 미신과 우상숭배, 로마 가톨릭 의식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심판의 원인을 달리 봤다. 영국의 웨슬리는 『리스본 지진에 대한 고찰』이라는 소책자에서 신이 리스본을 심판하신 것은 잔인한 종교재판소에서 사람들을 비열하게 살해한 데 대한 응징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종교적인 해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전제하고, 재해의 원인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돌리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보았다.

2) 철학적 관점에서

리스본 대지진을 심판으로 보았던 해석은 “‘신앙의 도시’인 리스본에 재앙이 내렸다면, 왜 ‘방탕한 파리’나 ‘탐욕스러운 런던’에는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란 질문을 일으켰다. 결국 종말론적 심판론이나 이신론적 낙관론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당시 불과 6살 소년이었던 괴테도 리스본 재난의 이야기를 듣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큰 의문을 가졌을 정도였다고 한다.

계몽주의자 볼테르(1694-1778)에게 리스본 대지진은 이 세계가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전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세계는 신정론이 주장하는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선 선이 악에 무너졌다.³⁾

임마누엘 칸트(1724-1804) 역시 전통적인 신정론, 즉 재앙이나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신학을 반대했다. 그는 <신정론에 있어서 모든 철학적 시도들의 실패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신정론의 기본 전제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칸트는 특히 신정론을 통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신정론이 자연악과 도덕악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연악과 인간이 저지른 도덕적 행악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음을 주장했다.

3) 사회과학-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루소의 해석은 재난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글로 평가된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저자 루소는 “6층, 7층 건물을 2만여 채나 건축한 것은 자연이 아니다. 리스본 주민들이 그렇게 밀집된 지역에 살지 않고 넓은 지역에 고루 퍼져 살았더라면 지진 피해는 훨씬 덜하거나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3집 (2012년 9월), 253쪽.



다. 그는 엄청난 사망자 수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 모두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 자연은 인간의 법을 따르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지진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후 지진에 대한 자연과학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사람들은 지진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함으로써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매도되는 사람들도 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그저 자연재앙의 희생자일 뿐이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죄의식을 더하지만 과학적 설명은 피해자들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다독인다. 기도와 명상 등 종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했던 회개하라는 부르짖음보다는 죄의식과는 상관없이 책임 있게 재건 활동에 참여하라는 호소가 더욱 대중적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죄와 심판을 강조하는 종교 교리가 저주와 구원이라는 수사학으로 생존자들을 움츠러들게 하였다면,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죄의식에 매여 있던 대중을 해방시켰다.

4)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가들은 바로 이런 과학적 해석에 주목하였다. 당시 포르투갈의 총리였던 카르발류와 같은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재난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성근거한 계몽주의가 종교적 반계몽주의를 꺾고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율법주의적 종말론과 심판론에 길들여진 대중에게 이성적으로 지진이 자연현상임을 설명함으로써, 도시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재난 상황에서 ‘정치’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정치가들은 신앙, 철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의 통찰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조차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본 대지진 이후 나온 주장들이 모두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당시 리스본에는 루소가 이야기한 7층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루소는 리스본의 건축물 구조와 리스본 지진의 파괴력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거나 넓은 지역에 고루 퍼져 살았더라면 ‘피해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서구의 세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성직주의는 종교 자체의 내부 모순이 원인일 수 있지만, 사회적 모순에 분노한 대중들에게 왕궁이나 군대와 금융기관들이 아닌 교회를 타도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한 정치권의 노획한 정치 행위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⁴⁾ 이런 정치적 책동을 대중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소통 도구들, 예컨대 언론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Owen Chadwick, *The Secularization of the European Mind in the 19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119.



2. 재난 시대, 사회변동에 응답하는 교회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재난은 포르투갈 기독교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예수회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통속문학이 포르투갈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킬 것을 염려하여 라틴어로만 교육할 것을 고집했다. 유럽 대부분이 새로운 인본주의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을 흡수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는 동안 포르투갈은 오히려 중세 시대로 회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본 지진은 제도적 종교의 거짓 권위를 뒤흔들고, 철학의 계몽적 낙관주의에 도전했으며, 이신론적 신학과 통속적 신앙에 궁극적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떠한가? 코로나19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전통 종교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악을 조장하는 이단, 공적 책무를 방기한 기독교, 전통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교회, 생태계의 교란을 가지고 온 탐욕적 사회, 물질주의에 함몰된 자본주의 등, 수면 아래 감춰져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평범한 대중에게도 드러났다. 이에 신학자들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생명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사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사회적 거리'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관계와 사람들의 사이의 만남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했다.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물었고, 인간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다양한 환경을 연구하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 어떤 이들은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성찰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적 관계, 또 자연에 대한 질문들은 리스본 대지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정교해졌고, 더 복잡해졌다. 제레미 다이아몬

드가 『총, 균, 쇠』에서 말했듯,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과 사회와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태계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성찰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회변동 시대에 성찰은 또 다른 성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신학과 교회는 인간과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실천적 응답을 모색할 수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교회의 지향점

“We are not going back to the normal, we are going into a new normal!”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소명은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일상을 예상하며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교회론적 전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감당해야 할 새로운 미션을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하여, 또한 재난 극복 이후 교회의 위상과 존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제안해본다.

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에서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교회와 신앙인들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그 이웃의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창조주 하나



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됨과 동시에 나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도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19는 신앙인에게 이웃이 단절되거나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했다.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이유, 나와 너를 교회로 함께 존재하도록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가 교회됨은 신앙인들이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할 때,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2)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한 신앙

왜 박쥐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됐을까? 박쥐가 인간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박쥐를 선동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 박쥐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책임을 박쥐에게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이상을 욕망하는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스럽게 피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의 욕망이 필요를 압도하자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리며 재난이 일어났고, 재난은 다시 사회 전체를 뒤틀었다. 이런 총체적인 뒤틀림은 결국 인간을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한 위기사회로 내몰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매 형제들로서, 즉 지체로서 인류애를 굳건히 함으로써 경제적 상황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창조세계의 생명과 연약한 지체의 기본권에 가치를 두는 생명 중심의 삶을 실천함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 즉 영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공동선의 확산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함을 뜻한다.

3) 고통의 현실 속에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신앙

마스크 한 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주제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일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따른 신앙적이며 사회적인 실천은 매우 이상적 주장으로 보이는 현실임에 틀림없다. 오늘의 재난은 개인과 우리 사회와 세계의 민낯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민낯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무지와 죄성이 악의 권세 앞에 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 교회의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교회는 신앙인이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한다. 교회는 모두가 신음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악과 죄와 고통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마주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세워



가야 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도전한다(요 9,1-7).

4) 철학과 사회과학, 정치와 언론 등 일반은총의 영역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므로, 우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회/자연과학, 정치와 언론 영역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하여 뒤틀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리스본 대지진 당시 종교가 범하였던 우를 반복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철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언론과 정치 모두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어긋나는 세계관과 가치를 생산하며 반생명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제어하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앙인들이 세상 안에서 더욱 책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일반은총에 속한 여러 영역, 특히 자연과학, 사회과학, 철학, 언론, 정치 영역 등과의 소통과 그 영역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응답 등이 신앙인의 신앙인 됨에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인제사장, 즉 자신의 영역에서 모두가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신앙적 각성이다.

5) 목회적 포스트-코로나 패러다임 모색

이제 교회는 이른바 평신도들의 책임적 사회참여와 교회사역 사이에서 역할분담과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회 방향, 교육과 정책결정의 구조변혁, 즉 목회의 포스트-코로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시도되어야 할 몇 가지 실천적 목회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i) 공적 예배의 신앙/학적 의미에 대한 인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주일 예배 참여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예배가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오프라인 모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된다.

성도들은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동일한 시간에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공간에 대한 신앙/학적 의미를 성찰할 뿐 아니라 성찬 등 기본 교리를 확인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예배 인원 분산에 따른 토요 예배 신설에 대한 신학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의 의미는 약화 되었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행동하는 삶의 양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는 있어도 상호작용의 질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앙의 “나” 중심 상황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반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드림(service)”이자 헌신의 예전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능한 시간에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신앙인들이 많지만, 공적 예배는 주께서 명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설교의 중요성과 함께 예배의 통전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예배 공간은 실질적인 드림과 헌신의 거룩한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ii) 교회 안 조직응집력 유지를 위한 대안 모색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에서 “몸”의 만남과 접촉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한편,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경계하게 되었다.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모임에 더욱 익숙한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교회의 기존 조직과 모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만남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임에서 온라인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구역이나 셀 모임 시, ‘zoom’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는 역량을 구비하는 과제를 가진다. 특히 젊은 세대, 청소년과 청년의 신앙교육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상의 만남은 적극적인 소통의 참여를 꺼리게 만들고

관조적 입장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i) 재난 시 대처 교회 매뉴얼 구비 필요성 증대

이번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태 속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대처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검증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당시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의 소명적 헌신의 기여가 컸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에 긍지를 느끼는 한편,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매우 엄중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교회는 교단과 신학교, 그리고 개교회적 차원에서 향후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이나 지진, 사고 등의 재난적인 비상상황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신학적, 목회적, 그리고 그 밖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논란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배의 형태나 교회의 디아코니아, 교회학교 운영 등을 세밀하게 살피며 매뉴얼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예장통합 교단과 장신대에서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신학적/목회적 성찰 및 비상대응을 발표하면서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지역교회들에 도움을 주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iv)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섬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보다 더욱 디지털화된 사회로 나아가리라 예상된다. 앞으로 디지털 역량이 더욱 요청될 것인 바, 대표적인 고령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아날로그적 역량 상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조부모 세대에게 도움을 주거나, 교회나 지역사회의 어른들의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작업을 시도하는 등 교회의 간세대적 교육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온라인 정화운동을 벌이는 등 대사회적 견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소형 교회들을 위한 협력 지원 체제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공적 예배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각종 문제가 실질적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 디지털 역량이 나 경제적 차원에서 목회자, 부교역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심각하다. 개 교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총회와 노회의 정책적 조율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인적, 물적으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런 관점에서 노회와 시찰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재설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4. 나가며: 안전한 교회에서 위험한 교회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는 ‘위험한’ 위기사회로 진입했다. 위기사회는 무엇보다 '위기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안전'을 기본 가치로 요청한다. 이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가 전면적으로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 지금, 교회는 이런 시류에 역행하며 위험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오해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우리는 신천지와 교회를 함께 논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사이비와 정통 교회들과의 차별성은 교리가 아닌 반사회성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부터 예배, 교육, 선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교회 내부 구성원들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예배 시설과 교육시설을 요구할 것이며, 영유아부와 청년들을 비롯한 전 연령층이 안전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회는 교회가 공공시설로서 보건의료환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한 교회로의 요청은 사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교회에 상당한 부담이다. 한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안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십자가와 십자가를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도 위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위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결코 세상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 세상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 교회는 분명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로서 위험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신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가치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가치와 삶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들이 꺼려하고, 그런 욕망 위에 구축된 문화가 위험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의 안전함을 넘어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교회와 복음적인 삶, 즉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자. 안전하지만 위험한 교회는, 오로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교인들, 복음의 공공성과 차별성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는 결과임을 기억하자.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는 더욱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논찬 1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 위기이자 은혜의 도전

채수일 목사 | 경동교회

1. 존경하는 김태영 총회장님, (예정)총회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신철 목사님, 오늘 이 뜻 깊은 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이하 코비드-19)가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가져온 변화는 너무 충격적이고 근본적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 구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충격은 교회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동시에 기회인 것처럼, ‘코비드-19’시대는 인류와 교회에게 재앙이자 동시에 은혜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교회에서의 논의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대면 예배와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헌금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모색, 임대료 못내는 미자립교회 지원,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교회 지원’, 감염된 환자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재정 및 마스크 지원 등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잘 모르는 수많은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교회의 논의는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모임이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시작되었고, 그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집회의 온라인 대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공



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전망됩니다. 몇 가지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소통과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2) 온라인 노회, 온라인 총회의 진행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거에서도 총대중심의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총회소속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뽑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3) 고령화, 저출산, 반기독교 정서에 더해 감염병의 유행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교회의 재정위기와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고, 상회비로 유지되는 노회나 총회의 재정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위기로 촉발되는 강요된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스스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교회의 자기개혁을 강요한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4) 교회는 이제 ‘제2의 출애굽’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제1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전종교’로 정착되었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책의 종교’로 변한 유대교처럼, 한국교회도 성전 종교에서 ‘디지털 유목시대’로 진입한 것이지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 이야기에서처럼(요 4,21-24), 어떤 공간도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디지털 유목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할 일입니다.

- 5) 이미 상존하는 무임목사 외에도 앞으로 무직목사들이 늘어날 현실에서 새로운 교회 형태와 목사직의 다양화가 더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의 이중직이 아니라 다중직이 허용될 것이고, '유튜브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 6)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번영의 신학' 대신에, 최초의 창조 후 하나님의 쉼을 시간화한 '안식일'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를 시간화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숙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¹⁾

3. 임성빈 총장은 '코비드-19'의 팬데믹이 한국교회에게 미친 영향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교회 안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스럽게 피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창조세계의 생명과 연약한 지체의 기본권에 가치를 두는 생명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것'과 '반생명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제어하도록 힘쓰는 것'으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교회의 과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칫 자기내부문제에만 시각을 고정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책임적인 공동체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신종감염병이 빈발하

1) 위르겐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 생태학적 창조론, 김군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435 참조.



는데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자본의 메커니즘 또는 국제적 분업체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²⁾ ‘생명’을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신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비현실적인 당위적 주장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뿌리내린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생명중심의 삶의 실천’, ‘반생명적 문화의 제어’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서, 교회공동체 차원에서, 한 나라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정무역운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란시스코 판 데르 호프 보에르스마 신부가 ‘현재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믿을 만한 대안이나 분명한 제안이 없다면, 저항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고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반대한다는 것은 제시하는 것입니다.³⁾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⁴⁾ ‘K-방역’처럼, 우리나라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한국교회의 과제입니다.

2) 김창엽,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무엇인가, in: 포스트 코로나 사회 - 팬데믹의 경험과 달라진 세계, 글항아리, 2020, 17 참조.

3) 프란시스코 판 데르 호프 보에르스마,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사회연대경제, 아래로부터의 대안, 박형준 역, 마농지, 2020, 103.

4) 오스트리아는 전후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좌우가 협력해 국정을 관리하는 대연정, 합의제 정치를 발전시켰고,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런 두 겹의 합의체제를 바탕으로 선순환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백기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골든타임’, 한겨레신문, 2020년6월4일(목), 22면 참조.

4. 그런 점에서 저는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류와 교회에게 재앙이자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재앙인 것은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만 '코비드-19' 사망자가 지난 3개월 동안(2020년2월부터 지금까지) 10만 명을 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6월 1일 현재 사망자는 10만 6천여명). 이 사망자 숫자는 한국전쟁(1950-1953, 36,500명), 베트남 전쟁(1961-1975, 58,000명), 이라크(2003-2011, 4,500명)와 아프카니스탄(2001-오늘까지, 2,000명) 전쟁 등 총 44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들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6월 1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83만 여명, 수 백 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의료보험미가입자 등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해와 재난도 불공평한 것이지요. '외신에 따르면 4월초 시카고에서는 흑인이 전체인구의 32%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서는 67%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에서도 5월 30일 현재 흑인과 히스패닉의 인구 대비 '코비드-19' 사망자 비율이 백인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고,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약 3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지난 3월 말부터 10주 동안 발생한 미국의 실업자 수는 4,08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이 20%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라진 대부분의 저임금일자리들은 대부분 유색인종이 종사하는 직종입니다.⁵⁾

5) 이강국(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교수),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한겨레신문, 2020년6월2일(화),31면 참조.



나라들은 저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침체는 세계적 규모로, 장기화될 것이고, 대량실업, 양극화와 인종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고,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라는 불만은 과장이 아닙니다.⁶⁾ 특히 지난 5월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 후 계속되는 항의시위, 미-중 경제 갈등 등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것입니다.

주로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해온 한국의 사정도 우려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저임금 서비스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47만 6천명 감소했고,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 휴직자도 1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년에 비해 7% 증가했고, 하위 10%가구는 3.6% 감소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주로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고, 재난이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⁷⁾

2)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역설적이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이제 모두 함께 죽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해야 한다는 집단적 성찰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6) 김창엽,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무엇인가, in: 포스트 코로나 사회 - 팬데믹의 경험과 달라진 세계, 글항아리, 2020, 18.

7) 이강국, 같은 글, 참조.

'코로나-19'는 재앙의 시대적 표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은 '은혜의 표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우리 자신과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역사도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우리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게 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추구해온 지구적 규모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지 숙고하는 기회로 삼게 했으니 은혜입니다.

'코로나-19'는 개인의 생명이 우주적 '온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생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오로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파괴한데' 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논리까지 합세하여 전개된 파국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정지 내지는 둔화되자 대기가 청명해지고,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 만물이 생기를 되찾은 것은 종래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확연한 증표'라고 합니다.⁸⁾ 일시적인 '잠시 멈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으니 이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김종철, 코로나 환란, 기로에 선 문명, 한겨레신문, 2020년4월17일(금), 22면 참조.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를 분리해온 모든 보이는 장벽,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계급적, 남녀노소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랑과 연대로 함께 살든지, 아니면 함께 죽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거기에서 파생된 경제위기가 글로벌 위기인 것처럼, 인류의 대응도 글로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분명히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더 크고 깊은 위기로 갈지, 아니면 인류를 새로운 깨달음과 공생의 기회로 이끌 지는 전적으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학습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달려가는 의료진들, 자기는 살만큼 살았으니 젊은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주라고 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자기 몫의 마스크를 사지 않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민, 헌혈하고 성금을 모아 보내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에게 기꺼이 자가 격리 공간을 제공한 시민들, 시도 경계를 넘어 환자들을 받아 치료하는 자치단체들,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들,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에 나선 시민들, 이름 없는 이들이 모두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야말로 과연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는 표징이 아니

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은 우리 가슴을 자부심과 감동으로 채웁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각자도생, 다시 강화되는 인종주의, 국경폐쇄, 자국중심주의 현상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해가는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모범국가, 우리 국민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시민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지 'K-방역'에서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계의 생태계와 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기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강연원고 고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강연원고는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사례를 통해 재난 앞에서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집약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후로 265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19 재난에 직면한 한국 사회와 교회 역시 과거와 같은 어두운 민낯(사회악을 조장하는 이단, 공적 책무를 방기한 기독교, 전통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교회, 생태계의 교란을 가지고 온 탐욕적 사회, 물질주의에 함몰된 자본주의 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는 점을 통찰력 있게 지적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교회의 지향점으로 우리의 중심부터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주제에 근거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책임 및 새로운 실천적인 목회 패러다임까지 적실하게 제시해 주었다. 특히 결론에서 위험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안전공동체가 되어야 할 당위성과 동시에 안전하게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변혁시키는 위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의 강연 원고에 기초하여 강연 원고에서 제안된 ‘목회적 포스트-코로나 패러다임 모색’에 현장 목회자로서 교회 내적 모색과 대(對) 사회적 모색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덧붙임으로 논찬에 임하고자 한다.

2. '목회적 포스트-코로나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현장 목회자의 덧붙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전 사회가 혼돈을 겪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역시 위기 상황 앞에 허둥대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한국교회의 컨트롤 타워 및 위기관리 매뉴얼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아픈 시간을 경험했다. 2월 마지막 주일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집단 발병으로 일제히 대구지역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예배전환을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는 갈팡질팡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주일 예배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회 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허둥대는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 사회적 위기가 교회 적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IMF와 메르스 사태 때 한국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을까를 찾아보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3월 초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할 과제를 논의하는 '포스트-코로나 어젠다 설정 위원회'를 결성하고 리서치를 병행하며 계속 모임을 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은 논찬자가 논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나름 정리한 내용인 것을 밝혀 둔다.

1) 교회 내적 모색

i) 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재난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던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임으로서의 예배와 함께 온라인예배의 병행이 진행되면서 '스튜디오 예배당'의 개념까지 나온 상황이다. 결국 예배 신학 재정립의 현실적 요청은 재난의 신학적 정립과 함께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재난



속에서의 선교론, 생태와 환경 등 신학적 제반 영역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ii) 신학교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을 통과하면서 기존 신학교육의 틀은 과연 현실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목회 현장의 급격한 변화는 신학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교과과정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iii) 비대면의 일상화 속에서 성도들의 공동체성 성숙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남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성은 질적 양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면 자체가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자신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관여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것이 포스트-코로나의 상황이다.

iv)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신앙교육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는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분반 목회와 공과 교육의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과 사역의 방향 역시 목회자의 역할만큼이나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장에 모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세워졌던 모든 신앙교육의 틀 걸이는 공교육의 현

장조차 ‘교실 없는 교육’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v) 교회 운영과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경기침체는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키운 하드웨어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각 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섬김과 통일 선교와 해외 선교,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기존에 해왔던 후원과 지원은 물적 자원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에 대한 사역 적 선택과 집중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놓칠 수가 없다.

vi) 이단 및 사이비 공동체에서 돌아오는 영적 난민들의 돌봄 모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이단 및 사이비의 폐해가 알려지고 정통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기준이 공(公) 교회 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vii) 공동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의 극복이 필요하다.

재난이 일어난 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불비한 작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예배 현황을 비롯한 모든 사역 현황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였다. 생존을 염려하는 작은 공동체가 대다수인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각 교단이 물적 인적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 틀림없다.

viii) 전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한국교회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매뉴얼 적용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재난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사회적 재난이 자연현상으로든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아쉬웠던 것은 노회와 총회, 소위 한국교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연합기구들의 현장교회에 와 닿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개신교회의 개교회의 결정이 늘 우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한국교회”라는 전체성 속에 있는 교회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을 제시할 만한 연합기관의 활동과 교계 언론의 동시적 움직임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요소라고 본다.

2) 대(對) 사회적 모색

i) 정부 행정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전 사회가 당면한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교회가 움직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초기부터 소통하며 협력을 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공동체는 사실 없다. 특히 길어지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 어떤 사회적 기관이나 단체 보다 모범적인 방역 공동체로서의 선제적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한국교회 방역수칙’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선언하고 방역수칙을 지키기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제한된 작은 교회를 지속해서 돕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지역별로 정말 연대가 잘 되어 있고 조직 역사 체계적이고 강하다. 그러나 재난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와 교회의 원활한 소통과 대응 체계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대도시의 교구협의회나 교동협의회, 그리고 지역별로 체계화되어있는 지역조직들이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위기상황 속에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할 지역 내 돌봄과 섬김 사역을 실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사회적 공감 감수성이 풍부한 크리스천 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존재 자체가 공공성을 띤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 위기와 아픔에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공감대를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공공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균형과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v) 일반 언론과의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 언론에 교회와 관련한 사안이 언론에 최초 보도되는 용어는 이후 모든 언론에 그대로 채용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 관련 기사가 작성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여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3. 나가는 말

<이 폐허를 응시하라>(펜타그램 2012년.)의 저자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은 책의 흐름 전체 속에서 “재난 속에서도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는 말을 한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로 성숙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다. 질곡 많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위기와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더욱 강해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였다. 실제로 꽤 긴 시간 한국교회 연합운동 현

장에 있으면서 한국교회는 의미 있고 명분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속하게 연대하는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재난이 한국교회가 더욱 연대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에 새로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도하며 논찬을 마친다.

설문조사결과

CONTENTS

해설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지용근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설문조사 1차 보고서

1 조사 개요

- 1-1 조사 목적
- 1-2 조사 설계
- 1-3 응답자 특성

2 조사 결과 분석

- 2-1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운영 및 지원 상황
- 2-2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변화
- 2-3 포스트 코로나19
- 2-4 총회 관련 의견
- 2-5 기타

첨부 설문지

해설 |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지용근 대표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이전, 비대면 문화가 유통과 소비 시장에 국한되어 서서히 확장되어 왔다면, 2020년 코로나는 유통 뿐 아니라, 종교, 문화, 교육, 비즈니스, 직장생활, 여행,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증폭시켰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비대면’ 즉 ‘언컨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될텐데 한국교회가 이 엄청난 시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성장과 쇠퇴의 분기점이 될 듯 하다. 여기서는 언컨택트 문화가 이전부터 오고 있었다는 것, 또 이와 관련된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코로나 현상 속에서의 한국교회 상황 그리고 이를 돌파해야 할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1. 언컨택트 문화, 코로나 이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매년 11월이면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팀이 펴낸 “트렌드코리아”라는 책이 나오는데, 2017년 말에 출판한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 하나가 소개됐다. “언택트(Un+tact)”이다. 이 단어는 접촉이라는 의미의 컨택트(Contact)와 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접촉하지 않는다’는 합성어이다. ‘언택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기술이 생활 속에 확산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버거킹 같은 매장에서 기계로 메뉴를 주문하는 키오스크나 VR(가상현실) 쇼핑, 무인 택배함 ‘스마일박스’ 등이 언택트 기술의 예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에서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15곳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67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2년간 약 5배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20-30대 젊은층 사이에 벌어진 일이므로 50대 이상 교회 리더십들은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렇듯

비대면 현상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발생해 확장되어 왔다. 의도치 않은 우연한 계기가 변화하는 흐름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듯 코로나19가 이미 확장세를 탄 언택트 트렌드의 속도를 보다 더 가속화시키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러한 비대면 문화 확산의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2017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행이 등장했다. 바로 카카오뱅크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은행인데 이 은행이 개점 1년 만에 68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1,000만 명을 넘기고 작년 말에는 1,128만 명까지 기록했다.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인구 4,400만 명 중 26%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018년 미국의 빌보드200 차트에 외국어 노래가 두 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노래는 돈을 들여 광고를 제작하지 않았고 단지 노래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것이 전부였다. 바로 BTS다. BTS는 ARMY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마케터가 되어 전 세계에 BTS 노래를 퍼 나르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전파한 영웅은 없다.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2017년 온라인 게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롤드컵 결승전이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마침 한국 팀끼리 결승전을 치뤘는데, 이 때 전

1) 김용섭,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7-13.



세계 시청자 수가 놀랍게도 8,000만 명이나 되었다. 그해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인 점을 생각하면 월드컵이라는 이 스포츠가 어느 정도 열기와 인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떤 대학생이 이 결승전을 시청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이제는 게임을 하다 하다 TV 중계까지 보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했단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거실에서 유럽 프리미어 축구를 보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 되면 축구는 스포츠이고 게임은 마약이란 이야기가 하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세대가 다음 세대 비대면 세계를 끌고 갈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²⁾

이 비대면 문화가 코로나 이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유형이다. 영국의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PWC가 2019년에 발표한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7개가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는 이미 비대면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2) 최재봉, 『포노사피언스』 (서울: 샘앤파크스, 2019) 144-149. 152-155.

2. 코로나 이전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변화

1) 1인 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을 보면 ‘부부+자녀’가구가 항상 1위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작년에 깨졌다. 1인 가구가 1위 가구 유형이 된 것이다. 통계청 ‘장래가구 특별추계 2017~2047년’(2019.12.16.)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유형 중 29.8%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부부+자녀’ 29.6%, 부부 16.3%였다. 아마도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혼밥, 혼술, 혼트, 혼영 등 혼자 활동하는 ‘나홀로 문화’가 사회 속에 정착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사회 시스템도 이러한 나홀로 문화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갈 것이다.

이와 관련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결과,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34%)보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50%)이 더 많고,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를 축소하면서 그 관계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뚜렷한데, 휴식을 취할 때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며(92%), 심지어는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87%, 궁금한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86%나 돼,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가장 친한 벗이 되어 버렸다. 스마트폰에게 곁을 내어주면서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혼자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져,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아도 별 지장이 없는 시대다’ 79%, 혼자 시간을 보낼 때 62% 등으로 나홀로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며, 나아가 이전 ‘나를 모르는 사람이 편하다’는 인식이 48%나 될 정도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경우 1인 가구 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텐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1인 가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1인 가구를 배려하고 이들의 외로움을 나누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도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일반국민(5000명)을 대상으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에 발표한 미디어별 이용률(1주간)을 보면, 전통적으로 TV가 강세인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87%)이 TV(92%)를 거의 따라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80%)로 나타났는데, TV,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모두 80%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데 2018년 34%에서 2019년 47%로 크게 성장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에서 주일 집에서 온라인 또는 방송 예배 드린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 매체를 질문한 결과, 모바일 이용률이 41%로 PC(33%)와 TV(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모바일로 찬양하고 모바일로 기도하고 모바일로 말씀 듣고 모바일로 헌금하는 ‘모바일 크리스천’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이를 크게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 교수는 그의 책에서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후 10년 만에 전 세계 40% 인구인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는데, 스마트폰을 가리켜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부른다. 인간에게 스마트폰은 뇌이고 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새로운 문명을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국교회에게도 분명 메시지가 있다. 예배, 교육, 행정, 소통, 구제 등 목회활동 전반에 걸쳐 모바일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앞으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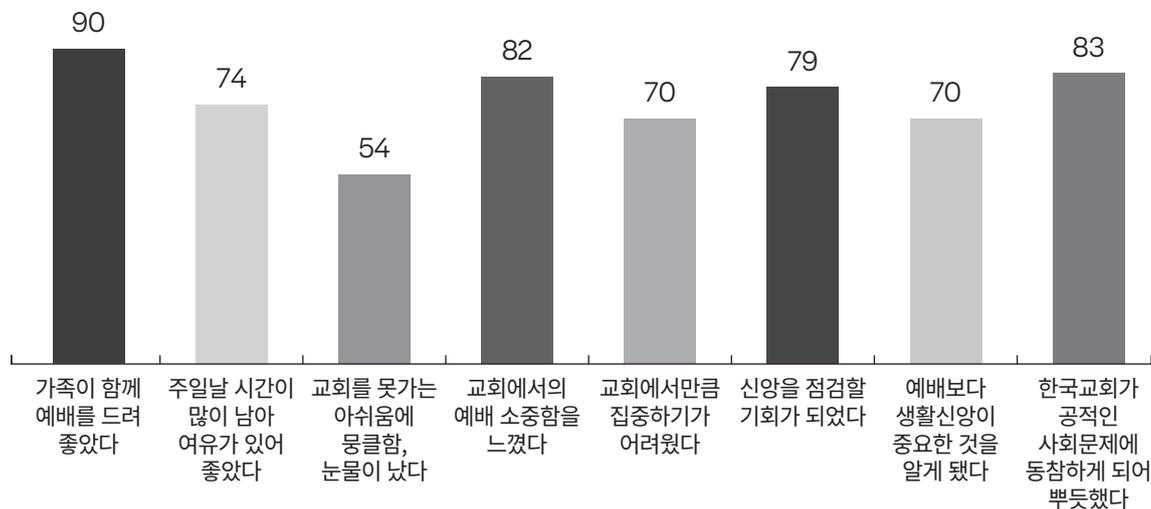
3. 코로나 속의 한국교회 상황

1) 코로나19의 개신교인 영향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었던 4월 초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라인 예배실태에 대해 최초 조사자료로서 교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방송/가정예배자에게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소감을 물었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90%,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74%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교회에 못가는 아쉬움으로 몽클함/눈물이 났다’ 54%,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82%로 교회 못가는 아쉬움을 함께 느껴 양가감정을 보였다.(그림1)



그림1) 온라인/방송/가정예배자의 속성별 평가(그렇다 비율)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0.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4.02.~06)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개신교인들은 주일성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41%,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 55%로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절 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성도들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해석이 맞을 것 같다. 실제로 온라인/방송/가정예배 드린 자의 23%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응답하였다(그림3). 또 코로나19 종식 후 자신의 교회 출석에 대해서는 15%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가정예배로 대체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림2) 주일성수 의견(교회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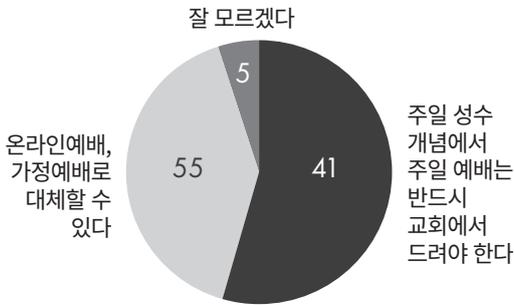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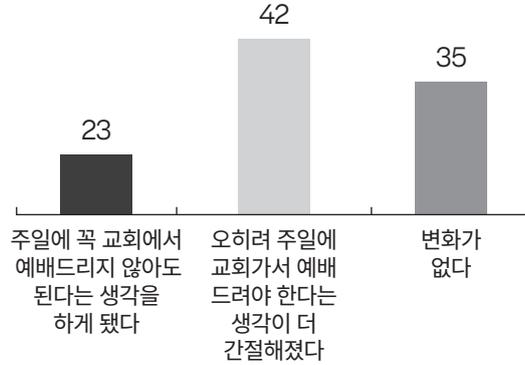


그림3) 주일성수 생각 변화(현장예배 중단자)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0.(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4.02.~06)

2) 코로나19의 목회자 영향도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 전환 후 개신교인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럼 목회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말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헌금이 감소한 교회가 69%, 증가한 교회가 1%, 변함없는 교회가 30%로 조사됐으며(그림4), 헌금 액수 감소와 증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평균값을 구하면,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코로나19로 인한 헌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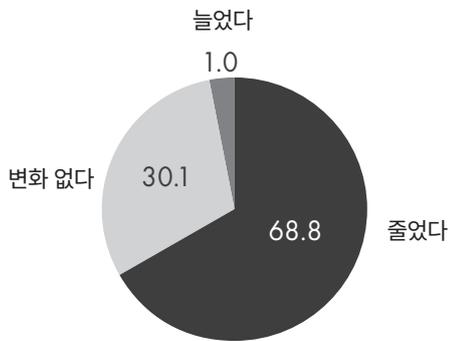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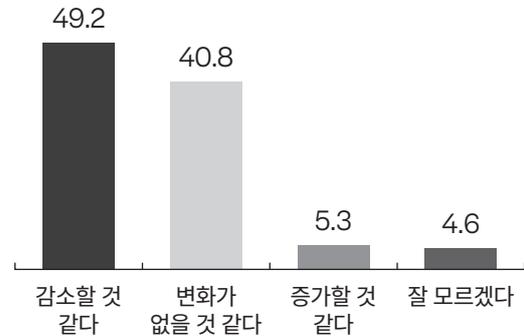


그림5) 코로나19 이후 교인수 변화 예상 (코로나19 이전 대비)



*출처: 예장 통합 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인식조사’ 2020.06.15. (예장 통합교단 소속 당회장 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헌금이 감소한 교회에게 재정 조정을 해야 한다면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교회행사비/운영비’가 60%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목사/직원)급여/목회활동비’ 21%, ‘상회비/노회 관련 재정 지원’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교회 유지관리비를 먼저 줄이겠다는 의향이 높았고, 국내/해외 선교비, 교육비 등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줄여야 한다면 선교/교육비는 가장 마지막에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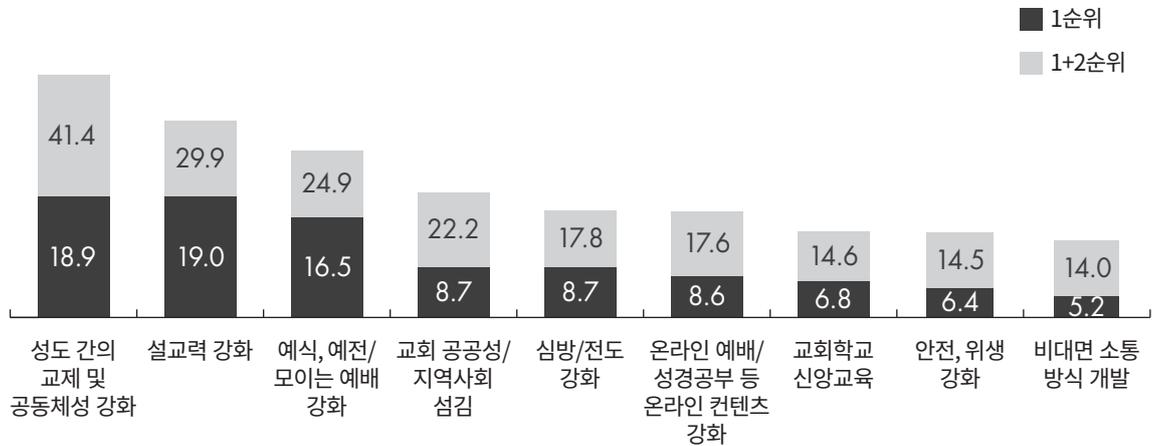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교인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한 결과, 감소할 것 49%, 변화없을 것 41%, 증가할 것 5%로 절반의 목회자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림 5). 교인수 증가와 감소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면 예상 감소율은 9%로 헌금 감소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예배시 온라인 병행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과 현재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운영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 6% → 현재 25% → 코로나 이후 19%로, 코로나가 종식된 후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지만 현재 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현재는 온라인을 병행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에는 병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교회가 27% 정도 되었다. 한편, 온라인 병행 또는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 27% → 현재 39% → 코로나 이후 41%로 온라인 이용 의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조사결과 ‘출석교인수 감소’(30%)를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17%, ‘온라인 예배/컨텐츠 활성화’ 15%, ‘교회학교 학생감소 가속화’ 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가 교인수 감소, 소형교회 위협, 교회학교 위기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의 현장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 목회의 중점사항(중복응답)으로 그동안 약화된 ‘성도간의 교제/공동체성 강화’(41%)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설교력 강화’(30%), ‘예식,예전/모이는 예배 강화’(25%),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22%) 등으로 나타났다(그림6).



그림6)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의 중점사항



*출처: 예장 통합 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인식조사' 2020.06.15.(예장 통합교단 소속 당회장 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4. 비대면 시대 전환 시기에 한국교회 제언

최근 비대면 서비스 이용 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료라서 소개한다. 비대면 서비스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또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 변화인지 물어보았다. 다음 표1)에서 살펴보면 비대면 서비스 종류 중에서 향후 이용의향률이 지금까지의 경험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또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부정적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 변화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런 수치는 코로나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다.

표1) 비대면 서비스 이용경험 vs 향후 이용의향 vs 평가 (%)

구분	실제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긍정적 변화이다 (긍정률)	부정적 변화이다 (부정률)
1. 드라이브 쇼핑	32	74	69	6
2. 온라인 강의	43	72	63	6
3. 온라인 도서관	34	70	63	5
4. 원격 병원 진료	6	64	51	12
5. 재택 근무 / 온라인 원격 근무	14	57	64	5
6. 온라인 콘서트, 전시회 관람	14	53	50	12
7. 온라인 채용 면접	4	48	52	10
8. 온라인 종교활동	18	46	53	10
9. 온라인 지인모임	11	46	38	18
10. 온라인 경조사	4	44	37	22

*출처: 한국리서치,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사회 전환)’, 2020.06.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5.08.-11.)

이러한 사회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속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새롭게 바뀐 문명에 적응해야 한다. 문제는 새롭게 바뀌는 비대면 문화가 종교문화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데 있다. 비대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상호소통력(초연결성)이 매우 뛰어난 구조인데 반해, 전통적인 교회는 수직적이고 일방적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문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온라인 딜레마이다. 앞의 표1)에서 우리 국민은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해 경험을보다 향후 이용률이 3배 이상 높고, 이러한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절반 넘게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 트렌드가 읽혀지는데, 고령의 목회자들이 있는 소형교회들은 재정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로 온라인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의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온라인을 하자니 교인들이 교회 출석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갈 것 같고, 온라인을 안하자니 온라인을 하는 다른 교회로 갈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소득의 위기, 노후의 위기, 외로움의 위기, 불신의 위기, 정치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도 함께 온다.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종교의 기회이다.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어느 사회적 주체보다도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 든든히 서가면서 한국사회를 위로하고 품으면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설문조사 1차 보고서 |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최근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큰 변화를 겪고 있고 한국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 실시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다.
- 본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6월 15일 대토론회 준비의 일환으로 교단 총회 소속당회장 목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 향후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할 방향과 전략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조사는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담임목사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135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모집단의 교회 규모 및 지역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71\%p$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모집단의 교회 규모(출석 교인 수) 및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
조사 기간	2020년 5월 28일 ~ 6월 1일(5일간)
조사 의뢰 기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사 수행	(주)지앤컴리서치



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135)	100.0
성별	남자	(1041) 91.7
	여자	(94) 8.3
연령	49세 이하	(143) 12.6
	50대	(551) 48.6
	60세 이상	(441) 38.8
지역	서울	(135) 11.9
	인천/경기	(236) 20.8
	대전/충청	(130) 11.5
	광주/전라	(288) 25.4
	대구/경북	(183) 16.1
	부산/울산/경남	(118) 10.4
	강원/제주/해외	(45) 4.0
	지역크기	대도시 (388) 34.2
	중소도시 (318) 28.0	
	읍/면 (428) 37.7	
교회 규모(장년출석)	29명이하	(481) 42.4
	30-99명	(351) 30.9
	100-499명	(226) 19.9
	500명 이상	(77) 6.8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60.8
	미자립교회	(445) 39.2

2 조사 결과 분석

1.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운영 및 지원 상황

1) 코로나19 이전 주일 예배 운영

· 질문: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다?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1,135명에게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주일예배 시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72.7%로 가장 높음.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제공했다’는 응답률은 21.0%, ‘현장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했다’는 응답률은 6.3%로, 코로나19 이전에 예배 시 온라인 활용도는 소속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교회 크기별로 99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80% 이상이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예배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우 5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도 18.2%에 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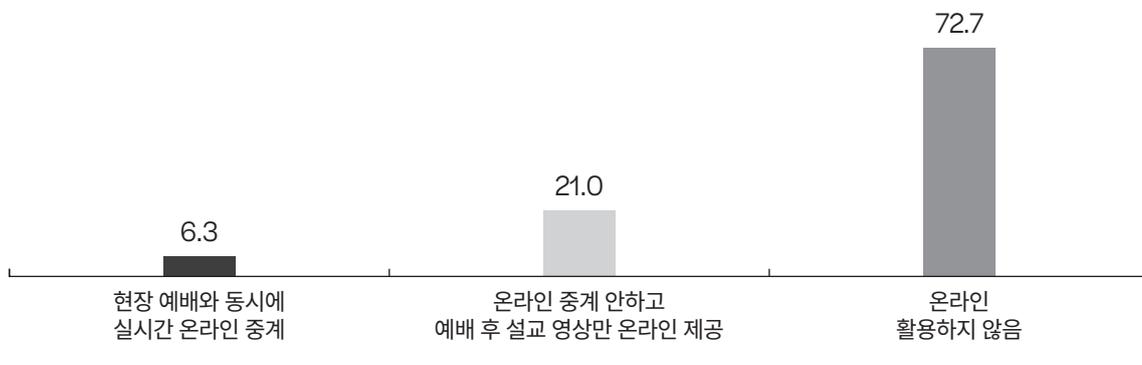
‘온라인 활용하지 않음’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목회자에서 더 높고,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중계’ 응답률은 60세 이상, ‘예배 후 설교 영상 온라인 제공’은 50대 및 49세 이하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중계’ 및 ‘예배 후 설교 영상 온라인 제공’ 응답률, 즉 온라인을 활용했다는 응답률은 출석 교인 500명 이상의 교회와 자립 교회에서 높고, ‘온라인 활용하지 않음’은 출석 교인 29명 이하의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코로나19 이전 주일 예배 운영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이전 주일 예배 운영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했다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다	계	
전체	(1135)	6.3	21.0	72.7	100.0	
성별	남자	(1041)	6.7	22.4	70.9	100.0
	여자	(94)	1.1	6.3	92.6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5.9	24.8	69.3	100.0
	50대	(551)	5.0	23.3	71.8	100.0
	60세 이상	(441)	8.0	17.0	75.0	100.0
지역	서울	(135)	7.0	42.1	50.9	100.0
	인천/경기	(236)	7.6	23.9	68.5	100.0
	대전/충청	(130)	3.8	16.9	79.3	100.0
	광주/전라	(288)	4.8	13.3	81.8	100.0
	대구/경북	(183)	7.3	15.3	77.4	100.0
	부산/울산/경남	(118)	5.8	23.1	71.2	100.0
	강원/제주/해외	(45)	10.4	22.0	67.6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 시에 실시간으 로 온라인 중계 했다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했다	아예 온라인 을 활용하지 않았다	계
지역크기	대도시 (388)	7.6	33.1	59.3	100.0
	중소도시 (318)	6.8	20.5	72.7	100.0
	읍/면 (428)	4.7	10.5	84.8	100.0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3.5	6.8	89.7	100.0
	30-99명 (351)	4.8	15.1	80.1	100.0
	100-499명 (226)	10.3	42.7	47.0	100.0
	500명 이상 (77)	18.2	73.3	8.6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6.7	24.7	68.6	100.0
	변화없음 (342)	4.9	13.3	81.8	100.0
	증가 (12)	20.6	.0	79.4	100.0
온라인 헌 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10.5	35.8	53.8	100.0
	코로나부터 (250)	7.8	37.6	54.6	100.0
	운영안함 (631)	4.0	8.5	87.5	100.0
3-4월 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0	9.6	90.4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22.0	33.8	44.3	100.0
	온라인예배 (220)	6.2	44.1	49.7	100.0
	가정예배 (153)	1.1	8.7	90.2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7.7	29.0	63.3	100.0
	변화없을 것 (463)	4.6	12.0	83.4	100.0
	증가예상 (60)	9.6	21.0	69.4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831)	6.1	21.9	72.0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7.1	19.8	73.1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7.6	29.8	62.6	100.0
	미자립교회 (445)	4.2	7.5	88.3	100.0



2)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주일 예배 운영

· 질문: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때(3월~4월초),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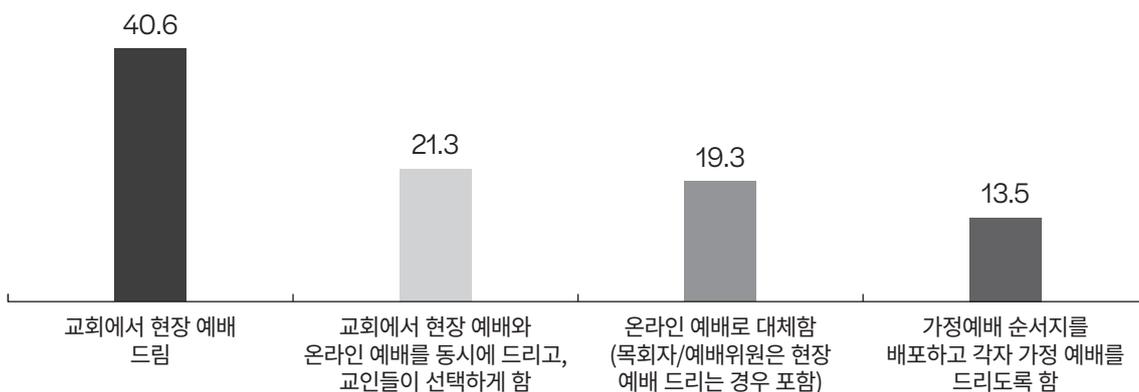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3월~4월 초에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림’이 전체의 40.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리고 교인이 선택’ 21.3%, ‘온라인 예배로 대체’ 19.3%, ‘가정예배 순서지 배포 후 각자 가정예배’가 13.5% 등으로 나타남.

교회규모별로 99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현장예배 비율이 가장 높고, 500명 이상 대형 교회는 온라인예배로 대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보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주일 예배 운영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주일 예배 운영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교회에서 현 온라인 예배 장예배와 온 로 대체함 가정예배 순 교회에서 라인 예배 (목회자/ 현장 예배 를 동시에 예배위원은 하고 각자 기타 드림 드리고, 교 현장 예배 가정 예배를 인들이 선택 드리는 경우 드리도록 함 하게 함 포함)					계	
		40.6	21.3	19.3	13.5	5.2		
전 체	(1135)	40.6	21.3	19.3	13.5	5.2	100.0	
성별	남자	(1041)	40.5	21.8	20.2	12.8	4.6	100.0
	여자	(94)	41.0	15.6	9.4	21.7	12.3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24.9	22.1	33.1	17.2	2.7	100.0
	50대	(551)	39.4	20.1	21.5	13.9	5.1	100.0
	60세 이상	(441)	47.1	22.6	12.2	11.8	6.2	100.0
지역	서울	(135)	29.4	26.5	33.4	9.2	1.5	100.0
	인천/경기	(236)	35.8	26.6	23.8	10.1	3.7	100.0
	대전/충청	(130)	54.3	22.7	8.5	9.0	5.5	100.0
	광주/전라	(288)	41.1	17.9	14.6	20.0	6.5	100.0
	대구/경북	(183)	42.9	14.8	20.4	16.1	5.8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40.1	23.9	16.3	12.0	7.7	100.0
	강원/제주/ 해외	(45)	47.8	16.1	19.6	8.9	7.5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30.8	27.3	26.6	12.5	2.7	100.0
	중소도시	(318)	36.2	24.6	23.3	11.5	4.4	100.0
	읍/면	(428)	52.6	13.5	9.8	15.9	8.2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53.6	9.7	13.5	17.1	6.1	100.0
	30-99명	(351)	44.2	23.5	12.3	13.6	6.5	100.0
	100-499명	(226)	19.2	37.1	31.7	9.1	2.9	100.0
	500명 이상	(77)	5.2	38.2	51.6	3.7	1.2	100.0



구 분	사례수	교회에서 현 온라인 예배 장예배와 온 로 대체함 가정예배 순 교회에서 라인 예배 (목회자/ 서지를 배포 현장 예배 를 동시에 예배위원은 하고 각자 기타 계 드림 그리고, 교 현장 예배 가정 예배를 인들이 선택 드리는 경우 드리도록 함 하게 함 포함)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림	라인 예배 를 동시에 드리고, 교 인들이 선택 하게 함	온 로 대체함 예배위원은 하고	가정예배 순 서지를 배포 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함	기타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38.2	22.7	21.1	13.2	4.7	100.0
	변화없음	(342)	45.9	18.6	15.3	13.8	6.4	100.0
	증가	(12)	39.2	9.1	22.2	25.0	4.6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29.9	29.2	29.7	8.2	3.0	100.0
	코로나부터	(250)	11.3	34.8	36.0	14.6	3.3	100.0
	운영안함	(631)	56.5	12.8	8.6	15.2	6.9	100.0
3~4월초 주 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100.0	.0	.0	.0	.0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0	100.0	.0	.0	.0	100.0
	온라인예배	(220)	.0	.0	100.0	.0	.0	100.0
	가정예배	(153)	.0	.0	.0	100.0	.0	100.0
코로나19 종 식 후 출석교 인 예상	감소예상	(559)	35.2	26.0	23.3	10.6	4.9	100.0
	변화없을 것	(463)	45.7	15.3	15.8	17.3	6.0	100.0
	증가예상	(60)	56.8	23.1	14.6	3.4	2.1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47.1	22.3	16.3	10.0	4.3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1.4	19.5	27.7	23.1	8.3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34.3	27.7	23.1	10.5	4.5	100.0
	미자립교회	(445)	50.3	11.5	13.5	18.2	6.5	100.0

3)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교회학교 운영

· 질문: 그럼, 당시의 교회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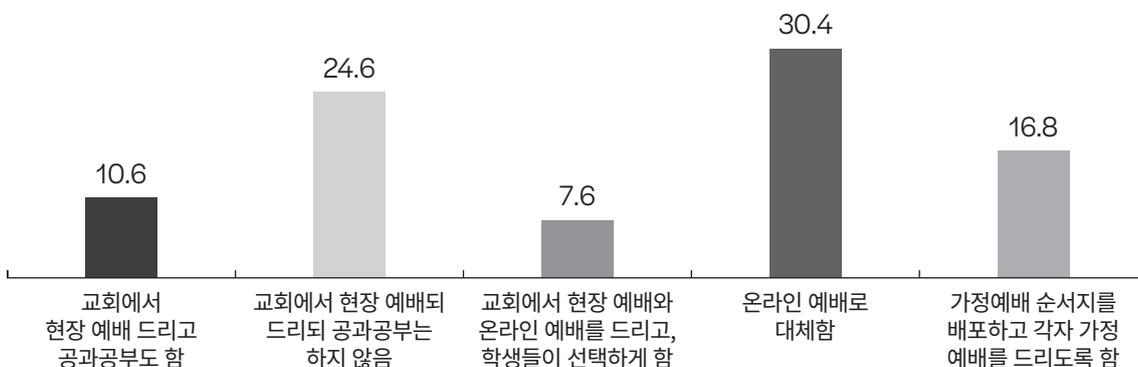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786명)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급증 당시 교회학교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이 30.4%로 가장 많이 응답됨. 그 다음으로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되 공과공부 하지 않음’ 24.6%, ‘가정예배 순서지 배포 후 각자 가정예배’ 16.8%, ‘교회에서 현장예배 드리고 공과공부도 함’ 10.6%,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리고 학생이 선택’ 7.6% 등의 순으로 응답됨. (*참고 : 응답자 중 ‘교회학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임)

읍/면 지역 교회 및 출석 교인 2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현장예배(공과공부도 함+공과공부 하지 않음)’와 ‘가정 예배’ 비율이 높고, 대도시 교회와 출석 교인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온라인 대체’ 비율이 높음.

자립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 비율이, 미자립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드리고 공과공부 하지 않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교회학교 운영

(Base=교회학교 있는 교회, N=786, %)





[표] 코로나19 급증기 동안 교회학교 운영

(Base=교회학교 있는 교회, N=786, %,)

구 분	사례수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도 함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되 공과 공부는 하지 않음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 배를 동시에 드리고, 학 생들이 선택 하게 함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 리도록 함	기타	계	
전 체	(786)	10.6	24.6	7.6	30.4	16.8	10.2	100.0	
성별	남자	(745)	10.4	23.6	8.0	31.3	16.4	10.4	100.0
	여자	(41)	14.0	42.1	.0	13.9	23.5	6.5	100.0
연령	49세 이하	(103)	3.3	25.1	6.7	38.1	18.1	8.7	100.0
	50대	(391)	8.3	23.0	6.1	31.9	19.7	10.9	100.0
	60세 이상	(291)	16.2	26.4	9.8	25.5	12.4	9.6	100.0
지역	서울	(109)	9.2	16.5	11.6	46.7	9.5	6.5	100.0
	인천/경기	(167)	8.4	23.5	8.8	38.1	12.6	8.6	100.0
	대전/충청	(87)	17.7	27.0	4.8	19.9	18.0	12.5	100.0
	광주/전라	(201)	12.3	27.2	9.3	19.6	22.3	9.2	100.0
	대구/경북	(116)	11.5	24.0	3.1	30.3	19.2	11.9	100.0
	부산/울산/경 남	(78)	4.0	29.8	7.2	27.8	16.9	14.3	100.0
	강원/제주/해 외	(27)	8.1	23.5	.0	37.5	16.3	14.6	100.0
지역크기	대도시	(293)	8.2	18.3	10.3	42.1	14.2	7.0	100.0
	중소도시	(223)	11.7	23.1	9.5	30.9	17.2	7.6	100.0
	읍/면	(269)	12.2	32.6	3.1	17.1	19.3	15.8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231)	13.3	40.2	3.3	15.7	17.6	10.0	100.0
	30-99명	(258)	11.8	26.0	7.9	18.7	20.8	14.9	100.0
	100-499명	(220)	8.2	13.1	10.1	46.7	14.0	7.9	100.0
	500명 이상	(77)	5.2	5.7	12.2	66.6	8.8	1.4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도 함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되 공과 공부는 하지 않음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 배를 동시에 드리고, 학 생들이 선택 하게 함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 리도록 함	기타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564)	9.4	24.0	6.6	32.7	16.9	10.6	100.0
	변화없음	(216)	13.4	26.9	10.0	23.7	17.0	9.0	100.0
	증가	(6)	21.6	.0	16.8	49.3	.0	12.3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95)	7.0	15.9	11.6	47.2	10.4	7.9	100.0
	코로나부터	(213)	4.1	13.0	9.3	48.0	18.5	7.0	100.0
	운영안함	(378)	16.0	35.5	4.5	11.7	19.1	13.1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280)	25.7	52.7	1.9	3.9	5.0	10.8	100.0
	현장+ 온라인 병행	(203)	5.5	19.0	25.9	32.4	9.1	8.2	100.0
	온라인예배	(179)	.0	.0	.4	84.9	9.6	5.1	100.0
	가정예배	(89)	.0	1.1	.0	6.4	83.1	9.3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421)	9.8	22.1	8.7	35.0	14.1	10.2	100.0
	변화없을 것	(290)	11.2	25.1	6.7	24.3	20.6	12.2	100.0
	증가예상	(39)	17.1	35.1	4.1	32.0	11.7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 려야	(585)	13.1	27.0	8.9	27.3	13.3	10.5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188)	3.5	16.8	3.8	40.8	25.7	9.3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570)	10.5	19.1	8.7	34.8	15.4	11.5	100.0
	미자립교회	(216)	10.8	39.0	4.6	18.6	20.5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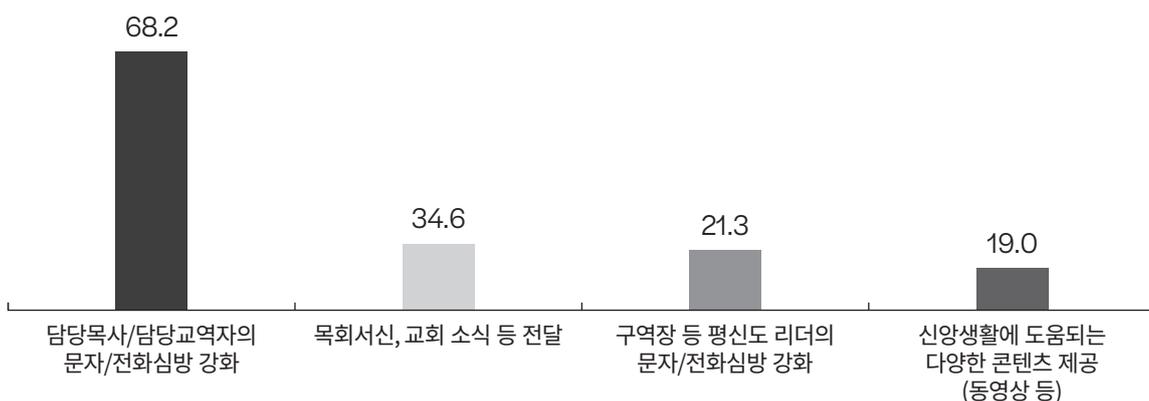
4)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에서 한 활동

· 질문: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못 오는 교인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교회에서 한 활동으로는 ‘담임목사/담당교역자의 문자/전화 심방 강화’가 68.2%로 가장 높았으며, ‘목회서신, 교회 소식 전달’ 34.6%, ‘구역장 등 평신도 리더의 문자/전화심방 강화’ 21.3%,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19.0%로 응답됨.

출석 교인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와, 코로나19 기간 중 교인들을 위한 활동은 대형교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에서 한 활동(상위 4위) (Base=전체, N=1,135, %, 중복응답)



[표]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에서 한 활동

(Base=전체, N=1,135,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명)	담임목사/ 담당 교역자의 문 자/전화 심방 강화	목회서신, 교회 소식 등 전달	구역장 등 평 신도 리더의 문자/전화 심방 강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다 양한 콘텐츠 기타 제공 (동영상 등)		
전 체	(1135)	68.2	34.6	21.3	19.0	8.7	
성별	남자	(1041)	68.2	35.0	22.5	19.7	8.1
	여자	(94)	68.4	29.4	8.1	11.6	15.7
연령	49세 이하	(143)	77.5	36.6	18.4	24.7	5.5
	50대	(551)	70.7	35.4	22.0	20.3	7.6
	60세 이상	(441)	62.1	32.9	21.3	15.6	11.1
지역	서울	(135)	71.1	44.4	32.4	25.5	6.6
	인천/경기	(236)	63.6	34.2	21.5	22.0	8.8
	대전/충청	(130)	71.4	28.1	21.9	13.0	8.4
	광주/전라	(288)	65.9	28.4	18.7	13.9	8.4
	대구/경북	(183)	66.4	39.7	19.6	18.5	11.3
	부산/울산/경남	(118)	76.4	38.7	19.2	20.2	6.9
	강원/제주/해외	(45)	75.3	33.7	14.8	33.3	10.9
지역크기	대도시	(388)	70.3	39.1	26.4	24.8	7.1
	중소도시	(318)	65.2	38.1	19.5	21.5	7.8
	읍/면	(428)	68.5	27.9	18.1	12.0	10.7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65.0	25.7	6.5	15.2	12.4
	30-99명	(351)	66.4	32.0	21.4	15.8	7.3
	100-499명	(226)	72.4	48.7	42.6	23.3	3.4
	500명 이상	(77)	84.0	60.4	50.7	44.8	6.9



구 분		사례수 (명)	담임목사/ 담당 교역자의 문 자/전화 심방 강화	목회서신, 교회 소식 등 전달	구역장 등 평 신도 리더의 문자/전화 심방 강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다 양한 콘텐츠 기타 제공 (동영상 등)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70.9	35.3	23.9	20.1	6.6
	변화없음	(342)	63.4	33.3	15.7	15.8	12.4
	증가	(12)	26.7	26.9	12.0	43.0	40.8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75.1	44.0	30.3	26.4	7.3
	코로나부터	(250)	72.1	40.2	29.0	23.1	6.0
	운영안함	(631)	63.9	28.6	14.6	14.4	10.3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64.4	25.5	14.9	11.7	11.1
	현장+온라인 병 행	(242)	70.3	38.7	29.8	24.8	5.1
	온라인예배	(220)	75.9	50.1	32.2	35.1	7.1
	가정예배	(153)	65.0	33.5	14.3	13.1	7.6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70.7	37.9	25.9	19.3	6.4
	변화없을 것	(463)	64.7	32.4	16.0	18.1	10.9
	증가예상	(60)	68.8	20.8	28.1	21.9	13.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69.1	33.7	21.1	17.2	8.8
	온라인 대체 가 능	(285)	66.1	38.2	22.7	24.0	8.2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69.7	39.1	29.4	20.9	7.9
	미자립교회	(445)	65.8	27.6	8.7	16.1	9.8

5) 코로나19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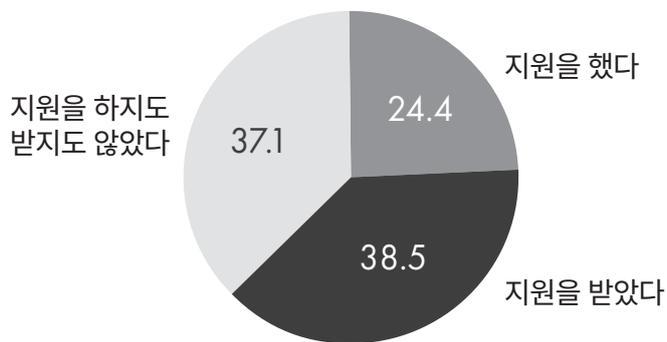
· 질문: 코로나19의 지원사업(현금/물품)과 관련 목사님 교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은 제외하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38.5%의 교회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24.4%는 ‘지원을 했다’, 37.1%는 ‘지원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응답해, 지원한 교회보다 지원받은 교회가 더 많았음.

교회 규모별로 99명 이하 교회는 지원받는 비율이 지원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100명 이상 교회는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5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대부분(82.7%)은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됨.

‘지원을 했다’는 응답률은 서울 지역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대구/경북 지역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 지원 여부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지원 여부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지원을 했다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하지도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계	
전 체	(1135)	24.4	38.5	37.1	100.0	
성별	남자	(1041)	25.4	36.1	38.4	100.0
	여자	(94)	13.0	64.5	22.5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24.6	48.5	26.9	100.0
	50대	(551)	26.5	39.7	33.8	100.0
	60세 이상	(441)	21.7	33.7	44.6	100.0
지역	서울	(135)	35.9	31.3	32.8	100.0
	인천/경기	(236)	25.9	35.2	38.9	100.0
	대전/충청	(130)	22.0	40.8	37.2	100.0
	광주/전라	(288)	21.7	39.7	38.6	100.0
	대구/경북	(183)	19.9	45.5	34.6	100.0
	부산/울산/경남	(118)	23.7	38.1	38.3	100.0
	강원/제주/해외	(45)	26.7	35.5	37.8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28.0	41.3	30.7	100.0
	중소도시	(318)	28.1	36.1	35.8	100.0
	읍/면	(428)	18.4	37.7	43.9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7.0	67.9	25.0	100.0
	30-99명	(351)	19.8	27.4	52.8	100.0
	100-499명	(226)	48.7	6.3	45.1	100.0
	500명 이상	(77)	82.7	.0	17.3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4.4	39.9	35.7	100.0
	변화없음	(342)	24.2	34.6	41.3	100.0
	증가	(12)	32.4	55.9	11.7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지원을 했다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하지도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계
				지원을 하지도 않았다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40.0	33.9	26.1	100.0
	코로나부터	(250)	30.0	31.2	38.9	100.0
	운영안함	(631)	15.9	43.2	40.9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15.8	43.8	40.4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35.2	25.8	39.0	100.0
	온라인예배	(220)	41.8	28.8	29.4	100.0
	가정예배	(153)	13.9	53.3	32.8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28.2	33.4	38.4	100.0
	변화없을 것	(463)	20.2	43.0	36.8	100.0
	증가예상	(60)	35.1	35.5	29.4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24.3	36.6	39.1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5.7	42.0	32.3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36.8	13.2	50.0	100.0
	미자립교회	(445)	5.2	77.7	17.1	100.0



5-1) 지원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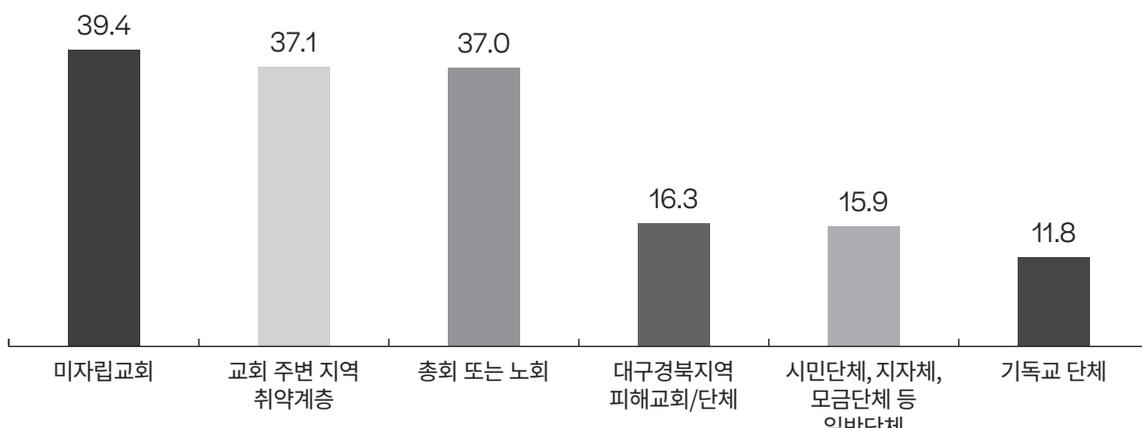
· 질문: 지원금(물품)을 어디 어디에 전달했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한 곳은 ‘미자립교회’가 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회 주변 지역 취약계층’ 37.1%, ‘총회 또는 노회’ 37.0% 등으로 나타남.

49세 이하 목회자는 ‘일반단체’에 지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지원한 곳

(Base=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한 교회, N=268, %, 중복응답)



조사 결과 분석

[표]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에서 한 활동

(Base=전체, N=1,135,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미자립 교회	교회 주변 지역 취약계층	총회 또는 노회	대구 경북지역 피해교회/단체	시민단체, 지차체, 모금단체 등 일반단체	기독교 단체	기타	
전 체	(268)	39.4	37.1	37.0	16.3	15.9	11.8	1.1	
성별	남자	(257)	40.5	37.6	36.2	16.5	16.6	11.8	1.2
	여자	(11)	13.8	26.7	55.1	11.5	.0	11.5	.0
연령	49세 이하	(34)	30.8	34.7	37.8	14.5	35.8	4.3	.0
	50대	(142)	41.8	36.9	34.9	17.2	15.5	10.9	2.1
	60세 이상	(91)	38.9	38.4	39.9	15.6	9.2	15.9	.0
지역	서울	(47)	54.8	55.0	32.4	10.7	11.1	13.7	.0
	인천/경기	(60)	36.8	41.8	36.2	19.3	17.2	10.5	.0
	대전/충청	(29)	49.0	29.9	54.4	14.6	.0	6.4	.0
	광주/전라	(60)	33.3	28.8	43.4	18.8	14.5	6.1	1.7
	대구/경북	(35)	32.1	32.7	22.4	18.9	34.1	12.9	.0
	부산/울산/경남	(26)	38.7	33.5	32.8	15.7	25.8	7.2	.0
	강원/제주/해외	(12)	23.3	23.8	36.3	8.3	.0	58.2	16.6
지역크기	대도시	(106)	47.0	43.1	36.0	19.2	11.3	9.4	.9
	중소도시	(86)	46.0	37.0	37.5	16.6	19.0	9.4	2.3
	읍/면	(77)	21.6	29.0	37.7	12.0	18.9	17.7	.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33)	9.8	24.2	37.8	10.8	4.8	23.0	.0
	30-99명	(66)	35.4	26.4	37.9	15.0	19.1	8.6	.0
	100-499명	(106)	46.1	36.0	29.9	15.0	15.6	10.6	.9
	500명 이상	(64)	47.7	56.7	47.4	22.6	18.9	11.2	3.1
교회 헌금 변화	감소	(184)	40.7	40.3	34.6	16.8	14.4	12.7	1.6
	변화없음	(80)	36.9	31.5	42.6	15.9	18.7	8.8	.0
	증가	(4)	28.1	.0	36.3	.0	35.6	28.1	.0



구 분	사례수	미자립 교회	교회 주변 지역 취약계층	총회 또는 노회	대구 경북지역 피해교회/단체	시민단체, 지차체, 모금단체 등 일반단체	기독교 단체	기타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98)	40.4	46.2	41.1	21.5	17.5	8.7	2.0
	코로나부터	(72)	41.4	38.8	35.5	17.4	19.1	11.2	.0
	운영안함	(99)	36.9	26.9	34.0	10.4	12.1	15.2	1.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69)	39.5	24.5	34.1	12.2	5.4	16.6	.0
	현장+온라인 병행	(83)	41.8	38.9	49.7	15.7	20.1	8.4	.0
	온라인예배	(89)	43.1	42.2	26.0	20.1	20.3	11.2	3.4
	가정예배	(21)	21.2	53.3	34.5	17.2	17.6	11.6	.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154)	44.3	41.9	34.8	15.0	14.1	10.9	.0
	변화없을 것	(88)	27.9	28.2	41.8	15.3	19.3	9.3	1.1
	증가예상	(21)	51.7	35.2	35.9	17.0	10.1	26.8	9.4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194)	39.6	34.8	34.2	15.1	13.1	12.0	.5
	온라인 대체 가능	(72)	38.5	41.9	44.1	19.9	23.0	11.5	2.8
자립 여부	자립교회	(246)	42.1	38.2	36.5	16.1	16.7	11.4	1.2
	미자립교회	(22)	8.7	25.4	42.9	18.9	7.0	16.1	.0

5-2) 지원받은 곳

· 질문: 목사님 교회는 어디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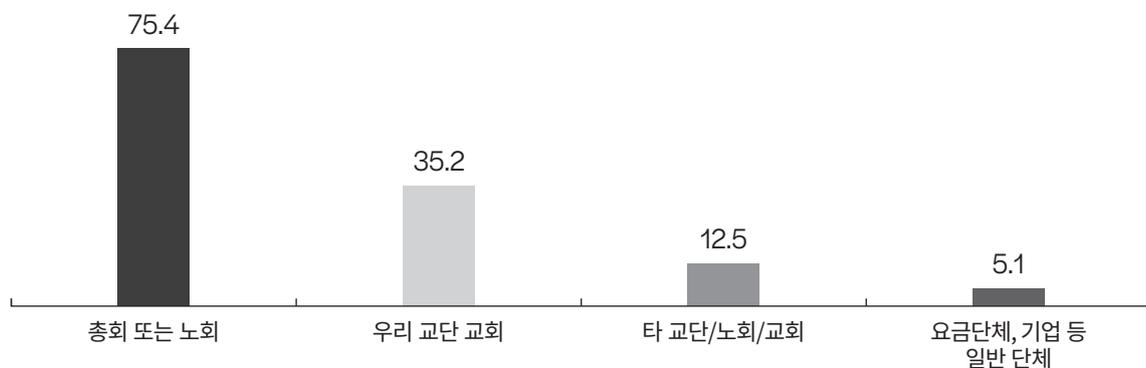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곳으로는 전체의 3/4(75.4%)이 ‘총회 또는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우리 교단 교회’ 35.2%, ‘타 교단/노회/교회’ 12.5%, ‘모금단체, 기업 등 일반단체’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타 교단/노회/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은 대구/경북 지역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자립교회는 ‘일반단체’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자립 교회는 그 외 ‘총회/노회’, ‘교단 교회’, ‘타 교단/노회/교회’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지원받은 곳

(Base=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교회, N=430, %, 중복응답)





[표] 지원받은 곳

(Base=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교회, N=430,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총회 또는 노회	우리 교단 교회	타 교단/노회/교회	모금단체, 기업 등 일반 단체	기타	
전 체	(430)	75.4	35.2	12.5	5.1	3.4	
성별	남자	(373)	76.4	34.9	11.5	5.6	4.0
	여자	(58)	68.4	37.4	19.3	2.2	.0
연령	49세 이하	(69)	78.4	35.3	12.5	3.2	1.4
	50대	(216)	75.4	35.2	15.6	5.1	4.0
	60세 이상	(145)	73.8	35.1	8.0	6.0	3.5
지역	서울	(41)	76.2	37.0	2.6	.0	2.0
	인천/경기	(81)	76.2	38.9	16.1	3.6	5.5
	대전/충청	(52)	87.5	26.6	5.5	.0	2.0
	광주/전라	(114)	76.0	34.5	9.7	5.2	5.9
	대구/경북	(81)	65.8	38.7	23.1	10.4	.0
	부산/울산/경남	(45)	77.8	29.0	13.6	8.4	.0
	강원/제주/해외	(16)	66.7	45.0	5.4	5.4	10.8
지역크기	대도시	(157)	70.8	35.4	13.7	4.6	4.0
	중소도시	(112)	81.3	39.2	14.6	3.2	3.5
	읍/면	(161)	75.7	32.2	9.9	6.9	2.8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322)	77.5	36.5	13.6	4.7	2.3
	30-99명	(95)	68.2	34.4	10.7	6.1	5.9
	100-499명	(14)	75.4	11.1	.0	6.9	12.2
교회 현금 변화	감소	(307)	75.7	34.7	11.5	5.1	3.5
	변화없음	(117)	75.1	35.1	12.7	5.3	2.6
	증가	(7)	62.8	58.1	58.1	.0	16.3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총회 또는 노회	우리 교단 교회	타 교단/ 노회/교회	모금단체, 기업 등 일반 단체	기타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85)	75.7	38.4	14.3	7.9	2.6
	코로나부터	(78)	72.3	37.0	10.6	2.9	1.9
	운영안함	(267)	76.1	33.7	12.5	4.9	4.1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201)	74.3	34.3	11.4	8.5	3.9
	현장+온라인 병행	(61)	82.7	34.6	18.2	1.2	3.0
	온라인예배	(63)	72.0	39.9	12.8	1.2	4.6
	가정예배	(77)	72.9	34.8	12.2	4.3	1.6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185)	75.2	32.2	11.1	4.9	2.6
	변화없을 것	(196)	74.2	39.6	12.3	6.0	4.2
	증가예상	(21)	82.9	42.4	32.9	.0	.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300)	76.7	32.2	12.7	4.7	3.9
	온라인 대체 가능	(117)	71.3	44.2	12.7	6.1	2.6
자립 여부	자립교회	(90)	57.6	30.5	5.4	11.5	8.4
	미자립교회	(341)	80.0	36.4	14.4	3.4	2.1



2.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변화

2-1. 재정변화

1) 계좌이체 현금 방식 이용 여부

· 질문: 목사님 교회는 계좌이체 현금 방식에 대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6%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현장 현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2.4%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 ‘22.0%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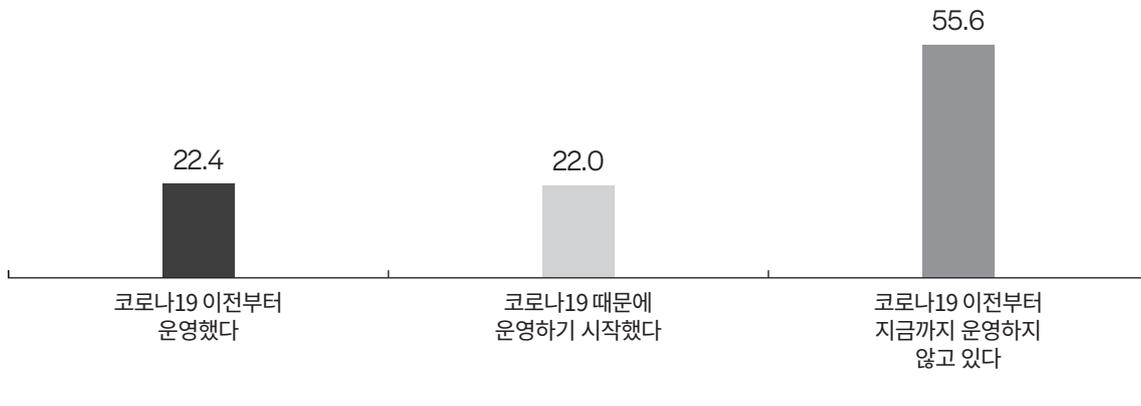
49세 이하 목회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이상 목회자는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 응답률은 서울 및 대도시 교회에서 더 높고,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음’ 응답률은 읍/면 지역 교회에서 더 높음.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 및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시작’ 응답률, 즉 계좌이체 현금 방식은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출석 교인 500명 이상 교회에서 높고,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음’ 비율은 29인 이하 교회 및 미자립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계좌이체 현금 방식 이용 여부

(Base=전체, N=1,135, %)



[표] 계좌이체 현금 방식 이용 여부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계
전 체	(1135)	22.4	22.0	55.6	100.0
성별	남자 (1041)	21.3	23.2	55.5	100.0
	여자 (94)	35.4	8.5	56.1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35.3	23.5	41.2	100.0
	50대 (551)	21.6	23.6	54.8	100.0
	60세 이상 (441)	19.3	19.5	61.1	100.0
지역	서울 (135)	40.8	27.8	31.3	100.0
	인천/경기 (236)	32.2	26.5	41.3	100.0
	대전/충청 (130)	18.4	19.9	61.6	100.0
	광주/전라 (288)	12.7	19.0	68.3	100.0
	대구/경북 (183)	17.7	19.0	63.3	100.0
	부산/울산/경남 (118)	21.4	24.8	53.8	100.0
	강원/제주/해외 (45)	11.9	10.9	77.2	100.0



구 분	사례수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계	
지역크기	대도시	(388)	30.2	31.0	38.9	100.0
	중소도시	(318)	24.5	23.3	52.2	100.0
	읍/면	(428)	13.9	12.9	73.2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20.1	12.9	67.1	100.0
	30-99명	(351)	17.3	20.2	62.4	100.0
	100-499명	(226)	27.1	36.0	36.9	100.0
	500명 이상	(77)	46.9	45.9	7.2	100.0
교회 현금 변화	감소	(781)	23.3	24.0	52.7	100.0
	변화없음	(342)	19.9	17.9	62.2	100.0
	증가	(12)	39.0	10.1	50.9	100.0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100.0	.0	.0	100.0
	코로나부터	(250)	.0	100.0	.0	100.0
	운영안함	(631)	.0	.0	100.0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16.5	6.1	77.4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30.7	35.9	33.3	100.0
	온라인예배	(220)	34.4	41.0	24.6	100.0
	가정예배	(153)	13.7	23.8	62.5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22.8	28.0	49.1	100.0
	변화없을 것	(463)	21.0	15.6	63.4	100.0
	증가예상	(60)	25.7	19.2	55.1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20.6	21.2	58.2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8.6	24.3	47.1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23.9	27.2	49.0	100.0
	미자립교회	(445)	20.2	14.0	65.8	100.0

2) 헌금 변화여부

· 질문: 목사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헌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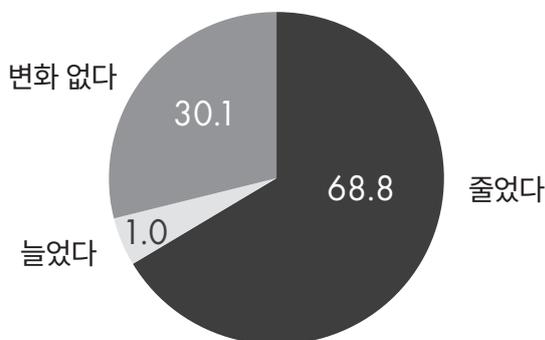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헌금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8.8%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30.1%는 변화없다’고 응답함.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함.

‘줄었다’는 비율은 도시지역 교회와 500명 이상 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계좌이체 헌금 방식을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한 교회에서 ‘줄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좌이체 헌금 비운영’ 교회에서 ‘변화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코로나19 급증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교회, 즉 온라인을 활용한 교회에서 ‘줄었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장예배와 가정예배를 한 교회에서는 ‘변화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헌금 변화여부 (Base=전체, N=1,135, %)





[표] 헌금 변화여부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줄었다	변화 없다	늘었다	계
전 체	(1135)	68.8	30.1	1.0	100.0
성별	남자	(1041) 69.6	29.7	.7	100.0
	여자	(94) 60.3	35.1	4.6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74.9	24.2	.9	100.0
	50대	(551) 70.4	28.5	1.2	100.0
	60세 이상	(441) 65.0	34.2	.9	100.0
지역	서울	(135) 73.1	25.4	1.5	100.0
	인천/경기	(236) 68.4	30.7	.9	100.0
	대전/충청	(130) 72.4	26.6	1.1	100.0
	광주/전라	(288) 68.3	31.3	.4	100.0
	대구/경북	(183) 68.2	29.2	2.7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65.9	34.1	.0	100.0
	강원/제주/ 해외	(45) 62.4	37.6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73.2	25.1	1.7	100.0
	중소도시	(318) 70.3	28.7	1.0	100.0
	읍/면	(428) 63.7	35.8	.5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66.3	32.1	1.6	100.0
	30-99명	(351) 64.5	34.6	.9	100.0
	100-499명	(226) 74.6	25.1	.4	100.0
	500명 이상	(77) 87.5	12.5	.0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100.0	.0	.0	100.0
	변화없음	(342) .0	100.0	.0	100.0
	증가	(12) .0	.0	100.0	100.0

조사 결과 분석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71.5	26.7	1.8	100.0
	코로나부터	(250)	75.0	24.6	.5	100.0
	운영안함	(631)	65.3	33.7	.9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64.9	34.1	1.0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73.3	26.2	.4	100.0
	온라인예배	(220)	75.0	23.9	1.2	100.0
	가정예배	(153)	67.4	30.7	1.9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86.3	13.4	.4	100.0
	변화없을 것	(463)	49.8	49.1	1.2	100.0
	증가예상	(60)	49.1	43.7	7.2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69.4	29.7	.9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66.5	31.9	1.6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66.6	32.8	.7	100.0
	미자립교회	(445)	72.4	26.0	1.6	100.0



2-1) 헌금 감소 비율

· 질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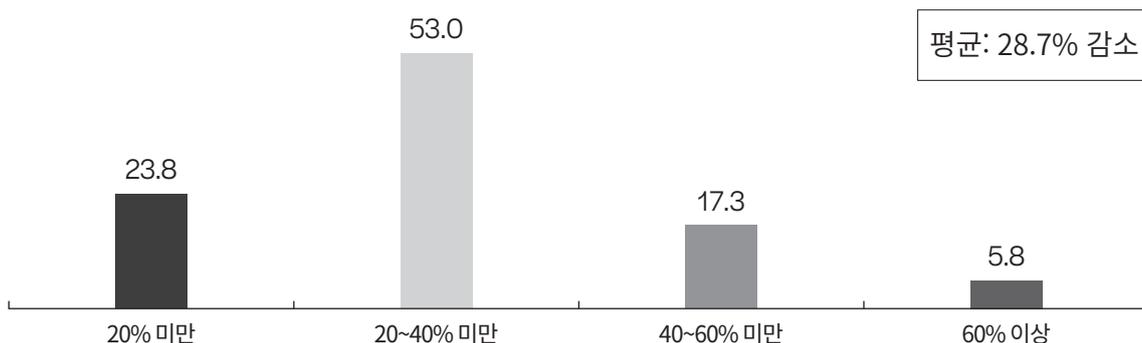
헌금이 줄었다는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한 결과, ‘20~40%미만’이 53.0%로 가장 많음. ‘20% 미만’은 23.8%, ‘40~60% 미만’은 17.3%, ‘60% 이상’은 5.8%로, 평균 감소 비율은 28.7%로 나타남.

감소 비율은 49세 이하 목회자 교회 및 대도시 교회, 출석교인 99명 이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계좌이체 헌금 방식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에서 평균 감소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남.

또한 자립교회보다 미자립교회에서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 헌금 감소 비율

(Base=헌금 감소 교회, N=781, %)



조사 결과 분석

[표] 헌금 감소 비율

(Base=헌금 감소 교회, N=781, %)

구 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계	[평균 : %]	
전 체	(781)	23.8	53.0	17.3	5.8	100.0	28.7	
성별	남자	(725)	24.3	53.8	16.8	5.1	100.0	28.1
	여자	(57)	16.9	42.6	24.8	15.7	100.0	36.8
연령	49세 이하	(107)	18.3	55.4	16.9	9.5	100.0	30.8
	50대	(388)	27.2	49.8	16.6	6.5	100.0	28.6
	60세 이상	(286)	21.3	56.6	18.5	3.6	100.0	28.1
지역	서울	(99)	26.3	56.6	12.0	5.1	100.0	27.3
	인천/경기	(161)	25.4	46.1	20.8	7.7	100.0	30.6
	대전/충청	(94)	21.3	57.5	18.3	2.9	100.0	27.2
	광주/전라	(197)	23.3	54.4	17.5	4.8	100.0	28.3
	대구/경북	(125)	28.8	50.3	13.5	7.4	100.0	27.7
	부산/울산/경남	(78)	18.7	49.3	23.2	8.8	100.0	31.2
	강원/제주/해외	(28)	9.5	77.7	12.8	.0	100.0	28.1
지역크기	대도시	(284)	25.0	49.7	18.6	6.7	100.0	29.6
	중소도시	(224)	24.3	50.3	18.9	6.5	100.0	28.9
	읍/면	(273)	22.1	58.7	14.7	4.5	100.0	27.7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319)	19.7	45.7	24.7	10.0	100.0	33.4
	30-99명	(226)	18.9	61.6	15.2	4.3	100.0	28.2
	100-499명	(168)	30.4	56.5	11.2	1.9	100.0	23.8
	500명 이상	(67)	42.9	50.5	5.0	1.6	100.0	20.5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3.8	53.0	17.3	5.8	100.0	28.7



구 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계	[평균 : %]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82)	26.5	50.5	17.6	5.4	100.0	27.5
	코로나부터	(187)	24.4	54.2	15.4	6.1	100.0	28.9
	운영안함	(412)	22.3	53.6	18.1	5.9	100.0	29.2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299)	25.3	52.2	18.0	4.5	100.0	27.4
	현장+온라인 병행	(178)	26.3	53.6	14.9	5.2	100.0	27.4
	온라인예배	(165)	27.2	50.7	17.3	4.7	100.0	28.1
	가정예배	(103)	14.1	52.7	22.6	10.6	100.0	34.6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482)	20.2	54.9	18.5	6.5	100.0	30.0
	변화없을 것	(231)	30.0	49.6	15.8	4.6	100.0	26.7
	증가예상	(30)	37.7	42.8	16.2	3.4	100.0	24.2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577)	24.4	53.9	17.0	4.7	100.0	27.8
	온라인 대체 가능	(189)	21.5	51.7	17.9	8.9	100.0	31.4
자립 여부	자립교회	(460)	28.7	56.7	11.6	3.0	100.0	24.8
	미자립교회	(322)	16.8	47.8	25.5	9.9	100.0	34.2

2-2) 헌금 증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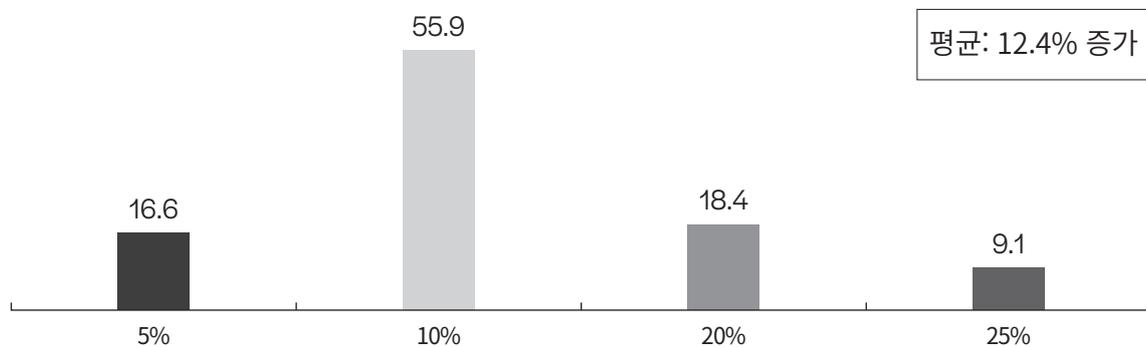
· 질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헌금이 늘었다는 교회를 대상으로 증가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 증가’했다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 증가’는 18.4%, ‘5% 증가’ 16.6%, ‘25% 증가’ 9.1%로, 평균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헌금 증가 교회는 사례수가 12로 매우 적으므로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하지 않음)

[그림] 헌금 증가 비율

(Base=헌금 증가 교회, N=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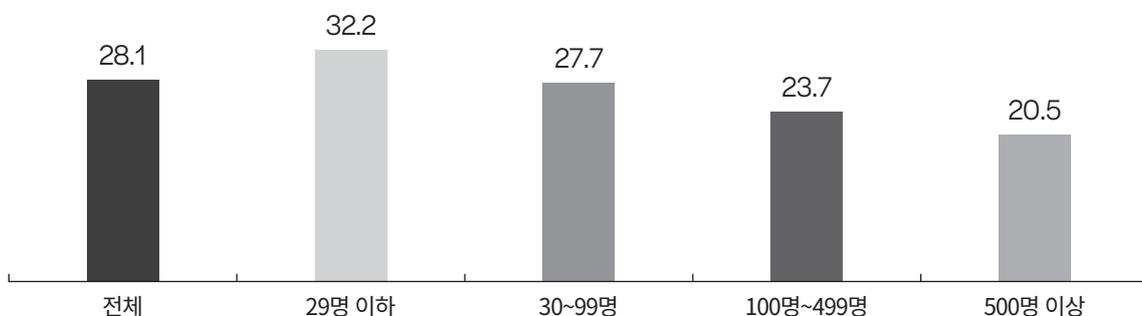


종합 감소율(‘총 감소율 - 총 증가율’의 평균)은 28.1%로 집계됐는데, 교회 규모별로, ‘29명 이하’ 32.2%, ‘30~99명’ 27.7%, ‘100~499명’ 23.7%, ‘500명 이상’ 20.5%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헌금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그림] 종합 감소율(교회 규모별)

(Base=전체, N=1,135, %)



[표] 헌금 증가 비율

(Base=헌금 증가 교회, N=12, %)

구 분	사례수	5%	10%	20%	25%	계	[평균 : %]	
전 체	(12)	16.6	55.9	18.4	9.1	100.0	12.4	
성별	남자	(7)	26.2	30.4	29.0	14.4	100.0	13.7
	여자	(4)	.0	100.0	.0	.0	100.0	10.0
연령	49세 이하	(1)	40.7	.0	59.3	.0	100.0	13.9
	50대	(7)	21.4	62.4	.0	16.2	100.0	11.4
	60세 이상	(4)	.0	64.0	36.0	.0	100.0	13.6
지역	서울	(2)	25.6	74.4	.0	.0	100.0	8.7
	인천/경기	(2)	.0	50.0	.0	50.0	100.0	17.5
	대전/충청	(1)	43.3	.0	56.7	.0	100.0	13.5
	광주/전라	(1)	.0	100.0	.0	.0	100.0	10.0
	대구/경북	(5)	16.5	55.6	27.8	.0	100.0	12.0
지역크기	대도시	(6)	17.4	66.2	.0	16.4	100.0	11.6
	중소도시	(3)	26.6	73.4	.0	.0	100.0	8.7
	읍/면	(2)	.0	.0	100.0	.0	100.0	2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5%	10%	20%	25%	계	[평균 : %]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8)	.0	68.8	17.6	13.7	100.0	13.8
	30-99명	(3)	36.5	38.3	25.2	.0	100.0	10.7
	100-499명	(1)	100.0	.0	.0	.0	100.0	5.0
교회 헌금 변화	증가	(12)	16.6	55.9	18.4	9.1	100.0	12.4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5)	42.6	34.1	.0	23.3	100.0	11.4
	코로나부터	(1)	.0	100.0	.0	.0	100.0	10.0
	운영안함	(6)	.0	63.9	36.1	.0	100.0	13.6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5)	.0	53.1	46.9	.0	100.0	14.7
	현장+온라인 병행	(1)	.0	.0	.0	100.0	100.0	25.0
	온라인예배	(3)	54.3	45.7	.0	.0	100.0	7.3
	가정예배	(3)	.0	100.0	.0	.0	100.0	1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2)	.0	60.3	39.7	.0	100.0	14.0
	변화없을 것	(5)	26.1	54.2	.0	19.7	100.0	11.7
	증가예상	(4)	12.3	56.1	31.6	.0	100.0	12.5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7)	.0	69.9	30.1	.0	100.0	13.0
	온라인 대체 가능	(5)	42.6	34.1	.0	23.3	100.0	11.4
자립 여부	자립교회	(5)	30.5	23.0	46.5	.0	100.0	13.1
	미자립교회	(7)	7.6	77.4	.0	15.0	100.0	11.9



3) 재정 우선 조정 순위(재정 감소 교회)

· 질문: 교회의 재정이 줄었다면 다음 중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서대로 2개만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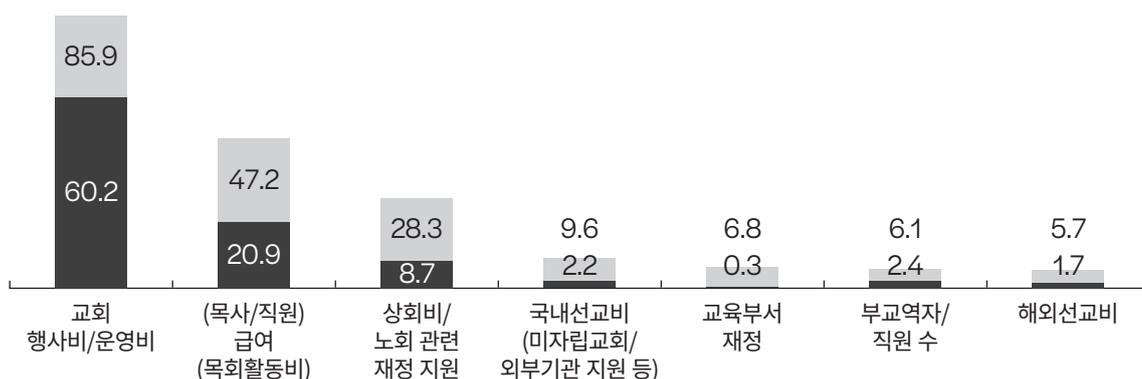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의 재정이 줄었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 ‘교회 행사비/운영비’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목사/직원)급여(목회활동비)’ 20.9%, ‘상회비/노회 관련 재정 지원’ 8.7% 등의 순으로 국내외 선교비와 교육부 재정은 매우 낮아 이들 비용은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임.

1순위 결과 기준, 49세 이하 목회자는 ‘교회 행사비/운영비’를 조정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및 60대 이상 목회자는 ‘급여’를 조정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출석 교인 500명 이상 교회 및 자립교회에서는 ‘교회 행사비/운영비’ 응답률이 높고, 29명 이하 교회 및 미자립교회에서는 ‘급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재정 우선 조정 순위(재정 감소 교회)

(Base=헌금 감소 교회, N=781, %)



[표] 재정 우선 조정 순위(재정 감소 교회) - 1순위

(Base=헌금 감소 교회, N=781, %)

구 분	사례수	교회 행사비/ 운영비	(목사/ 직원) 급여 (목회 활동비)	상회비/ 노회 관련 재정 지원	부교 역자/ 직원 수	국내 선교비 (미자립 교회/ 외부기관 지원 등)	해외 선교비	교육 부서 재정	기타	계	
전 체	(781)	60.2	20.9	8.7	2.4	2.2	1.7	.3	3.6	100.0	
성별	남자	(725)	61.2	20.1	8.7	2.5	1.9	1.4	.3	3.9	100.0
	여자	(57)	48.2	30.4	8.4	1.4	6.1	5.5	.0	.0	100.0
연령	49세 이하	(107)	69.0	18.9	4.9	1.3	1.3	2.9	.0	1.6	100.0
	50대	(388)	58.1	21.7	10.3	2.1	1.5	1.3	.2	4.9	100.0
	60세 이상	(286)	59.9	20.5	7.8	3.3	3.4	1.9	.6	2.6	100.0
지역	서울	(99)	61.3	17.5	5.7	4.8	2.4	3.7	.8	3.8	100.0
	인천/경기	(161)	54.3	27.1	6.7	1.8	3.6	.7	.0	5.8	100.0
	대전/충청	(94)	59.2	24.0	6.9	2.3	3.1	.7	.6	3.2	100.0
	광주/전라	(197)	61.8	19.1	10.7	2.6	.6	1.2	.0	4.0	100.0
	대구/경북	(125)	67.8	17.3	9.4	.6	1.3	2.3	.6	.7	100.0
	부산/울산/ 경남	(78)	51.2	21.8	13.6	3.6	3.8	1.4	.0	4.7	100.0
	강원/제주/ 해외	(28)	74.6	12.3	4.9	1.8	.0	6.4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284)	57.2	22.1	7.7	3.6	2.1	3.2	.3	3.8	100.0
	중소도시	(224)	60.5	22.1	7.0	2.3	3.5	.8	.3	3.7	100.0
	읍/면	(273)	63.2	18.7	11.1	1.4	1.2	.9	.3	3.3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319)	53.5	32.7	6.8	.4	2.2	1.7	.0	2.6	100.0
	30-99명	(226)	58.8	21.0	10.3	2.7	2.5	1.7	1.0	2.1	100.0
	100-499명	(168)	67.6	5.6	11.6	5.8	1.9	1.1	.0	6.5	100.0
	500명 이상	(67)	78.5	2.7	4.7	2.7	1.6	3.5	.0	6.3	100.0



구 분	사례수	교회 행사비/ 운영비	(목사/ 직원) 급여 (목회 활동비)	상회비/ 노회 관련 재정 지원	부교역자/ 직원 수	국내 선교비 (미자립 교회/ 외부기관 지원 등)	해외 선교비	교육 부서 재정	기타	계	
교회 현금 변화	감소	(781)	60.2	20.9	8.7	2.4	2.2	1.7	.3	3.6	100.0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82)	62.3	22.8	4.1	3.2	3.0	1.8	.0	2.8	100.0
	코로나부터	(187)	62.5	17.0	7.3	4.3	2.0	2.6	.8	3.6	100.0
	운영안함	(412)	58.3	21.8	11.3	1.3	1.9	1.3	.2	4.0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299)	57.1	24.3	10.2	1.2	2.5	1.9	.0	2.8	100.0
	현장+ 온라인 병행	(178)	59.3	19.8	7.9	5.9	2.1	1.0	.3	3.7	100.0
	온라인예배	(165)	68.5	14.1	4.7	.9	3.5	3.0	.0	5.4	100.0
	가정예배	(103)	61.7	23.9	8.4	.8	.0	1.0	1.5	2.7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482)	58.8	20.0	9.5	3.4	3.4	1.1	.3	3.5	100.0
	변화 없을 것	(231)	62.1	21.7	7.5	.8	.3	3.5	.3	3.7	100.0
	증가예상	(30)	71.2	21.2	.0	.0	.0	.0	.0	7.5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577)	61.6	19.7	8.3	2.3	2.2	1.3	.2	4.3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189)	55.8	24.5	9.5	3.0	1.9	3.0	.4	1.9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460)	64.0	14.1	9.4	3.9	2.0	2.0	.5	4.1	100.0
	미자립교회	(322)	54.8	30.6	7.7	.4	2.3	1.3	.0	2.9	100.0

[표] 재정 우선 조정 순위(재정 감소 교회) - 1+2순위 (Base=헌금 감소 교회, N=781, %)

구 분	사례수	교회 행사비/ 운영비	(목사/ 직원) 급여 (목회 활동비)	상회비/ 노회 관련 재정 지원	국내 선교비 (미자립 교회/ 외부기관 지원 등)	교육 부서 재정	부교 역자/ 직원 수	해외 선교비	기타	
전 체	(781)	85.9	47.2	28.3	9.6	6.8	6.1	5.7	10.5	
성별	남자	(725)	86.7	46.0	28.8	9.4	6.9	6.0	5.2	11.1
	여자	(57)	76.2	62.5	21.8	11.3	5.5	7.1	12.0	3.6
연령	49세 이하	(107)	92.2	49.3	27.9	4.0	6.9	5.1	6.1	8.4
	50대	(388)	86.0	46.2	30.0	8.5	6.7	6.1	4.4	12.2
	60세 이상	(286)	83.4	47.9	26.0	13.1	6.9	6.4	7.1	9.1
지역	서울	(99)	87.6	35.5	28.4	10.6	6.2	11.9	9.9	9.9
	인천/경기	(161)	82.3	53.8	29.4	10.3	4.8	5.5	2.9	11.0
	대전/충청	(94)	85.8	50.5	22.4	7.6	9.7	7.9	5.8	10.2
	광주/전라	(197)	86.4	48.9	28.2	8.4	6.7	4.9	5.6	10.9
	대구/경북	(125)	88.3	45.2	33.5	9.7	8.3	3.6	5.9	5.6
	부산/울산/ 경남	(78)	85.4	48.4	29.3	12.0	4.7	6.1	4.5	9.6
	강원/제주/ 해외	(28)	88.7	33.8	15.4	9.5	9.5	1.8	8.2	33.1
지역크기	대도시	(284)	84.6	46.7	26.0	10.4	5.4	8.9	8.3	9.7
	중소도시	(224)	85.4	50.0	30.5	8.8	6.9	6.4	2.7	9.1
	읍/면	(273)	87.7	45.5	28.8	9.4	8.1	2.8	5.3	12.6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319)	85.5	68.0	20.3	6.2	5.1	2.9	5.4	6.6
	30-99명	(226)	83.4	50.2	25.2	13.4	8.9	5.9	6.1	6.9
	100-499명	(168)	86.2	20.0	36.7	12.1	6.5	13.0	6.4	19.0
	500명 이상	(67)	95.6	7.1	55.4	6.0	8.4	4.1	3.5	19.9



구분	사례수	교회 행사비/ 운영비	(목사/ 직원) 급여 (목회 활동비)	상회비/ 노회 관련 재정 지원	국내 선교비 (미자립 교회/ 외부기관 지원 등)	교육 부서 재정	부교역자/ 직원 수	해외 선교비	기타	
교회 현금 변화	감소	(781)	85.9	47.2	28.3	9.6	6.8	6.1	5.7	10.5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82)	88.2	42.9	30.0	9.1	8.5	8.3	6.1	7.1
	코로나부터	(187)	84.0	35.2	35.0	9.4	7.5	10.7	6.0	12.2
	운영안함	(412)	85.8	54.6	24.4	9.9	5.7	3.0	5.3	11.3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299)	83.6	55.1	24.5	9.4	8.9	4.3	5.6	8.7
	현장+ 온라인 병행	(178)	84.4	41.0	31.5	12.2	6.1	10.6	5.0	9.2
	온라인예배	(165)	91.9	37.0	30.6	9.1	6.4	5.3	5.7	14.1
	가정예배	(103)	87.2	51.7	29.0	6.8	4.2	2.9	6.8	11.3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482)	85.6	43.0	29.4	12.7	6.8	7.2	5.9	9.3
	변화없을 것	(231)	86.2	53.6	27.1	4.7	7.3	4.6	5.0	11.6
	증가예상	(30)	85.0	55.8	18.3	3.4	3.5	2.2	4.2	27.6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577)	87.0	45.5	28.2	9.9	7.5	5.9	4.4	11.6
	온라인 대체 가능	(189)	83.9	50.6	28.7	7.1	5.2	7.0	9.5	8.0
자립 여부	자립교회	(460)	87.1	33.4	33.7	10.3	7.8	8.7	6.1	13.1
	미자립교회	(322)	84.2	67.0	20.6	8.5	5.4	2.4	5.0	6.9

2-2. 예배 참석 교인 수 변화

- 질문: 목사님 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참석인원(장년기준)은 다음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코로나19 이전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음 각 시기별 참석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예배 참석 교인 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의 출석 교인을 100으로 가정 후, 코로나19 급증 시기 및 5월 24일(조사 직전 주일)의 출석 교인 수를 응답받음. 그 결과, 코로나 급증 시기의 출석 비율은 평균 42.4로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으며, 5월 24일의 출석 비율은 평균 61.8로 코로나19 급증 시기보다 약20% 가량 회복됐으나(19.3% 증가) 코로나 19 이전의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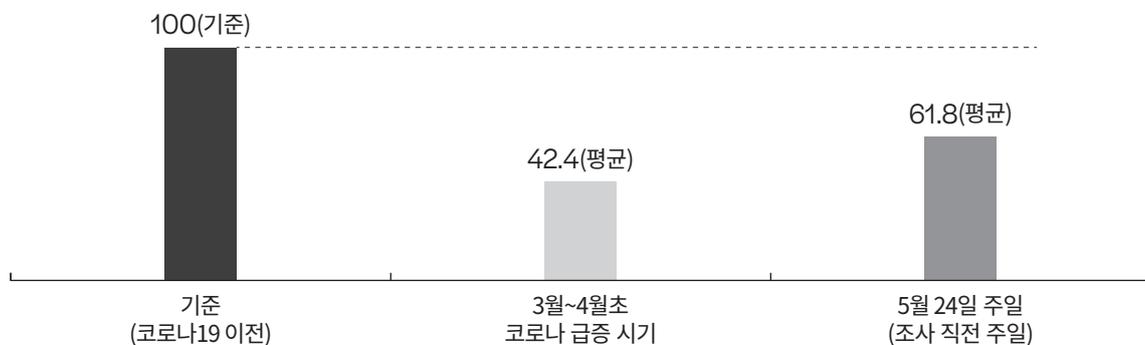
코로나19 급증 시기의 출석 비율은 49세 이하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5월 24일 출석 비율은 49세 이하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즉, 젊은 목회자의 교회에서 현장 예배 참석 회복율이 더 빠른 것으로 보임.

5월 24일 출석 비율은 읍/면 지역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100~499명의 중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중형 교회의 출석 교인 회복율이 보다 빠른 것으로 보임. 반면, 29명 이하 소형교회와 500명 이상 대형교회의 경우 출석률이 각각 56.1%와 56.3%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 것으로 분석됨.



[그림] 예배 참석 교인 수 변화

(Base=전체, N=1,135, %)



[표] 예배 참석 교인 수 변화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3월~4월초 코로나19 급증 시기 출석 교인(평균)	5월 24일 주일(조사 직전 주일) 출석 교인(평균)	
전체	(1135)	42.4	61.8	
성별	남자	(1041)	42.9	62.7
	여자	(94)	37.0	51.9
연령	49세 이하	(143)	34.2	64.1
	50대	(551)	41.0	62.4
	60세 이상	(441)	46.8	60.4
지역	서울	(135)	40.3	62.4
	인천/경기	(236)	41.2	57.1
	대전/충청	(130)	46.0	60.0
	광주/전라	(288)	45.9	65.0
	대구/경북	(183)	40.7	62.8
	부산/울산/경남	(118)	34.9	59.6
	강원/제주/해외	(45)	48.2	71.3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3월~4월초 코로나19 급증 시기 출석 교인(평균)	5월 24일 주일(조사 직전 주일) 출석 교인(평균)
지역크기	대도시 (388)	38.3	61.7
	중소도시 (318)	40.9	59.8
	읍/면 (428)	47.1	63.5
교회 규모(장년출석)	29명이하 (481)	43.0	56.1
	30-99명 (351)	47.5	65.9
	100-499명 (226)	39.3	69.8
	500명 이상 (77)	21.8	56.3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38.2	58.8
	변화없음 (342)	51.5	68.4
	증가 (12)	50.1	66.4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38.0	61.7
	코로나부터 (250)	33.8	61.3
	운영안함 (631)	47.5	62.1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53.3	60.9
	현장+온라인 병행 (242)	40.5	61.5
	온라인예배 (220)	24.5	62.4
	가정예배 (153)	38.7	63.1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37.2	57.9
	변화없을 것 (463)	48.2	67.8
	증가예상 (60)	47.5	62.1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831)	44.5	62.5
	온라인 대체 가능 (285)	37.5	61.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42.5	65.3
	미자립교회 (445)	42.2	56.7



2-3. 온라인 예배 관련 변화

1) 주일 예배 시 온라인 운영 여부 변화

· 질문: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그럼 현재 목사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예배 시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72.7%로, 10개 중 3개의 교회 정도만이 온라인을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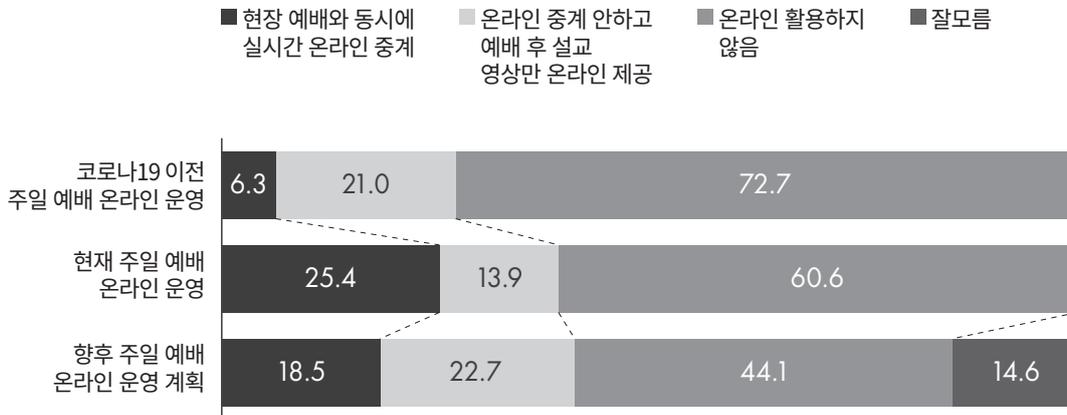
현재는 주일 예배 시 ‘현장 예배 동시 온라인 중계’를 하는 비율이 25.4%, ‘설교 영상만 제공’하는 비율이 13.9%, ‘온라인 활용하지 않음’이 60.6%로 온라인 동시 중계 비율이 약 4배 가량 늘어남. 온라인 비활용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2.1%p 감소함.

향후 온라인 운영 계획은 ‘현장 예배 동시 온라인 중계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18.5%, ‘설교 영상만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이 22.7%, ‘활용하지 않을 것’이 44.1%로, 현재에 비해 온라인 동시 중계 의향은 줄어들고, 설교 영상 제공 의향은 늘어남.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교회 중 81.0%는 여전히 현재도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코로나19 이전에 설교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교회 중 코로나 이후에 실시간 중계로 전환하겠다는 교회는 24.7%로 4개 교회 중 1개 교회 꼴이며,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을 아예 활용 안한 교회 중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활용하겠다는 교회는 22.%로 5개 교회 중 1개 이상임.

[그림] 주일 예배 시 온라인 운영 여부

(Base=전체, N=1,135, %)



[표] 예배 참석 교인 수 변화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한다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계
전체	(1135)	25.4	13.9	60.6	100.0
성별	남자 (1041)	26.7	14.0	59.3	100.0
	여자 (94)	11.5	13.4	75.1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33.7	13.5	52.9	100.0
	50대 (551)	27.3	14.0	58.6	100.0
	60세 이상 (441)	20.3	14.0	65.6	100.0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한다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계	
지역	서울	(135)	41.8	18.6	39.6	100.0
	인천/경기	(236)	32.6	15.4	52.0	100.0
	대전/충청	(130)	20.4	10.5	69.1	100.0
	광주/전라	(288)	19.2	8.6	72.1	100.0
	대구/경북	(183)	19.3	16.8	64.0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24.2	16.6	59.2	100.0
	강원/제주/ 해외	(45)	21.4	17.7	60.9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37.7	17.1	45.2	100.0
	중소도시	(318)	28.5	16.0	55.5	100.0
	읍/면	(428)	12.0	9.6	78.4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12.4	8.6	79.0	100.0
	30-99명	(351)	20.3	14.9	64.8	100.0
	100-499명	(226)	43.7	22.1	34.2	100.0
	500명 이상	(77)	76.5	19.0	4.5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7.6	15.7	56.8	100.0
	변화없음	(342)	20.2	10.5	69.3	100.0
	증가	(12)	35.8	.0	64.2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45.2	17.2	37.6	100.0
	코로나부터	(250)	44.1	24.3	31.6	100.0
	운영안함	(631)	10.1	8.5	81.4	100.0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한다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계
코로나19 이전 주일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중계 (71)	100.0	.0	.0	100.0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 (239)	50.3	41.3	8.4	100.0
	온라인을 활용 안함 (825)	11.8	7.2	81.0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3.3	9.7	87.0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59.3	19.3	21.4	100.0
	온라인예배 (220)	54.3	22.0	23.7	100.0
	가정예배 (153)	3.8	10.0	86.1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31.9	18.4	49.7	100.0
	변화없을 것 (463)	18.2	9.0	72.8	100.0
	증가예상 (60)	27.2	9.4	63.4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24.3	14.1	61.6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9.5	14.5	56.0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33.3	17.2	49.5	100.0
	미자립교회 (445)	13.2	9.0	77.8	100.0



[표] 앞으로의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 계획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할 것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할 것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것	아직 잘 모름	계	
전 체	(1135)	18.5	22.7	44.1	14.6	100.0	
성별	남자	(1041)	18.6	23.3	44.3	13.8	100.0
	여자	(94)	17.8	16.0	42.3	24.0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24.3	25.3	36.9	13.4	100.0
	50대	(551)	17.9	24.1	42.5	15.5	100.0
	60세 이상	(441)	17.5	20.0	48.6	13.9	100.0
지역	서울	(135)	28.8	33.1	20.2	17.9	100.0
	인천/경기	(236)	22.5	27.3	37.1	13.1	100.0
	대전/충청	(130)	14.8	16.7	55.6	12.8	100.0
	광주/전라	(288)	15.5	18.1	52.2	14.1	100.0
	대구/경북	(183)	12.7	22.5	49.4	15.4	100.0
	부산/울산/경남	(118)	20.0	19.5	46.3	14.1	100.0
	강원/제주/해외	(45)	16.7	22.9	40.6	19.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26.5	28.4	29.3	15.8	100.0
	중소도시	(318)	20.2	24.7	41.7	13.4	100.0
	읍/면	(428)	10.1	16.0	59.5	14.4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13.3	12.6	54.3	19.7	100.0
	30-99명	(351)	16.1	20.5	48.3	15.1	100.0
	100-499명	(226)	25.0	37.8	29.7	7.5	100.0
	500명 이상	(77)	43.5	51.0	4.1	1.4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할 것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할 것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것	아직 잘 모름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19.6	25.2	40.0	15.1	100.0
	변화없음	(342)	15.8	17.1	54.0	13.1	100.0
	증가	(12)	25.7	19.2	30.1	25.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255)	31.0	32.7	23.4	12.8	100.0
	코로나부터	(250)	26.6	37.2	24.0	12.1	100.0
	운영안함	(631)	10.3	12.9	60.5	16.4	100.0
코로나19 이전 주일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중계	(71)	100.0	.0	.0	.0	100.0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	(239)	24.7	64.0	5.0	6.3	100.0
	온라인을 활용 안함	(825)	9.8	12.7	59.3	18.3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6.4	13.4	66.6	13.6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41.2	33.8	17.0	7.9	100.0
	온라인예배	(220)	31.4	39.7	17.3	11.6	100.0
	가정예배	(153)	4.1	13.9	53.1	28.8	100.0
현재 주일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중계	(289)	59.2	29.7	6.4	4.6	100.0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	(158)	9.1	75.9	6.3	8.6	100.0
	온라인을 활용 안함	(688)	3.6	7.5	68.7	20.2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22.2	27.5	34.2	16.1	100.0
	변화없을 것	(463)	13.1	17.5	57.2	12.2	100.0
	증가예상	(60)	23.6	19.1	45.7	11.7	100.0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할 것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할 것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것	아직 잘 모름	계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16.2	23.4	48.3	12.1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6.6	21.1	32.9	19.4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21.1	29.7	38.0	11.2	100.0
	미자립교회	(445)	14.6	11.8	53.6	1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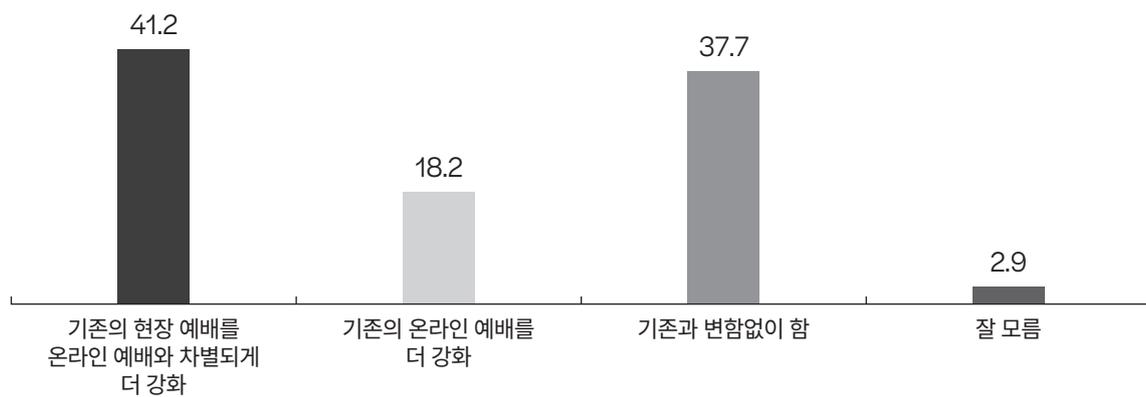
2) 앞으로의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 계획 (코로나19 이전 실시간 온라인 중계 한 교회)

· 질문: 앞으로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코로나19 이전에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한 교회(71명)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주일 예배 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41.2%가 ‘기존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게 더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기존과 변화없이 할 것’이 37.7%, ‘기존의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할 것’은 18.2%로 응답됨. 이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이용한 교회도 현재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할 계획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총 사례수 71로 각 변인별 사례수가 적어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하지 않음)

[그림] 앞으로의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 계획(코로나19 이전 실시간 온라인 중계 한 교회)

(Base=코로나19 이전 온라인 중계 함, N=71, %)





[표] 앞으로의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 계획(코로나19 이전 실시간 온라인 중계 한 교회)

(Base=코로나19 이전 온라인 중계 함, N=71, %)

구 분	사례수	기존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게 더 강화		기존의 온라인 예배 를 더 강화	기존과 변함 없이 하겠다	잘 모르겠다	계
		41.2	18.2				
전 체	(71)	41.2	18.2	37.7	2.9	100.0	
성별	남자	(70)	40.3	18.5	38.3	3.0	100.0
	여자	(1)	100.0	.0	.0	.0	100.0
연령	49세 이하	(8)	55.5	.0	44.5	.0	100.0
	50대	(27)	32.9	18.6	48.5	.0	100.0
	60세 이상	(35)	44.2	22.2	27.7	5.9	100.0
지역	서울	(9)	64.3	.0	35.7	.0	100.0
	인천/경기	(18)	47.8	17.7	28.6	5.9	100.0
	대전/충청	(5)	66.6	21.4	12.1	.0	100.0
	광주/전라	(14)	41.6	22.9	35.5	.0	100.0
	대구/경북	(13)	19.0	15.8	65.2	.0	100.0
	부산/울산/경남	(7)	29.4	43.0	27.6	.0	100.0
	강원/제주/해외	(5)	21.4	10.7	46.4	21.4	100.0
지역크기	대도시	(29)	44.6	18.0	37.4	.0	100.0
	중소도시	(22)	46.5	25.4	23.1	4.9	100.0
	읍/면	(20)	30.4	10.9	53.8	5.0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기존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게 더 강화		기존의 온라인 예배 를 더 강화	기존과 변함 없이 하겠다	잘 모르겠다	계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게 더 강화	기존의 온라인 예배 를 더 강화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17)	26.1	38.8	35.1	.0	100.0
	30-99명	(17)	42.3	17.4	34.4	5.9	100.0
	100-499명	(23)	41.8	14.7	43.5	.0	100.0
	500명 이상	(14)	57.2	.0	35.2	7.6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52)	42.9	18.9	34.2	4.0	100.0
	변화없음	(17)	41.8	12.3	45.9	.0	100.0
	증가	(2)	.0	44.1	55.9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 터	(27)	34.0	19.7	46.3	.0	100.0
	코로나부터	(19)	55.5	17.4	16.6	10.6	100.0
	운영안함	(25)	37.7	17.4	45.0	.0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온라인 병행	(53)	42.3	15.9	37.8	3.9	100.0
	온라인예배	(14)	35.9	25.6	38.5	.0	100.0
	가정예배	(2)	44.6	.0	55.4	.0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43)	45.0	18.7	33.9	2.5	100.0
	변화없을 것	(21)	26.6	18.2	50.5	4.7	100.0
	증가예상	(6)	72.7	18.2	9.1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 야	(51)	45.8	12.0	38.2	4.1	100.0
	온라인 대체 가 능	(20)	29.5	33.9	36.6	.0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53)	45.8	12.1	38.2	3.9	100.0
	미자립교회	(19)	28.1	35.6	36.3	.0	100.0



2-4.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목사님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해짐’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재정 문제’ 20.8%, ‘다음세대 교육 문제’ 15.3%,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10.1% 등의 순으로 응답됐으며, ‘특별히 없음’은 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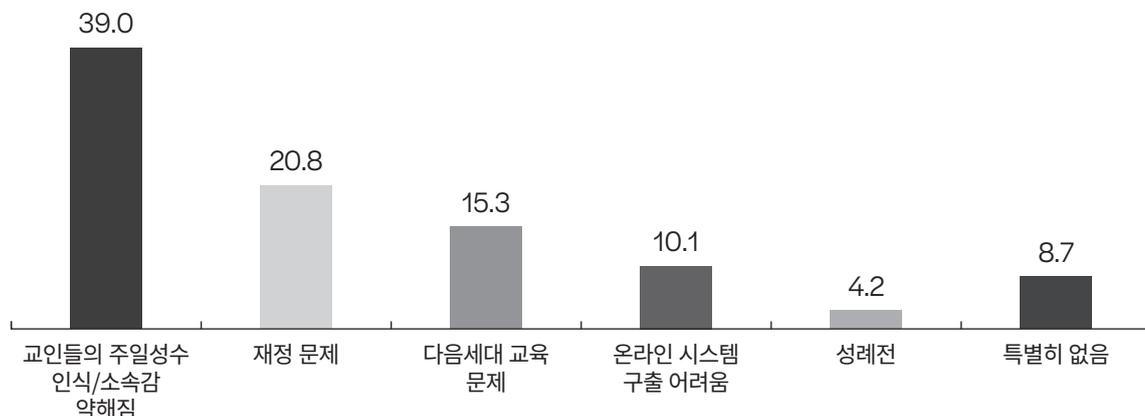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에 대한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49세 이하 목회자는 ‘재정 문제’와 ‘다음세대 교육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으며, 60대 이상 목회자는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음.

자립교회에서는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와 ‘다음세대 교육 문제’를 더 걱정하고, 미자립교회에서는 ‘재정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소속감 약해짐	재정 문제	다음 세대 교육 문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성례전	기타	특별히 없음	계
전 체	(1135)	39.0	20.8	15.3	10.1	4.2	1.8	8.7	100.0
성별	남자 (1041)	39.9	20.3	16.1	9.3	4.6	1.8	8.2	100.0
	여자 (94)	29.3	26.6	7.2	19.8	.0	2.2	14.9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37.6	26.3	22.0	3.2	4.2	1.8	4.8	100.0
	50대 (551)	38.8	20.6	15.9	10.4	4.1	2.0	8.2	100.0
	60세 이상 (441)	39.6	19.3	12.4	12.1	4.4	1.7	10.6	100.0
지역	서울 (135)	40.0	17.5	17.4	16.1	3.8	1.6	3.6	100.0
	인천/경기 (236)	40.8	20.5	16.6	7.8	3.7	1.9	8.7	100.0
	대전/충청 (130)	32.3	21.0	19.3	10.9	2.6	1.6	12.2	100.0
	광주/전라 (288)	45.5	21.0	9.6	8.6	5.3	1.5	8.5	100.0
	대구/경북 (183)	38.1	21.9	14.1	13.0	4.4	.7	7.8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34.2	20.8	21.6	5.3	4.7	2.6	10.7	100.0
	강원/제주/ 해외 (45)	20.5	25.6	16.4	13.5	3.0	7.5	13.6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39.8	20.4	18.0	10.3	2.8	1.1	7.6	100.0
	중소도시 (318)	39.6	23.3	16.6	6.8	5.3	2.1	6.3	100.0
	읍/면 (428)	37.8	19.3	12.0	12.5	4.6	2.4	11.5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30.5	30.7	7.0	13.4	4.0	1.8	12.6	100.0
	30-99명 (351)	41.7	20.4	14.6	9.6	4.0	2.2	7.5	100.0
	100-499명 (226)	48.4	6.1	29.8	6.9	3.2	.7	4.8	100.0
	500명 이상 (77)	52.0	3.6	28.1	1.5	9.4	4.0	1.4	100.0



구 분		사례수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소속감 약해짐	재정 문제	다음 세대 교육 문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성례전	기타	특별히 없음	계
교회 현금 변화	감소	(781)	41.7	27.9	15.0	7.5	2.9	1.7	3.2	100.0
	변화없음	(342)	33.3	5.3	16.0	15.6	7.2	2.3	20.2	100.0
	증가	(12)	21.8	.0	14.2	25.0	.0	.0	39.0	100.0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38.5	21.0	18.5	6.7	4.8	1.9	8.5	100.0
	코로나부터	(250)	41.1	20.3	22.7	7.3	4.2	1.4	3.0	100.0
	운영안함	(631)	38.3	20.9	11.1	12.7	3.9	2.0	11.1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38.3	23.7	9.5	10.8	3.3	1.8	12.5	100.0
	현장+ 온라인병행	(242)	52.9	13.8	18.9	7.5	2.9	.9	3.2	100.0
	온라인예배	(220)	32.6	17.8	28.5	7.2	6.8	1.8	5.3	100.0
	가정예배	(153)	33.7	29.1	7.8	16.1	2.5	2.8	8.0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48.0	25.0	15.5	6.4	2.4	1.4	1.4	100.0
	변화없을 것	(463)	29.0	16.7	15.3	14.5	5.9	2.0	16.6	100.0
	증가예상	(60)	34.7	10.7	19.6	13.2	3.4	5.4	13.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 려야	(831)	43.3	19.6	15.2	9.1	4.1	1.3	7.4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6.7	24.2	15.6	13.3	4.8	3.2	12.1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42.5	12.3	20.5	10.4	4.8	1.7	7.8	100.0
	미자립교회	(445)	33.5	34.0	7.2	9.7	3.3	2.1	10.2	100.0

2-5.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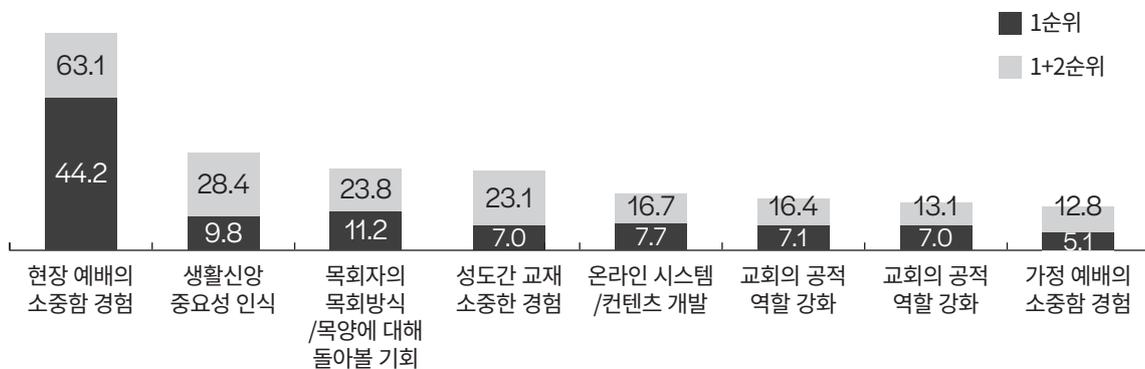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일어나 긍정적 변화 1순위로는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목회방식/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11.2%, ‘생활신앙 중요성 인식’ 9.8%,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 7.7% 등의 순으로 응답됨.

1순위 결과 기준으로, 49세 이하 목회자는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및 60대 이상 목회자는 ‘목회자의 목회방식 돌아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생활신앙 중요성 인식’이,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소중함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 1순위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	목회자의 목회방식/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생활 신앙 중요성 인식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	성도간 교제 소중함 경험	가정 예배의 소중함 경험	교회의 안전/위생 중요성 부각	잘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1135)	44.2	11.2	9.8	7.7	7.1	7.0	7.0	5.1	.4	.4	100.0
성별	남자 (1041)	44.9	11.2	9.6	7.6	7.2	6.9	6.6	5.3	.4	.3	100.0
	여자 (94)	36.9	11.4	11.7	9.0	6.5	8.6	11.7	3.1	.0	1.1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43.4	6.9	5.8	12.1	8.5	7.2	9.4	5.7	.5	.6	100.0
	50대 (551)	44.5	12.5	11.2	6.5	7.8	6.7	5.5	4.5	.5	.4	100.0
	60세 이상 (441)	44.2	11.0	9.2	7.7	5.9	7.3	8.2	5.8	.2	.4	100.0
지역	서울 (135)	45.9	10.1	8.7	12.1	6.7	4.9	6.0	5.0	.6	.0	100.0
	인천/경기 (236)	42.0	14.6	11.3	9.9	7.8	4.3	5.2	3.7	.3	.8	100.0
	대전/충청 (130)	41.2	13.8	9.5	9.4	4.1	9.3	7.8	3.0	.6	1.3	100.0
	광주/전라 (288)	45.6	9.7	8.3	5.0	7.8	9.5	7.8	6.0	.4	.0	100.0
	대구/경북 (183)	51.9	11.5	7.5	3.3	6.3	7.0	7.5	5.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18)	38.6	8.8	11.6	6.7	8.2	7.0	10.7	6.7	.8	.8	100.0
	강원/제주/해외 (45)	34.4	3.8	19.7	16.4	10.2	4.8	1.1	9.6	.0	.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388)	41.6	12.5	7.0	10.4	8.2	7.6	6.7	4.9	.7	.5	100.0
	중소도시 (318)	45.5	10.2	11.1	5.3	8.0	7.7	8.0	3.8	.2	.3	100.0
	읍/면 (428)	45.7	10.8	11.3	7.1	5.6	5.9	6.6	6.3	.3	.4	100.0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37.6	11.8	11.8	8.4	8.9	7.8	6.6	6.0	.5	.6	100.0
	30-99명 (351)	49.3	10.3	9.8	6.3	5.0	7.1	6.0	5.4	.5	.4	100.0
	100-499명 (226)	47.6	12.6	8.3	8.7	6.4	5.8	6.8	3.6	.3	.0	100.0
	500명 이상 (77)	52.8	8.0	1.2	6.8	8.3	5.0	15.2	2.6	.0	.0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분	사례수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	목회자의 목회방식/ 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생활 신앙 중요성 인식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 개발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	성도간 교제 소중함 경험	가정 예배의 소중함 경험	교회의 안전/ 위생 중요성 부각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회	감소 (781)	45.4	10.6	9.0	8.3	6.8	6.7	7.7	4.9	.5	.1	100.0
헌금 변화	변화없음 (342)	42.1	12.2	11.6	6.6	7.6	7.6	5.5	5.5	.3	1.2	100.0
	증가 (12)	27.5	25.0	5.1	.0	13.7	10.1	7.0	11.7	.0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37.1	13.9	10.0	12.2	8.7	7.2	7.6	2.9	.0	.4	100.0
	코로나부터 (250)	49.9	7.4	7.0	8.3	6.2	6.0	7.5	7.2	.0	.3	100.0
	운영안함 (631)	44.9	11.7	10.7	5.7	6.8	7.3	6.6	5.2	.7	.4	100.0
3~4월 초 주일 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42.0	10.3	12.6	6.4	7.4	8.6	5.8	6.0	.7	.3	100.0
	현장+ 온라인병행 (242)	51.4	11.9	7.8	6.1	5.5	5.6	7.2	3.9	.3	.4	100.0
	온라인예배 (220)	44.6	8.7	6.1	16.2	7.2	6.0	6.8	3.9	.0	.4	100.0
	가정예배 (153)	39.7	15.2	8.9	3.8	8.9	6.2	11.3	5.5	.5	.0	100.0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43.6	11.1	9.2	9.3	6.8	7.0	7.9	4.6	.7	.0	100.0
	변화 없을 것 (463)	45.7	9.7	10.0	6.2	7.9	7.5	6.3	5.8	.2	.8	100.0
	증가예상 (60)	35.3	27.0	12.3	4.4	5.9	5.8	3.3	6.0	.0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831)	50.0	11.3	8.4	5.9	6.3	6.4	6.0	4.9	.5	.3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9.4	11.1	12.7	13.2	9.3	8.5	9.4	5.5	.3	.7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46.9	11.1	8.6	7.6	5.8	6.6	8.2	4.6	.4	.2	100.0
	미자립교회 (445)	40.1	11.5	11.5	7.8	9.2	7.7	5.2	5.9	.5	.7	100.0



[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 1+2순위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	생활 신앙 중요성 인식	목회자의 목회방식/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성도간 교제 소중함 경험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	가정 예배의 소중함 경험	교회의 안전/위생 중요성 부각	기타	잘 모르겠다
전 체	(1135)	63.1	28.4	23.8	23.1	16.7	16.4	13.1	12.8	1.5	1.0
성별	남자 (1041)	63.4	28.4	23.9	23.0	16.5	16.7	12.3	13.3	1.5	1.1
	여자 (94)	60.2	28.8	22.4	24.5	19.0	13.2	21.9	7.5	2.5	.0
연령	49세 이하 (143)	62.8	22.2	19.1	24.0	23.0	15.9	15.8	13.9	1.9	1.2
	50대 (551)	61.2	32.5	25.3	22.8	15.5	18.2	11.2	11.1	1.8	.5
	60세 이상 (441)	65.7	25.3	23.4	23.3	16.2	14.4	14.6	14.6	1.1	1.5
지역	서울 (135)	57.3	22.0	22.0	26.1	22.6	14.4	18.3	15.4	.8	1.2
	인천/경기 (236)	60.0	27.1	29.2	24.1	20.9	16.5	9.2	8.7	3.0	1.2
	대전/충청 (130)	63.0	26.0	25.9	19.5	17.3	13.4	15.3	13.6	4.6	1.4
	광주/전라 (288)	64.4	31.6	20.5	24.4	14.2	17.9	13.9	12.0	.3	.8
	대구/경북 (183)	70.8	28.5	25.0	24.3	12.0	15.9	10.0	12.3	.7	.4
	부산/울산/경남 (118)	63.5	32.8	20.1	21.6	11.6	13.7	19.9	14.4	.8	1.7
	강원/제주/해외 (45)	57.6	29.4	20.5	9.9	24.2	30.6	1.1	26.7	.0	.0
지역 크기	대도시 (388)	57.9	22.3	23.5	25.7	23.0	15.3	15.5	13.8	2.0	.9
	중소도시 (318)	66.4	32.3	23.9	23.0	13.2	18.9	10.6	9.4	1.5	.9
	읍/면 (428)	65.5	31.0	23.9	20.9	13.6	15.6	12.7	14.3	1.2	1.2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58.7	31.7	24.0	19.5	16.4	17.1	14.4	15.0	1.8	1.3
	30-99명 (351)	67.2	28.9	23.8	25.9	16.3	14.5	9.7	11.8	.7	1.2
	100-499명 (226)	63.8	25.0	25.0	26.1	16.7	17.8	10.9	12.2	2.3	.3
	500명 이상 (77)	70.5	15.4	18.4	24.5	20.5	17.0	26.8	5.3	1.5	.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64.2	28.4	22.5	23.3	17.4	16.3	13.9	11.8	1.1	1.0
	변화없음 (342)	61.9	28.2	25.3	23.1	15.3	16.6	11.4	14.9	2.1	1.1
	증가 (12)	27.5	37.0	61.0	10.1	9.1	20.3	7.0	11.7	16.3	.0

조사 결과 분석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54.6	26.3	26.0	24.5	25.8	16.9	14.9	9.3	1.8	.0
	코로나 부터	(250)	64.6	22.7	22.7	28.9	18.6	13.4	14.0	13.8	1.4	.0
	운영안함	(631)	66.0	31.6	23.3	20.3	12.3	17.4	12.0	13.8	1.5	1.8
3~4월 초 주일 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65.2	33.7	24.6	21.2	11.9	14.6	12.2	13.6	1.7	1.3
	현장+ 온라인병행	(242)	67.0	24.3	24.7	24.9	17.3	14.9	12.3	12.6	1.2	.7
	온라인예배	(220)	61.0	20.3	18.4	26.9	30.8	18.1	14.7	8.7	1.0	.0
	가정예배	(153)	56.8	28.4	26.9	21.1	12.9	19.7	16.0	15.8	.7	1.6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62.7	27.8	25.0	22.3	19.0	16.4	13.7	11.0	.6	1.3
	변화 없을 것	(463)	63.1	30.1	20.9	26.1	14.4	17.1	11.7	14.1	1.7	.8
	증가예상	(60)	59.3	25.4	42.7	11.4	14.4	13.9	9.3	18.3	5.5	.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70.2	27.7	23.5	23.8	14.1	14.3	11.6	12.2	1.4	1.1
	온라인 대체 가능	(285)	45.1	29.9	23.6	21.7	24.1	21.6	17.0	14.3	1.9	.6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64.8	26.5	23.0	25.1	16.8	15.5	13.8	12.6	1.3	.8
	미자립교회	(445)	60.5	31.4	25.0	20.0	16.5	17.9	12.1	13.1	2.0	1.4



3. 포스트 코로나19

· 질문: 코로나19 종식 후 목사님 교회의 출석 교인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약 절반의 목회자(49.2%)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40.8%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함.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률은 5.3%에 그쳤으며, 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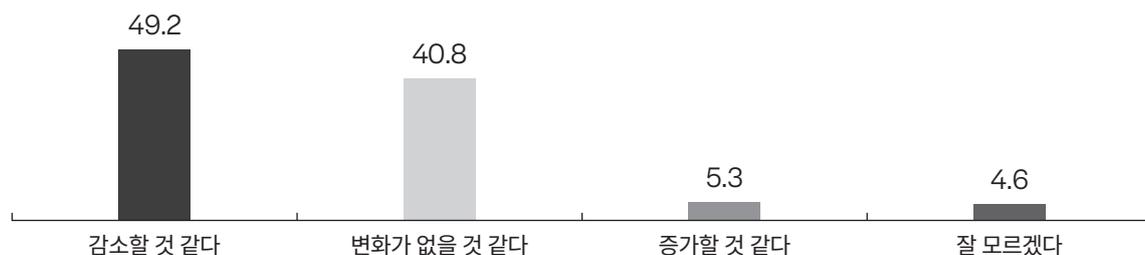
출석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에서 ‘감소 예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변화 없을 것’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지역 크기별로 도시 지역 교회에서는 ‘감소’ 예상과 ‘증가’ 예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 지역 교회에서는 ‘변화 없을 것’ 예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즉, 중소도시 이상 지역의 교회보다 읍/면 지역의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적을것이라 예상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급증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활용한 교회(온라인 병행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는 ‘감소 예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는 ‘변화 없음’ 및 ‘증가 예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출석 교인 수 예상

(Base=전체, N=1,135, %)



[표] 출석 교인 수 예상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감소할 것 같다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135)	49.2	40.8	5.3	4.6	100.0	
성별	남자	(1041)	50.8	39.5	5.3	4.4	100.0
	여자	(94)	31.8	55.3	5.9	7.0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50.8	39.1	3.2	6.9	100.0
	50대	(551)	46.4	41.6	7.5	4.4	100.0
	60세 이상	(441)	52.2	40.4	3.3	4.1	100.0
지역	서울	(135)	58.6	32.0	5.9	3.4	100.0
	인천/경기	(236)	56.3	34.0	5.8	3.9	100.0
	대전/충청	(130)	38.4	50.7	2.7	8.2	100.0
	광주/전라	(288)	45.8	45.9	4.7	3.7	100.0
	대구/경북	(183)	41.7	45.7	6.2	6.4	100.0
	부산/울산/경 남	(118)	58.6	32.1	6.2	3.1	100.0
	강원/제주/해 외	(45)	43.6	45.6	6.7	4.1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52.4	37.8	5.8	4.1	100.0
	중소도시	(318)	54.0	33.9	6.8	5.3	100.0
	읍/면	(428)	42.9	48.8	3.8	4.5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38.0	48.9	6.1	7.0	100.0
	30-99명	(351)	48.4	46.3	3.0	2.3	100.0
	100-499명	(226)	67.3	22.0	6.8	3.9	100.0
	500명 이상	(77)	70.1	20.7	6.9	2.3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61.7	29.5	3.8	5.0	100.0
	변화없음	(342)	21.9	66.5	7.7	3.9	100.0
	증가	(12)	16.8	46.1	37.1	.0	100.0



구 분	사례수	감소할 것 같다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50.1	38.2	6.1	5.6	100.0
	코로나부터	(250)	62.7	29.0	4.7	3.6	100.0
	운영안함	(631)	43.5	46.6	5.3	4.6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 식	현장예배	(460)	42.7	46.0	7.5	3.9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60.1	29.2	5.8	4.9	100.0
	온라인예배	(220)	59.3	33.3	4.0	3.4	100.0
	가정예배	(153)	38.5	52.4	1.3	7.8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 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100.0	.0	.0	.0	100.0
	변화없을 것	(463)	.0	100.0	.0	.0	100.0
	증가예상	(60)	.0	.0	100.0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 야	(831)	51.5	38.8	5.6	4.1	100.0
	온라인 대체 가 능	(285)	42.9	46.9	5.0	5.3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54.1	37.4	5.1	3.4	100.0
	미자립교회	(445)	41.7	46.1	5.7	6.4	100.0

1-1)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감소 예상 교회, N=559)

· 질문: 코로나19 이전보다 몇 %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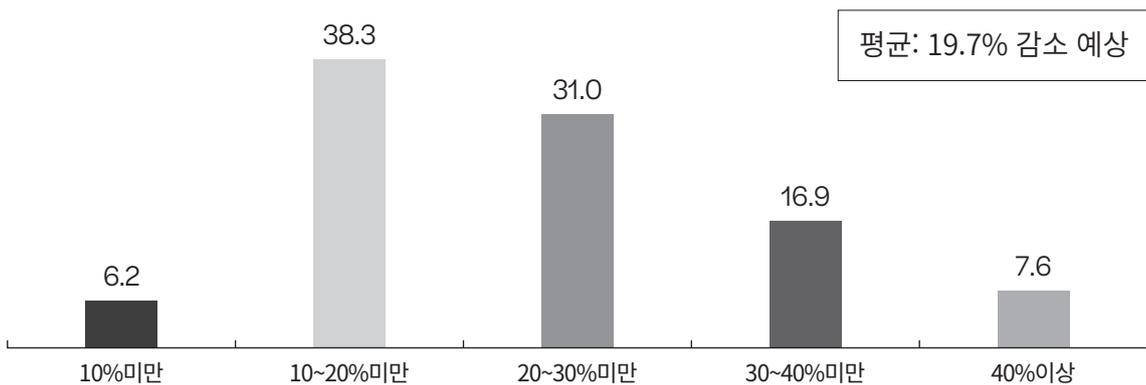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 수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한 목회자(559명)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10~20% 미만'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30% 미만' 31.0%, '30~40% 미만' 16.9%, '40% 이상' 7.6%, '10% 미만' 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 감소 예상 비율은 19.7%임.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평균 23.6%)에서 감소 비율을 더 높게 예상함. 또한, 자립교회보다 미자립교회에서 감소 비율을 더 높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 23.7%)

[그림]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

(Base=교인 수 감소 예상 교회, N=559, %)





[표]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

(Base=교인 수 감소 예상 교회, N=559, %)

구 분	사례수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계	[평균 : %]	
전 체	(559)	6.2	38.3	31.0	16.9	7.6	100.0	19.7	
성별	남자	(529)	6.5	39.0	31.5	16.1	6.9	100.0	19.3
	여자	(30)	.0	25.7	22.9	31.9	19.5	100.0	26.6
연령	49세 이하	(73)	4.4	38.7	29.6	15.1	12.2	100.0	21.3
	50대	(256)	6.7	40.3	30.2	17.6	5.2	100.0	18.7
	60세 이상	(230)	6.2	35.8	32.3	16.7	8.9	100.0	20.1
지역	서울	(79)	3.6	39.3	31.6	14.1	11.5	100.0	20.5
	인천/경기	(133)	6.9	36.1	30.4	17.2	9.4	100.0	20.2
	대전/충청	(50)	.0	46.4	29.9	17.3	6.3	100.0	19.5
	광주/전라	(132)	5.8	39.1	29.0	19.2	6.9	100.0	19.7
	대구/경북	(76)	13.1	36.2	30.5	11.2	9.1	100.0	19.2
	부산/울산/경남	(69)	7.3	38.7	28.0	23.3	2.6	100.0	18.5
	강원/제주/해외	(20)	.0	28.4	62.1	9.5	.0	100.0	18.8
지역크기	대도시	(203)	5.2	34.8	32.5	21.5	5.8	100.0	19.8
	중소도시	(172)	6.2	37.4	31.2	13.9	11.3	100.0	20.4
	읍/면	(184)	7.2	42.9	29.2	14.6	6.1	100.0	18.7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183)	3.9	29.0	29.7	23.6	13.8	100.0	23.6
	30-99명	(170)	5.5	44.3	26.7	15.9	7.6	100.0	18.9
	100-499명	(152)	8.6	43.2	34.1	11.9	2.2	100.0	16.6
	500명 이상	(54)	9.4	36.4	40.6	11.6	2.0	100.0	17.5
교회 헌금 변화	감소	(482)	5.9	36.5	31.7	17.9	8.2	100.0	20.2
	변화없음	(75)	8.4	48.3	27.7	11.3	4.3	100.0	16.5
	증가	(2)	.0	100.0	.0	.0	.0	100.0	13.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계	[평균 : %]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28)	8.7	40.6	27.9	12.7	10.1	100.0	19.4
	코로나부터	(157)	6.8	37.7	30.9	17.4	7.2	100.0	19.3
	운영안함	(275)	4.7	37.5	32.5	18.6	6.7	100.0	2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197)	6.2	37.4	30.6	18.9	6.9	100.0	20.1
	현장+온라인 병행	(146)	4.9	43.9	24.6	18.0	8.6	100.0	19.4
	온라인예배	(130)	6.8	36.9	34.8	12.7	8.8	100.0	19.5
	가정예배	(59)	5.5	36.2	39.9	10.7	7.7	100.0	19.2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6.2	38.3	31.0	16.9	7.6	100.0	19.7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427)	6.1	38.4	31.1	16.0	8.4	100.0	19.9
	온라인 대체 가능	(122)	6.9	37.9	31.6	19.8	3.8	100.0	18.5
자립 여부	자립교회	(373)	7.2	43.1	31.4	13.9	4.5	100.0	17.6
	미자립교회	(186)	4.1	28.6	30.3	23.0	14.0	100.0	23.7



1-2)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증가 예상 교회, N=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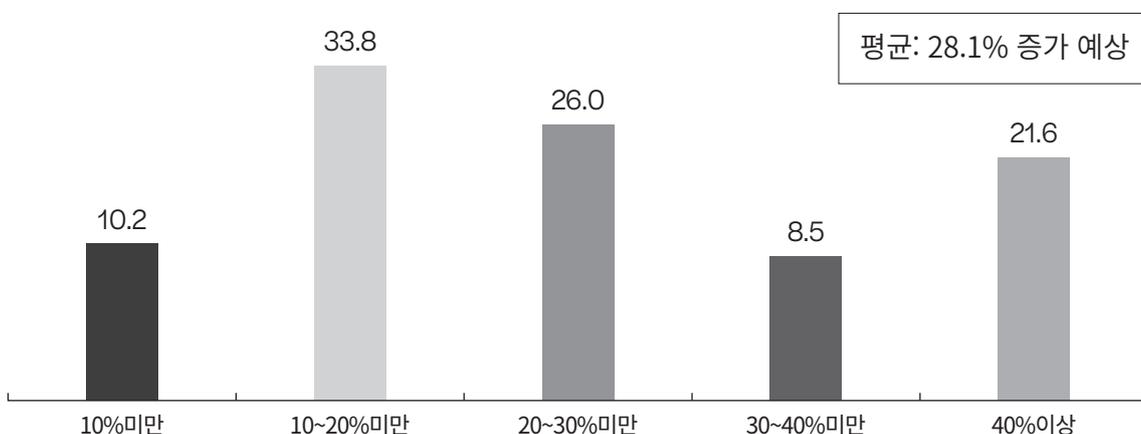
· 질문: 코로나19 이전보다 몇 %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목회자(60명)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10~20% 미만’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30% 미만’ 26.0%, ‘40% 이상’ 21.6%, ‘30~40% 미만’ 8.5%, ‘10% 미만’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 증가 예상 비율은 28.1%임.(총 사례수 71로 각 변인별 사례수가 적어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하지 않음)

[그림]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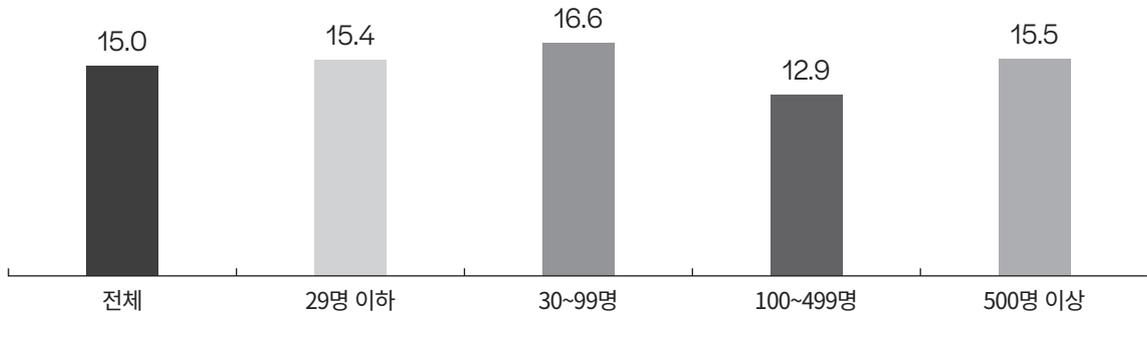
(Base=교인 수 증가 예상 교회, N=60, %)



종합 예상 감소율(‘총 예상 감소율 - 총 예상 증가율’의 평균)은 15.0%로 집계됐으며, 교회 규모별로 29명 이하’ 15.4%, ‘30~99명’ 16.6%, ‘100~499명’ 12.9%, ‘500명 이상’ 15.5%로, 소형교회와 대형교회 양 극단에서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함.

[그림] 종합 예상 감소율(교회 규모별)

(Base=전체, N=1,135, %)



[표]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

(Base=교인 수 증가 예상 교회, N=60, %)

구 분	사례수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계	[평균 : %]	
전 체	(60)	10.2	33.8	26.0	8.5	21.6	100.0	28.1	
성별	남자	(55)	11.2	31.9	28.6	9.3	18.9	100.0	26.4
	여자	(6)	.0	52.3	.0	.0	47.7	100.0	45.5
연령	49세 이하	(5)	32.7	.0	.0	44.2	23.0	100.0	26.4
	50대	(42)	11.2	35.9	31.8	2.6	18.5	100.0	25.5
	60세 이상	(14)	.0	38.6	17.4	14.2	29.8	100.0	36.1
지역	서울	(8)	18.6	30.4	31.6	.0	19.3	100.0	30.2
	인천/경기	(14)	.0	26.4	34.9	15.5	23.2	100.0	33.6
	대전/충청	(4)	.0	29.6	29.6	21.9	18.8	100.0	26.7
	광주/전라	(13)	24.5	7.2	18.1	16.6	33.5	100.0	34.6
	대구/경북	(11)	12.1	45.0	24.2	.0	18.7	100.0	25.0
	부산/울산/경남	(7)	.0	57.5	28.9	.0	13.6	100.0	14.2
	강원/제주/해외	(3)	.0	100.0	.0	.0	.0	100.0	11.7



구 분	사례수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계	[평균 : %]
지역크기	대도시 (22)	6.7	38.1	26.2	5.6	23.4	100.0	30.3
	중소도시 (22)	21.6	26.1	28.5	9.4	14.4	100.0	23.6
	읍/면 (16)	.0	38.0	22.3	11.2	28.5	100.0	31.2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29)	4.6	26.9	24.2	11.5	32.7	100.0	36.5
	30-99명 (10)	5.1	42.9	37.5	7.4	7.1	100.0	22.8
	100-499명 (15)	6.4	39.4	30.5	6.4	17.4	100.0	24.0
	500명 이상 (5)	62.2	37.8	.0	.0	.0	100.0	6.0
교회 현금 변화	감소 (30)	19.0	27.2	27.2	3.3	23.3	100.0	25.7
	변화없음 (26)	.0	41.5	23.6	15.8	19.1	100.0	29.7
	증가 (4)	12.3	31.6	31.6	.0	24.5	100.0	34.6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16)	9.6	29.5	25.5	5.0	30.4	100.0	34.4
	코로나부터 (12)	20.1	30.2	32.0	9.1	8.6	100.0	21.4
	운영안함 (33)	7.0	37.0	24.1	9.9	22.0	100.0	27.6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34)	2.8	36.0	25.1	11.9	24.2	100.0	30.3
	현장+ 온라인병행 (14)	23.6	37.8	17.7	.0	21.0	100.0	22.9
	온라인예배 (9)	15.4	31.8	40.8	12.0	.0	100.0	15.7
	가정예배 (2)	.0	.0	48.5	.0	51.5	100.0	61.2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증가예상 (60)	10.2	33.8	26.0	8.5	21.6	100.0	28.1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46)	10.1	27.2	31.2	8.4	23.1	100.0	28.5
	온라인 대체 가능 (14)	10.5	55.2	8.9	8.9	16.4	100.0	26.9
자립 여부	자립교회 (35)	12.2	35.7	26.0	11.1	15.1	100.0	25.6
	미자립교회 (25)	7.5	31.1	25.9	5.0	30.5	100.0	31.8

1-3) 출석 교인 수 감소세 회복 예상 기간

· 질문: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되려면
코로나19 종식 후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 수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한 목회자(559명)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되려면 종식 후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이(33.3%)이 ‘1년’이라고 응답함. ‘6개월’ 응답률은 28.4%이며,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도 1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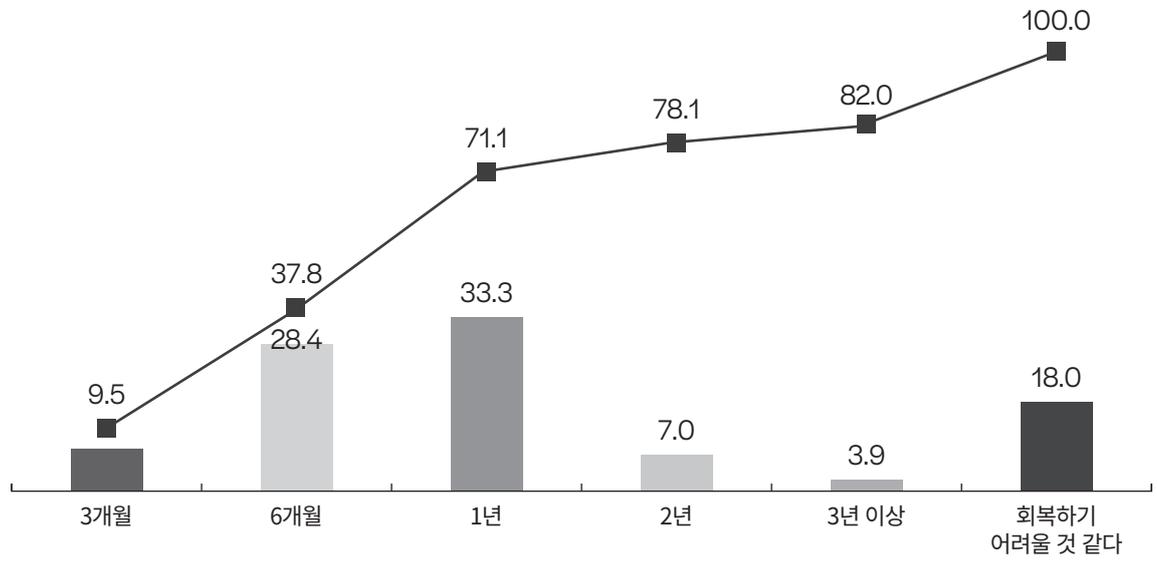
49세 이하 목회자는 ‘1년’을 예측한 비율이 높으며, 50대 목회자는 ‘6개월 이하’로 예측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60세 이상 목회자는 ‘회복 어려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연령층이 높은 목회자가 교인 수 회복에 대해 약간 더 비관적인 시각인 것으로 나타남.

출석 교인 수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3년 이상’과 ‘회복 어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관적인 전망이 상당수 있으며, 100~499명 교회는 ‘3개월’ 및 ‘6개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대형 교회에서 교인 수 회복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그림] 출석 교인 수 감소세 회복 예상 기간

(Base=전체, N=1,135, %)



[표] 출석 교인 수 감소세 회복 예상 기간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계	
전체	(559)	9.5	28.4	33.3	7.0	3.9	18.0	100.0	
성별	남자	(529)	9.5	28.2	34.0	7.2	3.6	17.5	100.0
	여자	(30)	8.5	30.3	21.7	3.5	9.7	26.3	100.0
연령	49세 이하	(73)	6.8	28.5	38.3	2.3	2.5	21.6	100.0
	50대	(256)	10.4	31.0	34.8	6.1	5.2	12.5	100.0
	60세 이상	(230)	9.2	25.3	30.1	9.4	3.0	22.9	100.0
지역	서울	(79)	3.8	30.4	39.6	6.9	1.2	18.2	100.0
	인천/경기	(133)	9.0	25.8	30.2	5.1	4.0	25.9	100.0
	대전/충청	(50)	8.0	22.3	40.0	6.0	4.9	18.8	100.0
	광주/전라	(132)	12.5	29.0	29.8	10.4	3.6	14.7	100.0
	대구/경북	(76)	13.4	24.7	38.5	5.8	3.8	13.8	100.0
	부산/울산/경남	(69)	8.3	32.9	34.0	6.8	4.5	13.6	100.0
	강원/제주/해외	(20)	8.2	46.8	13.3	5.1	12.0	14.6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 계 같다	계	
지역크기	대도시	(203)	7.8	28.7	36.2	9.0	2.1	16.2	100.0
	중소도시	(172)	10.8	26.4	31.2	6.4	4.3	20.9	100.0
	읍/면	(184)	10.1	29.8	32.1	5.3	5.5	17.2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183)	8.6	23.7	32.1	5.0	7.9	22.8	100.0
	30-99명	(170)	8.8	28.6	34.7	8.5	3.1	16.2	100.0
	100-499명	(152)	10.9	36.0	31.8	5.1	1.5	14.8	100.0
	500명 이상	(54)	10.5	21.8	37.4	14.4	.0	16.0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482)	9.0	28.0	33.8	7.5	4.3	17.4	100.0
	변화없음	(75)	11.9	29.7	31.0	3.7	1.4	22.4	100.0
	증가	(2)	39.7	60.3	.0	.0	.0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이전부터	(128)	11.7	22.0	32.0	9.0	6.1	19.1	100.0
	코로나부터	(157)	7.6	30.5	33.7	7.2	2.3	18.7	100.0
	운영안함	(275)	9.5	30.1	33.7	6.0	3.8	17.0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197)	12.1	24.7	34.2	7.7	5.6	15.7	100.0
	현장+온라인 병행	(146)	8.4	28.7	33.6	9.2	3.3	16.8	100.0
	온라인예배	(130)	8.4	29.3	34.8	6.6	.8	20.2	100.0
	가정예배	(59)	3.4	35.9	29.9	3.3	3.0	24.5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9.5	28.4	33.3	7.0	3.9	18.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427)	8.9	27.3	34.1	8.2	4.2	17.3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122)	10.2	31.6	30.8	3.2	3.2	21.0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373)	10.1	29.9	33.4	8.3	1.9	16.4	100.0
	미자립교회	(186)	8.2	25.2	33.2	4.3	8.0	21.1	100.0



2)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 질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1순위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43.8%)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21.2%, ‘교회의 공적인 역할’ 12.9%,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6.9% 등의 순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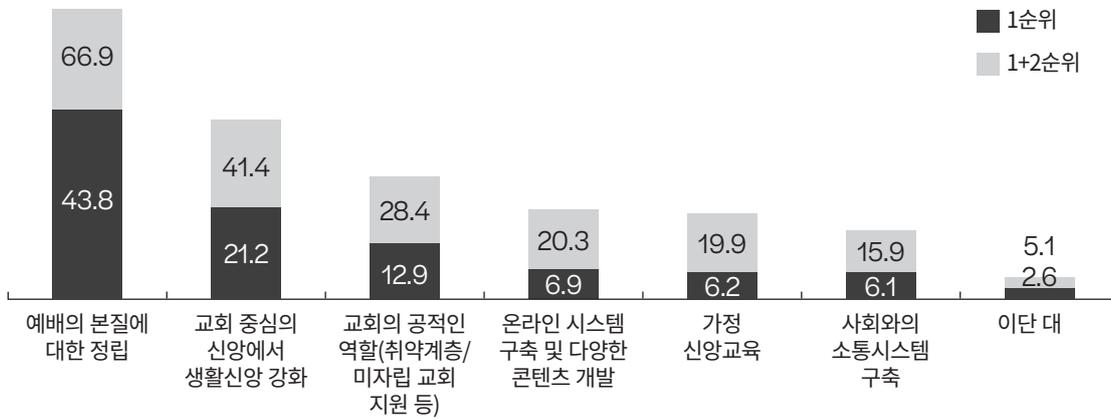
1순위 응답 기준, 49세 이하 목회자는 ‘교회의 공적인 역할’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 목회자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음.

자립교회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과 ‘생활신앙 강화’를, 미자립교회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함.

1+2순위 기준에서는, 60세 이상 목회자에서 ‘생활신앙 강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 1순위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적인 역할(취약계층/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교육	사회와의 소통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135)	43.8	21.2	12.9	6.9	6.2	6.1	2.6	.3	.1	100.0
성별	남자 (1041)	44.2	21.3	13.1	6.9	5.7	5.9	2.6	.3	.0	100.0
	여자 (94)	39.4	19.2	10.4	7.3	11.2	7.9	2.9	.0	1.7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37.0	21.3	16.3	8.1	8.4	7.6	1.3	.0	.0	100.0
	50대 (551)	44.8	20.0	14.7	6.9	5.8	6.3	1.4	.4	.0	100.0
	60세 이상 (441)	44.7	22.6	9.7	6.5	6.0	5.3	4.6	.2	.4	100.0



구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 의 신앙에 서 생활신 앙 강화	교회의 공적인 역할 (취약 계층/ 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 교육	사회 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 겠다	계 겠다	
지역	서울	(135)	42.6	24.6	14.6	10.5	3.2	3.4	.0	.0	1.1	100.0
	인천/경기	(236)	45.7	22.1	13.6	8.3	5.2	3.9	.8	.4	.0	100.0
	대전/충청	(130)	54.6	22.1	5.8	5.0	4.7	5.2	2.7	.0	.0	100.0
	광주/전라	(288)	45.8	15.2	15.5	5.0	8.2	6.3	3.6	.3	.0	100.0
	대구/경북	(183)	34.5	24.2	12.0	7.6	8.9	8.7	3.4	.7	.0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40.6	19.9	13.0	6.9	5.2	8.0	6.4	.0	.0	100.0
	강원/제주/ 해외	(45)	38.4	31.7	11.7	3.7	3.3	11.2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44.1	20.6	12.1	9.5	6.2	5.6	1.3	.2	.4	100.0
	중소도시	(318)	42.7	20.5	15.6	5.1	6.0	6.6	3.0	.4	.0	100.0
	읍/면	(428)	44.2	22.2	11.6	5.8	6.3	6.0	3.5	.2	.0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42.0	19.6	16.0	7.5	5.4	5.9	2.8	.3	.3	100.0
	30-99명	(351)	45.6	22.3	11.9	5.9	5.7	5.6	2.8	.2	.0	100.0
	100-499명	(226)	42.8	24.0	8.9	8.6	7.1	6.2	1.9	.4	.0	100.0
	500명 이상	(77)	49.2	16.9	10.0	2.5	10.4	8.7	2.3	.0	.0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44.3	21.3	12.8	6.4	5.6	6.2	3.0	.3	.2	100.0
	변화없음	(342)	43.4	20.9	13.2	7.4	7.8	5.2	1.8	.3	.0	100.0
	증가	(12)	18.4	21.1	14.7	22.4	.0	23.4	.0	.0	.0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 의 신앙에 서 생활신 앙 강화	교회의 공적인 역할 (취약 계층/ 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 교육	사회 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 겠다	계 겠다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38.9	21.5	13.3	9.5	8.3	4.5	3.2	.7	.0	100.0
	코로나부터 (250)	47.1	20.3	12.4	6.0	7.5	4.4	1.9	.5	.0	100.0
	운영안함 (631)	44.4	21.3	13.0	6.2	4.8	7.4	2.7	.0	.2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47.5	20.9	10.8	5.6	4.8	6.5	3.5	.2	.3	100.0
	현장+ 온라인병행 (242)	48.9	23.1	8.7	5.8	6.4	4.7	2.0	.3	.0	100.0
	온라인예배 (220)	34.7	22.0	14.7	11.5	9.5	5.2	1.7	.6	.0	100.0
	가정예배 (153)	35.3	20.0	21.6	7.3	4.6	7.9	3.2	.0	.0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41.9	21.1	14.3	5.9	6.8	6.7	2.5	.6	.3	100.0
	변화 없을 것 (463)	45.8	22.0	12.3	7.3	4.8	4.8	3.0	.0	.0	100.0
	증가예상 (60)	43.2	17.8	8.5	9.8	8.2	10.6	1.7	.0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47.5	20.9	11.4	5.1	6.5	5.4	2.8	.3	.2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33.9	22.0	18.2	12.2	4.7	6.8	1.9	.3	.0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45.6	22.9	9.4	6.6	6.8	6.1	2.3	.3	.0	100.0
	미자립교회 (445)	40.9	18.4	18.5	7.4	5.2	6.0	3.1	.3	.3	100.0



[표]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 1+2순위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 적인 역할 (취약계층 /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 교육	사회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 겠다
전 체	(1135)	66.9	41.4	28.4	20.3	19.9	15.9	5.1	1.3	.8
성별	남자 (1041)	67.2	42.0	29.0	20.0	19.1	16.1	4.9	1.2	.6
	여자 (94)	63.9	35.3	21.1	23.2	29.2	13.5	8.4	2.5	3.0
연령	49세 이하 (143)	59.7	36.4	32.2	20.0	28.1	17.9	4.7	1.0	.0
	50대 (551)	67.0	40.6	31.1	20.6	18.5	17.0	3.3	1.4	.6
	60세 이상 (441)	69.0	44.0	23.7	20.1	19.1	13.8	7.6	1.2	1.5
지역	서울 (135)	63.7	41.2	24.3	26.4	26.7	10.9	4.4	1.2	1.1
	인천/경기 (236)	66.2	43.5	30.0	21.9	15.7	16.3	3.0	2.6	.8
	대전/충청 (130)	75.8	43.5	20.4	17.7	19.9	18.0	3.8	.5	.5
	광주/전라 (288)	69.6	37.2	31.9	18.7	20.3	14.2	6.5	1.1	.4
	대구/경북 (183)	63.2	43.8	24.7	20.0	21.4	18.9	5.7	1.5	.7
	부산/울산/ 경남 (118)	61.7	39.5	28.3	19.6	22.5	16.4	9.5	.0	2.5
	강원/제주/ 해외 (45)	65.2	46.7	48.0	14.7	6.2	19.2	.0	.0	.0
지역크기	대도시 (388)	65.3	35.6	24.7	27.2	23.6	16.1	5.1	1.5	.9
	중소도시 (318)	66.5	45.7	31.5	16.3	18.4	15.5	4.7	.8	.6
	읍/면 (428)	68.7	43.5	29.4	17.0	17.7	15.9	5.5	1.5	.9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 적인 역할 (취약계층 /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 교육	사회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 겠다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65.6	39.5	32.7	18.8	17.7	17.2	5.4	1.5	1.7
	30-99명 (351)	68.8	41.1	27.0	20.6	18.7	16.7	5.6	1.4	.2
	100-499명 (226)	67.5	46.9	24.6	21.8	20.7	13.0	4.1	1.1	.3
	500명 이상 (77)	64.6	38.4	19.1	23.8	37.0	12.2	4.8	.0	.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67.5	42.0	28.3	19.8	19.9	14.6	5.5	1.2	1.1
	변화없음 (342)	66.5	39.8	28.2	21.4	20.1	18.2	4.6	1.0	.3
	증가 (12)	34.4	47.5	42.2	22.4	13.3	28.5	.0	11.7	.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58.5	39.1	27.1	26.0	26.0	13.8	6.2	3.0	.3
	코로나부터 (250)	66.9	39.8	24.7	21.2	23.9	16.8	5.8	.5	.4
	운영안함 (631)	70.3	43.0	30.4	17.6	15.9	16.3	4.5	.8	1.2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74.5	42.1	29.1	14.7	16.7	14.3	5.8	1.5	1.4
	현장+ 온라인병행 (242)	74.1	44.4	18.8	24.6	19.9	13.0	3.5	1.3	.3
	온라인예배 (220)	48.5	41.3	29.3	27.0	29.2	18.2	5.1	1.5	.0
	가정예배 (153)	56.2	39.8	39.9	20.6	16.6	19.1	6.3	.7	.9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64.7	44.1	28.5	19.9	21.2	15.0	4.5	1.2	.9
	변화 없을 것 (463)	68.9	38.5	29.1	20.9	17.9	16.8	6.1	1.1	.7
	증가예상 (60)	66.5	44.2	21.3	20.3	16.7	22.4	4.8	2.3	1.7



구 분	사례수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 적인 역할 (취약계층 /미자립 교회 지원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정 신앙 교육	사회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이단 대응	기타	잘 모르 겠다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72.0	42.2	27.5	17.4	18.7	14.0	5.6	1.5	1.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53.7	39.4	31.4	28.8	22.0	20.7	3.5	.6	.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67.1	44.8	22.8	22.3	21.5	15.3	4.7	1.1	.5
	미자립교회	(445)	66.5	36.1	37.0	17.3	17.5	16.8	5.9	1.6	1.3

3)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

· 질문: 목사님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 1순위로는 ‘설교력 강화’(19.0%)와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18.9%)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 강화’ 16.5%,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심방/전도 강화’ 각 8.7%의 순으로 나타남.

1+2순위 결과로는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가 41.4%로 가장 높고, ‘설교력 강화’ 29.9%,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 강화’ 24.9%,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22.2% 등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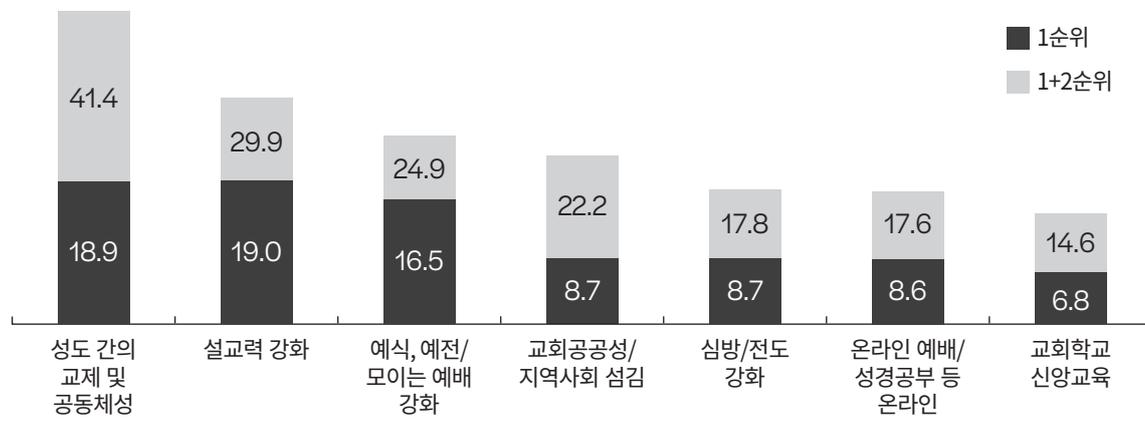
1순위 응답 기준, 49세 이하 목회자는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를 60세 이상 목회자는 ‘설교력 강화’와 ‘심방/전도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음.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과 ‘심방/전도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으며,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와 ‘설교력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 - 1순위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설교력 강화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예식, 예전 강화 / 모이는 예배 강화	심방/전도 강화	교회 공공성 / 지역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성경공부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교회학교 신앙교육	안전, 위생 강화	비대면 소통 방식 개발	기타	계	
전체	(1135)	19.0	18.9	16.5	8.7	8.7	8.6	6.8	6.4	5.2	1.2	100.0	
성별	남자	(1041)	19.0	19.2	16.7	8.6	8.7	8.0	7.2	6.6	5.0	1.0	100.0
	여자	(94)	19.6	14.9	13.6	9.9	9.1	14.9	2.7	5.0	7.9	2.5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16.8	20.3	14.7	9.3	5.8	9.3	11.4	5.3	6.2	.9	100.0
	50대	(551)	17.6	19.2	18.2	6.5	11.2	8.1	6.9	5.5	5.0	1.6	100.0
	60세 이상	(441)	21.5	17.9	14.9	11.3	6.4	9.0	5.1	7.9	5.2	.7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설교력 강화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예식, 예전 강화 / 모이는 예배 강화	심방/ 전도 강화	교회 공공성 / 지역 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교회 학교 신앙 교육	안전, 위생 강화	비대면 소통 방식 개발	기 타	계	
지역	서울	(135)	17.0	18.7	15.2	4.9	9.2	14.7	7.6	5.9	6.8	.0	100.0
	인천/경기	(236)	22.4	19.4	14.9	6.3	7.1	10.8	6.4	3.9	7.6	1.2	100.0
	대전/충청	(130)	19.4	18.4	19.6	9.8	7.2	2.6	12.2	7.8	1.3	1.7	100.0
	광주/전라	(288)	17.7	15.9	20.0	10.3	12.2	7.8	5.2	5.5	4.5	.9	100.0
	대구/경북	(183)	19.8	23.0	13.1	11.6	6.0	6.5	6.4	6.0	6.7	.7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16.3	15.5	14.9	10.9	6.5	10.7	7.8	10.4	3.4	3.6	100.0
	강원/제주/ 해외	(45)	18.7	29.0	14.9	1.8	13.9	4.7	.0	14.2	2.9	.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388)	16.6	17.8	14.5	6.0	7.7	14.1	10.4	4.7	6.6	1.5	100.0
	중소도시	(318)	22.0	18.5	18.7	7.7	7.4	8.0	5.1	5.7	5.5	1.3	100.0
	읍/면	(428)	19.1	20.1	16.6	11.9	10.5	4.1	4.7	8.5	3.8	.7	100.0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21.2	18.0	15.2	9.0	11.5	8.1	2.8	5.9	6.5	1.9	100.0
	30-99명	(351)	16.6	19.4	16.9	11.0	7.0	8.2	8.3	7.8	3.9	.9	100.0
	100-499명	(226)	18.5	19.2	18.5	7.0	7.2	8.5	10.3	6.1	4.7	.0	100.0
	500명 이 상	(77)	18.1	20.8	16.5	1.4	3.7	14.2	14.6	4.4	4.9	1.5	100.0
교회 헌금 변 화	감소	(781)	19.3	18.1	17.0	9.9	7.1	8.7	6.3	6.8	5.8	1.1	100.0
	변화없음	(342)	18.0	20.1	15.9	6.4	12.2	8.8	8.1	5.9	3.7	.9	100.0
	증가	(12)	29.7	33.6	.0	.0	11.7	.0	.0	.0	13.3	11.7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20.0	17.4	14.4	4.6	9.5	14.7	5.8	2.8	9.1	1.6	100.0
	코로나 부터	(250)	15.4	23.3	13.2	9.7	5.0	12.5	9.0	4.7	5.7	1.5	100.0
	운영안함	(631)	20.1	17.7	18.6	10.0	9.9	4.6	6.3	8.5	3.5	.9	100.0



구 분	사례수	설교력 강화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예식, 예전 강화 / 모이는 예배 강화	심방/ 전도 강화	교회 공공성 / 지역 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교회 학교 신앙 교육	안전, 위생 강화	비대면 소통 방식 개발	기 타	계	
3~4월 초 주일 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22.4	17.6	18.9	9.7	8.8	4.2	5.9	7.5	3.7	1.2	100.0
	현장+ 온라인 병행	(242)	17.7	19.8	20.8	7.9	4.4	12.9	5.7	4.4	5.1	1.3	100.0
	온라인 예배	(220)	12.7	23.5	8.4	6.2	9.9	16.1	10.3	4.8	7.1	1.1	100.0
	가정예배	(153)	20.1	16.0	15.9	9.9	10.3	5.9	4.8	7.6	8.0	1.5	100.0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19.4	18.9	16.2	10.0	5.5	10.6	5.9	5.2	7.3	1.0	100.0
	변화 없을 것	(463)	17.6	20.2	16.5	7.1	13.4	6.2	7.5	7.1	3.2	1.1	100.0
	증가예상	(60)	25.3	16.1	19.3	8.0	10.1	3.8	6.6	6.9	.0	3.9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831)	20.5	19.1	19.3	10.0	6.9	6.2	7.1	5.6	4.3	1.0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13.4	18.6	8.7	5.2	13.8	16.1	5.9	8.6	8.3	1.2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17.7	18.5	16.6	7.6	8.0	9.4	9.2	7.0	5.2	.8	100.0
	미자립 교회	(445)	21.0	19.5	16.2	10.5	9.8	7.4	3.0	5.6	5.2	1.8	100.0

[표]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 - 1+2순위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 강화	설교력 강화	예식, 예전 강화 / 모이는 예배 강화	교회 공공성 / 지역 사회 섬김	심방/ 전도 강화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교회 학교 신앙 교육	안전, 위생 강화	비대면 소통 방식 개발	기타
전 체	(1135)	41.4	29.9	24.9	22.2	17.8	17.6	14.6	14.5	14.0	3.0
성별	남자 (1041)	41.8	30.0	25.6	21.9	17.6	17.0	15.1	14.5	13.6	2.9
	여자 (94)	36.6	29.2	18.1	25.6	20.5	24.1	9.0	14.5	18.0	4.5
연령	49세 이하 (143)	43.4	24.1	21.3	25.0	17.7	18.6	19.1	10.0	18.6	2.3
	50대 (551)	43.0	28.4	26.4	23.2	15.5	18.2	15.7	12.5	13.4	3.7
	60세 이상 (441)	38.7	33.7	24.4	20.0	20.8	16.5	11.8	18.4	13.2	2.4
지역	서울 (135)	46.2	24.2	21.8	24.7	8.5	31.3	16.2	10.4	16.2	.4
	인천/경기 (236)	41.5	34.6	23.8	17.6	10.2	20.4	15.1	12.0	22.3	2.6
	대전/충청 (130)	45.4	30.1	28.7	20.6	21.1	10.8	18.7	16.1	6.1	2.5
	광주/전라 (288)	36.7	29.3	28.1	28.0	21.3	13.3	13.8	14.6	11.8	3.2
	대구/경북 (183)	41.5	31.4	23.2	17.0	24.9	15.8	11.7	17.0	13.2	4.4
	부산/울산/ 경남 (118)	37.6	28.5	23.6	21.7	20.7	19.6	14.1	15.6	13.4	5.3
	강원/제주/ 해외 (45)	54.8	24.3	20.3	28.2	18.3	11.7	14.4	21.9	4.8	1.1
지역크기	대도시 (388)	43.9	24.7	23.7	18.3	12.5	28.0	18.3	10.5	17.7	2.4
	중소도시 (318)	41.0	34.5	26.9	21.6	14.4	16.1	13.4	14.1	13.7	4.3
	읍/면 (428)	39.5	31.3	24.7	26.1	25.3	9.2	12.2	18.4	10.7	2.6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37.6	33.4	23.2	25.5	18.8	18.4	7.1	15.8	15.8	4.4
	30-99명 (351)	44.2	26.4	26.0	21.6	20.2	14.9	16.4	16.0	12.7	1.5
	100-499명 (226)	42.8	30.1	26.7	16.5	15.7	16.6	24.0	11.8	13.5	2.2
	500명 이상 (77)	48.4	23.5	25.7	20.3	7.0	28.0	26.3	7.0	9.9	3.9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41.0	30.0	24.3	22.3	20.1	17.1	14.3	13.9	13.9	3.1
	변화없음	(342)	42.6	29.9	26.6	21.8	13.0	17.8	15.9	16.0	14.0	2.4
	증가	(12)	33.6	29.7	21.8	22.9	11.7	43.5	.0	11.7	13.3	11.7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42.4	31.1	21.2	22.3	8.1	28.1	12.9	8.9	21.1	3.9
	코로나부터	(250)	46.6	25.0	22.8	15.4	16.9	24.1	19.0	11.6	15.4	3.1
	운영안함	(631)	39.0	31.4	27.3	24.8	22.2	10.8	13.6	17.9	10.5	2.6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39.1	37.5	27.8	20.8	21.4	11.3	11.5	19.0	9.4	2.2
	현장+ 온라인 병행	(242)	47.3	29.0	30.6	15.4	15.4	23.0	15.7	7.5	14.0	2.1
	온라인예배	(220)	45.0	17.4	14.5	23.6	9.3	33.2	21.2	9.7	21.4	4.7
	가정예배	(153)	39.2	26.8	26.9	27.1	20.3	10.8	10.8	17.2	18.8	2.2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42.2	29.7	24.4	19.5	19.9	19.5	15.2	11.5	15.9	2.3
	변화없을 것	(463)	42.4	29.4	25.3	26.6	14.5	15.0	13.4	18.3	12.3	2.8
	증가예상	(60)	35.4	37.4	29.5	21.4	21.8	13.4	19.2	6.9	4.0	11.1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41.8	32.2	29.2	19.5	19.6	13.9	15.8	13.3	11.7	3.1
	온라인 대체 가능	(285)	41.6	22.0	13.3	29.9	11.9	29.7	11.8	17.3	19.9	2.6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43.0	27.9	25.7	19.3	15.5	18.6	19.6	14.3	14.0	2.0
	미자립교회	(445)	38.9	33.1	23.7	26.7	21.5	16.0	6.9	14.7	13.9	4.5

4)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

· 질문: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들입니다.
목사님은 이 중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될 한국교회의 모습 1순위로는 ‘교회 출석 교인수의 감소’(29.6%)가 가장 많이 응답됨. 그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16.7%, ‘온라인예배/온라인 콘텐츠 강화’ 15.3%,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9.9% 등으로 나타남.

출석 교인 수 감소, 소형교회 어려움, 교회학교 학생 감소 등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응답률은 높은 반면,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강화, 예배 예식/예전 강화, 지역사회 연대 증가 등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변화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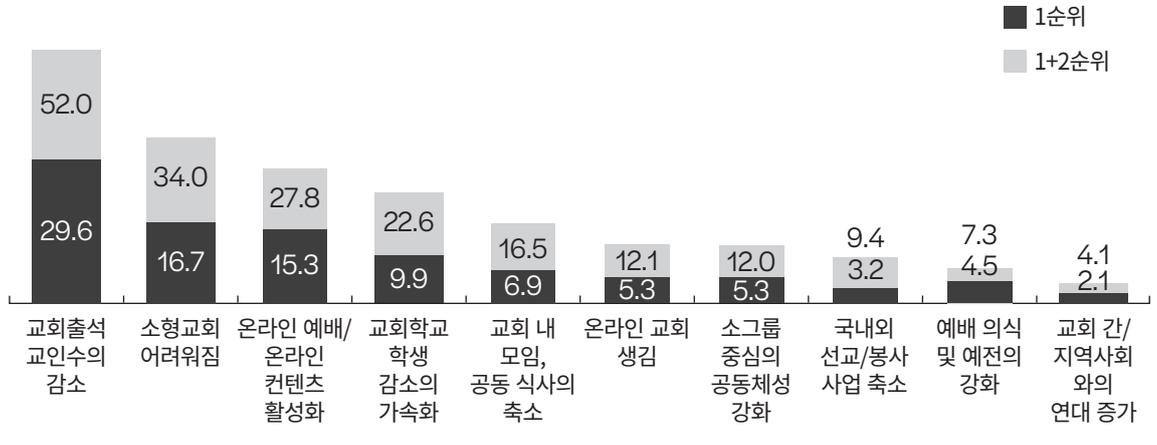
1순위 응답 결과 기준으로, 49세 이하 목회자는 ‘온라인 예배 및 콘텐츠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으며, 60세 이상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와 ‘소형교회 어려워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음.

출석 교인 수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출석 교인 수 감소’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소형교회 어려워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그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 - 1순위

(Base=전체, N=1,135, %)

구분	사례수	교회출석 교인수의 감소	소형교회 어려워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의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강화	예배 의식 및 예전의 강화	국내외 선교/봉사 사업 축소	교회 간/ 지역사회와의 연대 증가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135)	29.6	16.7	15.3	9.9	6.9	5.3	5.3	4.5	3.2	2.1	.7	.4	100.0
성별	남자 (1041)	30.3	16.4	15.3	10.4	6.9	5.4	4.5	4.5	3.1	2.3	.6	.4	100.0
	여자 (94)	22.5	20.1	15.5	4.5	6.8	4.9	14.5	4.0	5.2	.6	1.5	.0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24.7	14.3	18.3	8.3	12.1	8.3	4.0	3.9	1.7	3.0	1.4	.0	100.0
	50대 (551)	28.0	15.6	18.2	11.8	6.0	4.9	5.0	4.5	2.9	1.8	.8	.5	100.0
	60세 이상 (441)	33.2	18.8	10.7	7.9	6.5	4.9	6.1	4.7	4.2	2.2	.2	.4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움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 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성 강화	예배식 및 예전의 강화	국내외 선교/봉사 사업 축소	교회 간/지역 사회와의 연대 증가	기 타	잘 모르겠다	계	
지역	서울	(135)	29.7	15.3	19.7	13.8	2.9	4.9	9.1	3.2	1.0	.4	.0	.0	100.0
	인천/경기	(236)	35.6	14.4	13.7	8.9	7.9	5.3	4.0	3.6	4.7	1.0	.4	.3	100.0
	대전/충청	(130)	30.2	12.7	13.8	12.9	5.3	8.0	7.5	5.9	1.3	1.6	.0	.8	100.0
	광주/전라	(288)	29.8	20.7	14.1	8.0	4.2	4.4	7.1	6.0	1.8	3.1	.7	.0	100.0
	대구/경북	(183)	25.1	19.5	12.3	9.7	13.1	4.6	2.0	4.1	5.8	2.6	.7	.4	100.0
	부산/울산/경남	(118)	28.5	12.9	19.0	10.9	7.9	4.9	2.6	3.8	3.7	3.1	.8	1.7	100.0
	강원/제주/해외	(45)	16.5	17.6	25.4	4.8	8.4	9.1	3.0	1.9	4.9	3.8	4.4	.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388)	29.3	15.4	19.3	10.4	4.5	4.1	9.3	3.3	2.3	.7	.4	.9	100.0
	중소 도시	(318)	34.7	17.1	10.3	10.6	6.3	4.9	3.7	5.2	3.4	2.9	.6	.3	100.0
	읍/면	(428)	26.2	17.5	15.4	8.9	9.5	6.8	2.9	4.9	4.0	2.8	.9	.0	100.0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 이하	(481)	24.6	22.9	14.2	6.9	7.2	7.0	6.1	3.7	3.8	2.3	.7	.6	100.0
	30-99명	(351)	31.1	15.0	16.8	8.3	8.2	4.9	3.9	5.0	3.9	2.2	.3	.4	100.0
	100-499명	(226)	32.3	8.8	16.6	17.1	6.4	4.0	6.8	4.3	1.7	1.4	.4	.0	100.0
	500명 이상	(77)	46.5	8.8	11.4	14.4	1.1	1.1	2.8	6.9	1.4	3.0	2.6	.0	100.0



구 분	사례수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움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 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성 강화	예배 및 예전의 강화	국내외 선교/ 봉사 사업 축소	교회 간/ 지역 사회와의 연대 증가	기 타	잘 모르 겠다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31.3	19.4	14.1	9.9	6.4	5.7	4.4	3.9	2.3	1.7	.5	.4	100.0
	변화 없음	(342)	26.1	11.1	17.4	10.1	8.4	4.3	7.3	5.5	5.4	3.1	.6	.5	100.0
	증가	(12)	23.4	.0	34.4	.0	.0	11.2	10.1	9.1	.0	.0	11.7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 부터	(255)	32.6	9.6	19.8	10.7	6.0	6.7	7.0	2.7	2.9	.4	1.2	.3	100.0
	코로나 부터	(250)	35.9	13.0	17.0	11.9	6.0	2.8	5.9	4.2	1.9	.9	.0	.4	100.0
	운영 안함	(631)	26.0	21.0	12.9	8.8	7.7	5.8	4.4	5.3	3.9	3.3	.7	.4	100.0
3~4월 초 주일 예배 방식	현장 예배	(460)	31.0	20.6	10.7	9.0	6.8	6.4	3.1	5.0	4.4	2.3	.7	.0	100.0
	현장+ 온라인 병행	(242)	33.5	13.4	16.2	11.3	7.5	4.1	6.3	5.1	1.9	.5	.0	.3	100.0
	온라인 예배	(220)	28.8	10.6	23.9	12.2	5.9	2.8	6.1	3.4	2.5	2.4	1.4	.0	100.0
	가정 예배	(153)	23.6	21.8	18.8	6.3	6.9	6.5	8.0	3.0	1.6	2.1	.0	1.3	100.0
코로나 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감소 예상	(559)	33.0	21.6	12.5	11.4	6.0	4.5	3.8	2.9	2.8	1.2	.0	.2	100.0
	변화 없을 것	(463)	27.3	12.0	18.6	7.2	7.5	6.5	6.4	5.4	4.5	3.6	.6	.4	100.0
	증가 예상	(60)	22.6	5.0	13.7	17.6	6.5	4.9	6.0	11.7	.0	1.8	7.3	2.9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움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 학교 학생의 감소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성 강화	예배 및 예전의 강화	국내외 선교/ 봉사 사업 축소	교회 간/ 지역 사회와의 연대 증가	기 타	잘 모르겠다	계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31.9	16.8	12.7	11.2	6.4	5.0	4.1	5.3	3.8	1.9	.7	.2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2.4	15.8	23.2	6.9	7.5	6.6	8.8	2.4	2.0	2.8	.7	1.0	100.0
자립 여부	자립 교회	(690)	32.6	13.1	16.3	12.5	7.3	3.3	4.2	5.0	3.3	1.8	.6	.1	100.0
	미자립 교회	(445)	25.1	22.3	13.8	5.9	6.3	8.5	7.1	3.7	3.2	2.6	.8	.9	100.0



[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 - 1+2순위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움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 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의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강화	국내외 선교/ 봉사 사업 축소	예배 예식 및 예전의 강화	교회간/ 지역 사회와의 연대 증가	잘 모르겠다	기타	
전 체	(1135)	52.0	34.0	27.8	22.6	16.5	12.1	12.0	9.4	7.3	4.1	1.2	1.1	
성별	남자	(1041)	52.8	33.9	27.4	23.4	16.4	11.5	11.0	9.4	7.4	4.3	1.3	1.1
	여자	(94)	43.1	35.3	32.1	13.8	17.2	18.2	22.8	8.4	5.5	2.0	.0	1.5
연령	49세 이하	(143)	46.7	27.7	34.8	24.7	23.1	14.5	13.2	4.0	5.4	3.5	.9	1.4
	50대	(551)	49.2	32.5	31.0	25.7	15.1	10.8	13.2	8.6	6.9	4.2	1.2	1.5
	60세 이상	(441)	57.3	37.9	21.5	18.0	16.1	12.8	10.2	12.0	8.4	4.0	1.3	.5
지역	서울	(135)	58.0	30.9	35.2	29.6	7.4	13.8	14.8	3.9	3.2	3.2	.0	.0
	인천/경기	(236)	55.6	33.3	29.4	22.3	18.3	10.1	11.8	9.1	5.8	2.3	1.1	.9
	대전/충청	(130)	52.6	26.5	23.2	26.6	14.2	16.3	12.7	10.4	9.1	4.0	2.2	2.2
	광주/전라	(288)	54.3	39.0	25.2	15.4	11.7	12.0	14.1	10.4	11.2	5.0	.8	.7
	대구/경북	(183)	43.9	36.3	22.2	25.8	28.3	7.8	9.9	12.1	6.0	5.4	1.6	.7
	부산/울산/경남	(118)	52.2	28.1	32.2	27.0	19.2	12.6	5.9	8.3	6.5	3.7	2.5	1.7
	강원/제주/해외	(45)	31.2	43.1	38.0	12.6	16.6	21.1	14.5	8.8	3.8	5.8	.0	4.4
지역크기	대도시	(388)	54.0	31.1	35.0	23.9	10.7	12.2	16.9	5.0	4.9	4.0	1.1	1.1
	중소도시	(318)	57.1	34.7	22.9	24.6	15.7	9.5	11.4	8.7	9.4	3.2	1.6	1.3
	읍/면	(428)	46.5	36.2	24.8	19.9	22.3	13.9	8.1	13.7	7.8	4.8	1.0	.9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47.1	41.8	29.3	16.3	15.7	14.9	11.4	9.4	6.8	4.0	1.8	1.6
	30-99명	(351)	55.2	32.6	26.6	19.5	19.9	10.8	11.4	10.9	7.7	3.7	1.2	.5
	100-499명	(226)	53.0	26.6	27.4	33.8	15.8	10.2	12.9	8.2	6.6	4.7	.3	.4
	500명 이상	(77)	65.6	13.8	25.0	43.0	8.3	5.4	16.4	5.5	9.9	4.4	.0	2.6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움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 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 등의 축소	온라인 교회 생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강화	국내 외 선교/ 봉사 사업 축소	예배 예식 및 예전의 강화	교회간/ 지역 사회와의 연대 증가	잘 모르겠다	기타	
교회 현금 변화	감소	(781)	55.2	39.7	24.4	23.7	15.2	11.3	11.1	7.5	7.1	3.0	1.0	.6
	변화없음	(342)	45.7	21.7	35.2	19.9	19.6	13.4	13.9	13.6	7.7	5.8	1.7	1.7
	증가	(12)	23.4	13.3	34.4	21.8	13.7	20.3	17.1	11.7	9.1	23.5	.0	11.7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53.3	27.9	35.5	24.1	12.1	12.9	14.2	7.4	6.7	2.6	1.2	2.0
	코로나 부터	(250)	54.5	27.9	28.1	30.7	15.2	7.4	15.9	8.3	5.9	4.3	1.5	.3
	운영안함	(631)	50.5	38.9	24.5	18.7	18.8	13.6	9.6	10.6	8.0	4.6	1.1	1.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56.0	39.3	22.1	18.6	16.0	13.7	8.3	11.6	8.1	4.3	1.0	1.0
	현장+ 온라인 병행	(242)	54.7	29.8	30.0	23.2	17.0	9.7	15.1	8.2	7.9	2.9	1.1	.3
	온라인 예배	(220)	46.4	27.1	37.9	31.3	15.2	8.6	14.5	6.2	6.4	4.5	.5	1.4
	가정예배	(153)	47.0	36.7	28.2	20.8	18.3	14.2	12.8	8.8	5.4	3.7	2.6	1.3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60.7	41.3	22.4	25.7	14.2	10.5	8.4	7.9	5.4	2.6	.7	.0
	변화 없을 것	(463)	45.4	27.2	33.2	18.5	18.1	13.5	14.7	12.2	8.3	5.7	1.8	1.3
	증가예상	(60)	35.5	15.5	30.3	27.5	14.9	15.5	19.5	3.9	18.9	6.7	2.9	9.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러야	(831)	55.8	35.1	22.6	24.7	15.9	11.7	10.2	10.1	8.2	3.6	1.1	1.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40.9	30.5	42.2	18.0	16.6	14.0	17.5	7.1	4.9	5.7	1.0	1.4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54.0	28.2	28.7	27.3	17.3	10.1	11.1	10.6	7.3	4.3	.5	.7
	미자립 교회	(445)	49.0	43.1	26.4	15.3	15.3	15.1	13.5	7.4	7.1	3.8	2.3	1.7



4. 총회 관련 의견

1) 총회의 코로나19 대응지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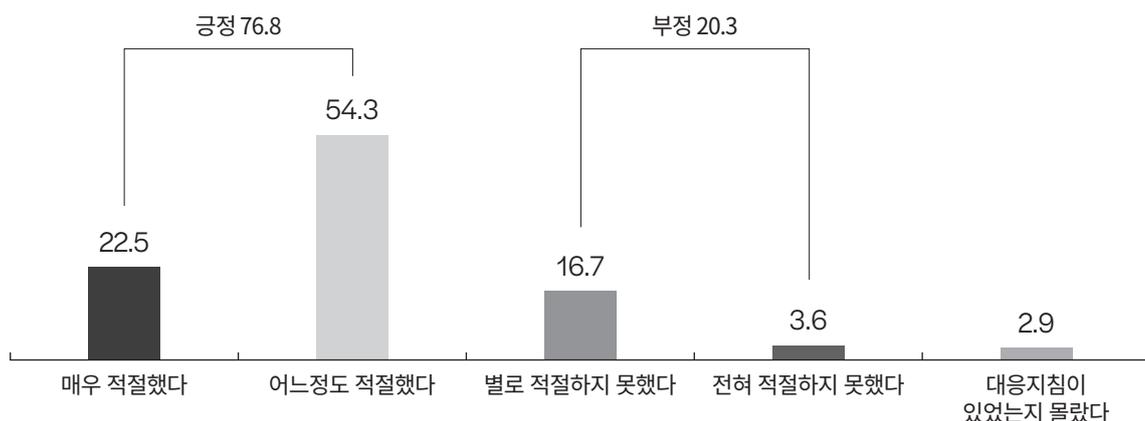
· 질문: 코로나19 관련 교단 총회가 8차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제공했는데요, 목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가 8차에 걸쳐 제공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해 거의 대부분(97.1%)의 목회자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매우 적절’ 22.5%, ‘어느정도 적절’ 54.3%로 긍정 평가가 76.8%로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20.3%로 조사됨.

대응 지침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세 이상 목회자에서 가장 높고, 읍/면 지역 교회와 출석교인 수 29명 이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총회의 코로나19 대응지침 평가

(Base=전체, N=1,135, %)



[표] 총회의 코로나19 대응지침 평가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매우 적절했다	어느정도 적절했다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대응 지침이 있었는지 몰랐다	계	(적절함)	(적절하지 못함)	
전 체	(1135)	22.5	54.3	16.7	3.6	2.9	100.0	76.8	20.3	
성별	남자	(1041)	20.9	56.1	16.7	3.9	2.5	100.0	77.0	20.6
	여자	(94)	40.1	35.2	16.9	.8	7.1	100.0	75.3	17.7
연령	49세 이하	(143)	15.4	56.3	18.8	5.9	3.6	100.0	71.7	24.7
	50대	(551)	21.4	55.4	18.2	3.4	1.5	100.0	76.9	21.7
	60세 이상	(441)	26.2	52.3	14.1	3.1	4.3	100.0	78.4	17.2
지역	서울	(135)	18.2	54.1	21.0	2.6	4.0	100.0	72.3	23.6
	인천/경기	(236)	22.0	50.6	17.7	7.2	2.6	100.0	72.6	24.8
	대전/충청	(130)	26.9	55.0	14.0	.5	3.7	100.0	81.9	14.4
	광주/전라	(288)	19.8	56.2	17.8	3.7	2.4	100.0	76.0	21.6
	대구/경북	(183)	26.7	49.7	17.9	2.2	3.5	100.0	76.4	20.1
	부산/울산/경남	(118)	26.7	60.6	8.6	2.5	1.5	100.0	87.4	11.1
	강원/제주/해외	(45)	14.3	63.1	16.2	4.4	1.9	100.0	77.4	20.6
지역크기	대도시	(388)	23.1	51.4	18.5	3.4	3.6	100.0	74.5	21.9
	중소도시	(318)	19.7	57.2	14.5	6.3	2.4	100.0	76.9	20.7
	읍/면	(428)	24.1	54.8	16.8	1.8	2.5	100.0	78.9	18.6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23.5	55.9	13.5	2.5	4.6	100.0	79.4	15.9
	30-99명	(351)	24.7	51.7	18.3	3.0	2.3	100.0	76.4	21.2
	100-499명	(226)	17.3	55.3	21.5	5.6	.4	100.0	72.6	27.0
	500명 이상	(77)	21.2	53.9	15.9	7.7	1.2	100.0	75.1	23.7



구 분		사례수	매우 적절했다	어느정도 적절했다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대응 지침이 있었는지 몰랐다	계	(적절함)	(적절하지 못함)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2.6	55.0	15.9	3.6	2.9	100.0	77.6	19.5
	변화없음	(342)	22.3	52.8	18.4	3.6	2.9	100.0	75.1	22.1
	증가	(12)	20.8	55.7	23.5	.0	.0	100.0	76.5	23.5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22.2	54.3	19.5	2.5	1.5	100.0	76.5	22.0
	코로나부터	(250)	23.8	53.7	15.9	4.4	2.1	100.0	77.5	20.3
	운영안함	(631)	22.1	54.6	15.9	3.7	3.7	100.0	76.7	19.6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23.3	51.5	17.4	3.2	4.6	100.0	74.8	20.6
	현장+ 온라인 병행	(242)	21.5	54.8	16.6	5.9	1.1	100.0	76.3	22.5
	온라인예배	(220)	20.4	55.6	17.7	3.3	3.0	100.0	76.1	21.0
	가정예배	(153)	22.4	58.4	16.1	3.1	.0	100.0	80.8	19.2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20.9	53.9	18.2	4.5	2.4	100.0	74.8	22.7
	변화없을 것	(463)	25.4	53.5	15.2	2.5	3.5	100.0	78.9	17.6
	증가예상	(60)	20.0	50.5	20.5	6.8	2.1	100.0	70.6	27.4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21.8	54.5	16.7	4.0	3.1	100.0	76.3	20.7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2.7	54.5	17.9	2.8	2.1	100.0	77.2	20.7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21.8	52.2	19.9	4.2	1.9	100.0	74.0	24.1
	미자립교회	(445)	23.6	57.6	11.8	2.7	4.3	100.0	81.2	14.5

2) 코로나19 이후 총회에서 강화해야 하는 정책

· 질문: 코로나19 이후 총회에서는 지역교회를 위하여 아래 분야의 정책 가운데 어떤 분야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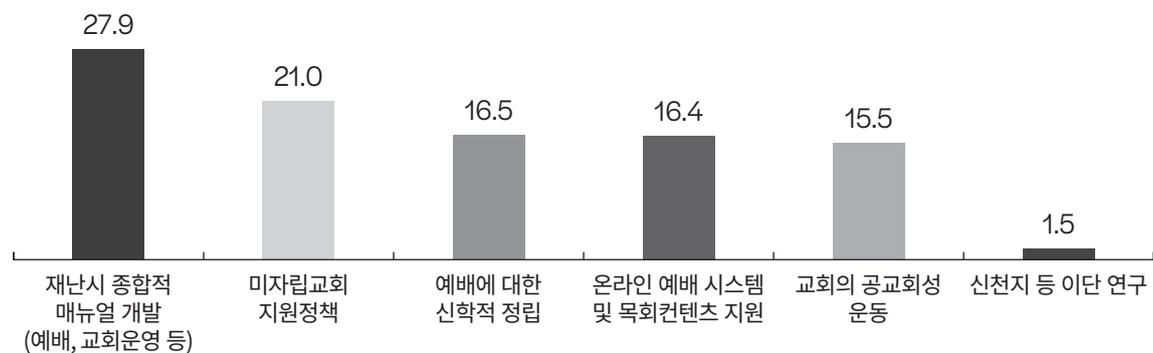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총회가 지역교회를 위해 강화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재난 시 종합적 매뉴얼 개발’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자립교회 지원정책’ 21.0%,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 16.5%, ‘온라인 예배 시스템 및 목회 콘텐츠 지원’ 16.4% 등의 순으로 응답됨.

49세 이하 목회자는 ‘미자립교회 지원’, ‘온라인 예배 시스템 및 콘텐츠 지원’, ‘교회의 공교회성 운동’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50대와 60세 이상 목회자는 ‘재난 시 종합적 매뉴얼 개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출석 교인 수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을,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재난 종합 매뉴얼’을 더 중요하게 꼽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이후 총회에서 강화해야 하는 정책

(Base=전체, N=1,135, %)





[표] 코로나19 이후 총회에서 강화해야 하는 정책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재난시 종합적 매뉴얼 개발 (예배, 교회 운영 등)	미자립 교회 지원정책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	온라인 예배 시스템 및 목회 콘텐츠 지원	교회의 공교회성 운동	신천지 등 이단 연구	잘 모르 겠다	기타	계	
전 체	(1135)	27.9	21.0	16.5	16.4	15.5	1.5	.8	.5	100.0	
성별	남자	(1041)	27.7	20.0	17.0	16.3	16.0	1.6	.9	.5	100.0
	여자	(94)	29.3	32.7	10.3	17.8	9.9	.0	.0	.0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19.4	29.3	9.5	20.1	19.5	.9	1.3	.0	100.0
	50대	(551)	29.3	21.0	15.8	16.8	14.6	1.1	.5	.8	100.0
	60세 이상	(441)	28.8	18.4	19.6	14.6	15.3	2.1	1.1	.2	100.0
지역	서울	(135)	27.4	17.0	17.1	22.2	14.8	.8	.6	.0	100.0
	인천/경기	(236)	25.5	19.7	17.2	17.5	16.9	.7	.9	1.6	100.0
	대전/충청	(130)	27.8	17.5	21.2	17.3	14.3	1.4	.5	.0	100.0
	광주/전라	(288)	27.5	26.5	16.6	13.8	13.6	1.7	.4	.0	100.0
	대구/경북	(183)	32.5	17.1	11.3	16.2	18.8	2.3	1.0	.7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26.4	22.3	18.1	14.9	13.2	2.6	2.4	.0	100.0
	강원/제주/ 해외	(45)	29.2	28.3	13.1	11.7	17.8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28.4	20.1	15.3	18.4	16.2	.6	.7	.2	100.0
	중소도시	(318)	21.3	25.5	17.5	17.1	15.2	1.9	.6	1.0	100.0
	읍/면	(428)	32.3	18.6	16.8	14.0	15.0	2.0	1.1	.2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25.1	32.3	13.6	13.8	11.6	2.0	.9	.7	100.0
	30-99명	(351)	27.1	17.4	16.4	18.8	17.6	1.4	.8	.5	100.0
	100-499명	(226)	29.9	7.2	23.3	20.3	18.1	.9	.3	.0	100.0
	500명 이상	(77)	42.5	7.7	15.2	10.0	22.3	.0	2.3	.0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재난시 종합적 매뉴얼 개발 (예배, 교회 운영 등)	미자립 교회 지원정책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	온라인 예배 시스템 및 목회 콘텐츠 지원	교회의 공교회성 운동	신천지 등 이단 연구	잘 모르 겠다	기타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8.2	23.9	14.1	16.9	14.1	1.2	.9	.7	100.0
	변화없음	(342)	27.6	14.1	22.0	15.0	18.5	2.2	.6	.0	100.0
	증가	(12)	12.0	37.6	11.7	22.4	16.3	.0	.0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25.7	18.8	18.4	16.3	18.0	1.8	.7	.3	100.0
	코로나부터	(250)	29.3	17.0	13.7	22.3	14.7	1.3	.8	.9	100.0
	운영안함	(631)	28.1	23.6	16.8	14.1	14.8	1.4	.9	.3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25.5	27.2	17.5	13.3	13.5	1.9	1.1	.0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28.0	15.2	19.1	20.4	15.1	.6	.3	1.2	100.0
	온라인예배	(220)	28.9	14.7	13.2	21.4	18.8	1.2	.8	1.0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가정예배	(153)	30.4	22.4	13.3	12.9	17.9	2.4	.7	.0	100.0
	감소예상	(559)	28.8	20.4	13.7	20.7	13.8	.7	.8	.9	100.0
	변화없을 것	(463)	27.7	21.2	19.6	11.3	17.3	2.0	.9	.0	100.0
주일 예배 인식	증가예상	(60)	17.1	23.4	25.0	16.9	16.3	1.4	.0	.0	100.0
	교회에서 드려야	(831)	27.5	21.8	17.9	14.6	15.1	1.8	.9	.4	100.0
자립 여부	온라인 대체 가능	(285)	29.3	17.4	12.9	21.3	17.7	.4	.3	.6	100.0
	자립교회	(690)	29.9	10.0	20.5	19.3	17.7	1.2	1.1	.2	100.0
	미자립교회	(445)	24.6	38.2	10.2	11.8	12.0	1.9	.5	.8	100.0



5. 기타

1)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

· 질문: 예배와 관련 두 가지 의견 중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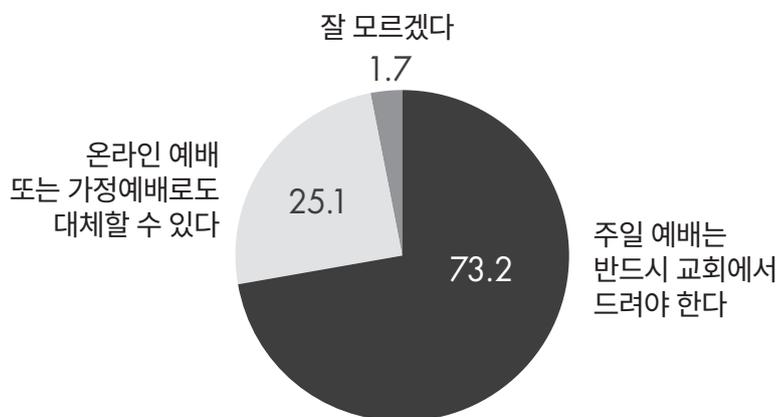
주일 예배에 대해, 3/4 가량의 목회자가(73.2%)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25.1%로 나타남.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60세 이상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읍/면 지역 교회에서 더 높음.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49세 이하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 지역 교회 및 출석 교인 수 29명 이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자립교회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135, %)



[표]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서 드려야 한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 로도 대체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135)	73.2	25.1	1.7	100.0	
성별	남자	(1041)	73.3	25.0	1.7	100.0
	여자	(94)	72.1	26.5	1.3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57.1	38.2	4.7	100.0
	50대	(551)	72.7	26.0	1.3	100.0
	60세 이상	(441)	79.0	19.7	1.3	100.0
지역	서울	(135)	72.5	27.5	.0	100.0
	인천/경기	(236)	69.6	28.9	1.6	100.0
	대전/충청	(130)	81.1	18.1	.8	100.0
	광주/전라	(288)	68.1	28.6	3.3	100.0
	대구/경북	(183)	77.6	20.4	2.0	100.0
	부산/울산/경 남	(118)	77.3	21.3	1.3	100.0
	강원/제주/해 외	(45)	75.6	24.4	.0	100.0
	대도시	(388)	68.1	30.9	1.0	100.0
지역크기	중소도시	(318)	73.4	24.8	1.8	100.0
	읍/면	(428)	77.6	20.1	2.3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68.9	28.9	2.3	100.0
	30-99명	(351)	74.6	23.2	2.2	100.0
	100-499명	(226)	78.6	21.1	.3	100.0
	500명 이상	(77)	78.3	21.7	.0	100.0



구 분		사례수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서 드려야 한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 로도 대체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73.8	24.2	2.0	100.0
	변화없음	(342)	72.2	26.6	1.2	100.0
	증가	(12)	61.0	39.0	.0	100.0
온라인 헌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67.2	32.0	.8	100.0
	코로나부터	(250)	70.7	27.7	1.7	100.0
	운영안함	(631)	76.6	21.3	2.1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85.0	13.2	1.8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76.5	23.0	.5	100.0
	온라인예배	(220)	61.7	35.9	2.4	100.0
	가정예배	(153)	53.9	42.9	3.1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76.5	21.9	1.7	100.0
	변화없을 것	(463)	69.6	28.8	1.6	100.0
	증가예상	(60)	76.6	23.4	.0	100.0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100.0	.0	.0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0	100.0	.0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76.1	22.8	1.0	100.0
	미자립교회	(445)	68.6	28.7	2.7	100.0

2) 공교회로서 온라인교회 인정 여부

· 질문: 만일,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목사님은 공교회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65.3%의 목회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22.2%가 ‘인정할 수 있다’, 12.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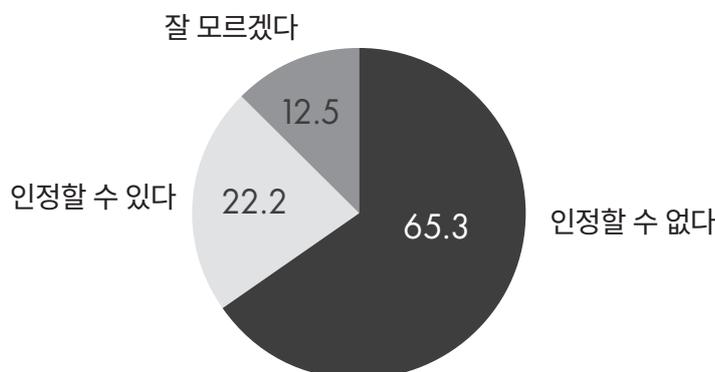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49세 이하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미자립교회에서는 자립교회보다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반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인정할 수 없다’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공교회로서 온라인교회 인정 여부

(Base=전체, N=1,135, %)





[표] 공교회로서 온라인교회 인정 여부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135)	22.2	65.3	12.5	100.0	
성별	남자	(1041)	22.2	65.7	12.1	100.0
	여자	(94)	21.4	61.1	17.4	100.0
연령	49세 이하	(143)	27.9	53.8	18.3	100.0
	50대	(551)	22.2	66.0	11.7	100.0
	60세 이상	(441)	20.2	68.2	11.6	100.0
지역	서울	(135)	22.0	67.1	10.9	100.0
	인천/경기	(236)	19.3	69.8	10.9	100.0
	대전/충청	(130)	24.7	62.4	12.9	100.0
	광주/전라	(288)	24.8	60.1	15.1	100.0
	대구/경북	(183)	16.3	72.2	11.4	100.0
	부산/울산/ 경남	(118)	28.5	59.4	12.1	100.0
	강원/제주/ 해외	(45)	20.6	65.8	13.6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88)	23.8	64.9	11.3	100.0
	중소도시	(318)	23.6	63.9	12.5	100.0
	읍/면	(428)	19.6	66.8	13.6	100.0
교회 규모 (장년출석)	29명이하	(481)	25.4	58.8	15.7	100.0
	30-99명	(351)	20.0	68.4	11.6	100.0
	100-499명	(226)	19.7	70.8	9.5	100.0
	500명 이상	(77)	19.1	75.6	5.3	100.0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21.4	65.2	13.4	100.0
	변화없음	(342)	23.9	65.3	10.8	100.0
	증가	(12)	25.7	74.3	.0	100.0

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사례수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온라인 현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27.7	62.2	10.1	100.0
	코로나부터	(250)	22.7	66.0	11.3	100.0
	운영안함	(631)	19.7	66.3	13.9	100.0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16.5	71.3	12.2	100.0
	현장+온라인 병행	(242)	19.6	69.4	11.0	100.0
	온라인예배	(220)	30.8	56.8	12.4	100.0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가정예배	(153)	28.5	58.7	12.8	100.0
	감소예상	(559)	21.3	67.2	11.5	100.0
	변화없을 것	(463)	23.3	64.7	12.0	100.0
주일 예배 인식	증가예상	(60)	27.0	64.1	8.9	100.0
	교회에서 드려야	(831)	14.9	74.1	11.0	100.0
	온라인 대체 가능	(285)	43.1	43.4	13.5	100.0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19.5	70.2	10.3	100.0
	미자립교회	(445)	26.3	57.8	15.9	100.0



3)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IT 교육 참여 의향

· 질문: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IT 관련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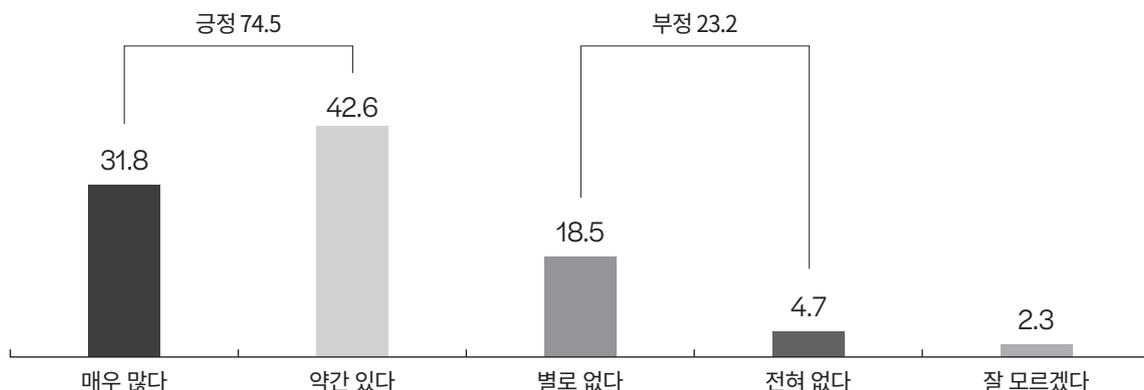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IT 관련 교육이 있을 시 참여할 의향은 74.5%로 나타남.(매우 많다 31.8% + 약간 있다 42.6%) 참여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3.2%임.

참여 의향률은 50대 연령층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임.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 헌금이 감소했다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코로나19 급증 시기에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교회와 가정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참여 의향률이 높게 나타남.

또한, 미자립교회보다 자립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향률을 보임.

[그림]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IT 교육 참여 의향 (Base=전체, N=1,135, %)



[표]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IT 교육 참여 의향 (Base=전체, N=1,135, %)

구 분	사례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잘 모르 겠다	계	(있음)	(없음)	
전 체	(1135)	31.8	42.6	18.5	4.7	2.3	100.0	74.5	23.2	
성별	남자	(1041)	30.3	44.0	18.9	4.4	2.4	100.0	74.3	23.3
	여자	(94)	49.0	28.1	14.1	8.1	.6	100.0	77.2	22.2
연령	49세 이하	(143)	23.4	47.6	15.1	9.0	4.9	100.0	71.0	24.1
	50대	(551)	33.8	43.0	17.7	3.3	2.1	100.0	76.9	21.0
	60세 이상	(441)	32.2	40.5	20.7	5.0	1.6	100.0	72.7	25.7
지역	서울	(135)	32.6	47.3	16.9	1.4	1.8	100.0	79.9	18.3
	인천/경기	(236)	28.0	41.9	20.9	7.6	1.7	100.0	69.8	28.5
	대전/충청	(130)	35.1	40.2	17.6	5.6	1.5	100.0	75.4	23.1
	광주/전라	(288)	33.5	44.9	16.4	2.5	2.7	100.0	78.3	19.0
	대구/경북	(183)	31.9	39.1	20.1	6.2	2.7	100.0	71.0	26.3
	부산/울산/ 경남	(118)	34.1	38.8	18.4	5.4	3.3	100.0	72.9	23.8
지역크기	강원/제주/ 해외	(45)	24.1	50.0	20.9	3.0	1.9	100.0	74.1	24.0
	대도시	(388)	35.2	43.2	15.6	4.4	1.5	100.0	78.4	20.1
	중소도시	(318)	27.0	45.7	19.9	5.2	2.3	100.0	72.6	25.1
	읍/면	(428)	32.4	39.9	20.2	4.6	2.9	100.0	72.4	24.7
	교회 규모 (장년 출석)	29명이하	(481)	32.9	39.6	19.4	5.6	2.6	100.0	72.4
30-99명		(351)	32.5	44.1	18.3	2.4	2.7	100.0	76.6	20.6
100-499명		(226)	30.2	46.0	18.1	4.9	.8	100.0	76.2	23.0
500명 이상		(77)	27.1	45.6	15.6	9.2	2.5	100.0	72.8	24.8
교회 헌금 변화	감소	(781)	32.7	43.0	17.1	4.6	2.6	100.0	75.7	21.7
	변화없음	(342)	30.6	41.4	21.7	4.6	1.7	100.0	72.0	26.3
	증가	(12)	9.1	57.0	22.2	11.7	.0	100.0	66.1	33.9



구 분		사례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잘 모르 겠다	계	(있음)	(없음)
온라인 헌 금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255)	30.9	42.9	19.6	4.9	1.7	100.0	73.8	24.5
	코로나부터	(250)	33.2	43.4	18.1	4.0	1.2	100.0	76.6	22.2
	운영안함	(631)	31.7	42.2	18.2	4.9	2.9	100.0	73.9	23.1
3~4월초 주일예배 방식	현장예배	(460)	31.9	39.1	21.1	5.0	2.8	100.0	71.1	26.1
	현장+ 온라인 병행	(242)	31.7	46.7	16.4	3.4	1.9	100.0	78.4	19.7
	온라인예배	(220)	29.5	45.5	16.4	5.7	2.9	100.0	75.0	22.1
	가정예배	(153)	34.1	45.9	15.5	3.9	.7	100.0	79.9	19.4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교인 예상	감소예상	(559)	34.5	41.8	18.1	4.2	1.4	100.0	76.3	22.3
	변화없을 것	(463)	30.9	42.1	19.4	4.9	2.6	100.0	73.0	24.4
	증가예상	(60)	23.7	47.2	19.0	8.5	1.6	100.0	70.9	27.5
주일 예배 인식	교회에서 드려야	(831)	31.4	42.4	18.8	4.9	2.4	100.0	73.8	23.8
	온라인 대체 가능	(285)	33.3	43.5	18.1	4.4	.7	100.0	76.9	22.5
자립 여부	자립교회	(690)	32.9	43.5	17.7	4.1	1.8	100.0	76.4	21.8
	미자립교회	(445)	30.3	41.3	19.9	5.6	3.0	100.0	71.5	25.5

첨부 | 설문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사님의 의견은 개인의 실명노출 없이 문항별 비율로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일

SQ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단수응답)

1. 담임목사
2. 부목사 → 면접 중단
3. 전도사/기타 --> 면접 중단

SQ2) 목사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단수응답)

1. 남자 2. 여자

SQ3) 목사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단수응답)

1. 39세 이하 2. 40대 3. 50대 4. 60세 이상



〈문1~문4 : 코로나 기간 중 교회 상황〉

문1)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때(3월~4월초),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셨나요? (단수응답)

1. 교회에서 현장 예배드림
2.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교인들이 선택하게 함
3.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 (목회자/예배위원은 현장 예배 드리는 경우 포함)
4.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함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 그럼, 당시의 교회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단수응답)

1.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공과공부도 함
2.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되 공과공부는 하지 않음
3.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함
4.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
5.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함
6. 기타(적을 것 : _____)
9. 교회학교가 없다

문3)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못 오는 교인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R) (중복응답),
 <로테이션은 1~4까지만>

1.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동영상 등)
2. 담임목사/담당교역자의 문자/전화심방 강화
3. 구역장 등 평신도 리더의 문자/전화심방 강화
4. 목회서신, 교회 소식 등 전달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4) 코로나19로 인해 목사님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단수응답)(R)

1. 재정 문제
2.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소속감 약해짐
3.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4. 다음세대 교육 문제
5. 성례전
6. 기타(적을 것 : _____)
7. 특별히 없음



〈문5~문6 : 재정〉

문5) 목사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헌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단수응답)

1. 줄었다 2. 변화 없다 3. 늘었다

문5-1) (문5의 1 응답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습니까?(단수응답)

_____ % 감소

문5-2) (문5의 3 응답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습니까?(단수응답)

_____ % 증가

문5-3) (문5의 1 응답자) 교회의 재정이 줄었다면 다음 중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서대로 2개만 표시해 주십시오.(R)

1순위:____, 2순위:____ (2순위 중복응답)

1. 부교역자/직원 수
2. (목사/직원)급여(목회활동비)
3. 교육부서 재정
4. 국내선교비(미자립교회/외부기관 지원 등)
5. 해외선교비
6. 교회 행사비/운영비
7. 상회비/노회 관련 재정 지원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목사님 교회는 계좌이체 현금 방식에 대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수응답)

1.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했다
2.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3.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문7~문7-2 : 지원 상황>

문7) 코로나19의 지원사업(현금/물품)과 관련 목사님 교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은 제외하고요.(단수응답)

1. 지원을 했다
2. 지원을 받았다
3. 지원을 하지도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문7-1) (문7의 1번 응답자) 지원금(물품)을 어디 어디에 전달했습니까? (R)

(중복응답)

1. 대구경북지역 피해교회/단체
2. 총회 또는 노회
3. 기독교 단체
4. 교회 주변 지역 취약계층
5. 미자립교회
6. 시민단체, 지차체, 모금단체 등 일반단체
7. 기타 (적을 것 : _____)



문7-2) (문7의 2번 응답자) 목사님 교회는 어디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요?

(정부재난지원금 제외)(중복응답)

1. 총회 또는 노회
2. 우리 교단 교회
3. 타 교단/노회/교회
4. 모금단체 등 일반 단체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8~문9-3 : 교인 수 증감>

문8) 목사님 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인원(장년기준)은 다음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코로나19 이전 예배 참석 인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음 각 시기별 참석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

문9) 코로나19 종식 후 목사님 교회의 출석 교인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단수응답)

1. 감소할 것 같다
2. 변화가 없을 것 같다
3. 증가할 것 같다
4. 잘 모르겠다

문9-1) (문9의 1 응답자) 코로나19 이전보다 몇 %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단수응답)

_____ % 감소 예상

문9-2) (문9의 3 응답자) 코로나19 이전보다 몇 %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단수응답)

_____ % 증가 예상

문9-3) (문9의 1 응답자)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되려면 코로나19

종식 후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단수응답)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5. 3년 이상 6.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문10~문12 : 목회/예배 향후 계획>

문10) 목사님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R)

1순위:____, 2순위:____ (2순위 중복응답)

1. 설교력 강화
2. 온라인 예배/성경공부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3. 심방/전도 강화
4.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5. 비대면 소통 방식 개발
6. 예식, 예전 / 모이는 예배 강화
7. 안전, 위생 강화
8.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9. 교회학교 신앙교육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11)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다?

(단수응답)

1.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2.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했다
3.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다

문11-1) (문11의 2번 또는 3번 응답자) 그럼 현재 목사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1.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
2.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한다
3.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문11-2) (문11의 2번 또는 3번 응답자)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단수응답)

1.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할 것
2. 온라인 중계는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할 것
3.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것
4. 아직 잘 모름

문11-3) (문11의 1번 응답자) 앞으로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단수응답)

1. 기존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게 더 강화
2. 기존의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
3. 기존과 변함없이 하겠다
4. 잘 모르겠다

문12) 예배와 관련 두 가지 의견 중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단수응답)

1.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2.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
3. 잘 모르겠다



<문13~문15 : 한국 교회>

문13)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들입니다. 목사님은 이 중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R) 1순위: ____, 2순위: ____ (2순위 중복응답)

1. 소형교회 어려워짐
 2. 교회 출석 교인수의 감소
 3. 국내외 선교/봉사 사업 축소
 4. 교회 내 모임, 공동 식사의 축소
 5.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강화
 6.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7. 예배 예식 및 예전의 강화
 8. 온라인 교회 생김
 9. 교회학교 학생 감소의 가속화
 10. 교회간/지역사회와의 연대 증가
 11. 기타(적을 것 : _____)
99. 잘 모르겠다(설문 프로그램 : 1순위로 99번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감)

문14)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R)

1순위:____, 2순위:____ (2순위 중복응답)

1.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
 2. 가정 예배의 소중함 경험
 3. 성도간 교제 소중함 경험
 4. 생활신앙 중요성 인식
 5. 목회자의 목회방식/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6.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
 7.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
 8. 교회의 안전/위생 중요성 부각
 0. 기타(적을 것 : _____)
99. 잘 모르겠다(설문 프로그램 : 1순위로 9번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감)

문15)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

고 보십니까?(R) 순서대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R) 1순위:____, 2순

위:____ (2순위 중복응답)

1. 교회의 공적 역할(취약계층/미자립 교회 지원 등)
2.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3.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4. 사회와의 소통시스템 구축



5.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6. 가정 신앙교육
7. 이단 대응
8. 기타(적을 것 : _____)
9. 잘 모르겠다

〈문16~문19 : 총회/기타〉

문16) 코로나19 관련 우리 총회가 8차에 걸쳐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1. 매우 적절했다
2. 어느정도 적절했다
3.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4.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5. 대응지침이 있었는지 몰랐다

문17) 코로나19 이후 총회에서는 지역교회를 위하여 아래 분야의 정책 가운데 어떤 분야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온라인 예배 시스템 및 목회콘텐츠 지원
2.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
3. 재난시 종합적 매뉴얼 개발(예배, 교회운영 등)
4. 신천지 등 이단 연구
5. 교회의 공교회성 운동
6. 미자립교회 지원정책
7. 기타(적을 것 : _____)
8. 잘 모르겠다

문18)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IT 관련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단수응답)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9. 잘 모르겠다

문19) 만일,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목사님은 공교회로 인정하시겠습니까?(단수응답)

1.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할 수 없다
3.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자료분류를 위해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D1. 목사님 교회의 교회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대학생 이상 장년 출석교인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단수응답)

- 1) 29명 이하 2) 30-49명 3) 50-99명 4) 100-199명 5) 200-499명
6) 500-999명 7) 1000명 이상

D2. 목사님의 시무 교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단수응답)

1. 서울 2. 경기/인천 3. 대전/충청
4. 광주/전라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경남 7. 강원/제주 8. 해외

D3. 목사님의 시무 교회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단수응답)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D4. 목사님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한가요?(단수응답)

- 1) 자립교회 2) 미자립교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사례 1

CONTENTS

총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아래 내용은 2020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총회 코로나19 대책활동 경과
- 2 총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조직과 주요 활동
- 3 총회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 4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 포함)
- 5 코로나19 감염증 제1~8차 교회대응지침
- 6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 7 노회별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현황 보고
- 8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 (거리노숙인)
- 9 코로나19 자가격리 선교사 및 현지선교사 지원사업
- 10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과 대책 경과

1

총회 코로나19 대책활동 경과



일시	경과보고
2020.1.3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 발표
2020.2.7	‘우한 교민을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산시민들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 (지정기탁영락교회 1000만 원)
2020.2.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회)의 예덕기금회를 의료지원사업 1만달러 송금(11,900,000원)
2020.2.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COVID-19)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주관)
2020.2.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제2차 대응지침 발표(전국노회 공문 및 문자발송)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보완지침 안내
2020.2.24	코로나19 대응 TFT 제1차 회의(조재호, 변창배, 오상열, 이상원, 유수정, 김영도, 이명숙)
2020.2.26	코로나19 대응 TFT 제2차 회의(변창배, 오상열, 이상원, 김영도, 이명숙)
202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3차 교회대응지침과 신천지예수교증거성막성전 관련 기자회견
2020.2.28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경남·경북지역 마스크 보내기 운동(1차 전달 5만 9천장)
2020.2.28	코로나19 구호를 위한 전국 모금 결의(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2020.3.2	코로나19 피해 구호 전국 모금 총회장 메시지 발표
2020.3.5	코로나19 피해구호 전국모금 참여를 위한 문자발송
2020.3.6	코로나19 대응 TFT 제3차 회의
2020.3.9	전국 68개 노회에 신천지 위장교회 및 총회마크 불법 도용에 대한 고지
2020.3.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국장로회연합회 등)
2020.3.10	코로나19 대응 TFT 제4차 회의
2020.3.12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취약계층 도시락배달사업 지원 500만원, 대구새살림커뮤니티 자가격리시설 100만 원 지원, 포항노회 포항의료진 지원사업 160만원 지원
2020.3.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제4차 대응지침 발표
2020.3.13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잠실교회, 주안장로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대구·경북지역 피해 극복을 위한 3억원 지정기탁
2020.3.16	예장노숙인복지회 7개 시설의 약 690명의 거리노숙인 무료급식비 한달 분 1,750만원 지원
2020.3.17	대구지역 4개 노회 115개 자립대상교회 7,803만원 지원
2020.3.18	제104-1차 코로나19 대책총괄본부(코로나대책총괄본부장 신정호)

총회 코로나19 대책활동 경과

일시	경과보고
2020.3.19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숙인 지원(컵라면 2만 8천개, 휴대용 손세정제 5천개 등)
2020.3.20	3월29일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일 선포 및 코로나19 감염증 제5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2020.3.20	대구경북지역 자립대상교회 지원사업(115개 교회 78,030,000원)
2020.3.22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2020.3.2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과 3월 29일 주일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선포
2020.3.24	코로나19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
2020.3.26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6차 교회대응지침발표
2020.4.1	68개 노회 자립대상교회 지원사업(2,243개 교회 672,900,000원)
2020.4.2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금 송금에 따른 협조요청 (노회 자립대상교회 구호사업 현황파악 요청)
2020.4.2	포항·포항남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포항 우창교회)
2020.4.3	코로나19 감염증 제7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2020.4.10	전남·광주·광주동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신실한 교회)
2020.4.13	충청·천안아산·충주·충북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외평교회)
2020.4.14	경서·경안·영주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구담교회)
2020.4.16	대구동·대구서남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대구서남노회관)
2020.4.16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지역사회섬김사업 공모(충청 2,000,000원, 포항 2,500,000원)
2020.4.17	충남·대전·대전서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선창교회)
2020.4.17	예장노숙인복지회, 이주민선교회, 장애인복지회 등 마스크 지원 9,000장(18,810,000원)
2020.4.21	평남·서울서북노회, 햇살보금자리(노숙인 시설)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평남노회 사무실)
2020.4.22	코로나19 입국선교사 자가격리 지원(월세지원 3개/ 4,419,000원)
2020.4.23	코로나19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방역구호장비 24,150,000원)
2020.4.23	행정지원본부 마스크 구입 지원(4,347,385원)
2020.4.28	부산·부산동·부산남·금정희망의집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부산노회관)



일시	경과보고
2020.4.28	코로나19 인도네시아 미션21 아시아대륙회의 청년대회(ASF) 의료지원사업(3,730,402원)
2020.4.28	코로나19 지역사회섬김사업 지원(대구서남 2,800,000원 / 평양 2,500,000원)
2020.4.28	총회 및 자치기관, 산하기관 방역 전동분무기 및 소독수 구입 및 배포(884,000원)
2020.4.28	1차 총회파송 입국선교사 자가격리 사택관리비 및 식사비 지원(4월 분 2,790,000원)
2020.5.7	서울동노회 방역자원봉사단 조직 및 교육(경신교회)
2020.5.7	코로나19 대응 TFT 제5차 회의
2020.5.8	코로나19 감염증 제8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및 기독공보 광고
2020.5.18	2차 총회파송 입국선교사 자가격리 사택관리비 및 식사비 지원(5월 분 9,184,000원)
2020.5.26	자가격리선교사 월세 관리비 지원(429,790원)
2020.5.28	군산·익산노회 방역자원봉사자 조직 및 교육(새만금 명성교회)
2020.6.2	로힝야족 난민캠프 코로나19 식량지원(2,000불)
2020.6.2	현지선교사 코로나19 피해구호(39,300불)
2020.6.15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서빙고 온누리교회)

총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조직과 주요 활동

1. 코로나19 대책총괄본부

- 본부장** 신정호 목사(부총회장)
위원 조재호 목사(총회서기), 홍성언 장로(사회봉사부장),
변창배 목사(사무총장)

2. 코로나19 대응 실무TFT

- 팀장** 변창배 목사(사무총장), 오상열 목사(도농사회처 총무),
이명숙 목사(사회봉사부 실장), 이상원 과장(전산홍보팀),
김영도 전도사(사무국)

3. 부서별 주요 대책활동

- 1) **사회봉사부** 대구경북지역 긴급구호, 취약계층 지원사업,
미자립교회 지원(농어촌선교부협력), 지역사회섬김사역,
방역자원봉사단 조직(26개 노회 2개 시설 159명의 방역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상시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중
국·인도네시아·미얀마난민 코로나19 구호
- 2) **국내선교부** 매 주일 설교문 3편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
재난상황의 예배 지침 작성
- 3) **교육자원부** 교회학교 예배영상 및 자료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 일정 조정 등
- 4) **농어촌선교부** 자립대상교회 지원 지속 요청 공문 발송 및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부 협조



- 5) **군교정선교부** 군선교, 교정선교, 소방선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침 제공과 온라인 매체 지원
- 6) **세계선교부** 총회 파송선교사 지침 제공, 선교사지원지속요청 공문 발송 및 입국 자가격리선교사지원(5천만원), 팬데믹 속의 현지선교사 지원사업(5천만원),
- 7) **고시위원회** 목사고시 일정을 7월 2일로 변경
- 8) **재정부** 상회비와 총회헌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
- 9) **언론홍보팀** 대변인 제도를 통한 언론 간담회 등 홍보

4. 교단연합 차원의 대책

- 1) 한교총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성명서 발표(2020.2.25.)
- 2) 문화체육부 박양우 장관 면담(2020.3.3.)
- 3) 한교총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기도회(2020.3.12.)
- 4) 한교총 목회서신 발표(2020.3.13.)
- 5) NCKK 한교총 공동 담화문 발표(2020.3.19.)
- 6) 이낙연 전총리 면담(2020.3.23.)
- 7) 한교총,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성명서 발표(2020.3.25.)

총회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2020.2.20.목 자료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생명을 빼앗지만 공포와 두려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앓아잡니다. 전 지구 생명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전국교회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제성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
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4절)

2. 기도방법

1. 주제말씀(시편 91편 1~4절)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2. 주어진 기도제목으로 개인 혹은 가족, 직장,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3. 기도제목

※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 중국교회가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3. 중국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_대표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30개국 7만 5천여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수천 년 전, 애굽의 온갖 재앙과 온역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패스오버(Passover)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지구 생명체의 재난이 우리의 회개와 도덕적 책임을 결단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부른 생태계 파괴의 경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한 생명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본축적



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생태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지구생명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인류애와 세계시민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공포와 두려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앗아 갑니다. 전 지구생명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과 안전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모든 육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일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국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구생명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기후변화, 병원체의 진화, 도시 인구의 밀집, 개발 확대에 의한 야생동물의 인간 공동체 침입,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지구생명공동체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과 많은 피조물들과 그리고 온 인류는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더 빈발하고 확산 규모도 넓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태계의 경고 메시지를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를 위해 지금까지 지켜온 인류문명의 근본 논리와 발전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면서 중국인들과 동양인마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동·서양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승고한 연대의식으로 승화되도록 도우소서. 인류가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지구생명공동체를 위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쓰러져 가는 수많은 생명을 타자화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책임으로 고백하며 세계교회가 생명을 살



리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겁고 침통한 심령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축복하시며 사명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이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이 땅과 생물들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무관심과 경쟁, 반목과 질시의 역사를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한 참상을 보며 통회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위로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오랜 이웃인 중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한을 비롯하여 전국의 백성들이 신종코로나 전염병의 공포와 고통,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약품과 병상을 채워주시고 의료진과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갑작스런 병마로 가슴을 쥐어뜯기는 고통 속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주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소서.

사랑의 주님, 중국의 교회가 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정금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전국각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정을 베풀고 나눔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병을 속히 거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예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지쳐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사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화해의 하나님! 하나님! 지구생명공동체에 감염공포가 만연한가운데 매일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격리, 폐쇄, 휴업, 입국제한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고 비상국면이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은 재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렬하게 추구해 온 경제성장이 생명의 안위보다 우선순위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당연히 하면 살아온 삶의 전제조건들을 점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회심을 허락하소서.

확진환자가 늘고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많은 업무와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운 이때! 믿는 우리들은 그 여백을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으로 삼아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민과 정부가 신뢰와 연대 속에 중장기적인 회복계획을 세우되, 무한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는 삶을 지각하며 생명 중심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신천지 집단의 코로나 슈퍼전파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열광적인 집회와 포교활동은 사람들의 영혼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전파라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부디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이들을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나 심판으로 연관시켜 감염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지역 사회속의 중국인이나 감염자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솔선하여 감염예방에 앞장서며, 시민단체들과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확산을 막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 생명 존중과 안전문화를 확립하는 일에 교회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어 지역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치유와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1



코로나19 피해구호 전국모금 총회장 메시지 (2020.3.2)

세계교회는 재의 수요일인 2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4월 둘째 주일까지 2020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통하여 인류를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이 선물로 주어짐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020 사순절을 맞아 전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피해자와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서 온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3월 2일 오전 8시 현재 65개국에서 8만 8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736명의 확진 환자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천지집단의 사교적인 행태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써 노력하고 있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과 보건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담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하는 이들의 고통도 눈물겹습니다.

3월 1일은 삼일운동 101주년 기념 주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역자도 울고 성도도 울었습니다.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피치 못하게 감당했으나 안타까

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힘써 기도합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고통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시기에 회개의 재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향해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와 의료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20. 3. 2

총 회 장 김태영
사회봉사부장 홍성언

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을 구호하기 위하여 모금을 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 모금계좌 : 신한은행 140-005-699499(총회재해구호)

*입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구호 헌금을 입금한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2

코로나19 총회장 목회서신(2020.3.24.)



총회 산하 9,200 교회와 기관 255만 명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중국 우한과 대구 신천지 집회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은 대구·경북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WHO가 코로나19를 판데믹으로 선포하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확산되어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여 역사를 새롭게 쓰며 굳건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재난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담당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구호물품과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조치에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지역교회가 유사 이래 최초로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왔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극소수의 제한된 교우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 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으나 벌써 1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만여 교회 중 몇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과 감염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교훈삼아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

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교회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해외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개인청결 위생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3월 21일(토)에 국무총리가 긴급담화를 통하여 '종교시설의 사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어느 특정 교회(담임목사가 구속 중임)의 예배 광경을 며칠 계속하여 방영하여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를 폄하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3월 22일, 주일 아침에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몇 교회에서 주일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따라 방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며 교회 문을 닫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예배도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공동식사도 없이 해산 하면서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재해구호에 힘쓰면서 함께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는 총회장인 저 자신으로서도 모욕적인 일이요, 교회적으로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고백하는 요리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경제인에게 경제활



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존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화 예술인에게 예술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예’ 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중단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옥보이지 마십시오. 정부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교회사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경찰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만 보내지 말고 한국교회의 연합단체와 교단의 협력을 구하고, 각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와 소통하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공문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역교회의 당회가 공동체 예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절차를 밟아서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를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안전과 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숙자를 섬기고 주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만드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강행'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지하철운행 강행, 학원 강행, 식당영업 강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곡과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시다.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리고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목회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교회 공동체와 힘들어 하는 교우들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방문하고 만나는 목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휴대폰과 메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위기와 환란의 시대에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난국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세상 풍파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0.3.24.

총회장 김태영 목사

4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3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2020.2.26.)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확진 환자가 전국 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무절제와 탐욕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passover)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듯이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드린다. 한국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 정부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며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국제적인 교역과 신인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천지 집단의 반사회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밝혀진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인 우한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일원에서 출발한 이들의 국내 입국에 제한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 또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전 국민이 감염사태 대처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입수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고,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 신천지 예수증거장막성전과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하여

신천지교는 기독교 교파가 아니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기초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폐쇄적이고 밀교적인 포교방법을 사용하여 기독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명된 집단이다. 신천지는 특유의 반사회적인 면모로 인하여 방역당국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도들의 발병 사실을 숨기다가 하면 심지어 신도들이 스스로 신천지 집단의 구성원임을 감추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감염자 급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신천지교 교주 이만희 씨는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한다.

3.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란다. 전국 교회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초기 대처가 중요하니 3월 1일과 8일의 주일예배는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과 예방조치를 충실하게 하며, 주일을 가정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온라인 예배 등)하는 것을 교단의 지침에 따라 교회(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바란다. 각 교회는 다중의 집회와 주중 교회시설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모든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앙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기 바란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이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기 바란다. 특히 3.1운동 101주년 기념일인 3월 1일(주일)에는 한민족과 한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지키기 바란다.



4. 테스크포스팀 운영에 대하여

본회에 속한 30개 교단은 교단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투명한 정보전달을 위해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한다, TFT 연결번호는 010-7440-6202이며, 통화는 되지 않고 문자와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속히 종식 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2020년 2월 26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4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며(2020.2.26)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교회들에게 회개와 자기성찰의 마음을 담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외부유입단계를 지나 지역확산단계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생명의 안전이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이 기독교계 신흥이단사교집단인 신천지의 집회가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 역할을 하면서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한국사회의 시선은 한국교회의 집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의 지역교회 ‘침투’로 인한 감염의 확산이 우려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는 유사한 집회의 형태가 또 다른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감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극우개신교 정치집단이 고집스럽게 펼치고 있는 광화문 광장집회가 또 다른 불통의 불씨가 되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대재난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마디’라는 깊은 신앙적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정부가 마련한 매뉴얼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되, 공동체가 지니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의 표현인 집회를 철저하게 전체 사회의 공적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에 빠진 시기에 우리의 신앙 형식



이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이기심이지 이 세상을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불어 닳친 생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도들은 물론이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당의 대중집회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은 물론 각 발생지 교회와 여러 교단에서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를 당분간 중지하자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경건을 훈련하고 회복하므로 신앙의 유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통의 방식인 온라인 매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묵상자료나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나누면서 공동체적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모든 교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며 섬세한 대응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느 곳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라고 주신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웃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표현되

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예방에 힘쓰면서 고통 받는 이들을 배척의 눈이 아닌 상호 돌봄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의에 충만하여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양을 삼는 것은 신앙의 오만이지 결코 세상을 구하는 힘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수난 당하시는 사랑을 본받아 국적, 인종, 종교, 이념을 떠나 가장 위급한 이에게 가장 먼저 구호를 실천하며, 혐오와 차별이 아닌 상호 연대와 인류애의 정신으로 대재난을 극복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사냥하는 자의 덧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소서.
 (시편 91편 1~4)



2020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총무 이홍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태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구세군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유낙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양호
한국정교회 대주교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유영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은섭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5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드리는 한국교회총연합 목회서신(2020.3.13.)

한국교회에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교회와 전국에 흩어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코로나19>는 함께 극복해야 할 재난입니다.

21세기 인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큰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감염병은 전쟁이나 기근과 함께 인류가 고통 중에 극복해야 할 난리요, 최대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엄습한 <코로나19>는 민심을 흥흥하게 하여, 서로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여 이기적 인간성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이 감염병이 함께 극복해야 할 재난임을 알기에 개별 교회가 주중 모임을 중단하고, 교회의 생명선인 주일 낮 예배도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진행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예배의 형태는 달라져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거룩한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교회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예배도 멈추고, 활동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예배는 그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책무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지혜와 용기와 담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독재자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지켜 왔습니다. 이것이 폐허와 절망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워낸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환경에 따른 예배형태 변경이라는 변화를 이겨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3. 신천지와 정통교회는 다릅니다.

정통교회는 금번 사태의 슈퍼 전파자였던 신천지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새벽, 대한민국 국회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추경 결의마저 뒤로 한 채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통교회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회

가 국가적 재난을 돕기 위해 고뇌하며, 논의하며, 수고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들을 생각이 없으며, 또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 지자체장들도 교회가 예배를 멈추면 마치 감염병이 차단될 것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으로 교회들을 향해 공문을 통해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 감염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합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염자들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과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염현장을 누비며 수고하는 일선 방역팀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교회의 수련원 시설은 격리시설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구입을 양보합시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위급한 이들에게 마스크 구입을 양보하는 배려와 섬김의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부터 취약한 이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6. 돌이켜 예배자의 삶을 살아냅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앞에서 편을 가르며, 삼킬 자를 찾는 오만한 이들과 같은 길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코로나19>의 시간을 줄이시고, 다시 일상의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인류는 이 두려움의 시간을 망각하고 오만한 길로 가겠지만,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홀로 예배당을 지키며 예배하는 목회자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며, 공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아멘.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일동**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6

한교총과 교회협 공동담화문 “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2020.3.19.)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성찰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담긴 생명의 담지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깊이 되새깁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앞에 협조를 구합니다.

첫째, 일부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심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여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형식을 바꾸면서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방역 당국과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의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은 개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산을 우려하는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집단감염은 복음을 위해 덕을 세우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보다 책임있게 행동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예배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적 박해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에 따라 최고 등급인 ‘심각’(Red)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범 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단계 상황은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개학 연기, 확진자 발생 건물의 폐쇄, 확진자의 격리수용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여타의 시설과 같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되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조치로서 다중집회의 중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주중 집회를 중단하고, 주일예배의 중단 대신 예배 형식의 변경을 통해 다중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은 몇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우리의 신앙이 지닌 공적 증언을 약화시켰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심각’ 상황에서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종일관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관 지자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함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 우려로부터 이웃을 안심시키고, 자율적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4월 6일로 예정된 학교의 개학에 맞춰,

안전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예배와 집회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방역환경을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선 모든 교회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다중집회시설의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요. 집회 시에 ❶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기 ❷ 입장 및 퇴장 시 손 소독하기 ❸ 마스크 착용하기 ❹ 간격 유지하기 ❺ 집회 전후 시설 소독하기 ❻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하기 ❼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 사항 확보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므로 이웃과 함께 삶의 애환과 고민을 나누는 선교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금, 노약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골목 식당과 작은 가게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이에 모든 교회는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인들이 SNS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2.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살피주십시오.
3. 교회 안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교회 주변에서 이웃들의 아픔을 돌봐 주십시오.
4. 작은 모임이라도 교회 내 배식을 피하고 골목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5.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6.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마스크 구입은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해 양보해 주십시오.
7. 헌혈에 참여해 주십시오.
8. 지역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국민과 함께 이 위중한 시련을 이겨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한국교회의 자기 비움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새 생명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편 91:1,2)

2020년 3월 19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총무** 이홍정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7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면서>목회서신(2020.5.18.)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공동체는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를 통해 전파될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국경을 막고, 학교와 집회와 사업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기아와 전쟁과 함께 오만한 인류를 향한 거대한 시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한 단계씩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져 왔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순전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명처럼 지켜온 예배 형태를 바꾸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가 확산 되는 두 달여 동안 집회다운 집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인류는 바이러스와 동거하면서 점차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교회에게 감염을 두려워하는 이웃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가?”

“교회는 너무 무기력하게 예배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생활 속 방역으로 학교의 교문을 열고, 멈추었던 통로를 조심스럽게 열어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2020년 성령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성령강림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이들에게 오신 약속의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달리기를 멈춘 한국교회는 여전히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팬데믹 상황에서 흐트러진 교회의 전열을 가다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성도는 일상을 정상화하기 전 예배부터 회복하는 믿음의 토대를 놓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교회들은 마음을 모아 디데이(D-day)를 정하고 회복을 준비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마다 능력 있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둘째,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교회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합니다. 당분간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셋째, 비대면 시대, 예배를 회복하며 디지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대를 맞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 연결하며 생명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합니다. 디지털 문명으로 시대가 변하고, 연결의 방식이 변한다 해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91:3). 구원의 산성이요,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준비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4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목회서신과 성명서, 연합기관 성명서 모음 8



한국교회총연합회 코로나19 관련 대표회장 성명(2020.6.2.)

소규모 모임 감염 우려, 기본적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할 것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온 국민과 세계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발적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멈추었던 일상을 조심스럽게 병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공적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 어떤 시설보다도 철저한 방역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규모 모임 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깊은 우려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지 못한 작은 모임들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과, 예배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앞으로 두 주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모든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의 상황을 살피며, 지역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대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과 거리두기 등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친밀한 사람들 간에도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고난과 함께해왔던 한국교회 전통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코로나19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5

코로나19 감염증 제1~8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교회대응지침 내용	정부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차 지침 (2020.1.30.)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 및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	1.20 관심→주의
2차 지침 (2020.2.21.) · 방역당국 방침 협력 당부 · 주일예배 이외 모임 일시 중단 또는 자체 권고	1.27 주의→경계
3차 지침 (2020.2.26.) · 당회(혹은 제직회)의 결의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겸하여 드릴 수 있도록 대응방향 제시	
4차 지침 (2020.3.13.) · 현장예배를 드릴 경우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 철저 제시	2.23 경계→심각
5차 지침 (2020.3.20.) ·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 ·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배포	
6차 지침 (2020.3.26.) · 3월 30일~4월 4일까지 “코로나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교회별로 가질 것을 요청 · 2020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맞이 지침 배포 · 종교행사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추가지침 배포	3.2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7차 지침 (2020.4.3.) · 2020 종려주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일 기도회에 대한 지침 배포 · 4월12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 5월 31일까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따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	봉교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
8차 지침 (2020.5.8.) · 생활방역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제1차 교회대응지침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자 발생으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2020.1.29) 18개국으로 확산되어 확진환자 6,056명(대한민국 4명), 사망자 13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안내합니다. 전국교회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총회의 지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1. 감염 경로 : 사람 간 전염(손·침 등에 감염)
2. 감염 초기 증상 :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2. 교회 예방 지침

1. 교회당 눈에 잘 띄는 곳에 예방 수칙 포스터를 붙인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 다운)
2. 악수대신 목레나 손 흔들는 것으로 인사한다.
3. 교회당 여러 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홍보한다.
4. 병원 심방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5. 경계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공동식사 등 단체 활동을 자제한다.
6. 단기선교 등 해외여행을 자제한다.



3. 일상생활 예방 지침

1. 방송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경보수준, 증상, 치료 등)를 얻는다.
2.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3. 휴대용 개인소독제를 가방이나 차에 가지고 다니며 사용한다.
4.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5.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으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6. 해외여행 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한다.

4. 증상발생시 행동 지침

1. 증상이 의심되면 대외활동을 중단한다.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상담한다.
4. 지역별 선별 진료소를 확인한다. (http://www.mohw.go.kr/react_popup_200128.html)
5.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알린다.
6. 검진, 치료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증상 의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5. 감염병에 대처하는 자세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정보나 가짜뉴스를 경계한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우한, 나아가 중국,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
3. 한국에 입국한 우한 교민이나 국내 확진환자에 대한 편견을 거부한다.
4. 철저히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5

코로나19 감염증 제2차 교회대응지침



우리 총회 산하 68개 노회와 9,190개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총회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2. 교회는 주일성수에 힘쓰되 그 외의 각종 예배와 모임, 소그룹 활동, 행사 등을 3월 5일까지 일시 중단하거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연습하기보다 익숙한 찬송가나 특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부득이한 급식은 우유나 떡, 빵 등의 대용식을 제공하고 친교장소 운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당과 부속 건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발열이 있는 이나 호흡기 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에도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별로 시간을 정하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부절제한 생활을 한 것을 참회하는 기도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경 시편91:1-4, 역대하 7:11-16 /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라,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6. 본 교단의 성도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 감염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이로 인하여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함

께 기도하시고, 지나친 공포감으로 인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모 집단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지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교회로 침투할 것이 우려되니 등록교인 외의 교회 출입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총회와 전국 68개 노회, 산하 및 유관기관, 연합기관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면 회의, 모임, 행사,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9. 만일 지교회의 주일예배에 감염 확진자가 방문하였거나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지방정부와 방역당국에게 즉시 통지하고 2주간 예배와 집회를 중지하고 대체 방안을 시행하되, 당회의 결의로 하시고 노회와 총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총회는 코로나19 대응 TFT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총회 홈페이지에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시에 소속 교회 목회자들에게 직접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11. 총회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추이를 주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응 지침을 다시 통보할 것입니다.
12.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감염증 제3차 교회대응지침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아래와 같이 3차 대응 지침을 안내하니 전국교회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응 지침

1.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본 교단 산하 교회는 3월 1일(주일)과 8일(주일)의 주일예배를 다중의 회합을 피하여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2.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경우에 당회(혹은 제직회)의 결의로 이를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자료를 제공합니다.
3. 주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위생과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4.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성만찬예식은 가급적 드리지 않고, 찬양대의 찬양은 중창이나 독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3월 1일(주일)에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며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대응 지침

1. 본 교단 성도들은 시간을 정하여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을 참회하는 기도생활에 힘쓰기 바랍니다.
2. 주중에 제반 교회시설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주일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3. 교회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소그룹 활동, 심방, 상담 등은 감염병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중단하거나 자제합니다.
4. 교회시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배당에 비치한 성경책, 찬송가, 돈보기 등의 공동물품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방역기관에 소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지 않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대응 지침

1. 총회 예배예식서와 홈페이지의 예배자료를 참고하여 지 교회 상황에 맞는 가정예배자료를 제공합니다.
2. 매주 교인들에게 목회편지를 보내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방문 심방을 자제하고 전화나 문자 심방을 합니다.
4. 모든 성도가 매일 정오(낮 12시)에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자료를 배포합니다. 총회 홈페이지의 총회장 명의의 기도 요청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교우나 지역사회의 경조사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자만 참석합니다.



6. 교회학교 교역자는 교회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예배자료를 제공하고, SNS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합니다.

총회·노회·지교회 회의 대응 지침

1. 불요불급한 회의는 화상회의나 유선회의로 대체하거나 연기 혹은 취소합니다.
2. 중장기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1) 사전에 회의장을 방역하고,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구비합니다.
 - 2) 감기, 코로나19 유사 증상자, 확진환자 발생시설 방문자 등은 회의 참석을 자제합니다.
 - 3) 회의 참석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조치를 합니다.
 - 4) 회의장 입구에서 참가자의 손 소독을 실시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 5)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신천지 대응 지침

1. 교인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교회 내에 이단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회 주변의 신천지 관련시설과 위장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3. 낯선 방문객을 안내하는 출입구를 지정하여 1곳만 사용하거나 제한합니다.

4. 교회입구에서 새가족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방문하여 줄 것을 안내합니다.
5. 교리상의 문제로 신천지인의 예배당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5

코로나19 감염증 제4차 교회대응지침



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차례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차 지침(2020.1.30.)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제2차 지침(2020.2.21.)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협력할 것과 주일예배 이외의 각종 예배와 모임을 일시 중단하거나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3차 지침(2020.2.26.)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당회(혹은 제직회)의 결의로 다중의 회합을 피하여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일예배 대응 추가 지침

1. 각 교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발표한 이상의 총회의 대응지침, 특히 주일예배와 예배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유념하여 준수하시되,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회중의 형편을 감안하여 예배 준수와 예배당 시설의 사용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경우에, 교회의 목회자가 제한된 수의 예배자와 함께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들에게 예배자료나 동영상을 제공하여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돌보시기 바랍니다.
3. 주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교회는 예배 참가자가 출입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예방과 방역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배나 집회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나 집회 시에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배 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대응 추가 지침

1. 각 교회의 목회자는 2020 사순절을 맞아 성도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응지침과 함께 제공한 기도문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2. 각 교회 목회자는 전화나 SNS 등으로 성도들을 심방을 하며 신앙적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3. 각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신앙적인 돌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코로나19 피해자와 그를 돌보는 의료진 등 방역담당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공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감염증 제5차 교회대응지침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총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표한 기존의 교회대응지침(2020.1.30., 2020.2.21., 2020.2.26., 2020.3.13.)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는 4차 교회대응지침의 “주일예배 대응 추가 지침”을 참고하여 지역과 회중의 형편에 따라서 당회가 예배 형태를 결정하시되 주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교회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참석자 확인,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국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있으니 특정지역을 여행한 분이나 노약자의 참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문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기독교TV 예배영상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총회는 2020년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로 선포하니, 전국교회가 이를 지키고 모든 성도들이 하루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교회는 2020년 3월 29일(주일)에 금식기도일로 지키고, 주일예배에서 아래의 기도문과 성경본문, 찬송가, 기도제목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2020년 3월 29일(주일) 정오에 금식하며 기도문을 읽고 기도제목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총회가 제공한 성경 본문, 찬송가, 기도제목을 이용하여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금식기도를 위한 성경과 찬송가

구약성경	시편 90편 1~13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26절
찬 송 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헌금 모금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5-699499 총회재해구호

- ▷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와 중장기 구호를 위하여 전국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구호 헌금을 총회로 보내주시면 현장과 소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 헌금을 입금하신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일선공무원, 자원봉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2.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4.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6.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 제6차 교회대응지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총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교회대응지침(2020.1.30., 2020.2.21., 2020.2.26., 2020.3.13., 2020.3.20.)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5일(주일)은 종려주일에 이어서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수난주간을 거쳐 4월 12일(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니, 각 교회는 5차 교회대응지침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통하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요청을 엄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총회가 선포한 2020년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을 지켜 주시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교회대응지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별지에 수록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예배당에서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가. 교회 형편에 맞게 순서를 정하여 성도들이 차례대로 릴레이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하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구별, 구역별, 남녀선교단체별, 직분별 등)
- 나. 릴레이기도를 위해서 기도시간과 예배당 내의 기도처소를 지정하시되,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릴레이기도 장소는 반드시 수시로 소독하고,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라. 릴레이기도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고 사전에 체온을 측정하며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마. 주기도문,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기도문과 기도제목을 사용하시되 교회에서 기도문이나 기도제목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 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못할 형편의 성도는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2020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맞이

정부의 방역당국은 4월 6일(월)에 초중등학교 2020년도 1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안전하게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도록 그 기간까지 방역에 적극 협력하시면서 종려주일과 수난주간, 부활주일 맞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 3월 29일(주일)에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을 지키실 때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당회원이나 향존직, 혹은 제직 등의 소수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라며, 그 외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 나. 4월 5일(주일) 종려주일예배를 교회 형편에 따라서 3월 29일 주일과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도 좋으며, 종려주일예배를 성도들도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는 예배 횟수를 늘려서 간격을 조절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아래 추가지침의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수난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나 성금요일 기도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회와 온라인 기도회를 겸하여 가지셔도 좋으며,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에는 사회적 거리유지를 비롯한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라. 4월 12일(주일)의 부활주일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온 교우가 기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정성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5월 17일(주일)로 변경하여 드릴 예정이니, 본 교단이 정한 승의주일 겸 청년주일인 5월 17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특별히 정하여 모든 교우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도 좋습니다.
- 마.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서 코로나19의 퇴치와 피해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추가지침

본 교단의 각 교회는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종려주일예배, 부활주일 등의 종교 행사를 가질 때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해서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 안전수칙은 ❶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기, ❷ 입장 및 퇴장 시 손 소독하기, ❸ 마스크 착용하기, ❹ 간격 유지하기, ❺ 집회 전후 시설 소독하기, ❻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하기, ❼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 사항 확보하기 등입니다.
- 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가급적 예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성만찬예전을 생략하거나 예배 예전에 있어서 안전한 예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 다. 예배당 밖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교회는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FM 송출장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라.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건강에 염려가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하셔도 좋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에서 예배당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중하게 맞이하시되 별지의 요령에 따라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총회는 2020년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로 선포합니다. 전국교회는 이를 지켜 주시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각 교회는 2020년 3월 29일(주일)에 금식기도주일로 지켜 주시고, 주일예배에서 아래의 기도문과 성경본문, 찬송가, 기도제목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본 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2020년 3월 29일(주일)에 금식하며 각자 처소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 총회가 제공한 아래의 기도문, 성경 본문, 찬송가, 기도제목을 이용하여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금식기도를 위한 성경과 찬송가

구약성경	시편 90편 1~13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26절
찬 송 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헌금 모금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5-699499 총회재해구호

- ▷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와 중장기 구호를 위하여 전국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구호 헌금을 총회로 보내주시면 현장과 소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 헌금을 입금하신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퇴치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일선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2.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4.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6.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 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8.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 감염증 제7차 교회대응지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및 예방활동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9일(목)부터 4월 20일(월)까지 각 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2020년도 1학기 개학을 하되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고, 유치원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대학입시를 포함한 학사일정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본 교단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종려주일(4월 5일), 고난주간(4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활주일(4월 12일)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도 총회가 발표한 기존의 교회대응지침(2020.1.30., 2.21., 2.26., 3.13., 3.20., 3.26.)을 준수하시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에 적극 협력하시는 한편 코로나19의 퇴치와 피해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맞이

- 가. 4월 5일(주일) 종려주일예배와 4월 12일(주일)의 부활주일예배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도 좋을 듯합니다.
- 나.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고난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나 성금요일 기도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회와 온라인 기도회를 겸하여 가지셔도 좋습니다. 각 교회는 6차 교회대응지침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고난주간에도 계속하시며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한국교회 70개 교단이 부활절연합예배를 4월 12일(주일) 오후 3시에 새문안교회에서 드리되 예배순서담당자와 각 교단의 대표들만 모이고 CBS, CTS기독교TV, C채널, Good TV 등 기독교 TV를 통하여 영상예배로 드

리게 됨을 감안하여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교회형편에 따라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특별히 정하여 교우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현금 모금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5-699499 총회재해구호

- ▷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와 중장기 구호를 위하여 전국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 ▷ 현금을 입금하신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감염증 제8차 교회대응지침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정부가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이래, 방역당국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의 회복을 시작하여,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함께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준수

- 가. 우리 총회가 일곱 차례 발표한 기존의 ‘코로나19 감염증 교회대응지침’과 ‘생활 속 거리두기 교회세부지침’(붙임)을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는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을 ‘우리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예배 회복의 날’은 등록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권장하는 주일입니다.
 - 2) 교인들에게 ‘예배 회복의 날’을 적극 알리시고, 현수막이나 풍선 장식 등으로 환영의 분위기를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 3)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대통합예배를 드리시고, 어린이 학생 청년의 특송, 교인들의 코로나19 기간 교회 사모함의 간증, 교우들이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 스킷 드라마 등을 통하여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 4) 주일예배의 횟수를 늘려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 5)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생활방역' 기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발열증상이 있거나 기타 형편으로 주일예배에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주일을 준수하도록 배려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라. 코로나19의 퇴치와 피해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5

‘생활 속 거리두기’ 교회 세부지침



- ◎ 교회 내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을 확인하기
- ◎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방식도 병행하며, 주일예배 외의 행사와 집회를 최소화하기
- ◎ 예배당 내 사람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하고 예배당 출입 시간을 분산하기
- ◎ 손 소독제 비치, 손 씻을 수 있는 시설 안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하기
- ◎ 예배나 집회를 전후하여 예배당과 집회장소 소독 및 환기하기
-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항상 환기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 출입구 손잡이나 난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매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 마이크 사용 시, 개인별로 마이크나 마이크 덮개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 ◎ 가급적 예배당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 성경과 찬송가를 비롯한 예배용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예배당 출입과 방문을 중지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기
- ◎ 예배당 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 ◎ 단체식사 제공 자제와 단체식사 시 한 방향 보거나 띄워 앉기 등으로 간격 유지하기

- ◎ 목회자나 교회 직원이 교인이나 방문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 교회 공용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예배당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현금 모금

모금계좌 신한은행 140-005-699499 총회재해구호

- ▷ 코로나19 피해 긴급구호와 중장기 구호를 위하여 전국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구호 현금을 총회로 보내주시면 현장과 소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호사업을 진행 하고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 현금을 입금하신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2020.4.20. 기준

번호	교회	자립대상 교회수 (노회보고서 기준)	월 자노회 자립대상 교회 지원하는 금액 (원)	연간 자노회 자립대상노회 지원하는 금액(원)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금 미자립교회수* 300,000(원)
1	서울노회	20	14,950,000	179,400,000	6,000,000
2	서울동노회	7	7,100,000	85,200,000	2,100,000
3	서울동북노회	23	17,300,000	207,600,000	6,900,000
4	서울북노회	21	11,950,000	143,400,000	6,300,000
5	서울강북노회	17	4,850,000	58,200,000	5,100,000
6	서울서노회	9	7,100,000	85,200,000	2,700,000
7	서울서북노회	53	33,600,000	403,200,000	15,900,000
8	영등포노회	34	21,600,000	259,200,000	10,200,000
9	안양노회	21	6,600,001	79,200,012	6,300,000
10	경기노회	54	28,760,000	345,120,000	16,200,000
11	서울남노회	9	5,830,000	69,960,000	2,700,000
12	서울관악노회	9	5,420,000	65,040,000	2,700,000
13	서울동남노회	27	14,100,000	169,200,000	8,100,000
14	서울강동노회	26	11,000,000	132,000,000	7,800,000
15	서울강남노회	9	8,750,000	105,000,000	2,700,000
16	서울서남노회	57	13,050,000	156,600,000	17,100,000
17	부천노회	19	6,800,000	81,600,000	5,700,000
18	인천노회	61	20,470,000	245,640,000	18,300,000
19	인천동노회	12	4,800,000	57,600,000	3,600,000
20	충북노회	62	45,700,000	548,400,000	18,600,000
21	충청노회	29	23,300,000	279,600,000	8,700,000
22	충주노회	25	21,650,000	259,800,000	7,500,000
23	대전노회	42	26,500,000	318,000,000	12,600,000
24	대전서노회	51	21,500,000	258,000,000	15,300,000
25	충남노회	50	33,200,000	398,400,000	15,000,000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2020.4.20. 기준

번호	교회	자립대상 교회수 (노회보고서 기준)	월 자노회 자립대상 교회 지원하는 금액 (원)	연간 자노회 자립대상교회 지원하는 금액(원)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금 미자립교회수* 300,000(원)
26	천안아산노회	28	14,000,000	168,000,000	8,400,000
27	전북노회	49	15,000,000	180,000,000	14,700,000
28	전주노회	45	14,500,000	174,000,000	13,500,000
29	군산노회	22	11,900,000	142,800,000	6,600,000
30	익산노회	22	10,600,000	127,200,000	6,600,000
31	전북동노회	27	14,520,000	174,240,000	8,100,000
32	남원노회	31	24,250,000	291,000,000	9,300,000
33	김제노회	12	3,400,000	40,800,000	3,600,000
34	전서노회	33	18,900,000	226,800,000	9,900,000
35	전남노회	71	36,200,000	434,400,000	21,300,000
36	광주노회	42	22,030,000	264,360,000	12,600,000
37	광주동노회	54	25,250,000	303,000,000	16,200,000
38	순천노회	51	36,700,000	440,400,000	15,300,000
39	순천남노회	38	29,700,000	356,400,000	11,400,000
40	순서노회	44	32,980,000	395,760,000	13,200,000
41	여수노회	68	41,800,000	501,600,000	20,400,000
42	목포노회	50	34,130,000	409,560,000	15,000,000
43	땅끝노회	33	18,400,000	220,800,000	9,900,000
44	제주노회	19	5,450,000	65,400,000	5,700,000
45	진주노회	54	42,650,000	511,800,000	16,200,000
46	진주남노회	34	27,410,000	328,920,000	10,200,000
47	경남노회	45	35,750,000	429,000,000	13,500,000
48	부산노회	20	9,800,000	117,600,000	6,000,000
49	부산동노회	16	10,300,000	123,600,000	4,800,000



2020.4.20. 기준

번호	노회	자립대상 교회수 (노회보고서 기준)	월 자노회 자립대상 교회 지원하는 금액 (원)	연간 자노회 자립대상노회 지원하는 금액(원)	자립대상교회 코로나19 피해구호금 미자립교회수* 300,000(원)
50	부산남노회	7	2,700,000	32,400,000	2,100,000
51	울산노회	38	20,200,000	242,400,000	11,400,000
52	경북노회	38	31,030,000	372,360,000	11,400,000
53	대구동노회	12	10,600,000	127,200,000	3,600,000
54	대구동남노회	34	18,100,000	217,200,000	10,200,000
55	대구서남노회	31	18,300,000	219,600,000	9,300,000
56	경동노회	29	15,500,000	186,000,000	8,700,000
57	포항노회	32	15,750,000	189,000,000	9,600,000
58	포항남노회	20	12,000,000	144,000,000	6,000,000
59	경서노회	40	26,300,000	315,600,000	12,000,000
60	경안노회	46	24,620,000	295,440,000	13,800,000
61	영주노회	43	37,930,000	455,160,000	12,900,000
62	강원노회	31	12,150,000	145,800,000	9,300,000
63	강원동노회	30	19,570,000	234,840,000	9,000,000
64	평양노회	25	12,200,000	146,400,000	7,500,000
65	평양남노회	21	12,600,000	151,200,000	6,300,000
66	평북노회	56	32,400,000	388,800,000	16,800,000
67	용천노회	16	8,500,000	102,000,000	4,800,000
68	함해노회	39	17,300,000	207,600,000	11,700,000
합계(평균)		2,243	1,299,250,001	15,591,000,012	672,900,000

노회별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현황 보고

총회 지원 제외 2020.6.10. 보고 기준

번호	노회	사업명	지원단체	사업부서	사업일시	사업대상	지원교회수	지원금액 (물품)	현물지원	비고
1	서울	현금지원	노회	노회	4.2. 4.6.	자립대상교회	19	5,700,000		각 30만원씩
		현금지원	노회	노회	4.2.	어려운교회	1	3,000,000		
2	서울 동북	현금지원	노회	노회임원회	3.31~4.10	임대료 납부교회	38	19,000,000		각 50만원씩
		현물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수시	자립대상교회			방역소독수 10리터	
3	영등포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3.5	자립대상교회	33	16,500,000		각 50만원씩
		현금지원	노회소속 교회	도림교회	5.6	자립대상교회	34	17,000,000		각 50만원씩
		현물지원	노회소속 교회	도림교회	4.21	자립대상교회	32		마스크 960장	각 30장씩
		방역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남선교회 연합회	3.17~4.25	어려운교회	30		월2회	
4	안양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3.20	자립대상교회	21	6.300,000		
		현금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2	의왕시청	취약계층	1,000,000		
		현물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2	안양시청	취약계층		마스크 2,000장	
		현물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2	군포시청	취약계층		마스크 1,500장	
5	부천	현금지원	노회, 좋은교회, 임원회 개인			노회소속 교회	110	33,000,000		각 30만원씩
		현물지원	노회, 좋은교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5	자립대상교회	19		마스크 950장	
		현물지원	노회	목사회	4.10	어려운교회	20		마스크 1,000장	
		방역지원	노회소속 교회	좋은교회, 주 왕교회	2월 3월	신청한교회	60		월 1회 방역	
		방역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월	신청한교회	60		월 1회 방역	



총회 지원 제외 2020.6.10. 보고 기준

번호	노회	사업명	지원단체	사업부서	사업일시	사업대상	지원교회수	지원금액 (물품)	현물지원	비고
6	충북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3	자립대상 교회	62	12,400,000		
		현금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3.28	자립대상 교회월세	18	3,600,000		
		현금지원	노회소속 교회	동산교회	4.28	어려운교회	10	3,000,000		
		방역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3.24~현재	시찰별				방역분무기, 소독수
7	충청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14	자립대상 교회	29	14,500,000		
		현금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29	자립대상, 어려운	52	23,690,000		
		현금지원	상당교회	노회	5.1~7.31	어려운교회	11	33,000,000		
		현물지원	강서교회	노회	3.31	자립대상 교회	29			면마스크 2,600,000
		방역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13~계속	어려운교회, 취약계층	53/150			소독봉사
8	대전	현금지원	노회	노회	3.26~4.9	자립대상, 차상위교회	52	41,000,000		6개 교회 현금
		방역지원	노회	노회	수시	자립대상 교회				월2회
9	대전서	현금지원	노회	코로나지원 대책위	4.1~4.3	자립대상, 어려운	128	64,000,000		각 50 만원씩
		방역지원	노회	노회	2.20~ 현재	신청교회	204			방역기 및 소독수
10	충남	방역지원	노회	사회봉사부	4.23~28	자립대상 교회	15			방역
11	익산	현금지원	이리북문 교회	노회		자립대상 교회	22	11,000,000		각 50 만원씩
12	전남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13	어려운교회	73	36,500,000		각 50 만원씩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17	자립대상 교회	71	21,300,000		각 30 만원씩

노회별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현황 보고

총회 지원 제외 2020.6.10. 보고 기준

번호	노회	사업명	지원단체	사업부서	사업일시	사업대상	지원교회수	지원금액 (물품)	현물지원	비고
13	광주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3	자립대상 교회	42	8,400,000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3	기도처	12	6,000,000		
14	순천	현금지원	노회	노회	4.3	5천미만 교회	106	10,600,000		
		현금지원	노회	노회	4.13	포항-강원 노회 지원	2개노회	2,500,000		
		현금지원	노회	노회	4.20	대구경북지 역노회	11개노회	11,000,000		각 100 만원씩
		현물지원	노회	노회	4.10	확진자 70명이상 도시	35개노회		면역력 위문품	
		현물지원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3.15~4.5	순천 광양 곡성 구례	51		소독용품 지원	
		방역지원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3.15~4.5	순천 광양 곡성 구례	51		방역실시	
15	경남	방역지원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3.5~7	노회산하 교회, 기관	19		방역실시	
16	대구 동남	현물지원	노회, 기타	노회	4.10	자립대상, 어려운	34		식료품	
		방역지원	타교단 교회, 기타	시찰회	4.3	자립대상, 어려운	35		월3회	
		기타지원	타교회	노회	4.7	자립대상, 어려운	19	20,500,000		
17	포항남	현금지원	노회	교회동반 성장위원회	4.3	자립대상 교회	20	10,000,000		각 50 만원



총회 지원 제외 2020.6.10. 보고 기준

번호	노회	사업명	지원단체	사업부서	사업일시	사업대상	지원교회수	지원금액 (물품)	현물지원	비고	
18	경동	현물지원	안강영광교회	임원회	4.2~3	자립대상교회	29		김 40박스		
		현물지원	경주제삼교회	임원회	4.2~3	자립대상교회	29		두부 30통		
		현물지원	경주동방교회	임원회	4.2~3	자립대상교회	29		경주빵 35박스		
		방역지원	서울명성교회	자원봉사	3.19~24	자립대상교회	49		소독수20리터*10, 방호복3벌, 분무기3개		
		기타지원	서울명성교회	노회 사무실	3.13~18	각 시찰회			손세정제 30박스		
		기타지원	경주시청	노회 사무실	4.15~16	각 시찰회			손세정제 30박스		
		현금지원	포항CTS	기타	4.16	어려운교회	7	3,500,000		각 50만원	
		방역지원	서울명성교회	타교회	3.16	시찰별로	16		월1회		
		기타지원	서울명성교회	타교회	3.11	시찰별로	99		손세정제 3천개		
		기타지원	포항CBS	기타		시찰별로			구호키트		
		기타지원	극동방송	기타		시찰별로			복합구호품 키트		
		기타지원	청주강서교회	타교회	3.23	어려운교회	5		마스크50개, 소액환 50만원		
19	강원동	현금지원	노회	노회	4.9	자립대상교회	30	7,500,000			
20	평남	현금지원	타노회	주님의 교회	4.7	자립대상, 어려운	28	42,000,000		각 150만원	
21	함해	현금지원	노회	노회	3.5	대구경북지역교회		3,516,500			
		현금지원	노회	노회사회 봉사부	3.11	대구경북지역교회		500,000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거리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시설	지역	담당자	주급식일	인원(명)	방법	지원금액
햇살보금자리	영등포	김기용목사	주7일	100	1식4찬 조리	3,000,000
거리의 천사들	서울	안기성목사	주7일	150	두유, 초코파이, 건빵, 컵라면	1,500,000
수원 예사랑공동체	수원	정충일목사	주6일	150	도시락(5,000원)	5,000,000
안양 희망사랑방	안양	안승영목사	주6일	100	도시락(5,000원)	2,000,000
원주 밥상공동체	원주시	허기복목사	주3일	20	도시락(4,600원)	1,000,000
포항 참사랑공동체	포항	주훈목사	주5일	100	김밥	3,000,000
서울 해돋는 마을	서울역	장헌일목사	주1회 6일분	70	대체식(붕지 삼계탕, 육개장)	2,000,000
합계				690명		17,500,000

9

코로나19 자가격리선교사 및 현지선교사 지원사업



번호	국가	사업대상	사업내용	지원금액(\$)
1	브라질	현지 교인	아마존 내륙 오지 음식 + 세재	1,000
2	볼리비아	선교사 생활비지원	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비 600불, 교육비 820불	3,000
3	카자흐스탄	교회 및 주민지원	교회유지비 650불, 구호비 160불, 차량수리비 1600불	1,000
4	페루	학교지원	호산나학교(사립학교) - 교직원 87명, 학생 562명 3개월 장학금 (학비 1인당 월 120불*198*3개월)	3,000
5	우크라이나	교회건축비 지원	교회건축 중 코로나로 인한 예배 중단으로 재정난 겪음(고려인)	1,000
6	파라과이	학교지원	사립학교, 휴교령으로 인한 재정악화, 교사 인건비 지급 힘들. 매월 6,700불 부족 *9개월	3,000
7	독일	선교사 생활비지원	코로나로 인한 예배중단 및 주후원교회 후원축소로 인한 재정 부담증가	3,000
8	러시아	성도 및 지원주민지원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 식량지원	1,600
9	케냐	학교지원	케냐 스타 여자고등학교 (학생 348명 교사 20명, 직원10명)	3,000
10	마다가스카르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검사실 설치 지원	5,000
11	필리핀	지역주민 및 학교지원	일용 노동자 및 무직자들이 많은 지역 식량 등 긴급구호 2,925,000원 학교 교직원 급여보조 4,000,000원	3,000
12	독일	교회 월세지원	교회 임대료 900유로(월)*3 - 코로나로 인한 예배통제 및 헌금감소	2,700
13	키르기스스탄	지역주민 및 교회	교회 수리비 - 강풍으로 인한 지붕파손 1500 불 긴급 재난구호 - 2000 불	3,000
14	필리핀	지역주민 및 학교지원	지역주민 긴급구호 3,850,000 원 ASPAC 기술학교 지원 1,400,000 원	3,000
15	요르단	시리아난민구호	난민 구호 50가정*10만원	3,000
계				39,300

10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과 대책 경과

2020.6.8. 기준 한국 확진환자 11,814명, 세계 확진환자 6,917,182명

일자	내용
2019.12.01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최초 보고
2019.12.31	중국 정부에서 WHO에 코로나19 최초 발병 보고
2020.01.02	원인불명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짐
2020.01.20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환자 확진 판정.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2020.01.22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 개최
2020.01.27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2020.01.28	중국 입국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돌입
2020.01.30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2020.01.31	1차 임시항공편 귀국 우한 교민 368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4일간 격리
2020.02.01	우한 2차 귀국 교민 326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2020.02.04	모든 환자 접촉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제5판 개정
2020.02.11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코로나19)로 결정
2020.02.12	특별입국절차 거친 내외국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차 임시항공편 귀국 우한 교민 147명 이천국방어학원에 격리
2020.02.15	정부, 혈액 수급 위기대응 매뉴얼 배포
2020.02.17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과제 긴급 공고. 중수본 자문 특별보좌단 구성
2020.02.18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귀국 희망자 이송 위한 대통령 전용기 출발.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 발견 이후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시작
2020.02.19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 대거 발생
2020.02.20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절차 개정 제6판 시행. 정부, 대구·경북 집단발병에 지역사회전파 인정
2020.02.21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국내 첫 5차 감염 사례 확인
2020.02.22	산발적인 환자 발생 양상.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명 전수검사 및 전원 14일 자가격리 실시.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Cohort) 격리. 부산 온천교회, 서울 은평성모병원 등 집단발병 사례



일자	내용
2020.02.23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개학 1주일 연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20.02.24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국민안심병원' 지정
2020.02.26	대구·경북 944명(82.3%).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 명단 확보해 코로나19 전수조사 실시. 마스크 수출제한. 코로나19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2.27	신천지 교인 31만여명 명단 확보. 전국 어린이집 휴원
2020.02.28	확진자 1000명 돌파, WHO, 코로나19 세계적 위험 수준 '매우 높음'으로 최고단계 격상
2020.02.29	2000명 돌파 하루 만에 3000명 넘어. 마스크 대란 심화
2020.03.01	정부, 중증 환자만 병원 입원치료 결정. 병증을 4단계(▲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로 분류
2020.03.02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 시행. 무증상·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
2020.03.03	국내 첫 환자 발생 43일 만에 5000명 넘어
2020.03.05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통해 신천지 예매 출결기록 등 확보. 경북·경산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 750여명 의료현장 배치
2020.03.06	청도 대남병원 3층 노인요양병원 내 환자 3명 발생. 분당제생병원 9명 집단감염
2020.03.07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 관리 및 이탈자 처벌 가능. 대구 한마음아파트서 신천지 신도 등 주민 집단감염
2020.03.08	자가격리 해제 이후 확진 사례 증가 '잠복기 논란' 제기
2020.03.09	공적마스크 5부제 시작. 일본발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2020.03.10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 사례 증가. 요양시설 종사자 중 신천지 신도 등 23명 양성 확인
2020.03.11	WHO, 코로나19 최초 보고 71일(현지시간 기준) 만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선언. 생활치료센터 15개소 개소. 이탈리아·이란, 검역관리지역 지정. 정부세종청사 집단감염 확인
2020.03.12	전국 요양시설 2차 전수조사 실시
2020.03.13	서울시, 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 단속 시작
2020.03.15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 대구·경산·청도·봉화, 감염병으로 사상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자	내용
2020.03.16	유럽 전역발 입국 내·외국인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2020.03.17	경기도, 집회예배 강행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대응 위한 추경예산 3조7천억여원 편성
2020.03.18	WHO 임상팀 코비드19 자문위원 참석한 ‘코로나19 국제 코호트 연구회의’ 개최. 서울시, 예산 3270억원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결정
2020.03.19	모든 입국 내·외국인 대상 특별입국절차 확대 실시. 이란 교민 80명 특별항공편 입국
2020.03.21	종교·실내체육관·유흥시설 등 15일간 운영 제한 권고
2020.03.22	모든 유럽발 입국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 및 무증상 입국자에 3일 내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정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2020.03.2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비롯한 시·군 12곳에 재난대책비 4000억원 지원결정
2020.03.26	인천공항에 도보 이동형(워킹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대구 요양병원 등 전수조사에서 총 224명 양성 확인. 해외 유입환자 증가 추세
2020.03.28	페루 교민·여행객 등 198명 임시항공편으로 귀국, 해외입국발 감염 속출
2020.03.31	2021학년도 수능 12월3일로 연기
2020.04.01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수도권 누적환자 수 1000명 넘김
2020.04.02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총 100만명 돌파(미국 동부시간 기준). 임시항공편으로 이탈리아 교민 309명 인천공항 도착
2020.04.03	확진 환자 1만명 돌파(오전 0시 기준 1만62명). 정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2020.04.04	4월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전환 목표로 신규 확진환자 수 50명 이하
2020.04.06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7명으로 2월20일 이후 46일 만에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2020.04.07	백신 후보물질 개발. 중증환자 2명 혈장치료로 완치
2020.04.09	사상 첫 온라인 개학
2020.04.10	생활방역지침 마련 위한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개최
2020.04.11	사전투표율 사상 최고치인 26.69% 기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발표. 스페인·쿠웨이트 교민 입국



일자	내용
2020.04.12	완치 후 재확진 사례 111명으로 증가
2020.0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자가격리자 중 투표 참여 희망자의 투표율 81%
2020.04.16	2차 온라인 개학.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개최. '덕분에 챌린지' 실시
2020.04.17	2주간 감염경로 모르는 신규 확진자 3.1%
2020.04.19	61일 만에 신규 환자 증가 한 자릿수(지난 18일 하루 동안 8명 증가해 총 10661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는 5월5일까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 진행 및 시설 운영하는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020.04.20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언급
2020.04.21	국내 발생 환자의 25%는 초발환자 불명. 의병정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체계 변화 논의
2020.04.22	항체가 형성된 완치자 25명 중 12명(48%)에게서 바이러스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 발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항체양성률 조사 계획 발표
2020.04.24	사망자 0명. 12개 부처 31개 분야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 공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 개최
2020.04.25	완치율 80% 돌파. 이틀 연속 사망자 0명. 스페인 1차 입국 교민 38명 중 1명 양성 확인
2020.04.26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6명으로 증가. '아프면 3~4일 쉬기' 법제화 추진 발표
2020.04.27	자가격리 위반자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 1인당 마스크 3장씩 구매 가능.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신속지원. 집단면역 파악 위해 항체검사법 도입 검토
2020.04.28	국내 첫 환자 보고 후 100일
2020.05.06	생활방역체제(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발표
2020.05.09	이태원 클럽 지자체와 합동 긴급 역학조사. 이태원 클럽발 시작
2020.05.10	서울시 시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05.11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검사실시, 유·초등학교 학교방역 안내 지침 개정 배포
2020.05.17	코로나19와의 장기전 준비, 코로나19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감염경로 알수 없는 확진자 5%
2020.05.18	종교시설 등 2만 5천 곳 점검(128건 행정지도)
2020.05.19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안 모색
2020.05.20	고3 등교 시작

일자	내용
2020.05.22	은혜감리교회 2명 추가 확진
2020.05.25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 1명 추가,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 누적확진자 8명
2020.05.26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누적 확진자 9명, 경북구미 엘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9명
2020.05.27	고2, 중3, 초1~2, 유치원 등교. 항공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어성경연구회 3명 추가 확진, 이태원발 257명 확진
2020.05.28	모임제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체 당부
2020.05.29	수도권 중심 공공시설 운영중단, 학원과 PC방 집합제한, 공공행사 취소나 연기 등 방역강화, 마스크 5부제 폐지, 수도권 지역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시행(5.29~6.14)
2020.06.01	QR 코드제도 도입 시범, 경기군포 안양 목회자모임 관련 9명 확진-12개 교회25명 제주도모임, 인천·경기 개척교회관련 23명 신규 확진, 수원동부교회관련 확진자 4명
2020.06.02	종교시설 소모임 비대면 전환 요청, 인천개척교회 24명 확진
2020.06.03	비밀찬단용 마스크 KF-AD 규격마스크 사용승인. 문화체육부 장례식장 종교행사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협조요청,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 542억 편성,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272명/수도권 개척교회관련 55명/ 초중고 3단계 추가 등교 시작
2020.06.04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모임 3명 확진, 수도권 내 대규모 환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2020.06.05	쿠팡물류확진자 124명, 종교시설 모임 비대면전환 요청.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마음건강지침 배포, 인천 남동구 교회관련 5명 확진
2020.06.06	개척교회관련 4명 추가, 주말종교행사 방역수칙 준수 당부, 비대면행사전환 당부
2020.06.07	전차출입명부 6천명 작성, 집단감염 취약 사각지대 상시점검 시스템 보완
2020.06.08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선제적 점검 중요. 부천물류센터·종교소모임 중심 집단감염 확산, 초5~6·중1학년 등교수업, 서울시민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등교수업 전면 실시, 부산온천교회 확진자 20명 혈장 기증
2020.06.09	리치웨이 7명 늘어 총 52명(중국동포교회 쉼터 확진자9명), 수도권 개척교회발 누적 86명 확진. 군포-안양 목회자모임 확진자 21명. 용인 큰나무교회 집단감염은 양천구 탁구장발(2건 합쳐 41명 확진)

코로나19 대응사례 2

CONTENTS

지역교회의 코로나19 대책활동

1 일반목회

- 1) 명륜중앙교회 - 손의석 목사
- 2) 광주제일교회 - 권대현 목사
- 3) 김포아름다운교회 - 전규택 목사
- 4) 일동동부교회 - 김성일 목사
- 5) 교회학교: 안산제일교회 - 양미옥목사
- 6) 교회학교: 신안교회 - 배두로 목사

2 다양한 목회현장

- 7) 드라이브인 예배:
온누리교회 - 목회기획실 이기원목사
- 8) 대구지역에서의 구호 - 정금교 목사
- 9) 지역 목회자그룹: 포항노회
마을목회동행그룹 - 류시완목사
- 10) 노숙인 사역 - 정충일목사
- 11) 여성교역자 대응사례 - 김혜숙목사
- 12) 농촌교회 - 김정하 목사
- 13) 자립대상교회 - 전민재 목사
- 14) 상가교회 - 이광형 목사(시온의 교회)

3 국내선교와 교회개척분야

- 15) 유튜브를 통한 성경공부 활성화 및
드라이브인 예배 - 서범석 목사(주복교회)
- 16) 현장과 온라인 예배의 접목을 통한
예배 활성화 - 장철근 목사(금당동부교회)
- 17) 목회와 양육 -
송호석 목사(대전임마누엘교회)

4 특수목회분야

- 18) 교목: 송의여고 - 정서학 목사
- 19) 이주민선교:
대구이주민선교센터 - 고경수 목사
- 20) 산업선교:
영등포산업선교회 - 최성은 목사
- 21) 병원선교 :
연세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 최형철 목사
- 22) 병원선교 : 계명대동산병원 - 오정윤 목사
- 23) 경찰선교: 서울경찰청 - 김병철 목사
- 24) 군선교: 육군 - 대위 이요한 목사
- 25) 군선교: 공군 - 대위 장문수 목사
- 26) 신학생:
영남신학대학교 - 박주명 전도사
- 27) 신학생:
장로회신학대학교 - 이훈희 전도사

5 해외선교분야

- 28) 박종필 선교사 (브라질)
- 29) 이재훈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 30) 김덕규 선교사 (베트남 ‘시’로 참여)
- 31) 임장순 선교사 (필리핀)
- 32) 김영자 선교사 (인도)
- 33) 박준수 선교사 (영국)



1. 명륜중앙교회 교회 소개

명륜중앙교회는 성균관대학교 앞에 위치한 93주년 된 교회입니다.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연세 높으신 교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평균 출석이 장년 170명, 청년부 40명 정도, 그리고 교육부서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더해 45명 정도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부분이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2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대부분 고향 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청년부의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헌금감소로 인한 재정문제와 온라인 예배 이후 가나안 성도화 되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2. 갑자기 들이닥친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사태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는 무서운 기세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식간에 팬데믹을 가져왔고, 전 세계를 마비시켰고, 교회 역시 일상을 멈추고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에 직면하다 보니 혼란스럽고, 특히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의 특성 때문에 일관된 매뉴얼도 없고, 이 사태를 해석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염학 전문가들은 가을에도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고, 설령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몰고 갈 주기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예

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회 차원으로, 그리고 개교회별로 또 다시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될 때,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후유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3. 교회의 대응 내용

초기 감염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이 폐쇄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명륜중앙교회에서 대응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주 당회원들이 코로나 대책위원회로 모임** -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매주 당회원들이 모여 교회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물론 당회원 단톡방에서 한 주간 뉴스를 통해 추이를 보며 논의를 거친 후 주일에 다시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예배의 온라인으로 전환 여부, 교회학교 온라인 여부, 여러 가지 소모임 여부, 교회 식당 중단 여부, 온라인 예배 시 찬양대 운영 여부, 방역수칙 및 담당자 선정 등 모든 부분들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2) **목회칼럼 카톡과 문자로 전교인에게 발송** - 교인들도 교회에 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위로하고, 현실에 대한 해석과 주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매주 발송했습니다.



3) **전화 심방 및 간단한 방문** - 매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가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세를 보일 수 있어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매주 전화심방을 하였고,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때, 간단한 간식거리를 가지고 방문하여 눈인사와 간식전달로 방문심방을 하였습니다.

4) **온라인 사역 강화** - 코로나 사태 중에 사순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년처럼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사순절 묵상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각 기관장이 모이는 단톡방에 올려 기관별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5) **설교** - 설교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처럼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 이 땅을 고쳐주소서(대하 7:11-16, 2.20) - 재난과 위기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전화위복 발상의 전환(롬 8:28, 3.1) -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잃어버리고 깨달은 은혜(시 137:1-9, 3.8) - 평상시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
- 신앙의 출구전략(대하 20:1-13, 3.15) - 출구전략의 개념으로 코로나사태가 진정될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대책 및 과정에 대한 준비
-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엡 6:10-12, 3.22) -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적 싸움과 유사성을 통해 신앙의 무장을 강조
-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고전 9:1-12, 3.29) - 선거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정부지침에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점검하러 오는 공무원들을 잘 대접하고, 교회가 방역을 선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다짐
-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빌 2:5-11, 4.5) - 코로나로 지쳐가며 코로나 블루 증상이 나타날 때, 심리적 방역도 필요한 시점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
-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마 28:1-10, 4.12) - 부활절 메시지로 힘들기는 하지만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될 것임을 믿고 견뎌내길 선포
- 신앙의 뉴 노멀(요 20:19-31, 4.19) - 코로나 사태로 뉴노멀에 따라 사회가 개편되듯이, 우리 신앙도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정비되기를 권고
-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은?(대상 12:32, 5.17) -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 교회도, 교회의 성도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 교회 안에서의 대책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세상을 향한 대책을 고민
- 지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때(행 2:1-13, 5.31) - 성령강림주일 메시지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것을 권함



•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욘 2:1-10) - 요나의 기도를 통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본받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위축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권함.

6) 세상을 향하여 - 현수막 -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 헬렌켈러 - 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고, 이것을 목회자 그룹에 공유하면서 총회 차원에서 코로나 극복 현수막 걸기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배 시 관공서에서 방역상황 점검하러 나오는 분들께 매주 간식과 선물 드리며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7) 온라인 사역 위원회 발족 -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은 전산 미디어 위원회에서 교회의 예배실황을 송출하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온라인 활용도가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 대면 전도가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다가가는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고 온라인 사역 위원회를 발족하여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업무에 사역이 가능한 인력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제작 기획(PD와 작가 역할), 진행 및 배우(영상에 등장하여 진행할 인력), 기술지원(촬영, 조명, 편집, 자막), 실행위원(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개인 SNS로 공유하여 확장성을 갖도록) 또한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회의에 필요한 재정들을 추가 예산 및 항목변경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성경공부 모임도 요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과 온라인으로 영상 교육을 선행 학습하고 온 후에 오프라인으로 모여 질문이나 토론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뒤집혀진, 거꾸로 하는 학습)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7) 오프라인 사역의 활성화 - 온라인 사역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의 활성화입니다.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코로나 사태에 비교적 타격을 덜 받고, 회복이 빠른 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 변모해가면서 사람들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면서도 관계에 대한 갈망과 오프라인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이중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미없는 잡담으로 시간만 보내다 돌아가지 않고, 어느 모임이든 참여하면 의미 있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청년 생활기금 지원 - 코로나 사태로 취약한 세대 중에 하나가 청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해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취업이 되지 않아 취준생으로 버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자리가 줄어들어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에서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경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인 부모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 자녀들 몫으로 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기부자들을 모집해서 청년 15명에게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4. 제안

1)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또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교회별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회에서도 재난과 위기를 통해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나 이미지가 점점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행할 당시 장비나 기술적인 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온라인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의 성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다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때, 혼돈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교회에서는 온라인사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역에 뛰어들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줌이나 행아웃과 같은 화상회의나 온라인 성경공부, 전화심방이나 목회서신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3)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까지 식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코로나 이전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셨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강력하게 막기도 하고, 본인도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 지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모이지 못하면서 부모세대도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꺼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체

된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금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목회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교회를 무엇이고,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코로나19가 만든 갑작스러운 상황은 이러한 본질적 질문을 할 만큼 우리에게 여유를 선사하지 못하고, 당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1. 지역교회를 돌보다



교회들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직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제일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러나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문제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상가임대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임대료와 목회자의 사례비가 당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본 교회가 속해 있는 전남노회와 같은 지역인 상무지구의 지역교회들을 위한 목적헌금을 결의했습니다. 광주제일교회 조차도 온라인 헌금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를 홍보하고 ‘상가형 임대교회 지원 목적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벨엘교회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전남노회에 속한 각 시찰회에 연락하여 지원이 필요한 교회를 파악하게 되었고, 각 교회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 교회의 목적헌금은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2,000만 원 정도를 예상

했으나, 3월이 지난 이후에도 목적헌금을 종료한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2,700만 원 이상의 목적헌금이 모아졌고, 전남노회에 속한 48개의 교회와 3개의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헌금이 사용되는 선의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성과 시의성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얼마든지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 대구지역의 어려운 이웃



호남지방의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본 교회는 영남지방의 대구삼덕교회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교회의 찬양대가 자리를 바꿔 교환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다시 대구지역의 교회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대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대구삼덕교회에 목회적 안부를 물었고, 대구삼덕교회가 운영하는 삼덕노인복지센터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제일교회는 1년에 절기봉헌 중 가장 많은 봉헌이 나오는 부활절 봉헌과 추수감사절 봉헌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연 초에 결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성산불을 위해 지원을 했고, 올 해는 대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목적헌금을 했던 터라, 부활절 봉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년처럼 약 2,000만원 정도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삼덕교회가 운영하는 삼덕노인복지센터에 필요한 수요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를 묻고 넉넉한 박스 200개를 준비하여 생필품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이를 위해 약 1,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본 교회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사회봉사부에 속한 부서원들이 봉사를 위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물품을 박스에 포장하여 대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삼덕교회의 부목사님, 두 분의 장로님,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과 직원이 본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러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만남을 쉽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교회간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약 500만원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가출청소년 온라인 학업지원을 위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필요한 태블릿을 17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봉헌을 보냈던 것처럼 가까운 지역을 넘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구삼덕교회는 한국기독교공보에 이 소식을 알리고, 생필품을 받은 분들을 영상에 담아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 부활절 사랑의 택배



교회는 예배와 구제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회의 부분들이 멈추었지만 예배와 구제의 부서만 활발하게 움직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다음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부활절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

하게 되면서, 다음세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는 ‘사랑의 택배’를 기획했습니다. 교육부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선물 박스와 박스 안에 손 편지를 넣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안부를 묻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세대 아이들과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 택배형태를 취했습니다. 집 앞에 부활절 선물을 놓고 연락을 하기도 했고, 직접 나와서 얼굴을 보고 싶은 어린이와 학생들은 함께 나와서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어린아이들은 그 동안 성탄절에만 선물을 받아서 성탄절만 큰 절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절의 선물을 통해 부활절이 성탄절만큼 의미있고 큰 절기인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만나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지, 만남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사랑의 택배의 의미였습니다.



코로나19는 목회현장에 새로운 응답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남이라는 친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와 구제와 교육의 다양한 시도들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창의적 접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반목회

전규택 목사 | 김포아름다운교회

1. 코로나19 지역상황과 대응활동

김포 지역은 코로나 초기 대구 방문객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방역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천 학원강사 및 쿠팡 발 확산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교회의 대응

1) 예배

- 사태 초기 (2월 초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회 안팎의 환기 및 방역 작업을 철저히 실시 (일 1회 이상, 토요일 2회, 주일 3회 이상)
- 2월 3주부터 점심식사 미제공
- 3월 1주부터 오후찬양예배 및 기타 공동체 모임 중지하고,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예배
-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는 예배를 유지하되 방역을 정부 지침 이상으로 철저히 함 (발열체크, 출입명단 작성, 2m 이상 거리두고 예배,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시 입장 거부, 교회 출입구 통제 및 출입 시 손소독 철저, 찬양대 및 교육부서 전면 중지 등)
- 매일 1회, 토요일 2회, 주일 3회 본당 전체 환기 및 방역 실시 * 정부의 소독약 제작 지침에 근거하여 에탄올의 함량을 유지하면서 그 간의 환경 사역을 통해 연구, 증명한 EM 배양액을 혼합하여 자체 소독액을 제작, 철저히 방역 실시



2) 친교 및 행정

- 3월 1주 이후 모든 오프라인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함
- 10여 차례의 목회서신을 전교인에게 발송하고 관련 설교 등을 통해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과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목회서신 예는 전규택 목사의 페이스북 참조)
- 대신 매일 10시부터 1시간 기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 중 원하는 분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며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태 초기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전부터 꾸준히 마스크를 구매하여 교회 안에 비축하여 두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거나 마스크를 하고 오지 않은 성도들에게 제공하였음

3) 봉사

- 기존의 베들레헴 공동체(친환경 빵을 만들어 나누는 공동체)의 빵 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룬티어 1-2명 정도를 모집하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빵을 만들어 나눔
- 노회 내의 미자립 교회의 긴급재난기금 지원
- 노회 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의 지원(재난기금, 마스크 등)

4) 선교

- 각 선교지에 E.M배양액을 활용한 자체 소독약 제작 방법을 알려주어 선교사들로 하여금 대처하고, 나누도록 함.
- 1월 중 입국(3월 귀국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한 키르기스스탄 현지인의 체류 연장 및 귀국에 적극 협력함
- 파송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의 귀국과 귀국 시 자가격리 거처 확보에 적극 협력함

5) 교육

- 총회 공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유지되도록 진행
- 학부모 및 아이들과 철저한 연락으로 관계 유지
- 부활 축하 영상 만들기(가정 자체 촬영 후 교회로 보내 취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
- 교사들과 야외 산책 모임으로 감염 위험을 낮춤
- 편지, 영상 나눔, 온라인 큐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 교육을 시도

3.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평가

1) 발빠른 대응

개교회로서 대응활동이 쉽지는 않았으나, 사태 초기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임 등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회 안팎의 방역을 실시함을 통해 사태가 교회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대응의 시작이 빨랐기 때문에



교직원들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교인들이 사태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2) 교직원, 교인들과의 소통 및 상호 협력

사태 초기부터 교직원들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무려 10여차례의 목회서신 발송을 통해 교인들과 자세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 성도로서의 자세 등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담임목사와 교직원, 교인들의 원활한 소통 및 그로 인한 상호 협력 체제가 쉽게 구축되었다. 이로써 한 몸과 같은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가 교회에 구축되어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데 용이하였다.

3) 설부른 낙관 및 대책 없는 예배 출석을 배제하면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

‘우리 교회는 괜찮을거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와 같은 설부른 낙관 및 대책을 갖추지 않은 예배 출석 강요는 피하면서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아예 폐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킴으로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배의 참석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교회의 방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목회서신, 설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 사회적 근거, 생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교회의 대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또한 각 선택에 따른 성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죄하지 않음을 통해 사태가 마무리 된 후 공동체의 회복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4) 교육적 차원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육부에서의 신앙 교육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면서 아이들과 접촉하고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 애썼지만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개교회에서 기존 교육전도사들까지 투입하여 방역 및 빈 교회 봉사 일손을 채우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매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협력과 교회 차원의 일관적 대응으로 가족들이 예배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부모가 출석하지 않고 혼자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태가 마무리 된 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합하게 판단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가?’였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 및 지역 사회의 신뢰로 이어지는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개 교회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 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태를 지켜보거나 지나치게 절차를 고집하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별히 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팀을 사태 초기부터 시급히 결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많이 강조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나 환경 등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다. 이럴 때 총회나 노회에



서 그러한 교회들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세팅 및 교육에는 1일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대응이 아쉽다. 오히려 개인 목회자 별로 SNS 등에서 스스로 공유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총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총회나 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및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교회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점검이나 주일 예배 검수 등을 나왔을 때에 적극 협력하였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다 따랐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만을 실시할 때에도 본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유지하였지만 지방 자치 단체나 지역민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이다. 특별히 총회나 노회 등에서 자체 방역 능력이 떨어지는 작은 교회나 노회 등에 오히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먼저 방역을 요청하거나 또는 협력을 받아 소독약 제작 방법, 방역 도구 구매 통로 등을 개 교회들에게 전달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총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어른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개교회별로 가능하지만, 교육부 예배는 중형 교회 정도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총회에서 자체 온라인 교육부 예배를 시행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앙 교육 및 공과 활동 등에 대해 제안해준다면 좋을 것이다. 또는 대형 교회들과 협력해 온라인 예배의 소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는 현재 거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 및 관련 동영상들만 올라오는 상황은 조금 아쉽다.

총회에서도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결정들을 많이 해 주셨다. 특별히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시의 적절했고 그 대응 내용 또한 탁월하였다. 다만 개교회의 입장에서 이럴 때 총회가 조금만 더 세밀하게, 긴밀하게 대응하고 특별히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보적, 물질적 격차가 매우 큰 개 교회들을 인도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대책이 성공해도 한 교회가 뚫린다면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 한국 교회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 일동동부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지리적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북부지방의 포천시 일동면 면소재지에 위치한 68년 역사의 전통적인 교회이다. 교회학교 포함 전체 재적이 800여명에 장년부 주일평균출석이 360여명, 교회학교가 120여명 출석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지방의 면소재지여서 소상공인이 많고, 군사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군인가족들이 많은 교회이다. 연령분포에 있어서 20대이하, 30-40대, 70대 이상이 각각 22-23% 정도, 50-60대가 가장 많은 33%정도의 연령별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2. 코로나19 시작과 담임목사의 안식월

작년 정책당회에서 담임목사 안식년을 대신하여 한 달 쉬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장신대 성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성지답사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2월 2일 저녁에 출발, 15일 귀국하게 되었다. 12월 초에 이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에서 1월에 확진자가 나왔으나 당시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로 성지답사를 가게 되었다. 귀국 후 2주 동안 제주도에 지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올레길과 오름 등을 오르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3월 초에 교회로 복귀하였다.

3. 담임목사 부재상황에서의 코로나19 대처과정

-예배당 출입문 폐쇄와 온라인 영상예배로의 전환

본 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식월 기간 중에 부목사가 주일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부목사 중심으로 교회의 예배와 목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 교회는 16일 임시당회를 통해 23일 주일예배까지 교회에서 진

행을 하고 이날부터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주일오후 찬양예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일체의 예배와 집회를 중단하고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교역자들과 직원들만 출입하도록 하였다. 담임목사는 3월 초에 교회로 복귀해서도 2주간 격리상태로 지나게 되었고 영상으로 설교만 녹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다.

4. 현수막 등을 통한 현장예배중단 광고, 코로나를 위한 응원

교회는 예배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과 코로나로 힘든 나라와 포천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본 교회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응원하는 교회의 마음을 전하였다. 포천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현장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이러한 현수막 게시와 교회예배중단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많은 분들에게 본 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었다.

그리고 3월 1일 주일예배부터는 주일예배 설교를 토요일에 녹화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주일예배를 가정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도록 하였다. 담임목사가 교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영상만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다가 3월 중순부터는 교역자들과 반주자들이 예배 전체를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회 주보에는 매주 코로나확산에 따른 신앙생활 지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이 실렸고, 개인경건생활 자료를 게재했다. 주보는 매주 인쇄하여 영상예배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카톡을 활용할 수 있는



교우들에게는 단체카톡방을 통해 주보를 스캔하여 그림화일로 전송하였다.

5. 주일예배의 현장 및 온라인 영상예배 병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해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주간 늦어지게 되어 부활절을 지난 4월 19일 주일부터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현장예배로 진행하되 7가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예배안내를 위한 예배위원들을 충분히 교육하였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소독과 열체크, 입장할 때부터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에 발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의 명부를 작성하였고, 7인용 장의자에 첫줄에 2명 둘째줄에 1명씩 지정석을 배치하여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였다. 5월 둘째주일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간격을 좀 더 좁혀 예배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었다(본예배당에 160명).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가교회를 위하여 총회와 노회를 통하여 일정액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기존의 기독교방송 등을 통하여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설교영상과 온라인 영상예배는 각 구역의 성도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지만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6.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SNS는 카톡

구역장 권찰 단체카톡방, 구역인도자 단체카톡방을 통해 교회의 매주 인쇄된 주보, 4차에 걸친 목회서신, 설교녹화영상,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린 설교 및 예배영상 링크를 전송하였고, 각 구역의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 구역의 단체카톡방으로 다시 올리면 전체 교인들에게 위의 내용들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이에 익숙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각 구역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 성도들에게는 유선, 그리고 주보와 주일설교, 새벽설교문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7. 현재의 주일예배 출석현황 및 헌금 현황

코로나 이전 평균출석이 350여명인데, 4월 19일 주일예배로 교회에 모였을 때 장년부 기준 약 150여명이 출석하였고, 4월말부터는 240-260명 수준으로 출석하고 있다. 2/3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어린아이들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출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배녹화 영상을 링크하고 있고, 이것 또한 활용이 안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주보와 설교문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헌금은 2월까지의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3월부터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일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주보에 게재하였던 헌금계좌로 헌금하도록 하였다. 주일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헌금은 평소의 2/3 정도수준이었고, 4,5월 헌금은 평소의 수준을 80~9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부



활절 절기헌금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교회로 모였기에 예산액의 70% 수준에서 헌금이 드려졌다.

8. 교인들에 대한 영적 돌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원심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꼭 필요한 경우 가정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심방대원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심방에 임하고 있다. 교구를 맡은 부목사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심방일로 삼고 하루 20가정 이상 전화심방을 중심으로 교우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둘째주일 어버이주일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되었는데, 당일에 출석하신 어르신들이 60여명, 그리고 출석하시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담임목사와 교구담당부목사가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10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심방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도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성경공부와 노인학교, 기타 프로그램들은 일체 중단된 상태이고, 주일오후찬양예배와 금요기도회, 구역예배와 모임은 일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배달부(반찬도시락 / 18가정)는 6주 정도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

9. 교회학교의 예배와 학생관리

교회학교는 전체 부서가 2월 마지막주일까지 교회로 모였고 3월 첫주일부터는 장년부와 동일하게 현장예배를 중단하였고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진행하였다. 각 부서별 특징을 살려 예배 전체를 녹화하고,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였고, 설교 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유튜브와 교회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영적 돌봄과 관리는 전화심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카톡을 비롯한 SNS를 목회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부활절과 어린이주일 등 교회의 중요한 절기에는 청년 학생,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심방을 겸하고 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는 4월 19일부터 주일예배를 시작하였고, 현재 70% 정도의 출석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아직 현역 직업군인들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반대가 있는 경우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은 직업군인들의 예배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예배가 재개되면서 거리유지와 마스크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그룹 모임도 재개되었다.

중고등부는 3월부터 동영상 챌린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개, 근황, 중고등부에 바라는 말, 기도 제목 등을 단체카톡 방에서 공유하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증샷 올리기, 성경퀴즈 등에 참여케 하고, 시상으로 격려하고 있다. 아동부의 경우 영상설교의 시청횟수가 처음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모와 연계하여 예배와 신앙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부와 유치부의 현장예배는 학교 등교상황과 연계하여 6월 21일 주일 부터 모이기로 하였으나 출석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 공히 현장예배와 온라인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10. 코로나 이후시대를 대비한 대책

- 1)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계획** - 교회학교에서는 여름에 진행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회인데, 이러한 상황이 더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가운데 2일 정도씩을 계획하고 있다. 신체접촉이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상황에서의 진행방법과 내용을 모색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식사와 숙박을 하는 프로그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2) **전화심방과 온라인, 영상을 통한 목회** - 최대한 전화 및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통한 교우관리에 집중하고,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 등으로 교인들 영성생활과 양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 3) **성경공부와 기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접촉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성경공부와 양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또는 줌 등을 이용한 라이브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4)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회가 향후 대그룹 모임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반목회 | 교회학교

양미옥 목사 | 안산제일교회 영.유아.유치 위원회 총괄교육목사

1. 코로나19를 대응한 상반기 사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아니 전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우려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고 그 대상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2월 마지막주 예배를 끝으로 정부가 ‘심각’단계를 선포하면서 주일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함을 슬퍼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에 인간의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 안산제일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예배를 준비하고 그에 맞는 사역들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주일예배녹화 - 가정예배 강화

❶ 지표: 월드뷰 2020.5월호에 보면 주일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6%,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기독교 방송 등 예배를 대체할 거라는 생각이 12.5%라고 말한다.

❷ 진단: - 온라인 사역은 서브사역이 아닌 중점사역이 될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 가정 예배 속에서 부모가 먼저 예배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한다.
- 코로나19는 단발적 위협이 아니라, 유사한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교회현장예배를 앞으로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내용: 예장통합 측 총회 교재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 설교, 봉헌, 광고, 축복의 시간 등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아 매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10시 최초공개로 방송하였다. 미리 토요일에 유튜브 주소를各班 교사들을 통해 부모님들께 공유하고 부서 밴드에도 링크를 걸어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였다.



2) 드리아브 스루(가정밖 심방)

① 진단: 비대면 사역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전화심방은 하였지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별적인 목회적 돌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신청자에 한해서 가정밖 심방으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였다.

② 내용: 가정 안 심방이 아닌 목회자가 차를 타고 가정 밖에서 어린이들을 만나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주고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였다.



3) 총회 어린이공과 교재 우편발송

① 진단: 2월 마지막주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상황을 ‘심각’단계로 선포하면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공과진행이 되지 않았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마다 이를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였다.



② 내용: 총회 공과 어린이교재(만들기)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가정에서 예배와 연계하여 one point로 어린이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4) 예배어린이 인증샷 영상제작

① 내용: 각 가정 예배를 독려하기 위하여 예배드린 어린이들 모습을 사진 찍어서 밴드에 매주 올리게 하였다. 밴드에 올린 사진들을 예배영상에 첨부하여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어린이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한다는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있었다.



5) 플립 런닝 영상 통한 가정과 연계한 신앙교육

플립 런닝은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된 영.유아.유치 사역이다. 즉 주일 설교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예배 1주 전 수요일에 유튜브에 올려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미리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궁금한 점이나 영상 내용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능동적인 참여학습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기에 설교내용 전체를 담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각 가정에서 설교내용을 시청 각 자료를 통해 스토리텔링으로 접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행학습을

진행하였고, 미리 영상을 통해 설교 본문말씀의 이해를 돕도록 준비하고 사역하였다.



2. 하반기 주중사역을 위한 계획

1) 아기학교 → “복음 들고 뚜벅뚜벅”

❶ 진단: -코로나19는 단발적 위협이 아니라, 유사한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산지역과 교회 실정에 맞게 아기학교 사역에 대한 대안을 세워 보았다.

- 영아부, 유아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99% 등원하는 실정으로 아기학교 사역이 힘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부모님들이 코로나 여파로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기를 기피한다.

❷ 대안: 직접 어린이집 아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성품동화 & 성경이야기 동화책,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❸ 사전조사: 안산시내 어린이집 실현 가능한지 문의 완료하여 준비하고 있다.



2) 태교학교 → “태교책 보급”

- ① 진단: 팬데믹 시대에 전염병의 감염 우려로 임산부들이 대면하고 태교학교를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ex. DIY 만들기, 태교음식 나눔, 순산체조 등 전염병 감염우려)
- ② 대안: 성품태교 교재 직접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임산부들이 태교할 수 있도록 태교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한다. (교재내용: 성품성경동화, 주제별 성품특강, 순산체조, 태아를 위한 DIY 만들기, 출산준비내용, 태아를 위한 매일 기도문 등 수록)

일반목회 | 교회학교

배두로 목사 | 신안교회

신안교회 미래교육위원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소독과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동부는 예배를 전체 녹화 하여 주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 주었을 때, 50여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미래교육위원회 임원들은 회의 통해 모든 부서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영어학교, 외국인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및 영상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서의 영상 장비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든 부서의 교역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방법을 배워가며 영상을 편집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의 교역자와 교회학교 임원들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장비가 잘 갖추어진 교회도 모든 부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교육부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든 교역자들은 매 주일 예배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부서 예배, 아이들이 속해 있는 예배, 장년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려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예배 부터 장년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매주 아이들과 함께 모든 예배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토요일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찍으며 고생한 교역자 및 교회학 교부서의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모든 부서가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안교회 아동부 온라인예배

아동부 아이들 특성상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토요일에 녹화 하여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처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실시간처럼 공개되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어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2명의 접속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하였고, 점점 아이들의 숫자는 9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예배드렸던 아이들의 숫자는 120명으로 시작하여 212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

이들은 예배가 재미있다고 하며 “목사님 저는 예배를 2번 드렸어요”. 하며 예배를 되돌려보는 어린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예배드렸던 방식 그대로 1시간을 기획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 2시간 정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배영상 편집은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주기 위해 영상을 편집하였고,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 위해 자막을 작업하여 삽입했습니다.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8시간 정도의 편집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어린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때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예배를 드릴지 고민해준 찬양팀 선생님들과 반주팀 아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배 영상을 찍기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과 반주팀 아이들이 있었기에 재미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송출되게 되었습니다.

신안교회 아동부 유튜브 가정예배

아동부에서 총회공과 안에 있는 가정예배지를 보내 1월부터 가정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유튜브 가정예배를 2월부터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시작은 아동부의 모든 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겠



다고 시작한 유튜브 가정예배는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대면 예배와 언택트사회에서 새로운 예배의 형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가정예배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30분에 입장하여 9시까지 총회공과 가정예배지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채팅에 적고, 채팅에 글을 써 놓으면 그것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형태에 예배에 적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예배 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찬송가를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자신이 직접 반주하고 찬양하는 아이들, 아빠가 기타 반주하고 찬양하는 것을 녹음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부른 찬송가를 음성으로 녹음하여 카톡으로 보내 주면, 유튜브 가정예배 방송에서 아이들이 녹음한 찬송가를 틀어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부른 찬송가가 방송에 온다며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하며 1절, 2절, 3절, 4절 각각 다르게 부른 아이들의 음성메지를 방송에서 틀어 줍니다. 현재, 아동부 목요일 유튜브 가정예배는 30명에서 50명의 아이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4개월 넘게 지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유튜버예요! 내 꿈이 유튜버 인데, 유튜버인 우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아동부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존경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고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가정예배는 새로운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되었고, 믿음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유튜브 방송 방법)

신안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영상도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다른 장비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들이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을 잘 활용하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는 1000명이 구독자가 있어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플 중에 프리즘 라이브 (PRISM Live Studio) 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독자가 없어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아동부 실시간 예배 방송은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유튜브 가정예배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작은교회나 큰 교회나 상관없이 누구나 방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현상으로 서로 만나기 힘들고,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함께 아이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예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예배가 만들어져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 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책을 준수하면서 성도들이 자동차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란?

- 1) 드라이브인예배는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은 FM 라디오주파수를 이용해 준비된 주차장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 2)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중에 전염병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
- 3) 차량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이다.
- 4) 예배가 실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한 예배이다.

3. 드라이브인 예배의 장단점

1) 장점:

- i)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 ii)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예배환경을 제공한다.
- iii) 가족들이 차량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iv) 예배당 예배의 복잡한 출입절차가 필요 없다.

2) 단점:

- i) 사전 계획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ii) 거리두기를 위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 iii)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 iv) 여름의 높은 기온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4. 평가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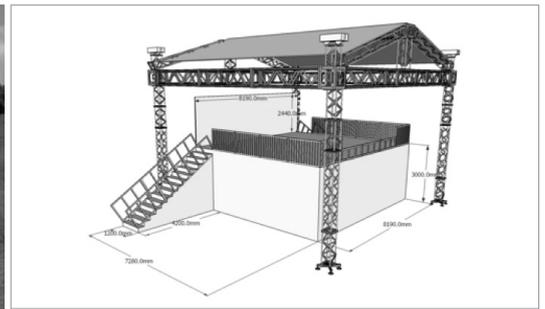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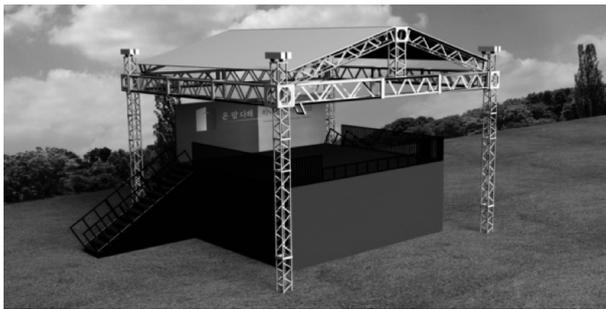
- 1)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 2) 코로나 전염병이 장기화 될 경우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3) 교단과 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할 수 있다면, 한 장소에서 여러 교회가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5. 조직 및 역할

- 1) 본부: 드라이브인 예배 전체 진행
- 2) 예배팀: 찬양팀 운영, 기도자와 설교자 체크
- 3) 방송팀: FM 주파수 송출기 운영, 현장의 음향과 영상 조정
- 4) 시설팀: 무대, 화장실, 그늘막 텐트 준비 및 공연용 대형트럭 설치
- 5) 식사팀: 스텝 식사 및 간식 준비
- 6) 주차팀: 차량 입출차 안내 및 관리
- 7) 안내팀: 문자안내 및 응급상황 대응
- 8) 의전팀: 설교자, 기도자, 외부손님 섬김
- 9) TFT : 긴급지원팀
- 10) 안전분과위원회: 모든스텝들의 안전, 열체크 및 차량화재 긴급대응

6. 드라이브인 예배 무대



7.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





이 글은 대구경북기독인연대 사무국장 박성민목사가 정리한 활동 일지를 참조하였음

1. 대구상황과 대응활동

1) 대구상황

2020년 2월 18일부터 대구 시민들의 모든 공적 사적 모임과 활동이 중단되었다. 31번째 코로나19 감염자가 출현하면서 집단적 감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내 의료진과 병상 수가 순식간에 한계 상황에도달했다. 시민들은 즉각 이를 따랐고,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격리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직장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무급휴직자가 늘어났다. 일반 가게들은 문을 열었으나 손님은 끊겼고, 이마저도 곧 대부분 휴업으로 들어갔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재기는 없었고,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도로는 텅 비었으며 대부분의 길에 인적이 끊겼다. 강제적인 봉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구 시민들 또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 시민들의 대응활동이 시작되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었기에 기존의 복지체계는 지원을 멈추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다. 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기 몇 주간의 대응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중심이었다. 시민들은 의료진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누었으며 3월초부터 쪽방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방역을 시작하였다. 대구 지역 목회자들 중 일부는 대구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민단체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2. 대구경북기독인연대의 구성

1) 시작과 준비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인권위) 소속 회원의 제안을 받아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NCCCK지역협의회가 3월 2일(월)부터 순천, 경기,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NCC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날부터 실무자 두 사람을 정하고 성공회 서대구교회를 센터로 하여 본격적인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대구경북기독인연대(이하 대기연)를 대응 활동의 주관단체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미 여러 시국 상황 때마다 함께 활동했던 대기연의 소속 단체들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대구NCC와 인권선교위원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경목정평), 성서대구, 영남농목,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참여하였고, 대구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대구기윤실)는 연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업에 따라 함께 활동하기로 하였다.

3월 4일(수)부터 웹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하면서 모금은 본격화되었고 그 이튿날 3월 5일(목) 대기연에 연대한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 가지 방침을 정하는데, 첫째,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학생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대학생들 중에 약간 명을 모집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기로 한다. 셋째, 발굴과 더불어 대기연에 속한 목회자들이 파악하고 있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지원하기로 한다.



2) 대구 경북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의 초기 활동

실무자회의의 결정대로 목회자들이 긴급 지원을 위해 추천한 이들은 다양했다. 대구 지역 난민신청자 가운데 아프리카 여성들(17명),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 유학생들(54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50명), 여성 장애인들(15명), 총 136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차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분할 생필품 구입은 대구 지역 재래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목회자들에게 추천받은 대로 3월 7일(토) 오전에 140명에게 생필품(쌀, 라면, 도시락김, 참치캔, 과일)을 배분하였다.

3월 10일(화)부터 한 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하여 배분대상을 찾아내는 일을 지원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과일과 영양제가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고령 딸기와 영양제를 배분하기로 했다.

3월 14일(토) 목회자들의 추천으로 경산지역의 이주민들(20명), 일자리를 잃어 어려운 이들(10명), 독거노인분들(7명), 실직 장애인들(6명), 대구 지역 이주민(1명) 총 44명에게 쌀(10Kg)과 라면, 김치 한 세트(배추, 열무, 총각), 쌀국수 2개, 누룽지 3봉, 시금치 한 묶음 손소독제로 만든 꾸러미를 배분하였다. 또 서대구교회 주변 독거노인들 16분에게도 쌀을 뺀 생필품을 같이 나눠드렸다.

3월 16일(월) 조사가 마무리되고 대구 지역 아동들 2,000명에게 딸기와 영양제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 일을 계속해 왔던 위드교회와 더불어 대구 만민교회, 동촌제일교회, 서대구교회에서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소수가 딸기를 포장하고 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배분하였다. 중간 확인단계를 줄이기 위해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 글자가 삭제된 명단을 받았다.

3) 대구 경북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의 마무리 활동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을 3월 23일(월)에 만나 대구 서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필품을 제공하기로 의논했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맞춤형복지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했고 175분의 독거노인들을 추천받았다. 대기연 회원목회자들이 물품을 구입하여 꾸러미를 만들어 놓으면 센터소속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나눔을 맡았다. 대량의 물품이었지만 센터가 참여하니 나눔이 용이했다. 3월 25일에 첫 나눔이 있었다.

대구 시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딸기1kg과 영양제를 배분하던 것이 마무리되면서 대구광역시에 속한 달성군에도 추가로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대구 기운실 예산으로 경산지역 아이들에게도 추가 배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대구 기운실에서 지원한 1,200만원을 합하여 대구 북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의 500분의 독거노인분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대구 새터민들과 재개발지역 강제철거로 인한 쉼터 이용자에게도 생필품을 전했다. 이탈리아 볼료냐와 독일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모금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울산대흥교회 유년부(신창훈전도사) 아이들이 120장의 다양한 마스크를 모아왔다. 이 마스크는 백혈병 소아암 아동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

4월 1일(수) 마지막으로 독거노인분들 500분에게 대구지역 25개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목회자들이 배달 차량과 자신의 차량으로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격려의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4) 대구 경북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의 모금액과 사용처 개괄

모금은 3월 31일로 마감하였지만 4월 12일까지 모금된 총액은 59,318,001원이었다. 현재까지 전체 지출은 55,766,090원, 잔액은 3,551,911원이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배분에 사용한 액수는 51,251,230원으로 지출액에 91.9%에 해당한다. 배분 외에 사용된 비용은 업무추진비 1,153,000원, 숙소 기름 값을 포함해 유류비 510,000원, 운영비 650,860원,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2,201,000원, 총 4,514,860원으로 지출액 중 8.1%에 해당한다.

한 달 간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구 전지역과 경산 지역에 어려운 아동들 2,000명에게 딸기와 영양제를 나눠주었고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대구 전지역 독거노인분들 766명에게 생필품을 배분하였다. 긴급하게 목회자들이 파악하고 있던 난민신청자, 이주여성, 새터민, 독거노인, 여성장애인, 어려운 이웃들 203명을 지원하였다.

3. 대구 경북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의 원칙과 성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은 모금액이 얼마이든지 최대한 신속하게 또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모금과 사용 내역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모금액 가운데 90% 이상을 배분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원칙은 지켜졌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내는 것은 어려웠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렵기도 했지만 발굴이 어려웠다는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면이긴 하나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일

에 늘 노력하여야 한다. 남은 모금액은 북한에 대한 방역과 진단키트 지원에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4.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1) 신속한 활동이 요청된다. 긴급 상황이 시작되고 16일 만에 활동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있었고, 나눔은 이틀 후인 18일 만에야 실행되었다. 2월 21일에 활동 제안이 있었으나 실행까지는 오래 걸렸다. 신중한 면은 있었으나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신속함도 필요하다.
- 2) 교회들의 지역 봉사가 요청된다. 대기연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 교회는 교회중심이었다. 사회선교와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겠다.
- 3)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역할이 요청된다.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없었다. 대구시민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없었고, 자체 방역과 예배에 몰두했다. 교회가 노회 중심으로 취약한 목회자와 교회를 지원한 것은 돋보인다.
- 4)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거나 자주 올 것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 작업이 요청된다.
- 5) 교회는 자기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은 정부뿐만 아니라 교계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이 어느 교단보다 앞서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처함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번 코로나19는 향후 닥쳐올지 모르는 더 큰 재난을 대비하고,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포항노회가 이번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2. 방역 사업

1)시찰회 자체 방역

코로나19 발병 이후 포항노회 남시찰회를 중심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다. 자립대상교회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자체 방역이 어려운 교회(10개 교회 이상)를 순회하며 방역을 실시하였다. 시찰회 재정으로 방역업체에서 자동분사기를 대여 받고, 살균제를 구입하였으며, 노회사회봉사부와 마을목회팀, 시찰회 남선교회(실외, 교회주변 지역)에서 협력하였다. 6주 후에는 자가방역을 할 수 있도록 소형자동분무기를 추천하였고, 이후 개교회에서 구입하여 자가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 총회 사회봉사부 주관 방역 세미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방역 세미나를 총회 산하 노회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였다. 2020년 4월 2일(목)에 약 20여명이 포항우창교회에 모였다. 포항남노회와 지역마을목회팀도 함께 하였으며, 방역 전문가의 강의와 시범이 있었고, 방역기 및 살균제도 총회로부터 기증받았다. 방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교육 받았고, 방역자원봉사단도 조직하여 향후 방역 필요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방역기 및 살균제를 비치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필요한 교회에 대여하고 있다.

<방역자원봉사단>

노회 명	포항노회		
자원봉사단 팀장	성명: 류 시 완	연락처 : 010-2528-****	
	성명	교회명	연락처
	1 류시완	포항창포교회	010-2528-****
	2 황무경	소망교회	010-9235-****
자원봉사자 명단	3 김성철	철포교회	010-7202-****
	4 이남재	포항우창교회	010-4523-****
	5 김치학	푸른초장교회	010-3534-****
	6 전종규	봉계교회	010-2007-****



3) 지역 교회 방역과 지역민을 위한 살균제 확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살균제가 필요하였다. 지역교회에 다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살균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과 보건소를 방문하여 다량의 살균제를 확보하여 필요한 교회에 나누었고, 차후 교회 및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 특히 예배당 및 실내는 최대한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를 사용해야 함으로 고급 살균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봉사자 간식지원 사업

1) 포항의료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및 봉사자, 방역대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식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처음에는 한 두 교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다가 사회봉사부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회에 요청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간식을 제공하였다.

2) 북구보건소 및 주민센터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일반 업무팀 인원을 합하여 숫자가 많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민센터는 동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바빴고, 여유가 없는 듯하였다. 제공된 간식이 분주한 업무에 다소나마 힘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간식 지원 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 포항의료원, 보건소, 주민센터에 대한 간식지원 사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인 원	내 역
포항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4명(2교대)	의료진, 방역대원, 봉사자(6회) 입원 환자(다수-붕어빵)
포항 북구보건소	150명	선별진료소 의료진, 직원, 봉사자(2회)
포항 두호동 주민센터	30명	직원 및 봉사자
장량동 주민센터	30명	
우창동 주민센터	50명	
합계	294명	

4. 지역사회 취약계층 섬김 사업

1) 구포항역 광장 및 만나의 집 무료급식 나눔

코로나19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주었는데, 특히 한 끼 식사를 제공받는 이들에게도 그 여파는 컸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많은 단체나 개인의 무료 식사 제공이 멈추거나 제한되었다. 노숙자나 독거노인과 같이 한 끼가 아쉬운 이들에게 포항참사랑교회와 협력하여 포항역 광장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나누었다. 또한 만나의 집(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간단한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나누었는데, 마을목회팀과 협력하였고, 방문 방역도 실시하였다.



2) 반찬 나눔

나눔과 기쁨 단체에 반찬을 지원하여 45개 가정에 2회 제공하며 나누었다. 그동안 사회봉사부에서 지역 내 봉사단체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적으나마 나눔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향후 협력 사업에 좋은 출발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지역교회 주변 취약계층 식료품 나눔

지역교회 주변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50개 식료품 키트를 만들었다. 마을목회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함께 포장 작업을 하였고, 15개 지역교회에 키트 10개씩 나누어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상 취약계층 섬김 사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인 원	내 역
구포항역 광장 섬김	130명(2회)	김밥 및 음료수
만나의 집(무료급식소)	150명	도시락 나눔 및 방역
나눔과 기쁨 단체 협력	45명(2회)	반찬 나눔
지역교회(15곳) 주변 섬김	150명	식료품 키트(150개) - 김, 라면, 두유 등
합계	475명	

5. 사업 결과와 평가 및 향후 계획

1) 간식 지원과 취약계층 섬김 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항시 산하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 북구보건소 및 주민센터의 의료진, 직원, 방역대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무료급식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락이나 반찬 나눔은 취약계층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다.

2) 평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지역사회의 위기를 대응하는데 미력하지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아가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상태에서 교회의 이미지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지역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총회사회봉사부의 재정지원과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 및 포항마을목회동행 목회자들의 협력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고, 향후 위기 대응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총회 사회봉사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힘입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노회사회봉사부 재정과 모금된 사업비를 합하여 활용하였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다.

넷째, 자가 방역과 시에서 운영하는 방역이 비교적 잘 실시되고 있어서 방역 사업은 미미하였지만 향후 방역 사업을 위해 기기 및 살균제를 추가 구비해 두었으며, 6월 이후 방역과 방충을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향후 계획(필요성 제기된 것들)

첫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방역교육(세미나) 실시

둘째, 향후 감염병 발병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구호 지침 마련

셋째, 총회, 노회, 사회봉사부 차원의 재정 마련 및 인원 동원 등의 체계적 시스템 필요

넷째, 지역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 방역을 담당할 수 있고, 또 노회산하 단체나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 필요



다양한 목회현장 | 노숙인 사역사례

정충일 목사 | 예사랑공동체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하여 노숙인복지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민간노숙인복지단체에서 시행해오던 노숙인무료급식이 중단되고 거리노숙인들이 방치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19는 감염병사태를 맞아 수원 예사랑공동체는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노숙인복지사업을 실시하였다.

1. 코로나19 극복캠페인 실시

- 일 시: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수원역 정 나눔터 앞
- 참여인원: 150명
- 참여단체: 종교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시민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회적기업 착한가게, 정성이 가득찬밥집.
- 내 용: 기도와 감사, 취지설명, 배분금전달식, 물품나눔의 시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실시

- 사업명: 코로나19 관련 배분사업
- 배분금: 금 삼억 원 (300,000,000원)
- 사업기간: 2020년 3월 13일 ~ 2020년 6월 10일
- 사업내용: · 회원시설 균등배분 · 무료급식시설 균등배분
 - 수령의사없음 시설의 배분금을 대구지역과 무료급식시설에 추가배분
 - 협회 관리운영예산



3. 전국노숙인무료급식소 지원사업 실시

- 사업명: 전국노숙인무료급식소 지원사업
- 배분금: 금 이천만원 (20,000.000원)
- 사업기간: 2020년 4월 7일 ~ 2020년 5월 29일
- 사업내용: 무료급식시설(12개시설)에 햇반, 컵라면, 세정제등 지원





1.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교역자들의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생활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다시 되새겨지면서 우리는 계획했던 바대로 실천하기보다 감염의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전국여교역자연합회가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여성목회아카데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2월 한 달간 4주에 걸쳐서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는 뉴스를 접하고 2월 25일에 예정되어있던 세미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피하고 3~4월을 잠잠히 기도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의 확진자 치료와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는 여교역자들의 문의 전화가 와서 저희는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극복기금으로 후원금을 보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교역자들이 시무하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여교역자(여전도사, 여목사) 수는 지난 104회기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3,570명이고, 이중 여목사는 2,336명으로 이는 전체 목사 수 29,506명 중 11.4%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0.7% 증가한 수치로 점차 여목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목사 중 담임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458명(위임목사 36명, 임시목사 422명)으로 전체 여목사 중에는 19.6%이고, 전체 목사로 보면 2.2%의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담임목회하시는 여교역자들의 교회가 농어촌, 도서지역의 미자립교회인 경우가 많아서 재정적으

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교회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더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송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농어촌교회의 경우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아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예배로 드리고 헌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목회자의 사례비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의 경우 은행 계좌로 헌금을 내라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할 뿐이라는 보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작은 교회이다 보니 그대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인 경우 성도들의 수가 10명 내외임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예전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별다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라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가 발빠르게 대응하여 아주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E 교회의 경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성도들과의 카톡방을 통해 설교를 녹음해서 올려주고, 줌(Zoom)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 교인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새신자 관리가 잘 되지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공부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성경공부강의를 녹음하여 성도들에게 주 2~3회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헌금이 없어서 교회재정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교인들이 지난 헌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헌금을 하셔서 교회 재정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의 뉴스를 접하면서 가만있을 수 없어서 총회사회봉사부를 통해 긴급재난기금을 보내고, 남아공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먹을 것이 없자 폭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아공 선교사가 하는 푸드뱅크사업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 A 교회의 경우, 처음 대학로의 젊은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넓은 공원에 모여 야외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예배 준비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담임목회자가 동영상 제작을 배우는 등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연극인들이 많은 교회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개별적으로 차비도 주고 쌀과 김치 등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 성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은 공연취소로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일도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 일선에서 분주하게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점차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공연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젊은 연극인들의 공연을 보러가는 일도 목회의 일환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는 중입니다.

2. '코로나19' 이후의 목회 방향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여교역자들이 변화하는 목회환경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과 복음전파를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단 총회 통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성도 수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2010년 2,852,311명(2011년 96회 총회보고)에서 2018년에는 2,554,227명(2019년 104회 총회보고)으로, 지난 9년간 대략 30만 명이 감소했고, 이는 10.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남녀 간의 수치로 보면 남성 성도는 지난 9년간 119,421명(9.9%), 여성 성도는 178,663명(10.9%)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여성 비율도 예전에는 70% 정도가 여성이라고 말해왔는데, 지금은 여성도 비율이 57.3%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도들이 더 급격하게 교회를 이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전국여교역자연합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여성들의 교회이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는 상징적으로 1997년 IMF때 종말을 고했다고 봅니다. 외벌이로는 핵가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가부장제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단지 지금은 문화적인 관성이 남아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미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는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새 술을 새로운 사회문화환경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동안 전국여교역자연합회에서는 목회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혼자하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목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팀 목회를 이루진 않더라도 서로의 목회 방향을 점검해주고 분별해주어서, 목회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바른 목회가 되도록 서로 함께 가는 공동목회를 강조해왔습니다.



니다. 더욱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작은 교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진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회의 형태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성도 수가 적은 교회라도 비싼 임대료를 내고 독점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교회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3~4개의 교회가 예배실과 식당을 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월 임대료는 함께 지불하면서 목회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작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도 있겠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성경공부든지 교양강좌든지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든지 기획단계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작은 교회들의 연합프로그램이 공동목회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이후에 일반화된 영상예배의 제작과 송출을, 보다 손쉽게 하는 방법도 구상해봅니다. 작은 교회는 장비와 기술이 부족함으로 지역마다 동영상 만들 수 있는 거점교회를 만들어서 거점교회에 가면 얼마든지 동영상의 제작과 송출을 저렴한 사용료만 내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사장소를 이용하듯이 기술적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문화가 다시 개별적인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소비경제에서 공유경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인 위워크나 에어비엔비, 우버 등이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남미 아마존 산림의 개발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때문인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의 감염확산 현상은 역설적으로 나만 잘살 수는 없는 세

상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회 방향도 개 교회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서로의 목회를 돌아보아 서로 상생하는 목회를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면과 접촉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에, SNS로 연결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서로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미 짜여진 구조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나가길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폭발적인 증가는 그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회의 모습도 이미 짜여진 구조 안으로 교인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보다 교인들이 가진 재능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낙동신상교회입니다. 저희 낙동신상교회는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발생을 하자마자, 계획되어 있던 ‘부흥회’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자, 2월 23일 주일에 65세이상 어르신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회 출입을 자재시켜서, 자택에 머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으로 감염병이 급속히 확대되자, 2월 26일(수)자로 교회 전면봉쇄를 결정하고, 폐쇄조치(출입문 차단)를 하였습니다. 3주간 완전차단 이후에 3월 15일부터 ‘일부 부분개방’을 시작으로,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점진적 확대개방’을 해왔습니다. 상주시청과 낙동면사무소의 지속적인 협조요청에 응하며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기준 이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교회 출입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고 앉기, 집회 1일전 관공서에서 제공된 방역소독제로 교회 전체소독과, 환기 2회, 교회 출입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회 출입 자재와 밀폐공간인 차량운행 금지, 식사제공 금지, 예배중 비말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찬양 자제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5월 6일자로 정부의 방역단계 하향조정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교회의 마지막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비접촉 체온계’를 준비하여서,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의 체온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본당 내에 '자연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기질과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방역방법으로 ‘운행 전 소독약 처리, 손소독제 비치, 안내자 탑승, 차량 에어컨 필터교체,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피톤치드 살포, 차량운행일지 등’, 교인들이 최대한 안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비하였습니다. 미비한 것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낙동신상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 중에도, 전체 교인들에게 2회에 걸쳐 구호품[생활용품-라면, 마스크, 간식거리(건빵,과자,음료수), 사순절 묵상집]을 지원하고, 부활절을 맞아 상주보육원에 80개의 초코렛 선물전달(구미 하늘문교회 광금배 목사님 제공), 신상1리 지역주민들 전체에 ‘부활절 계란 나누기’를 비접촉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김천에 있는 [운남교회-장영운 목사님 시무]에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 하자’는 의미에서, 선교헌금을 지원 받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5월 11일 교인 전 가정에 [태양광 정원등] 40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매일 밤 켜져있는 불빛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 하자’는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심적인 불편이 많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를 지키고, 지역주민을 지킨다’는 생각에, 철저한 예방활동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만보다, 더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교회 본당내



환기시스템과, 차량 환기까지 완비가 된 이후에, 교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지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낙동신상교회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심되었던 두렵고 외로웠던 마음은 어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노력해서 그 마음까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낙동신상교회는 교인과 지역 주민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월 6일 당회에서, ‘사택과 교회식당 건축’을 하려고 준비 해두었던 건축현금을 1년간 공사 진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그 예산으로 교인 가정당 10만원씩 “어깨동무 지원”(교회재난지원금)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당회결의를 하였고, 예산관련이라 5월 10일 주일에 다음주 ‘임시제직회’를 공고하고, 5월 17일 주일에 제직회에서 최종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된 40가정을 교회에서 1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양한 목회현장 | 자립대상교회

전민재 목사 | 서울서북노회 늘푸른목천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을 넘어 온 세계가 난리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과 개인위생강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적 모임을 금하고 있다. 교회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월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나 혹독하고 모질게만 느껴진다.

우리 교회는 파주에 있는 늘푸른목천교회이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산에서 거주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지하에 작은 개척교회였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월세예배당을 벗어나 건물을 구입하여 파주로 예배당을 옮기면서 거처도 옮기게 되었다. 건물을 구입했다고 해서 월세 걱정이 없겠다고 하겠지만 작은교회 재정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단지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대출받아 처리하다 보니 사람에게 월세를 내지 않을 뿐, 은행에 월 이자를 내야하니 월세를 내는 신세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여전하다.

새로 들어간 곳은 건물만 있지 아직 교회 인테리어나 성구들이 하나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빈 공간 한 가운데 의자만 놓고 강대상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 곧바로 교회 내부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미 끝내야 할 공사는 끝내지 못한 채로 몇 달을 공사장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사하다보니 교회에 모든 식구들은 지키기 일부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주님의 성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버텨 드디어 교회시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부끄럽지 않게 예배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



서 멈추지 않고 입당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지인 목사님들과 은사목사님들 연락드려 설교와 축사, 기도등 예배위원을 섭외를 했고, 모든 성도들은 부푼 마음으로 입당을 준비하였다. 입당 준비하는 중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성전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제대로 하고 싶었다. 우리는 재정은 넉넉지 않지만 인쇄소에 초청장을 의뢰하여 노회전체교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초청장을 일주에 걸쳐 만들고 봉투도 제작을 하였다. 각 교회주소는 노회로부터 받고 라벨작업을 하여 봉투에 일일이 정성들여 붙이고 우체국에 들렸다. 우편물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아직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우편 발송비가 그리 작게 느껴지지 않는았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크게 먹으니 뿌듯했다. 우체국 직원은 우편물이 이틀 정도면 모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편물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다. 뉴스를 시청하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 사건이 신천지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모임을 자재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별일은 없겠거니 했다. 하루가 지났을 때 뉴스보도는 좀 심각해 보였다. 뉴스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할 때 서울에 모교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들어왔다. 교회 입당 했으니 축하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 입당을 미루면 어떠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다시 결정을 내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당예배 때 설교를 담당하신 은사목사님께 연락을 했다. 목사님은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한든 좋다고 하셨다. 하지만 무리는 해서 하지 말라며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용기 있게 입당예배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 다급하게 노회에 전화를 하여 입당예배 취소 문자를 부탁을 드렸다. 노회에서는 개교회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

지는 않지만 상황이 급박한 때이니 노회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겠다며 우편물로 초청장을 받은 모든 교회와 담임목사님께 문자를 전달했다.

초청장을 만들고 편지봉투에 담아 정성스럽게 보내었던 우편물들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 허탈했다. 성도들도 기대에 부풀었다가 한 주 만에 뒤바뀐 모든 상황에 어리둥절해 졌다. 모든 준비한 노력들이 마치 쓰레기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몸으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당일 오시는 축하객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지만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한쪽구석에 처박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쓴다. 마치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풍과 같이 느껴진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교회는 현장 예배보다는 영상예배로 대체하기 위해 모두들 바쁘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교회는 손쓸 방법이 없다. 방송장비도 없을뿐더러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도 없었다. 그냥 무방비 상태였다. 도지사는 매일 TV에 나와 예배 강행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혹시 교회가 전파자가 되면 모든 비용은 교회에 청구하겠다는 등.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배를 그대로 강행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인가? 둘 중 하나였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절대 허락지 않기에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대신문을 잠그고, 외부인이나 새신자는 절대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식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우리교회는 예배 후 식탁공동체 때 많은 즐거움과 삶의 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탁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니 마음이 허전해졌다.



또 다른 뉴스 보도에서는 어느 작은교회가 월세가 걱정이 되어서 예배를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한다. 참 씩씩하다. 정말 월세 때문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언론의 조작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교회는 월세 걱정은 별로 안 된다. 번듯한 예배당이 있어서가 아니다. 워낙 없이 여기까지 오다보니 헌금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아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번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교회소문이 들려온다. 예배 후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SNS마다 사진이 올라온다. 우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할 수 없었다. 소독기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동기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기 교회 소독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떠냐는 내용이였다. 너무나 감사했다. 또다시 들려오는 교회의 소리들은 매주 예배드리지 말라는 공문이 넘쳐나고 이를 지키는 구청직원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심방 한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드린다면 지침은 잘 따르는지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교회는 한 번도 공문이 온 적도, 구청직원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질병에 취약한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성도들이 교회로 열심히 모였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구청직원이 예배를 드린 것을 알면 뭐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구청직원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뿐더러 공문도 한통 온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교회가 일산에서 이곳 파주로 건물은 옮겼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이것 때문에 구청으로 부터 간섭 받지 않은 게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온 교회가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열정과 갈망이 있는 것 같다. 매 예배 때 마다 같은 자리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그 자리를 지킨다. 비록 예배 후 식당공동체는 없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열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I. 교회소개

시온의교회는 ‘시온’ ‘의’ ‘교회’라는 낱말이 조합된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정의를 나타내신 것처럼 그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2017년 4월에 청년 4명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2018년에 세례교인 15인이 되어 그 해 가을에 노회에 가입하며, 정식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약 25명이 예배 드리고 있으며, 주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I. 코로나를 대처하는 시온의교회

1. 온라인예배

1) 작은교회의 특성을 살린 예배

시온의교회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이미 페이스 북 온라인Online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배에 늦는 사람들이 보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 라이브Live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튜브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체를 생중계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의 채팅창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만이 가진 강점입니다. 성도들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인사를 나누고, 예배 시작 5분 전부터는 목사가 성도들과 라이브로 소통하였습니다.





설교 중간에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는 미리 전날 PDF 형태로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이 주일 말씀 본문을 미리 숙지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면과 채팅창에 찬양 가사, 설교의 목차 등을 실시간으로 띄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기도, 성경봉독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미리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실시간으로 미리 보내준 영상을 틀어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오진 않지만, 예배위원들도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덜 지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 말씀 QNA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그 날의 설교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또 본문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온라인 은혜나눔 및 온라인 주보

성도들이 카톡방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공유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나누고, 또 그 날 받은 은혜들을 함께 문장으로 나누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온라인용 주보를 따로 만들어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였습니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사역의 확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 였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교회의 교회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순절 기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일부 허



용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동안 매일 저녁예배를 하였는데, 성도들을 4개조로 나누어서, 한 조씩 돌아가면서 교회에 오고, 나머지는 온라인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교제 - 시온의라디오

교회소식과 성도들의 기도제목 공유를 위해 시온의 라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목사와 2명의 진행자가 함께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녹화하고 방송했습니다. 성도들의 최근 근황과 교회의 근황 및 기도제목들을 라디오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한 라디오의 특성을 살려 성도들에게 즉석 전화를 하고, 또 게스트로 초청하여 인터뷰 등을 진행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온의라디오 자료 : https://youtu.be/WIWfrYKxG_0

2) 말씀 - 5분묵상과 Zoom 성경공부

주 중 말씀생활에 대한 도움을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시온의 5분묵상' 을 제작하여 성도들이 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왔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진행되던 성경공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라인 Zoom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실시간 성경공부를 진행했습니다.

5분묵상 자료 : <https://youtu.be/G4RntYcqQUE>

국내선교와 교회개혁분야 I

유튜브를 통한 성경공부 활성화 및 드라이브인 예배

서범석 목사 | 주복교회

1. 코로나19에 대응한 교회 사역에 대하여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예고도 없이 덮친 일이었기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교회는 선택지가 없이, 강요되다시피 대부분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금방 끝날 것이라 여기고, 대부분의 교회는 집회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교회는 오랫동안 초유의 온라인 예배라는 강요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복교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해왔다.

- 1)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서신을 통하여 소통하는 일이었다. SNS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하는 법, 교회의 방역대책,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 등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다.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영상을 통하여 교인들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 2)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속하였다. 참여한 인원은 적었으나 교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목회서신을 통하여 서로를 정죄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여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불참하는 것이요, 불참한 분들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며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힘썼다.



- 3)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는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이 기간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중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미 실천하고 있던 예전에 따른 가정예배로 찬양예배를 대신하게 하였다.
- 4) 둘째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드라이브인 예배(주차장 예배)’를 실시하였는데, 대략 10% 정도의 교인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하였다. 대체로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더 현장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배 후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차량 문을 열고, 예배당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갔다. 가족이 함께 차량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광고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주차장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영상으로 띄워주면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 5) 다른 모든 모임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대체하였다.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예배, 성경공부, 성경통독까지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영상으로 성도들과 소통하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을 강화하게 되었다. 성경공부와 성경통독은 반복되면서 많이 익숙해졌고, 댓글을 통하여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었다. 모든 영상 예배와 영상 모임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교인들은 댓글로 참여하였다. 예배가 방송 시청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녹화방송은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든 순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

는지 목회서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육하였다.

- 6) 새벽기도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것 같다.
- 7) 유튜브를 통한 성경공부와 성경통독 시간에 교회의 리더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방송에 댓글로 참여한 분들을 시상하고, 또한 시상품들 찬조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오프라인 모임과 별반 차이 없이 소그룹 모임들이 지속될 수 있었다.

2. 코로나19가 지교회들과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영향들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를 미리 경험하게 하였으며, 무엇을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우리는 미리 맞본 것이다.

- 1) 먼저 ‘공동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기의 안전함이 혼자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였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여도 서로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공동체에 대한 상호 책임과 더욱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 2) 과학과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며 신앙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동안 과학 기술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이었다.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공동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과학이 채울 수



없는 부분, 곧 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교회는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크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국가와 사회 기관이 교회보다 더 많은 재정과 인력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었다.

- 3)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임들, 때로는 귀찮게 여겼던 공동체의 관심과 섬김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인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임을 갖는 것, 모임으로 초청받는 것, 그 모임을 통하여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게 되었다. 예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 이러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있다.
- 4) 다양한 예배의 길을 열어놓았다. 강요되다시피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라면 신학적 논란 때문에 도저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 형태인데도,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새로운 예배의 형태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였다.
- 5) 교회와 개인의 믿음을 진단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교회 차원의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되어왔던 양육 과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개개인은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코로나19는 교회의 진단키트가 되었다.

- 6)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집하는 이들이 교회라고 여겼고, 회집하는 인원을 많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 여겼다. 코로나19는 교인들을 흠었고, 흠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였다. 흠어진 상태에서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3.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교회의 준비에 대하여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지금 과거로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지금 새로운 부대를 준비할 때라 생각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 1)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서 이제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모이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2) 상황에 유연한 교회의 조직을 고민할 때이다.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일 수 있고 흠어질 수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때이다. 그동안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면서 모든 위기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건물이 교회를 유지하고, 건물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건물보다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실천에 옮길 때이다.
- 3) 비대면 모임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



면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상태가 되더라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가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갈 다가오는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화상 성경공부, 유튜브를 통한 전도 활동, 예배 시청이 아니라 영상 예배가 가능한 예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4) 예배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영상예배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교회의 예배도 다양한 예배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양한 예전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 5)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부분은 ‘교육’에서 ‘경험’으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 교회는 그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시대는 배우는 것보다, 경험하기를 더욱 원한다. 다양한 ‘이머징 처치’들의 등장은 이러한 욕구의 반영인 듯하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교회에 위협이 되지만, 한편으로 큰 선물이 되었다.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회를 자체 진단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더욱 순결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동력을 얻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한다.

국내선교와 교회개혁분야 I

현장과 온라인 예배의 접목을 통한 예배 활성화

장철근 목사 | 금당동부교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온 세상을 덮었다. 이 바이러스는 상반기가 끝나가도록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 의료, 학업, 비난과 혐오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으며 교회 역시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에게는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봉사하고 친교하며 양육하는 모임의 공동체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은 교회에게는 곧 위기이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지난 수개월의 노력을 필자는 ‘생명의 몸부림’이라고 부르고 싶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금당동부교회의 사례들을 예배, 섬김, 교육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예배

시켜서 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먼저 하면 끌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빠르게 전환을 했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 대부분을 취소하고 영상과 SNS, 온라인 연락으로 방식을 바꿔 진행을 했다. 우리 교회는 네이버 기반의 밴드(Band, SNS)로 교회의 전반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밴드 어플의 서비스 중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했다. 간혹, 밴드 라이브의 한계가 있어 시청이 어려워질 때는 유튜브(YouTube) 실시간 영상으로 대체하여 예배를 송출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성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예배 소감을 남기도록 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성도들의 예



배 상태와 마음가짐, 가정상황 등을 매 주마다 체크할 수 있었고, 성도들 간의 소속감 유지와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수 있었다. 또, 각 다음세대 부서에서는 영상예배 속 설교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어, 말쑤를 한 주간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전라도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때,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방역 방침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서서히 인도해주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하였고, 손세정제를 비치하였고, 열 체크와 방문자 기록 작성, 교회 건물 직접 소독 등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지게 했다. 또한,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을 각각 제한시키고, 규칙을 정하여서 넓게 앉을 수 있도록(거리두기) 안내를 해주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때, 교인들의 사진들을 전부 인쇄하여서 본당 의자에 붙인 상태로 영상예배를 진행했었는데, 텅 빈 본당이 성

도들로 짝 찬 느낌이었고, 성도들도 영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며 다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소속감 유지)

2. 섬김

국가적, 전 세계적 재난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써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금당동부교회는 여러 섬김의 사역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감당하며 나아갔다. 이 또한, 생명의 몸부림이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 같이 버티기 위해, 같이 견디기 위해 마음뿐만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과 함께 하였다. 그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나누고자 한다.

1) 마스크 한 성도가 1개 보내기

마스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주변에 나누는 일을 했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대구지역의 미자립 교회(3개 교회)에 보내기 위해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일을 진행했다. 비교적 청정지역인 순천이기에 우리는 아껴 쓰기로 하고, 1개씩은 따로 구별하여 어려운 곳으로 보내자는 말에 성도들이 흔쾌히 따라주었다. 또한, 마스크를 사러 나가기 어려운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마스크를 따로 모아 덱으로 배달해 드리는 일을 했다. 마스크 1장이 정말 귀하던 때라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지 못했다면 아마 불가능 했을 일이었다.



2) 담벼락을 함께 하는 개척교회 월세 지원 선교헌금

비대면 예배와 영상예배가 지속되면서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는 상당히 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월세와 임대료 등의 문제가 피부로 바로 느껴졌을 것이다. 해서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함께 모았다.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함께 견디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아 개척 형제교회들(15개 교회)과 함께 하였다.

3) 순천보건소(선별진료소) 간식 배달

순천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선별진료소인 순천보건소에 샌드위치 세트와 음료를 배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공무원들을 위해 수제 샌드위치 가게에서 세트를 주문하고, 음료와 함께 포장하여 직접 조심스럽게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왔었다.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다행히 받은 사람들이 좋아해주었다.

4) 다음세대 부서들 키트 배달

계속되는 연장전에 지쳐가는 어린 성도들을 위해, 보고 싶은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키트를 만들어 전달을 했다.(Miss you 키트, 화이팅 박스 등) 간식과 마스크, 소독용품, 필기구, 장난감, 편지(카드) 등을 넣어 어린 성도들 집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안부를 나누었었다. 전달하는 교역자나 교사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달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집 밖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었다.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달 받은 어린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해 했다.

5) 어르신들 간식 키트 배달 (Drive-C)

어린 성도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쉬워서, 어르신(경노부)들께도 간식을 전달해 드렸었다. 담임목회자가 직접 찾아가 안부도 나누고, 위로해 드리고, 간식을 전달해 드렸었다.

6) 주변 약국에 꽃 배달

도시를 섬기는 교회답게, 선별진료소만큼이나 애쓰고 있는 그리고 시달리고 있는 약국과 약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꽃과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교회 근방 30개 약국)



3. 교육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가정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기에 교육 또한 놓칠 수 없었다. 해서 각 가정과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제시했었고, 시행했다. 그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나누고자 한다.

1) 영상예배 속 설교 퀴즈

비대면 예배와 영상예배를 진행하면서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어린 성도들의 예배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들이 그 주일 설교말씀을 가지고 어린 성도들에게 퀴즈를 내줬었다. 퀴즈에 훌륭하게 임해준 어린 성도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서, 말씀에 흥미를 갖게끔 해주었다.

2) 사순절 - 재의 수요일 프로그램

아마도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넘긴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또한, 원래 하던 재의 수요일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재의 수요일을 보내게 했다. 다함께 모여 하지는 못 했지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자료를 올려주었고, 이마에 십자가 그리기와 재의 수요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해줬었다.

3) 사순절 - 다니엘 새벽기도회 참여(전체&다음세대 부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을 ‘다니엘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게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기도를 교회에서 진행하기 어려웠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해주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라며, 교회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고, 권면했다. 또한, 다음세대 부서에서도 어린 성도들과 함께 한 주를 작성하여 참여했었고, 미션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다.

4) 고난주간 - 나를 담은 십자가 만들기

나를, 나의 신앙을 담은 십자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창작예술 프로그램이 아니라 묵상과 함께 진득하게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나와 내 삶을 꼭꼭 담아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매 년마다 전교인이 모두 참여하며, 고난주간 때 새벽예배에 나와 자신이 만든 십자가의 의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하루마다 정해진 인원만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해가며 진행을 했다.

5) 고난주간 - 다음세대 부서 프로그램

고난주간 때, 어린 성도들이 가정에서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다음세대 각 부서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진행을 했다. 요셉(중고등부) 부서에서는 필사성경을 직접 만들어 어린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며 보냈었고,



예드림(아동부) 부서에서는 ‘히즈쇼’의 고난주간 가정묵상 예배 영상과 필사를 함께 병행하여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금당동부교회가 생명의 몸부림을 친 흔적(사례)들을 예배와 섬김, 교육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나눠 보았는데, 이 사례들이 훗날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하나의 빛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이 끈질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가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끝까지 생명의 몸부림을 쳐서,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본다.

< 다니엘 새벽 기도회 번개 미션 >
 기간: 이번 주 월요일~토요일까지
 시간: 아침 6시
 참여방법: 아래 링크 주소 눌러서 보기!
<http://www.danielprayer.org/hmpg/biz/dtv/DtvLive.do>



예드림 고난주간 묵상 '영&필'

예하~ 예하~! 예드림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사의 전두사님이요, 이번주에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네요.

우리가 원~급요일까지 함께 영상으로, 성경화사로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하네요!!

히즈쇼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볼 거예요~
 대인(원수증) 15일씩 가족과 함께 하면
 합 줄은 것 같아요! (부담과 함께)
 우리~ 함께 예수님을 같이 묵상해 보는
 예드림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어쨌든 해소길
 → 각반 선생님께서 대인마다 영상 링크주소 알려주시길 거예요! 그걸 눌러면 볼 수 있어요!

이벤트 → 인스타그램 보내주면
 작지만 귀여운 선물지~

인스타그램 대인 댓글달기(유감)
 영상보는 습관 + 필사(성경조사)하기

010-2427-8185
 (여기도 보내주세요!)

국내선교와 교회개혁분야 | 목회와 양육 사례

송호석 목사 | 대전임마누엘교회

Covid-19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대전임마누엘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비대면 접촉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했다. 둘째, 신학의 부재가 복음전파에 심대[甚大]한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교회는 Covid-19 상황을 양육과 선교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교회의 성도들과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신의식(神意識)을 갖도록 섬겨 오고 있다. 다시 말해 대전임마누엘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사회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교회는 전염병과 재난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설교에 이것을 담아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모이고 대면하며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전환하여, 사회적 상황에 발맞춰 기민하게 사역의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공공성을 피조 세계 안에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에 성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와같이 대전임마누엘교회는 비대면 접촉 사역으로서 가능한 양육 프로젝트와 재난의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여, 선교적 교회 사역과 영성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제, 대전임마누엘교회에서 진행한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다.

예상치 못한 Covid-19가 발병하고 국가는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교회는 재난의 신학과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Covid-19 재난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동시에 ‘재난의 신학’이라는 학문에 머물지 않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재해구호 특별헌금과 마스크 기부를 통해 마스크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행했다.

1) 마스크 나눔 운동

i)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Covid-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을 때, 마스크를 구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이에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성도들과 마스크를 많이 소모하는 소상공인 성도들을 고려하여 마스크 기부를 제안했다. 그 때, 교회 성도들은 마스크를 손수 제작하거나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수백 개 기부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기쁘게 지원할 수 있었다.

ii) 대구를 위해

Covid-19가 대구에서 심각하게 번지고 있을 때, 마스크 1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의 헤드라인 뉴스는 온갖 대구 소식 뿐이었다. 교회는 긴급히 대구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① 대구의 의료진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구 00대학교병원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마스크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00대학교병원의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재정을 기탁하여 긴급한 의료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정성을 보탤었다.

② 대구의 지역교회들을 섬겼다.

대구 지역교회에 마스크를 보냄으로써 긴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 ㄱ교회와 ㄴ교회에 각각 마스크 수천 장을 지원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개척 교회들이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5곳의 개척 교회를 위해 재정을 지원했다.

2) 지역사회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 돕기”

교회 안의 성도들과 대구 지역을 위한 마스크 기부와 재정 지원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Covid-19 때문에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들은 더이상 음식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ovid-19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악재를 겪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교회에 공지했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 기부에 나섰다. 그 결과, 수백장의 마스크를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한편, 대전임마누엘교회는 지역 사회만을 섬기는 전담팀으로 지역사회품기팀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사회품기팀은 대전역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품기 재정을 해당 기관에 보내서 지원했다.

3) 지역사회 ‘착한 임대료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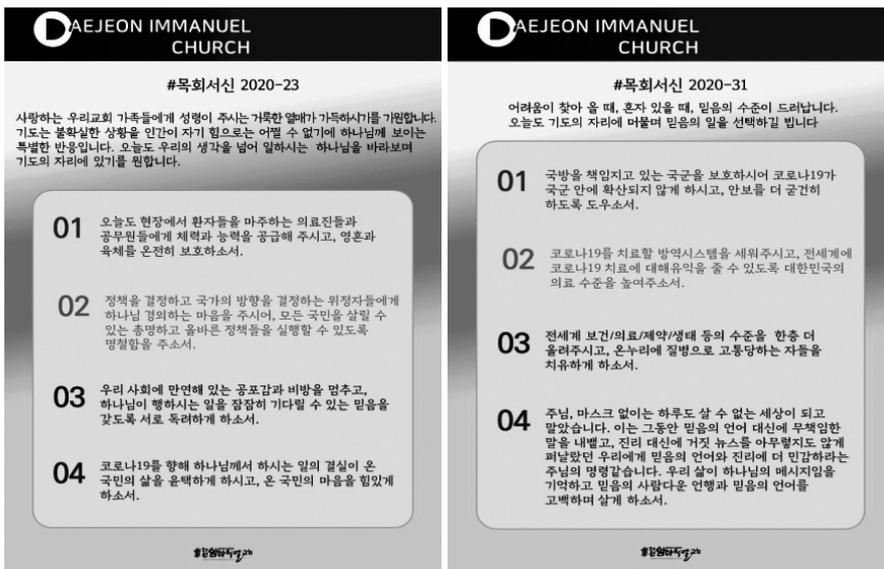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지기 전, 교회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먼저 실행했다.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부서 공간으로 사용하는 6층 규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 4개 공간 안에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다. Covid-19가 확산된 2월 말부터 교회의 빌딩 안에 자리를 잡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에 교회는 네 곳의 자영업자들에게 3개월 동안 월세 50%를 감면해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2. 네 가지 영성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대전임마누엘교회 교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영성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Covid-19 재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견딜 수 있도록 비대면식 양육 사역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영성 프로젝트를 SNS를 통해 제공하고 진행하였다.

1) 1차 영성프로젝트 :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

1차 영성프로젝트는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 프로젝트』라 명명했다.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 프로젝트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 프로젝트는 짧은 독려의 글과 중보기도제목으로 구성하여 SNS를 통해 교회학교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전 9시에 발송했다.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 프로젝트는 2월25일부터 3월15까지 진행했으며, 오전 9시와 저녁 9시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목회서신을 통한 중보기도』의 실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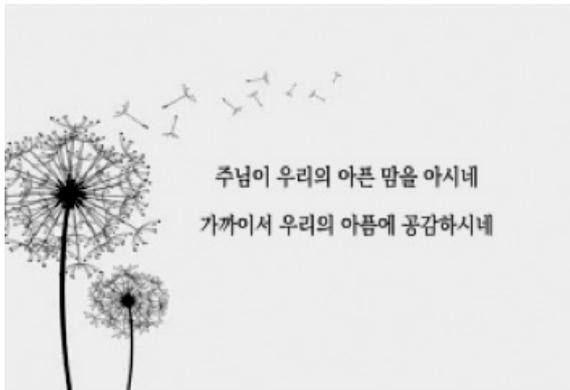
2) 2차 영성프로젝트 : 『사순절의 스케치북』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Covid-19로 인해 교회는 경직되고 모든 모임은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악방송의 이름을 인용



사순절의

스케치북



『사순절의 스케치북』 모바일 안내문과 찬양 영상 캡처 이미지.

사순절의 스케치북 안내문

I.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t와 함께 '봄'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쁨알이'라는 뜻의 화답어 '네삼코스태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심회하고,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화해 등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40일간의 절대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II. 3월 16일(월)부터 4월 11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24일 동안 40곡의 신앙 성장과 영적 각성을 돕기 위해 사순절의 스케치북을 진행합니다.

III.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영상으로 제공되며, 3월 16일(월)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전례드립니다.

IV.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24일 동안, 어린이 찬양/전송가/가스펠/성가 중에 한 곡의 찬양을 소개해 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1. 주 없이 살 수없네 (한국천주교신부님)	2. 여호와 참 하나님 (파이디온)
3. 사랑 (소양)	4. 오직 주만 받으소서 (파이디온)
5. father's song (제이레넷)	6. 왜 (소리엘)
7.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	8. 고난의 길 (호산나심어즈)
9. 누구도 부인 못해 (송기장이)	1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윤진)
11. 겸손의 왕 (권관용)	12. 성령이 오셨네 (김도환)
13. 흥해줄 건너다 (김다영)	14.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한용재)
15. 속삭여 내 영혼 (예수전도단)	16. 사랑23편 (김도환)
17.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김종삼)	18. 폭풍속의 주 (나영)
19. 왕께서 나를 보시네 (김명선)	20.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송기장이)
21. 주님이 이순을 (아노인턴)	22. 할렘루야 (지미산)
23.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렌트메이커스)	24. 주기도문 (박종호)

V. 어린이 찬양/전송가/가스펠/성가 중에 자신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을 간단히 목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사순절의 스케치북에 소개해 드리고 소정의 선물까지 드립니다.
간단목사(카톡ID-jnc0316, 010-3412-2460, jnc0316@naver.com)

VI. 24일 동안, 다양한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자기 신앙의 수준을 성찰하고 격려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꾀하는 선한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뜻깊은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 교회학교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 영상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2차 영성 프로젝트, 『사순절의 스케치북』을 시작했다.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모든 세대에게 적합한 찬양 24곡을 선정하여 매일 한 곡의 찬양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삶을 격려하는 멘트와 영상 자막을 넣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SNS를 통해 제공했다.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매일 오전 9시에 발송했고, 3월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했다.

『사순절의 스케치북』은 라디오를 듣는 듯한 느낌을 살려 성도들이 친근함을 갖도록 제작했고,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했다. 멘트 작업은 모든 교역자들이 참여했고, 성도들의 사연도 받아 소개하며 현장감을 높였다.

3) 3차 영성프로젝트 : 『슬기로운 교회생활』

3차 영성프로젝트는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 명명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교회학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그동안 선포했던 설교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발췌하거나 신앙에 유익한 글을 인용한 후, 두 가지 기도제목과 함께 구성하여 디자인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이름을 각색하여 만들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성도들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매일 오전 9시에 발송했고, 4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의 슬로건은 “하나의 묵상, 두 개의 기도”로서 하루 종일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말씀묵상과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 4차 영성프로젝트 :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4차 영성프로젝트는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로 선정했다.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역시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착안하여 기획했다.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는 신학의 필요성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 건강한 신앙적 열정을 갖도록 돕는 영성프로젝트다. 또한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핵심적 주제들을 일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역시 SNS 전송 영성프로젝트이므로, 한 눈에 들어오는 사이즈와 글씨 크기로 디자인했고, 김동건 교수의 『모든 사람에게』라는 책의 내용과 다양한 신학적 내용을 신앙의 언어로 요약하여 제공했다.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매일 오전 11시에 발송했으며, 5월11일부터 6월5일까지 주 5일간(월-금) 진행했다.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는 “20일 동안, 20가지의 믿음의 기둥 세우기”라는 슬로건 아래 교회학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2020 봄, 주님께 더 가까이
슬기로운 교회생활

APRIL 30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따르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간직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주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교회 모든 리더 / 팀장 / 합동직 등의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 더 높고 넓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만이 현실의 어둠과 한계를 돌파하고 그 어둠과 한계를 이기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신앙읽어주기

『슬기로운 교회생활』 실제 이미지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Immanuel

MAV.12

구원은 “영혼 구원”과 “일상의 문제에서 구출(해방)하기”로 구분됩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해결(해방)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곧 사람의 내면과 외적인 삶을 속박하거나 압제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 결핍이나 있었던 것이나 빼앗긴 것의 회복, 위기와 고난(고통)-위협과 위협에서 구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중상들 - 악(惡)과 고난(苦難)에 둘러싸여 삽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고,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은, 현재 죽음의 중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의 병균에 의해 서서히 정령당하여 가는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와같은 죽음과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救援)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 하루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신앙읽어주기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실제 이미지

신앙을 읽어주는 교회
 Immanuel

MAV.11

신학(神學, 하나님 배우기)은, 성경의 내용을 ‘통일성’있게 보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역사적 성격, 문학적 성격, 종교적 성격, 수사학적 성격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학적 기초가 없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이크시 되어 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 밑에 들어 있는 의미를 조화롭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神學, 하나님 배우기)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특정한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성경의 가치관과 괴리가 있을 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학(神學, 하나님 배우기)은, 설교를 삶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신학은 삶과 연결된 많은 문제들에 답을 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어느 시대이건 평신도가 신학적으로 탄탄할 때 교회가 건강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신학적 토대가 없으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합니다.

#신앙읽어주기

이 시대는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성을 일깨워 신학이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 Covid-19 상황 아래서 모든 교회가 재난의 시간을 견실한 믿음으로 통과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2. 송의여고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1)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교 온라인 수업 플랫폼 결정

본교에서는 영재학급을 3년차 운영을 하면서, 여러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과 융합수업을 하면서 웹 기반 노트북인 ‘크롬 북’을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인 ‘스마트 교실’을 세 곳에 만들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왔고, 스마트 교실을 이용하여 외국 학교와 실시간 수업을 하였던 경험치들이 있었고, 구글을 통해 학교 자체 이메일을 만들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놓았고, 학교 내 와이파이 망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기에, 온라인 수업 대책 회의를 통해 곧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글 클래스룸으로 정하였고, EBS 자료들은 필요한 경우 링크를 걸어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시간 수업을 하고자하는 교사들은 줌을 이용하기로 하고, 수업 시간표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스마트교실에서 각자 크롬북을 활용하며 화상으로 영국 학교 학생들과 실시간 수업을 교류하는 모습]



2) 구글 클래스룸 및 수업 영상 제작 교육

먼저, 전교사들은 이미 학교 구글 계정의 메일이 있었지만, 교사들이 학생으로도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학생 계정과 전교생의 구글 계정을 만들어, 학급별 단톡방을 활용하여 전달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혼란해 하지 않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구글 클래스룸 안에 수업을 만들었고,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버 예절을 포함한 공지 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였다.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 및 수업 영상 제작을 위해 함께 모여 교육에 참여하였고, 영재수업을 맡아서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익숙하고 영상 제작에 익숙한 교사들을 교과별로 배분하여 도우미 교사로 도와가며 수업 준비를 하였다.



[구글 클래스룸 활용과 수업 영상 제작 방법을 배우고 있는 교사들]

3. 온라인 예배 및 종교 수업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EBS 플랫폼은 20분에 용량 한계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플랫폼으로 결정하는데 힘을 썼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짜면서 예배와 교양 수업들을 배제하여, 교무부와 협의하여 예배와 종교수업을 넣어 등교 수업과 동일한 수업시간표를 짤 수 있었다.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한동안 예배가 없는 학교들이 있었다. 본교에서는 신입생 안내 때 예배와 종교 수업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두었고, 2,3학년은 학년 진급 전에 동의를 받아 두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다.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중학교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본교 이사장의 강권으로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 선택한 EBS 플랫폼에 탑재하였다. 중학교는 구글과 협약을 맺지 못한 상태여서 EBS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찬양과 설교를 나누어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1) 온라인 예배

본교 교목실에서는 3월부터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등교를 하더라도 강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미리 교사 찬양팀을 구성하여 5주 분량의 예배 찬양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설교를 비롯한 예배 전체를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미리 촬영하여 편집하여 각 학급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촬영한 ‘교사 찬양팀’ 찬양]

온라인 개학으로 정해지면서 구글 클래스룸에 교사들을 위한 ‘예배와 교육’ 방을 만들고, 학생들은 학급별로 ‘예배와 자율’ 방을 만들어 출석 체크와 예배 영상을 올렸다. 찬양은 ‘교사 찬양팀’의 찬양을 촬영해 놓은 영상으로, 기도는 선교부장부터 총학생회장, 학년 회장 등에게 맡겨서 기도문과 녹음 파일을 보내도록 하였고, 예전에 촬영해 놓았던 합창부와 교사들 특송 들을 찬양 순서에 넣고, 성경 봉독과 말씀, 축도를 촬영하여 예배를 구성하였고, 1학년 담임 교사들의 신입생 환영, 학교 소개, 교생 특송, 선교반 홍보 등 다양한 내용들을 이어서 편집하여 올려 예배에 거부감 없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배와 함께 올려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하였다.

고3 등교로 온라인 예배와 등교 예배가 병행되어야 했지만, 등교한 학생들은 학급별로 담임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 예배방에 올라온 예배에 학급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고3 학생들 모습]

2) 종교 수업

전체 교과목의 수업을 1시간당 25~50분으로 구성하여 올리도록 하였으며, 출석과 함께 등교 수업 진도에 맞추어 수업 화면을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과 편집을 통하여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영상을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장비를 갖추어 교실에 설치해 두고 원하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2/3, 중학교 이하는 1/3 등교가 결정되어, 온라인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종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준비하며, 학부모가 함께 볼 수 있기에 모든 수업을 수정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가졌고, 혹시라도 종교수업을 트집 잡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종교 수업을 준비하였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서로 수업을 평가해주며 서로 배우고, 도와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The screenshot displays a course page for '종교(3학년)' (Religion 3rd Year) at '순의여고 3학년' (Suni Girls' High School 3rd Year). The course is taught by '초대교회' (First Church). The page includes a header with the course title and a teacher's photo. Below the header, there is a section for '5월 18일에 게시됨' (Posted on May 18th) with a date and time of '5월 18일(월 5교시) 종교 정서학' and '기한: 5월 18일 오후 11:59'. A message states: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Today, we will look a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rough the story of the first church). The page also shows '24' '제출할' (submit) and '8' '담당 완료' (assigned complete) statistics. A video player is visible with the title '2020 종교 초대교회 정서... 동영상' (2020 Religion First Church Emotion... Video). A '과제 보기' (View Assignment) button is at the bottom left.

4.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과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통해 스마트 교육을 15년 정도 앞당겼다고 한다. 교사들이 자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을 영상으로 만들고, 촬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웠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예배와 종교 수업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목회분야 | 이주민선교

고경수 목사 | 대구이주민선교센터

1월 20일, 국내에서 COVID-19로 인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주민선교를 하는 교회 목사로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단 한명의 이주노동자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했다. 2월 16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이주민들에게 이후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할 것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일터와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2월 말, 대구에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패닉상태가 되었고, 귀국하겠다는 전화가 연일 걸려왔다. 3월 초,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조차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때, 이주민들은 회사에서 주는 면마스크 한 장으로 3,4일을 버텨야 했고, 어떤 이주노동자는 아예 마스크가 아닌 손수건으로 겨우 입을 가리고 다니기까지 하였다.

본 교회(선교센터)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을 때, 광주에 있는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박** 목사님’으로부터 후원금과 함께 마스크 100장이 도착하였고, ‘남원동북교회(김**담임목사)’ 성도들로부터 직접 제작한 수제 마스크 150장, 병커1교회로부터 손세정제 1529개와 쌀20kg 20포대, 한빛교회에서 수술용 마스크 4000장을 보내주었다.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마스크를 10장씩 포장을 하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논공공단(제1달성공단)에서 이주민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였다. 나눔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마스크와 쌀은 동이 났고, 수많은 이주민들은 손세정제만을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이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여울교회’를 시무하고 계신 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f**b**으로 저희 상황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여 감사를 드렸는데, 오 목사님을 통해 소식을 접한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마스크와 손세



정제를 보내주었다. 마스크는 도착하는대로 이주민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거리에서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3월 10일경 기독교인터넷신문인 뉴*앤**에 저희 교회(선교센터)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서 마스크가 거의 매일 택배로 도착했고, 예수전도단(생필품과 마스크),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마스크 십일조챌린지, 쌀구입을 위한 후원금), **수녀원(마스크), 타교단의 교회(마스크와 구호를 위한 후원금), 난민인권네트워크(마스크),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이주여성 병원비 지원과 이주민지원금),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전주, 청주, 순천 등 지역을 넘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대구지역 이주민들을 향한 긴급 구호에 동참해 주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기독인연대를 통하여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생필품을 이주민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본 교회에서는 3월 첫 주부터 4/12(부활주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 제1달성공단(논공), 제2달성공단(구지), 다산공단(고령) - 에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와 손세정제, 쌀을 나누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나눔을 이어나갔다. 특별히 부활절에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400여명(1인당 5kg, 자녀가 있는 이주민 가정 20kg)에게 공급하였다. 그리고 인근 대구 북부지역과 경산지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도 쌀과 마스크를 전달하였다. 4월 중순, 뒤늦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마스크 2,000장(5월에 추가로 2000장)이 공급되어 이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100주년기념교회와 분당우리교회, 그리고 총회와 노회 사회봉사부를 통하여 교회 임대료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본 교회(선교센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구호품과 후원금이 답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였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평상시에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기억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가장 먼저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총회나 노회, 그리고 지역 교회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염병 상황에서조차도 이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뒤늦게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실질적 지원을 실행하지 않은 총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례를 모으겠다는 발상이 매우 유감스럽다. 코로나19 사태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지만 이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본 교회가 경험한 것은 재앙을 극복하는 힘이 제도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깨어 있는 성도들(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들을 통하여도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공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 목사로서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단축 조업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하는 사람들 중 1500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광고를 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싶어 찾아 왔다. 모



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약 20만명정도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넘어 생존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해답은 있다. ‘깨어 있는 성도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한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져 있던 이주민들을 위해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 2장을 작은 택배상자에 넣어 보내 준 익명의 성도가 있고, 쌈짓돈 3000원과 5000원을 보내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한 우리 이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교회(총회)가 대답할 차례이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성금과 물품을 보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1일

대구평화교회/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고경수 목사

특수목회분야 | 산업선교

최성은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1. 들어가며

영등포산업선교회는 1958년 총회 결의로 노동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선교기관입니다. 현재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선교사역은 어려움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노동선교사역,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서로 돕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는 협동사업, 실직하거나 거리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급식, 목욕과 잠자리와 같은 1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역과 더 나아가 자립을 돕는 노숙인 돌봄과 자활사역, 마지막으로 해외교회와의 연대 및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가 불러온 선교사역의 어려움과 변화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코로나19확산이 가속화되었던 2월 내부 논의 통해 전체실무자 모임 및 팀장 이상 회의를 온라인이나 서면 제출로 전환하고, 실무자의 점심식사 시 공동식당 이용에서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실에서 식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사 시간 조절을 통해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하는 경우를 제한했으며 외부 식사손님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 빠르게 취했습니다.

선교회 선교사업의 대부분은 밀접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일 불특정한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는 생협이나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의 자활매장은 긴장된 상황에서도 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생협은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에 대한 대량급식 자체가 개학연기와 함께 취소되면서 급식공급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매장의 방문객만이 아니라 함께 기획하고 꿈을 꾸기 위해서 모이던 조합원들, 이사들간의 회의도 연기하고 취소하였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심리상담치유 사업도 대부분 취소하였고, 내담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만 문진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기도회나 현장방문도 중지하였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기도회는 소규모 침묵기도회로 전환되었습니다. 회관 내부에서 열리던 인문학 모임, 요가모임과 같은 소모임들도 무기한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영등포산업선교회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계획하였던 모든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소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성문밖교회는 3개월여의 시간을 모이지 못하고, 총회 지침에 따라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였고 현재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관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편히 들고 낫으며, 필요에 따라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고, 곳곳의 장소마다 활기찬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회관에서 외부 방문객을 통제하고, 계획된 일정마저 취소하며 모든 활동이 봉쇄되는 어려움에 선교회의 모든 실무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을 함께 직면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3.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선교적 활동과 가치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활동을 유지하며 선교회 본연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의 멈춤을 통해 우리에게 불필요한 회의나 모임이 있진 않았는지, 좀 더 새롭고 효율적인 만남은 이 비대면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금보다 더 큰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 심리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불안함 속에 하나님께서 선교회에 찾으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교회,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보내준 다양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 노동자의 무너지는 삶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사역

영등포산업선교회 쉼힐링센터는 최근 4년 동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는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사회활동가)과 해고자, 투쟁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개인상담, 집단치유프로그램, 마음건강검진, 위기대응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몰려올 때는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리는 것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주류 노동시장에서 비껴난 계층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우울, 무기력, 불안 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여건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2주 정도 완전히 중단되었던 상담은 사전문진표를 받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재개되었고, 2~3월에는 거의 없었던 상담신청 의뢰나 마음건강검진 사업 제안 등도 들



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등포산업선교회 상담실에서는 총 9명의 상담자가 통통독 사례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평균 일주일에 25회 정도의 개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보호센터의 서남권 거점에 4년째 선정되어 6월부터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집단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건 본격적으로 하기 어렵기에 우선은 개인상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대면접촉이 확연히 줄어든 현 상황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스스로를 수용하고 돌봄으로 주위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은 매우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나) 동반자 선교사역

영등포산업선교회 선교사역의 대상은 해고노동자, 노숙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선교회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준다는 일방적인 관계로 우리의 선교사역을 한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도 어렵던 3월, 경제적 약자들이 서로를 돕는 협동운동으로 운영하는 ‘다람쥐회’의 한 조합원은 다람쥐회를 통해 본인도 어려운 시기 도움을 받았으며,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지금 더 어려움을 겪을 햇살보금자리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이용자와 다른 조합원들의 일상을 염려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한박스를 보내주었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입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선교사역

영등포산업교회는 영등포지역에서 60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가난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선교사역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었을 때 지역단체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준비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잘 전달해달라는 연락을 몇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동자 카페를 운영하는 서울노동광장에서 마스크를 기증해주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도 천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기증받은 마스크를 임대주택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조합원이나, 다람쥐회의 보조출연 노동자들, 산업선교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단체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창구로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산동안교회에서는 목직한 생활식품키트를 만들어 가져와 주셔서 노느매기 조합원 선생님들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선교사역이 지역사회의 허브로서 또한 지역사회와 개교회의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가며 : 삶이 무너지는 사람 살리기

영등포산업선교회는 4달여의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침묵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선교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활동의 차단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대면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역의 정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관습화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우리의 일상적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활동은 제약되어 있지만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용불안과 심리적 불안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특수목회분야 | 병원선교

최형철 목사 | 연세 세브란스병원 원목실¹⁾

1. 선제적 대응: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지난 1월 20일(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2월 18일(화)까지는 확진자가 많지 않아 국민들의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에서는 1월 30일(목)부터 환자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일저녁예배 및 각 병원(본관/임병원/어린이병원/심장혈관병원/재활병원)에서 월~금까지 행해지는 매일기도회 등 환자들이 모이는 모든 예배를 중지하였다. 감염은 한 번 확산되면 건잡을 수 없기에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보건당국 및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병원에서 환자예배 중지 결정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냐며 의아해 하는 분도 계셨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졌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면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1) 흔히 신촌세브란스병원이라 불리우는 신촌지역에는 병원기능(세브란스병원)과 교육기능(의,치,간호대)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행정조직이자 상위기관인 연세의료원이 있다. 병원 원목실도 상위기관으로 의료원 원목실 겸 교목실을 두고 있다. 글 내용 중에는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 <의료원 원목실 겸 교목실>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의 내용이 겹치거나 함께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로 단순화하여 기술한다.



아울러 1월 30(금)-31(토) 양일간 신촌, 강남, 용인의 모든 목회자가 모이는 연세의료원 원목실 워크숍이 인천 영종도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세브란스병원 예배실에서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당시만해도 외부에서의 단체활동이나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기 전이었으나, 만일의 하나라도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후 원목실의 모든 구성원이 모이는 회의나 식사모임은 중지하였고, 면대면 회의가 필요한 경우는 소수의 인원만이 마스크를 쓰고, 1자리씩 건너 띄어 앉아 회의를 하였다.

2. 환자 목회: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돌봄은 계속된다

환자예배를 중지한 이후에는 원목실 목회자들이 일괄적으로 모든 병실을 심방하며 주보나 선교안내지를 돌리는 것도 금하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에서는 수술 대기실에서 수술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려니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크게 호응을 받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사역은 환자예배 중지 후에도 당분간 계속하였다. 수술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원목실 목회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18일부터 감염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술 대기실에서의 접촉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져 이 사역을 중지하였다.

그렇지만, 수술 대기실 입구와 간호데스크에 수술 대기실 환자 중 목회자의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은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라고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수술 전에 원목실 목회자로부터 기도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기도를 해주고 있다.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심방하는 것은 금하였지만, 환자 개개인의 요청에 의한 심방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준수하며 심방을 하였다. 특히, 외부인들의 환자방문이 전체적으로 금지되면서 교회 목사님이나 가족들이 원목실로 환자 심방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심방하며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한편, 예배실에서의 예배가 중지되자 주일오전 11시와 월~금 오전 11시 기도회를 사전에 녹화하여 병원 원내 TV로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등교 허락 시점에 맞추어, 5월 25일(월)부터는 월~금 오전 11시에 모이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매일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매일기도회는 그리 많은 수가 모이지 않으므로, 2m 정도 띄어 앉는 것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입장시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 명부 작성을 하며, 찬양은 전문찬양인의 찬송을 틀고 회중은 속으로만 따라 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염방지를 위해 비치용 성경과 찬송가는 없애고, 예배 순서지를 제공하였다. 예배실이 크고 환기가 잘되는 본관/암병원 예배실에서 먼저 실시하였고,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어린이병원/심장혈관병원/재활병원의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관 예배실이 꽉차는 주일예배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재개할 것이다.

3. 교직원 목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1월 30일(목) 환자예배의 중단과 더불어 각 병원별(암병원/심장혈관병원/재활병원/치과병원 등등) 혹은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던 교직원예배를 중단하였다.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병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었으며,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의 안



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기독교적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교직원예배는 2월 중순까지는 실시하였다. 병원 감염관리실의 권고에 따라, 예배전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악수 금지 등의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실시하였으나, 2월 하순부터는 이것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직원 목회 및 교직원을 격려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었다. 3월부터 원목실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원내 이메일로 <오늘의 말씀>을 발송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성경말씀과 더불어 간단한 설명, 그리고 짧은 기도문으로, 한 눈에 금방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편집한 것이다. 교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원내 이메일을 열면 제일 먼저 <오늘의 말씀>이 뜨는데, 많은 교직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받았다고 한다. 이는 5월말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자 원목실에서는 수요교직원 예배를 미리 녹화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활절 교직원 예배는 500석의 대강당에 50명 정도만이 마스크를 쓰고 전후 2m 간격을 둔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이는 실시간 중계 및 추후 전체 이메일 발송을 하였다. 이를 모델로 삼아, 6월 17일부터 매주 수요교직원예배는 예배를 담당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참석하도록 할텐데,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이 예배는 실시간 중계 및 추후 전체 이메일 발송을 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신입 교직원들이 입사서류 제출할 때, <종교상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목을 면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사랑의 정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이 과정은 계속 진행되었다. 단, 소리를 내어 강의하는 형식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쇄물을 속으로 읽고 이해하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원목실은 교직원들과 물리적 거리는 들지언정 마음만은 가까이 하고자 하여 이메일, 전화 등으로 교직원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4. 대내외적인 협력: 고난을 이기기 위해 사랑을 나눕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병원은 각 건물의 보조 출입구는 폐쇄하고 주출입구만 개방하면서 출입자의 발열체크, 확인스티커 붙이기, 방문 리스트 작성을 시작하였다. 각 건물마다 이를 실시하다 보니, 의료 인력이나 경비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행정직원들도 이에 협조하였는데, 원목실 교역자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대구에서 현지의 의료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세브란스병원도 의료진들을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하였다. 이외에도 세브란스병원은 격리 치료소 등 곳곳에 의료 인력을 지원하였다. 물론, 세브란스병원 내에서도 선별 진료소 운영을 비롯해 타지역에서 온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원목실에서는 선교비 중 3,000만원을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기금으로 기부하였으며, 교직원 부활절예배 헌금 1,200만원도 코로나-19 대응 기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하는 병원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의 노



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원목실과 밀접한 교류가 있는 서울의 모교회에서는 교회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뜻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중 한 행사가 의료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기독교병원인 세브란스에 원목실을 통해, 교직원 1만명 모두에게 빵과 우유를 선물하였다. 이러한 감사의 표시는 의료진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병원이기에 한국에서 선교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기로 하였다. 원목실의 선교기금을 통해 약700명에게 마스크 2만장을 기부하고자 계획하였는데, 마스크는 수출규제 품목으로서 기부일지라도 정부 관계부처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정부 관계부처와 잘 협의가 되어, 선교사님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앞으로 외부인들의 환자 방문이나 전도 활동은 병원에서 더욱 통제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사회의 노령화와 복지의 증대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러한 때, 교회들이 지역병원의 원목실과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한다면, 선교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수목회분야 | 병원선교

오정운 목사 | 계명대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1899년 12월 24일 미국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였던 존슨(W. O. Johnson, 장인차)에 의해 세워진 제중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안에 지상 20층, 지하 5층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전 개원 되었고 동산동에 있던 구병원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난 지금 생각해 보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대구에 양 병원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은 부족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서 하루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대구, 경북 지역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4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입원 치료하면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하고 음압 격리병동에 1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하게 되었으며, 대구시는 물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군목생활을 마치고 19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24년 6개월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원목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신종플루(2009년)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2015)를 경험하고 극복해 나갔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력이 높고 무증상자가 많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원목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포함한 2800여명의 교직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역에 중심을 두면서 코로나19 현장을 방문하여서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목실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사역

의료진을 포함한 2800여명의 교직원들은, 매일 밀려들어오는 코로나19 확진자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선교병원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원목실에서 제공하는 <업무 시작 전 기도>와 <오늘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손해도 많았지만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성경말씀>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2월 27일 원목실에서 on-line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치료에 임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도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원목실, 오늘의 성경말씀 (2020. 2. 28)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 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시편 77:19-20).

이스라엘을 백성을 가로막는 바다는 절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흉
용한 물결치는 절망의 바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한 길이 뻗혀 있었음을 누가 어
찌 알았겠습니까? 구원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발자국마저 볼 수 없어 절망하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돌보아 주기를 바라며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한 모든 환우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실과 함께하는 모든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의 성경말씀>은 <성경 1독 오늘의 성경말씀>으로 계속 위
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확대 간부회의 시작 기도는 원목실 전체를 책임지
고 있는 제가 하게 됩니다. 전에 보다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 왔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극복해 가기 원하는 간절한 합심의 기도였
습니다.



2. 코로나19 치료현장 방문 사역과 도움의 손길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군목으로 있었을 때 전방 상황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에서 보내온 물품들, 그리고 원목실에서 준비한 물품들을 함께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마스크 1000개와 손소독제를,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천 만원을 보내 주셔서 영호남의 기독교 병원이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보내온, 직접 구워서 만든 수제 브라우니 1000개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병실에 투입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3. 매월 발간되는 <동산 소식지>의 <말씀과 치유>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적고 소망을 전달하는 사역

매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2800여명의 교직원들을 비롯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병원과 교회 그리고 중요한 단체에 배부되는 <동산 소식지>의 <말씀과 치유>란에 성경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적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전달하였습니다. 3월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창세기 50:20>, 4월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레미야 1:11>, 5월은 <이웃에게 베푸는 사

량으로, 잠언 3:27), 6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민수기 6:24-26>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올 가을, 겨울의 제 2차 대유행도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독감에서 보듯이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병원으로 세워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병원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어려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원목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1. 코로나19 위기의 기간 동안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활동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기독교 병원 및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
3.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역
4. 코로나19로 인해 근심과 슬픔과 상실에 직면해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지해주는 사역
5. 코로나19로 인해 긴장에 직면하고 있는 병원 스텝을 지지하고 상담하는 사역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주일예배를 중단하거나 유튜브 예배로 대체 한 것과 같이 경찰선교 현장 또한 전국279개 경찰 교회의 예배가 중단 되었고 소그룹 사역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관서나 경찰관들이 경찰선교 사역자들의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쉽게 방문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카톡이나 SNS를 통한 소통수단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나 큐티를 해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소극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댓글 및 참여를 독려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는 전쟁보다 더 큰 변화를 이 지구촌에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을 제외하고 인류가 이렇게 창졸시간에 30여만명이 사망하고 500여만명이 죽음의 공포 앞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은 코로나란 괴물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우리는 이때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를 대처하는 각국의 상황과 국민의 정서를 보면 1970년대부터 세계질서의 메인스트림(MainStream)으로 자리 잡고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급속한 퇴조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며 시장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질서의 중심사조로 자리 잡았다. 세속의 흐름과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종교계에서조차 신자유주의의 여파는 비껴가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강한 것은 더 강해지고 약한 것은 더 약해지는 현

상은 중소형교회는 더 작아지며 대형교회로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는 강자독식의 시대를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살아왔다. 또한 코로나는 종교의 위상추락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괴질의 발병이 보고 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급속히 확산되어 지구촌 사람 모두에게 재앙의 대왕으로 등극하여 지금도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의 공포 앞에 노출된 사람들 앞에 종교와 종교인은 아무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사망의 공포 앞에서 이들이 의지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국가의 재난의료시스템이지 교회, 성당, 사찰이 아니었다. 종교시설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이지 재난극복의 도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주일성수는 교인의 의무이자 성경적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온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일성수의 금기를 타의에 의해 깨뜨려보는 경험을 하게 한 것은 교회의 역할과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의 통제와 개인생활 개입은 더 강화 될 것이며, 교회는 위상이 추락하고, 교인-NetWork이 붕괴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통회 자복하며 물어야 될 줄 믿는다.

경찰선교 또한 심각하기는 경찰밖의 교회 이상으로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와 소그룹활동은 사라지고 정부의 통제가 기존교회보다 강한 기관교회이다 보니 해당기관의 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 예배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7월 이후 시작되는 경찰기관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은 기존의 경찰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 매섭게 몰아 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선교 현장에는 이와 같은 대변혁의 시대에 경찰선교 프레임 을 다시 짜고 비전을 제시할 전국적인 선교Control-Tower도 없고 책임 없는 겸임목사인 경목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선교현장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15만 경찰을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2020년도에는 한국교단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경찰선교총연합회(가칭)’를 조직하여 든든한 기둥을 세워 경찰선교의 미래와 현재를 컨트롤하고, 경목운영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제정 보완하며, 경목의 자질개선을 위한 선발기준과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경찰선교회와 동역체제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교회(NewChurchPlanting)를 세운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15만 경찰복음화를 넘어 민족복음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

특수목회분야 | 군선교: 육군

대위 이요한 목사 | 23사단 동해안등대교회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2-15일간 확진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잦아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확진자의 수는 2월 19일(수) 20명, 20일(목) 53명, 21일(금) 100명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23사단 동해안등대군인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2월 23일 주일부터 예배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부대 안에서 살고 있는 용사들은 현장예배를 하지만, 부대 밖에 살고 있는 간부들과 그 가족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3월 1일 주일부터는 모든 현장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예배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그것은 그들이 찾아오는 예배, 찾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선교인 것이다.

가장 먼저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신병교육대였다. 간부들이나 용사들은 여건이 불비할 경우 방송매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으나, 훈련병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훈련을 받아야 했기에, 현장예배가 사라질 경우 유인물을 통해 알아서 예배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훈련병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격리되어있기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 찾아가기로 했다. 각 생활관별로 비치된 IPTV. 예배 영상을 촬영하여 공보정훈부에 전달하면, 공보정훈부는 우리 부대의 훈련병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IPTV 재생 리스트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주기로 하였다. ‘가장 선교적’인 훈련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기에 훈련병 예배를 재편했다. 먼저 예배의 주제는 훈련병이 받게 되는 훈련 일정과 신앙적 주제를 적절하게 섞기로 하였다. ‘1주: 행군/동행하시는 하나님’, ‘2주: 정신교육/말씀’, ‘3주: 사격/죄와 십자가’, ‘4주: 화생방/세례’, ‘5주: 각



개전투/기도’.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특별하게 변화를 주었는데, 마리텔, 게임방송, 영화시상식 등 훈련병들에게 익숙하되 뻔해 보이지 않도록 매주 컨셉을 조금씩 바꿔서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자막과 효과음, 특수효과들을 적절히 버무려서 영상을 편집하여 제공하였다. 그 결과 훈련병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은 훈련병들이 꾸준하게 예배에 관심을 갖고 IPTV를 통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다.

용사, 간부, 가족이 드리는 낮예배와 군자녀들이 드리는 아동부예배도 개편이 필요했다. 이 예배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동체성’과 ‘영적근력’이었다. 신앙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나 혼자 알아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나태해져서 영적 근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했다. 때문에 회중이 신앙공동체로 찾아올 수 없다면, 신앙공동체가 회중에게 찾아가 공동체성을 느끼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한다고 느끼게 할 것인가?’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나눔’이 해답이라 생각했다. 기도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채팅창을 통하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대표기도자가 전화로 방송에 연결되어,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침기도를 하였다. 만나서 인사할 수 없는 전출/전역자는 영상편지로 마지막 환송식을 했으며, 특별한 날에는 각 개인이 부른 찬양을 미리 녹화/편집하여 함께 부르는 특송을 만들어 송출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도 옆 사람 혹은 채팅창을 통해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은지, 본인에게 와 닿는 구절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설교말씀을 듣도록 했다. 또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도 방송을 바로 끄지 않고 옆 사람과 혹은 채팅창으로 오

늘 예배 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였다.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대신 ‘좋아요’를 누르게 하면서 회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고, 예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나눔을 한 사람이나 설교 때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신교회 교육부서를 벤치마킹하여 인도자가 축복송을 부르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나누게 하여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예배하고, 신앙공동체의 지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도 SNS를 활용하여 복음서 통독, 새벽기도를 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19:00에 알람을 맞추고 방송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며 영적 근손실이 오는 것을 방지코자 하였다.

아동부 예배는 대형교회의 잘 구비된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위기를 도리어 가정안에서의 신앙공동체 형성을 하는 기회로 보낼 수 있겠다 싶었다. 사실 군인교회의 특성상 아동부는 자주 관심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담임목사로서 아동부에 더욱 마음을 쏟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시간이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행복했던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참여하는 예배’라 생각했다. 영상을 보고만 있기 때문에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하긴 하지만,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내가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아동들에게 질문을 하고 귀를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답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현장에 있는 듯’ 예배를 진행했다. 또한 부모가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마다 다르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부모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동부 예배는 ‘라이브 방송’이 아닌 ‘녹화 영상’으로 진행했다. 녹화 영상으로 예배했더니 현장 예배 때는 할 수 없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흥미를 돋아줄 수 있었다. 말씀선포 전에 Q&A시간을 진행했는데, 아동들이 부모님들을 통해 설교에 대한 질문이나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바이블콩’이라는 캐릭터가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때 바이블콩이 질문한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고 칭찬함을 통해 신앙적인 관심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아동부 말씀선포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각종 사진/영상 필터 어플을 사용하여 아동들이 성경속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설교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낮예배와 아동부예배의 말씀 본문을 맞추고, 예배 후 공과를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여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였다.

위와 같이 신자 장병들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필요했다. 군선교는 그 특성상 신자 장병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집합을 시킬 수 없기에 별도의 교육이나 위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찾아갈 수 있지?’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들의 생활로 찾아가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장병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국을 차려서 식당으로 찾아가면 되겠구나!’ 곧바로 공문을 작성, 결재를 받아 군종참모부에서 함께 ‘군종 마음 행복 약국’을 시행하였다. 예쁘게 디자인한 약봉투 안에 자유시간, 비타민C, 위로의 말씀, 힐링 명곡(명곡), 감사 신청서를 넣어서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나눠주기 시작했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헌신한 그대에게 자유시간을!’이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시간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카드와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노래(찬양, 가요) 추천 카드를 앞뒤로 인쇄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두려움엔 신앙, 바이러스

엔 저항력, 저항력엔 비타민! 그대는 우리의 비타민!’이라는 문구가 적인 작은 약봉투에 비타민C를 담아서 전달하였는데, 그 약봉투 뒷면에 인쇄된 신청서에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대한 사연과 그 사람의 관등성명을 적어서 내면, 그 약봉투에 카라멜 등의 선물을 담아 고마운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를 감사한 마음이 서로 표현되고, 확인되도록 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잦아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더 장기간화 된다면 예배와 선교의 현장에는 더 큰 풍랑이 휘몰아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이래저래 고군분투 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온 교회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통해 되려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길,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시길 기도한다.



2019년 12월 31일 뉴스를 통해서 우한폐렴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집단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나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 지역의 전염병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2020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러스성 전염성으로 밝혀지고 메르스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르스 당시에 국군대 전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보았기에 그 불안감은 커져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부대에서도 제일 먼저 예배의 횟수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일에 1,2부로 나뉘어서 신우(기독장병)와 가족들이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던 평상시와 다르게 다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2월 9일부터는 민간인(예비역 신자)의 부대출입, 주중예배 및 모임 금지, 점심식사, 카페 운영 등의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역장병과 군가족을 대상으로 주일에 단 1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활동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2주가 지나고 2월 18일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종교행사에 대한 군 안에 지휘부담이 생겨났고 업친 데 덩친 격으로 신천지 코로나 확산사태가 시작되면서 국방부가 전 장병 휴가, 외출, 면회를 통제하여 결국 한번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주일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약 3개월의 시간동안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공군수원기지교회의 경우 공군교회에서 성도 비율 중 예비역

성도가 많은 편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우선 예비역 신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제일 먼저는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문 전문을 넣어 명절 때처럼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만들던 가정예배 순서지만으로는 부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몇몇 성도들이 설교문을 읽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대표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피드백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설교 영상을 따로 녹화하여 성도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설교 영상을 녹화하여 배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어색함과 미숙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신분이 현역 군인이라는 것이 어려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일단 영내 교회는 군 시설이어서 촬영허가를 받기가 어려웠고, 영상을 찍는 다 하더라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만 영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들은 잠시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휘관, 참모들 중 성도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셨고 교회의 카페에 촬영공간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주관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께서도 교회의 성도님이시기에 예상과는 다르게 매주 설교를 먼저 보시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방부와 공군본부 차원에서 SNS를 활용한 종교행사 대체 자료의 활용이 권장되었고 자연스럽게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던 성도님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의 SNS를 통한 순서지와 설교영상만으로는 영적인 갈급



함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대신하여 매주 A4 용지 한페이지 분량의 칼럼을 작성하여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틈틈이 장문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성도들에게 짧게나마 묵상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칼럼과 메시지를 보내면서 과연 이게 성도들의 한주에 갈급함을 달래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흐르고 어느 날 한 명의 신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다 답을 수는 없지만 그 메시지에는 매주 수요일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칼럼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으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신우는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신우였기에 예상치 못한 대상에게서 받은 피드백은 일말의 의구심을 모두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SNS와 영상 매체의 발전은 현장예배를 완벽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충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루는 날을 정해서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전화심방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화심방을 하기 전에는 많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역 성도들의 경우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혹여 민간교회로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이 기간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시거나 연약해지시지는 않았을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150명과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저는 이 3개월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며, 예배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지체들에 대하여 다시 애정을 갖고 첫사랑을 회복시키게 만드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느끼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

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고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군에서도 휴가와 외출 등에 대한 정상 시행과 종교행사 등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는 다르게 방역책도 작성해야하고, 문진표와 열체크도 하며, 1-2m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다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예배 참석인원에 큰 변동을 예상했었지만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훨씬 나아진 신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외의 집단 감염과 다시 붙어지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 및 종교행사를 통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5월 초부터 100일 만에 다시 재개된 예배가 부대 내에 의심환자만 발생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단 2주 만에 다시 민간인은 출입하지 못하여 코로나19 초기와 동일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꼭 유격훈련의 체조와 같이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더욱 기도하기에 힘써오며 신앙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의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 시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도 전방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향전파 2020.05.17(주일)
수원기지교회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예배 안내

평범한 우리들의 조금 특별한 주일
슬기로운
예배생활+
드로잉팀 @dr_worship

유아부-기독교사
주교사
찬양팀
신앙-주파
성가대

대한민국 공군교회
ROK AIR FORCE CHURCH

1

특수목회분야 | 신학생

박주명 전도사 | 영남신학대학원 23대 학우회장

1. 들어가는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도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전향될 만큼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크게 피해를 받은 지역은 대구와 경산입니다. 그 중심지에는 영남신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은 교회 사역과 학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지역과 교회, 교회와 사역,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2. 지역과 교회

지난날 신천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 등교, 이태원 클럽 등의 문제들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은 평범한 삶을 잃어버렸고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던 이들이 있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단절, 지역 간의 단절, 사회 공동체 단절 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를 보면, 대구와 경산에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확진자와 동선이 같거나 확진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많은 직장과 회사들이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기사에서 나타난 대구의 어떤 상담 콜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



들은 매년 회사원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회사에 동선을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거리를 둘러보면 많은 상업가들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까이 위치하는 경산시장을 둘러보면 원래 손님들이 많지 않았던 상업가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중심에 위치하며, 몸소 이 삶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삶을 위협하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 또는 신학자를 바라보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이런 시대에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할까?’라는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을 때, 신천지에 이어 한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은 원망과 분노로 연결되었습니다. 대체로 대구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예배로 매개체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천지에게 인지되었던 시선을 교회에 적용시켰습니다. 이 언론의 기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사회가 한국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닌 불안을 야기하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불화의 감정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운동을 펼쳤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23대 학우회에서도 경산 지역을 위해 두 차례의 코로나 모금을 모아 기부 운동을 진행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3. 교회와 사역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역하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 또한 이 체제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 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좋은지, 웹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공유하며 소통을 했습니다. 또 예배 동영상 기획하면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할 것이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며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나 네이브 밴드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학생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이 소통하며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생활 거리두기로 진행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에서는 대예배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프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교육전도사들이 온도 체크, 손 소독, 명단 기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늘어날수록 일의 부담감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진행문제, 교회의 학생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곧 교회학교가 언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교회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



는 반면, 아직 이르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대구의 교회들은 교회학교를 학교 등교 시기와 맞추어 진행을 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삶

1) 학생들의 생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의 삶에도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전도사의 생활의 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사례비는 학업과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의 사례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가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겪은 학생들은 삶과 가정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역지를 잃은 학생들은 당장 생계 수단을 위해 공장이나 단기 알바 등을 구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학업과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ZOOM과 같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참가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사정을 말을 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가족의 삶을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와의 문제입니다. 개강이 계속해서 미루어짐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지 않고 한 주씩 밀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학우들의 불만이 쌓였고 그 불만은 학교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영남신학

대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았고 한 학기를 비대면 강의로 결정지었습니다. 이 일은 학교가 여러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도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내비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학교에서는 지급이 되었으나, 영남신학대학교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학우들의 불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대표하여 23대 학우회에서는 학교와 소통을 계속해서 요청했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바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와전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우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의 답변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회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과의 교류

학생들간에 코로나19 사태로 만날 수 없는 시기에 카카오톡 단톡방, ZOOM을 활용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대 학우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독려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곧 랜선축제! ‘신대원클라쓰- 이번 축제 우리는 집안에서 즐긴다’를 기획했습니다.

5월 20일~21일 이틀간 ‘캠프 어디까지 해봤니?’, 박주명의 A4용지 (WELOVE 이종현님과 함께)라는 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캠프 어디까지 해봤니?’ 프로그램은 캠프프레이저스 대표님과 사역과 캠프에 대한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캠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주명의 A4용지는 WELOVE의 이종현 간사님을 모시고 찬양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삶과 과제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쉼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28일에는 비대면으로 24대 학우회, 22대 여학우회의 선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23대 학우회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협력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선거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원활하게 투표가 잘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5. 나가는말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의 백신이 생성되기 전, 코로나19가 2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고 그에 따른 삶의 힘든 상황도 잇따라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영남신학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중심에서 몸소 힘든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은 현재 지역 사회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되돌아봅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는 능동적으로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지역사회가 서로가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화합의 장을 펼쳐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각각의 교회의 교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업에 있어서도 학우들간 서로 독려하며 위로와 용기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남신학대학교는 계속해서 돌아갈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근래 유례없던 전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속에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학교 행정과 학생 자치활동, 신학수업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짚어보고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지난 4개월간 장신대의 대응방안을 소개합니다. 교단신학교와 교회의 참고사례가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은 신학생과 학우회의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수업과 신학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장기화와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언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2. 본론

1) 신학수업

대면 활동이 금지되면서 신학수업에 지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란 교단 내 토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신학 수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논의의 과정은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가운데 당장 현실적인 고민은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다행히 장신대는 이미 ‘E-강의실’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었고, E-강의실을 기반으로 수업과 관련한 각종 공지와 자료 전달, 전자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SNS 단체채팅방은 학생-교수간 소통과 자료전달 기능에 유용했습니다. 각 과목 지도교수들은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학사부서 지침에 근거하여 ‘영상녹화수업’, ‘실시간 참여형 수업(페이스북 라이브, Zoom)’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녹화와 온라인 강의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교수님들의 노력과 조교들의 헌신 덕분에 구성원의 상당수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수업 전달력을 높일 것인가?’, ‘실시간 수업의 기술적 제약(끊김, 연결오류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이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가진 전산지원부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실기수업과 체험형 교육

장신대 채플은 ‘비공식 커리큘럼’이라고 불릴 만큼 장신대 신학교육과 신학생 경건훈련에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4회’라는 정상학기의 예배횟수를 유지했습니다.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컨텐츠 소비’가 될 수도 있는 여건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정한 예배와 경건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숙사 새벽경건회가 없어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도탑 개방을 요청했고, 개인소독과 체온체크 과정을 거치고 개인기도실을 이용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Communion’이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성찬 예식에 대한 보완과,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교단과 전세계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신대 신대원은 1학년 신입생들의 경건훈련으로 기숙사 의무거주와 주말 경건훈련(2박 3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영성훈련 프로그램과 성례전 실습과 설교의 실제 같은 실기형 수업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3) 비상대응-방역체계 구축

장신대는 총장과 주요보직, 각 행정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보건방역당국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간 연락담당자를 지정하고, 학사 및 학교 행정 변화에 대비해 각 부서의 비상근무 시행 및 학사변경사항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사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총장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시설사용 금지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시설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주거지가 되어버린 기숙사생과 지역 출신 신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숙사 부분개방을 유지하였습니다.

학교 방역조치와 학내 코로나 관련 동향은 홈페이지 배너와 팝업창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요소입니다. 학내 루머 확산과 공포감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장신대는 매우 모범적으로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신대는 교내 세계교회협력센터의 외부 예약과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방학 중 외국 방문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이상 증상자들의 자가격리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곳곳에 배치하고 학교식당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학생안전에 집중했습니다.

4) 재난장학금 지급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수준의 저하와 등록금 대비 교육 효율에 대한 문제제기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등록금 수준이 사립대학 대학원 전체 중위 수준인 장신대 신대원의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다소 약하긴 했지만, 재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과 요청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대학부 교회음악학과나 석박사 과정의 경우 신대원 및 대학부 신학과-기독교교육과에 비해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기에 대학부-신대원-일반대학원 학생대표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학생자치기구간 협의와 요청을 통해 학교 보직 교수진과 등록금협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생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교 기획분과의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측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이외의 기타지출¹⁾이 발생하고, 학생 수입원 감소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였고, 재난의 시기에 구성원들의 소속감 유지와 연대의식 도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기획-예산 분과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예산 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성하고, 교수-직원의 모금을 통해 약 3억 4천 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전체 재학생 약 22백명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재난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10만원은 현금지급이었고, 5만원은 학교 인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형태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신학교로서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1) 온라인 수업을 위한 카페 및 부대시설 이용



5) 한계

신학교육은 전통적인 위계와 권위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반영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한계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코로나 사태 같은 비상적 예외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 의견은 정책 결정 단계에 참고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신학교육의 모든 과정과 정책 결정에 신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른 학사운영 주요 결정이 총장과 보직교수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 고위 관계자의 경우 내부행정자료와 교육부 지침, 타대학 사례 등 정책 결정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겠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요소와 요구사항, 학생 관점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때도 학생의견은 참고-보조적 수단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결정들이 학생 상황과 요구와 충돌하며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²⁾ 학생단체 대표 등이 코로나 관련 주요 결정과정에서 최소한 언권위원의 자격으로 배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각 대안에 대한 점검요소들을 짚어준다면 정책결정에 상당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생자치활동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1년 단임제 학생자치기구의 성격상 학생회의 역량에 따라 학교-학생간 공조수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위상 하락과 자치활동에 따른 부담증가로 인해 각 일반대학에서는 학생자치기구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고, 장신대의 경우도

2) 기숙사 호실 이동 조치, 개강 연기, 대면수업 재개 등

대학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면서 각 학과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가며 수행하였습니다. 신대원 학우회도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임기종료하는 상황이지만 학우회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거 일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차기 신대원 학우회가 세워지더라도 인수인계에 따른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며 기존 공조방식과 체계에 적응하는 데에 물리적 시간의 소요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3. 결론과 제언

1) 학교-학생자치기구간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 밖에 있는 행위자들과 전략적으로 조직간 협력을 통해 정부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Peters & Pierre, 1998) 학교 행정당국과 학생자치기구는 구성원들의 욕구파악과 정책반영, 효율적 행정자원 배분을 위한 협력적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자치기구와 학교 행정당국 간 동등한 협력관계 수준이 위기 대응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를 학교행정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등한 위상의 협의기구로 인정하며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킨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적 지혜를 도모하리라 기대합니다.



2) 갈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갈등관리 과정 보완

신학교와 교회의 정서상 공동체 내 분란과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한 성경적 원리와 현대의 참여 민주주의 시대의 원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공동체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고, 갈등과 그 과정을 공동체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도력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설명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강제적 행정조치들이 원활하게 집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견수렴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만큼 학생과 구성원 또한 공공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각종 행정조치들에 협조하는 성숙한 의식이 제고되어야 함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3) 재난의 대비와 신학교육 갱신

전 지구적 재난의 위기가 예고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최소한 1-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교회의 후원 수입과 등록금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로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 및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재난을 상정하고 학교예산의 일정 부분을 장기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각 교단신학교의 재정구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단 내 7개 신학교가 처한 어려움에 총회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신학교는 각 지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학과 신학교육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교회를 세워가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5-26)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교
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선교분야 | 브라질

박종필/신숙희 선교사 | 예장통합세계선교부(PCKWM)

1. 선교사 간략 소개

2017년 1월 브라질로 파송 받은 박종필 신숙희 선교사입니다. 저 박종필 선교사는 현재 저희 통합 교단과 MOU되어 있는 브라질장로교단(IPB)과 협력 사역으로 상파울루중앙장로교회 협력선교사, 세 곳의 개척교회 지원 사역, 아내 신숙희 선교사는 파송 전 일반외과(상부위장관, 유방갑상선) 전문의로 일해 오다가 브라질로 파송 받아 브라질외국인의사면허갱신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브라질 Covid-19 상황

2월 말에 이탈리아를 방문한 상파울루의 한 주민이 Covid-19에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 2주만인 3월 중순부터 상파울루 주정부령에 의해 필수 생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제 및 교육, 문화, 종교 활동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3월 22일 주일부터는 상파울루 주 내의 모든 종교시설(예배당)도 전면 폐쇄 상황이라 대면 주일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1) 보건 상황

현 브라질 보우소나루 연방정부는 Covid-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연방보건부 만데타 장관이 경질되었고, 그 후 임명된 타이시 장관도 사회적 격리 조치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계열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다 취임 1달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보건 위생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현재(6월 4일 기준) 세계 2위의 Covid-19 감염 수치로 감염자 584,562명, 사망자 32,568명인 상황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특히 도시 외곽의 빈민가들이 감염률과 사망률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의료적 접근이 어렵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아마존의 원주민 지역까지 확산일로에 있고,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브라질 내에서 전국적으로 의사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습니다.

2) 정치, 경제 상황

전직 두 연방보건부 장관이 한 달 사이에 사임 처리되는 상황과 함께,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시 정부의 보건 정책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 보건 정책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대통령은 ‘코로나는 가벼운 감기’라며 제한적 격리의 입장을 지금껏 고수하고 있고, 본인 아들과 연루된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연방경찰청장을 아들의 친구로 교체하면서, 이를 비판한 법무장관을 경질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총생산량이 3월 대비 19%,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해,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상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사태 장기화로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브라질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산이 경제적인 타격으로도 동반 작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3. 정규 사역의 정지

1) 예배 사역

협력 사역 중인 상파울루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예배가 공식적으로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상파울루 도시 외곽에 있는 세 곳의 개척 교회 연계 사역도 중지되었습니다. 다른 브라질의 교회들은 이에 대응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해 대안을 찾고 있으나,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고 온라인 상황에 익숙치 않은 교회적 분위기에 이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의료봉사 사역

브라질 정착 초기부터 계속 해오던 한달에 한번 상파울루 내에 있는 남미기독교한인복지회를 통한 의료봉사도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껏 한인계 의료진들이 외국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해 왔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고, 오히려 의료봉사가 지역 사회 감염을 확산 시킬 수 있기에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매주일 오후 마약촌에서 진행하던 의료봉사도 중지하였습니다. 저희가 늘 방문하던 마약촌 내의 노숙자 쉼터에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3월에 그 곳이 폐쇄되고, 저희들의 사역도 멈추었습니다. 안타깝기는 위



생상태가 열악한 거리에서 사는 이들이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당장 의료적 도움을 현재로서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코로나 상황 속 응급 사역

1) 무단점유 건물들 주민 응급 구호식량 나눔

상파울루시 도심부에는 100개 이상의 버려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곳을 불법 점유하고 살아가는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이 각 건물 당 100가정이 넘습니다. 펜데믹 상황 발생과 동시에, 일용직 노무자 또는 주급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놓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정은 자택에서 2km 이내에 있는 두 곳의 무단점유 건물에 4월 중 매주 1회씩 100여 가정을 위한 응급 구호식량 팩과 수제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마약촌 식사 나눔

저희 가정이 작년부터 예수전도단과 함께 마약촌(Cracolândia)¹⁾에서 진행해 온 예배와 의료봉사 사역을 3월부터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공급받지 못하면

1) 크라폴란디아(cracolândia)는 필로폰을 만들고 남은 저급의 마약류인 크라키(crack)과 땅(lândia)의 합성어로 ‘마약촌’이라는 뜻입니다. 상파울루 내 마약을 구매하고, 집단으로 모여 마약을 흡입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브라질의 큰 도심 문제 중 하나이며, 여전히 몇 천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집단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餓死)의 위협에 처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외면할 수 없어서 4월 말부터 사역을 재개하였습니다. ‘Projeto Paz’(평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장로교단에 속한 친구 목사들, 교우들과 함께 300명치의 샌드위치와 생수, 주스 등을 매주일 오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의류를 생산하는 여러 한인들로부터 직접 제작해 후원받은 수제 마스크 8천여 장을 주 단위로 나누어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응급 식사와 마스크를 나누는 중에, 이 곳에서의 삶을 끊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들과 이전에 신앙생활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노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마약촌에 머무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3) 온라인 강의

최근 들어 올 3월 초까지 한 달에 한 번 가량 브라질장로교단 내의 타 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강의와 주일설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해져서 이후의 모든 설교 일정들이 잠정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초 상파울루에서 차량으로 8시간 정도 떨어진 예수상으로 유명한 ‘히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시의 한 브라질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온라인 화상 강의 요청을 필두로, 매주 연이어 다른 브라질 교회들로부터 인터넷 ‘선교특강’ 요청을 받아, 주제 강의와 미리 받은 질문들에 질의응답의 형태로 약 2시간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맺음말

브라질 내에서는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 상황에서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해외선교분야 |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로 2005년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15년째 의료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1.현황

2020년 6월 4일 현재, 마다가스카르에는 C-19에 대하여 누적 12,608건을 검사해서 총 957명의 환자를 진단했고 사망자는 총 7명이다. 지난 3월 23일 첫번째 환자가 진단된 이래 하루 100-200건 정도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 사이에 검사건수대비 30%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통제하려는 군인, 경찰과 생활고로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사이에 충돌이 점차 잦아지고 있고 총기를 강도의 출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인구는 2600만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정도 되지만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 정도이다. 이나라 전체에 의사는 약 5000명이며 음압병실은 없고 중환자실도 전국에 10베드 이하이다. 전국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10명이 있고, 5-6명 정도의 병리의사가 C-19 PCR 검사에 동원될 수 있다. 3월 8일 한국의 대구 및 경북지역 Covid-19 환자가 급증하자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켰고 유럽에서 환자들이 급증하자 3월 20일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고 시외버스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도시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운행을 중지시키고 학교 및 종교시설 등에서 모임을 금지 시켰다. 일반 상인들의 영업은 12시까지로 제한했다가 최근 오후 3시까지로 늘려주었는데 사태가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이다. 3월 20일 공항폐쇄 이후 마다가스카르 주된 재정수입의 한축인 관광산업은 제로에 가깝다.



2. 세계 4대 빈곤국가로서 Covid-19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어려운 점들

아직 C-19에 대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 이다. 하나는 C19을 방치하여 국민들 스스로 면역력을 갖게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 환자들만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치료하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가 이 방법을 따른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50세 이상 고령인구 약 200만명 중에 약 60%가 감염되고 이중 10%가 중증 환자가 되고 이중 80%가 사망한다고 하면 96,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 병원 시설과 의료인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이중 1%의 환자수만 생겨나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감염자를 찾아내어 격리하는 방법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한사람의 환자가 5일 후에 3명이 되고 15일 후에는 200명이 되며 1달 후에는 20명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 사람의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면 2주후에 발생할 200여명의 환자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다가스카르에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이 프랑스의 영향권아래 있는 파스퇴르연구소 외에는 없다. 검사 체취키트와 실험실 진단기기, 진단키트가 필요한데 국가 예산이 없어서 구입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미국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들과 경쟁해서 물품을 확보해 가져오기도 힘들다.

말라가시들의 80%가 하루 1-2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최빈곤층에 속한다. 이들은 이동이 통제되고 영업을 금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생계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타마타브 시에서는 인력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데모가 있었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가격의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였다. 사실 이 데모 후에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된 듯 하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환자의 70-80%가 이 지역이나 이 지역 사람들의 주된 생계터전과 연관된 지역 주민에게서 나온다.

3. 이방에 거주하는 이방인으로서의 대응

국제보건기구에서 C-19가 판데믹으로 선언된 뉴스가 3월 12일 신문에 도배되었다. 이미 중국과 한국에서,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로켓처럼 치솟는 C-19 상황을 말라가시들도 잘 알고 있었다. 아직 확진 환자 한명도 없었을 때도 중국사람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식당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길에 어김없이 우리 뒤에서 ‘코로나’라고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중국이나 한국사람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말라가시들에게 전염되어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써야할 형편이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외국인들은 증상이 있어도 마다가스카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3월 13일 주마다가스카르 한인회와 대사관에서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만들기로 하고 의사인 나는 의료분야를 대표하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일은 마다가스카르 의료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능력에 따라 한인들이 중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다가스카르 의료사정이 열악해서 우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사님께서 전세기를 마련하는 협상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한국분들 중 지병이 있거나 60세 이상의 분들을 위해 C-19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Hydrochloroquine과 azithromycin 그리고 기침가래 열 등을 컨트롤 하는 약들을 모아 코로나 칵테일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가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나누어 드렸다. 옷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만들어 교민들에게 분배해 드리도록 부탁했다. 약 5000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교민 카카오톡방을 통해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제공되는 방역수칙 등을 공유했다. 이러한 와중에 다른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은 특별히 현지 병원을 갈 수도 없어 문의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일부 환자들은 개인카톡으로 증상을 이야기 하고 약을 지어 보내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우리 오피스를 방문해 치료받도록 하였다.

두번째로 중요한 일은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C19 대비를 잘 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일을 위해 를 위한 일에 대사관과 협력해 일했다. 이곳 보사부 장관에게 이미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어있는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레터를 써달라고 하였다. 전세계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중점 후원대상 국가도 아니고 6.25 전쟁 참전국가도 아닌 마다가스카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대사님은 우선 20만불의 지원을 받아내었다.

이 돈을 현지 정부에 그냥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부정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사님과 상의한 끝에 국립의과대학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모든 장비와 진단키트를 갖추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현재보다 검사능력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한달에 최소 5000건 정도의 검사를 해야한다. 최소 3개월 정도의 검사 키트를 제공하려고 하였는데 20만불이면 딱 그만큼 진단키트를 사는 돈 이었다. 그런데 진단키트만 가져다 준다고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검사를 위한 장비와 도구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했다. 대사님은 유엔과 WHO, WorldBank 등의 사람들을 만나 이 시스템을 함께 만들자고 설득했다. 그들은 돈이 있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시간을 끌고 또 끌다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결국 이들은 쉽게 현금을 이곳 정부에 지원을 하였지만 이곳 정부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말라가시 의사들과 병원은 자신들 스스로가 C-19 검사를 하게 장비를 갖추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장비 구입에 추가로 필요한 돈이 35만불 정도이었지만 C-19 검사를 위한 필수 장비를 갖추기 위해 줄이고 줄여 20만불의 견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를 다녀간 적이 있는 한국의 NGO 인 굿네이버스와 코이카에서 각각 10만불어치의 물품을 비롯한 지원을 받았다. 총 20만불의 지원을 받았지만 현물지원이 포함되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이 부족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마다가스카르에 C-19이 만연해져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와디즈펀딩을 통해 5200만원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마다가스카르 한인회도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연과 인맥을 다 동원해 사정하고 졸라서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물건을 겨우 확보했



지만 제때 물건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물품을 포기한 적도 여러번이다. 5월말까지 C-19 검사를 위한 실험실 물품이 구해지지 않으면 마다가스카르가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격리하여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기 전에 환자를 줄이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품 구입도 어려웠지만 이것을 운송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다. 대사님과 이곳 대통령을 만나 Air Madagascar 비행기를 한국에 보내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상의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다. 6월 1일 한국에서 비행기가 물품을 싣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행기는 17톤의 물품을 싣고 올 수 있다. 비행기가 한국에 가는 이상 우리가 마련한 겨우 얼마 안 되는 물품만 실어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물품을 구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행기에 실을 물품을 구하는 일을 2주안에 해내어야 했다. 선금을 치러도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드릴테니 5월말까지 물건을 공항에 보내달라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부탁을 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런 황당한 요청에 응답해준 업체가 있어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기증으로 Air Madagascar 비행기가 한국에 오면 싣고 오기 위해 구호품을 12톤 가량을 모았다. 가득 채울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급한 시국에 C19에 대한 마다가스카르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향후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이 마다가스카르에 올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을 취소할 수도 없고 이미 구해 놓은 12톤 가량의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 만큼의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해 오려면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도 못할 정도이었다. 이 나라 정부 인사들이 한두 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건만 또 당한 느낌이었다. 아내와 매일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나라 대구처럼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타마타브에는 니켈광산과 그 광산을 위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한국기업이 있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철수시키면서 마련된 비행기에 우리 물건을 무료로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12톤의 물품을 다 실을 수는 없고 4톤정도의 물건이 한국에서 6월 1일 떠나 2020년 6월 2일 안타나나리보 이바투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 물품으로 처음에는 한군데 국립 안타나나리보 의과대학 HJRA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운송비에 쓸 돈까지 다 물품구입에 쓴 덕에 한군데 더 Androibe 감염병검사센터도 기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4. 감사

우리는 2008년 안식년을 가진 이후 10년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거의 매달 길도 험한 오지에 이동진료 사업을 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였다. 안식년을 위해 2년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C19로 국경이 폐쇄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언제든 안식년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해야할 일을 주셨다. 마다가스카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실을 마련해 주는 일로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국경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사관에서 만든 전세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세기 등을



타고 이곳을 떠날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떠날 수가 없었다. 이곳에 C-19가 점점 만연해져서 철수하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많아져 내일도 다음주에도 비행기를 얻어타고 떠날 수 있지만 아직은 떠나지 않으려 한다. 한국에서 들여온 C19 검사실 기기를 설치해서 검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안식년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쉬고 회복하는 것 이전에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닌가? 나는 지금 그 분 안에서 평안히 그 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안식하고 있다.

창문

흰 구름이 좋다.
비가 온 뒷 날
푸른 하늘이 참 좋다.

환상의 날씨다.
베트남과 달리
날씨때문에 가지는
부담감이 전혀없다.

나가지는 못하고,
창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푸른 하늘과 소통하고
흰구름과 소통한다.

오고가는 행인들과 소통한다.

사거리모퉁이의 카페집에
들고 나는 사람과 소통한다.

유모차밀며 오가는
애기엄마와 소통 하고,

아기 목말태워
횡단보도건너는
키큰 아빠랑 소통한다.

어제부터는
건너편 102동 상가옥상에
호랑무늬 고양이 한 마리와 소통 하고

그 옥상 모서리에 앉아 있던
이름 모를 새 한쌍과 소통한다.

흰 마스크에 검정모자
체크무늬 잠바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가는
할아버지랑 소통하고,



부지런이
아파트건물 사이를 오가는
택배아저씨랑 소통한다.

신도시라 그런지
다 자라지 못한듯한
가로수와 소통하고

가까이왔다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와 소통한다.

양지바른 개천변
휴식터에 앉아
이야기 주고 받는
아주머니 두 분과 소통하고,

산보나온 강아지와
그 주인인
젊은 청년과 소통 한다.

창문이 없었다면
이리 세상과
소통이 가능했을까?

창문이 되고 싶다.
안과 밖을 이어주는
창문이 되고 싶다.

내 안의 예수님을
내 밖의 세상과 소통하는
멋진 창문을 갖고 싶다.

5월 중순넘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조용하지만
간절히 기도한다

2020년 5월 20일
인천청라동에서 14일 자가격리 중,

해외선교분야 | 필리핀

임장순 선교사 | 총회 파송 필리핀 선교사, 필리핀 좋은 선교회 총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게 되었고 한국과 몇 나라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나 지역을 완전 봉쇄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격리 조치(lock down)를 시행하게 되었다.

1. 필리핀에서의 COVID-19 대유행 시작

필리핀도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파견 근로자(OFW)들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COVID-19 바이러스가 해외 유입으로 퍼지게 되었고, 2020년 3월 11일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4월 12일까지 한시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다. 모든 대중교통의 운영을 중지하고, 관공서 및 은행, 기업, 심지어 교회의 예배도 중지하게 했으며 생필품과 음식을 팔수 있는 슈퍼와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업 행위를 중지 시켰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고 외출은 시청 보건소에서 발행한 통행증(Quarantine pass)을 가진 사람만 식료품을 사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통행증은 가정당 1개만 발급해 주었다.

2.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과 확진자 상황

COVID-19가 필리핀에 들어 온 초기에 필리핀은 이 바이러스를 대항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초기 의료진의 사망이 많았는데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았고 검사를 위한 진단 키트도 없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의 바이러스 진단은 후에 중국과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지원해 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의료진의 피해가 컸는데 2020년 6월 3일 오후 4시 현재 필리핀 COVID-19 확진자는 총 19,748명이고 이날 새로운 확진자는 751명이었으며, 총 사망자는 974명이라고 발표했다. 특별히 6월 1일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¹⁾에 따르면 보건 의료 종사자들 중 바이러스 확진자는 2,66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1,438명은 완치 되었고 32명이 사망 했으며, 1,193명은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고 한다.

3.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 대유행과 격리(Lockdown) 연장

한 달간의 강력한 통제와 격리 속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하루에 200-300명선을 넘게 되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격리(Lockdown)을 1차로 5월 15일 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5월 31일까지로 다시 2차 연장 되었고, 정부에서 더 이상 긴급 지원할 자금이 없다면서 6월 1일부터 동월 15일까지는 일반적인 격리 상태(GCQ : General Community Quarantine)로 조금 완화된 격리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쇼핑몰과 관공서들이 50%의 인력으로 문을 열게 되었으나 아직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진다. 6월 15일 이후에는 조금더 완화된 격리 상태(MGCQ: Modified General Community Quarantine))로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https://www.doh.gov.ph>

4.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필리핀 선교사들(좋은 선교회를 중심으로)

처음 Covid-19가 중국과 한국에 유행하면서 필리핀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선교사들은 우려하면서 추세를 지켜보았다. 1월에 마닐라 남부지역에 있는 따알화산(Taal Volcano)의 폭발로 인해 구호 사역을 진행한 이후라서 재난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컸다.

초기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상황이 시작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을 하던 현지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데모도 생겨났으며 데모 진압을 위해 대통령이 발표 명령을 내려 여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선교사들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호 사역을 시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넘어선 지역 바랑가이(작은 행정 구역)를 중심으로 긴급 구호사역이 확대 되었다.

필리핀 좋은 선교회는 카톡으로 서로의 사역 경험을 나누고 긴급 구호품 구매의 정보도 나누며 활발한 긴급 구호 사역을 하였다. 적게는 수십 가정부터 수백 가정에 이르는 긴급 구호 사역이 전개 되었으며 매주 혹은 격주로 긴급 구호품을 나누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직접 사역지를 돌면서 긴급 구호 사역을 펼쳤으나 주변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선교사들도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²⁾되면서 긴급하게 직접 사역을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다. 추후 긴급 구호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대부분의 확진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 받았으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선교사도 있다.



현재 본 교단 파송 선교사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선교사는 보고된 바가 없다. 필리핀은 다섯 개의 현지 선교회가 있으며, 좋은 선교회는 총 회원 12가정 24명 중 현재 건강 검진이나 감염이 의심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선교사는 11명이며 모두 건강한 상태이다.

5. 긴급 구호의 내용

긴급 구호품은 주로 쌀과 식료품, 마스크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세정제(필리핀에서는 70% 알콜)와 마스크가 필수품이었는데 필리핀은 1월에 마닐라 남쪽지역에 위치한 따알 화산이 폭발하였고 화산재가 마닐라까지 날아오게 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미 일어나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손 세정제도 갑자기 생긴 필요에 따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다 방면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필자가 현지 법인 이사장으로 있는 아시아 빈민 선교 센터(CAMP : 대표 이철용 선교사)의 봉제 공장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돌려 천으로 된 마스크를 생산하여 계란 우유 등을 배달하는 식료품 차량을 통해 긴급하게 배송하였다. 또한 주변에 봉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다.

다행히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쌀값은 많이 오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긴급 구호시에는 많은 양의 쌀을 한꺼번에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창의적 구호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6. 비대면 사역

초기 필리핀 교회는 갑자기 찾아온 격리 조치로 인해 한 두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가 있었으며, 민다나오섬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던 목회자를 구속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각 선교지에 유튜브(youtube)를 통한 가정 예배와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기능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와 주요 도시에서는 10명 이하의 모임은 허락을 하고 있으며, 격리 상태가 한 단계만 더 낮아지면 전체 좌석의 50%선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7. 제언

1) 일정분의 긴급 구호 자금을 현지 선교회로 보관하게 해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 구호 자금을 현지 선교회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의 전결로 긴급하게 사용함으로써 초동 대처를 원활하게 하면 좋겠다. 필자는 재해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2) 현지 선교회별 혹은 나라별로 재난 매뉴얼 만들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에서의 선교사 행동 요령 등 선교회별로 혹은 나라별로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에 처해 있을 때또는 현지의 사정에 의해 항공기 운항 등이 되지 않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을 매뉴얼로 만들어 숙지하여야 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대면 선교사역에 대한 준비

몇 년 전 필리핀에서 개최된 선교 포럼에서 중동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알자지라 방송을 송출하는 위성방송 채널을 하나 사서 복음 방송을 내 보냈고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모슬렘들이 회개하며 돌아 왔다는 선교 보고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Covid-19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된 지금 자의 반 타의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때를 떠올려 보았다.

코로나 이후 선교사역은 당분간 비대면 사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졌다. 이때 줌(ZOOM)이나 구글 클래스(Google class)등으로 회의를 하고,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으로 예배 영상을 만들어 가정 혹은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향이며 사역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전후하여 TV와 대중앞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들이 유튜브(you tube) 콘텐츠를 통해 강연의 방향을 바꾼 것을 보면서 선교사들도 사역의 콘텐츠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속해야 하겠고 영락교회 남전도회에서 진행하던 컴퓨터 강의와 같은 단기 사역도 활성화 되면 좋겠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 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에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 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3. 주님, 동남아와 중동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 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 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 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6. 교인이 5만 이니 10만 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 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량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량이 천박한 '교회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7.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와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교 본산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개혁신교회

스코틀랜드국교회는 제1대 총회장이 존 녹스(John Knox, 1514-1572)로 장로교 본산지로서 한글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기도 하여 장로교 목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800년 전통의 스코틀랜드국교회 소속으로 린리스코우에 있는 세인트마이클교회(St Michael's Parish Church Linlithgow)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이 교회는 스코틀랜드국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였기에 에딘버러를 떠나 호수와 궁전 앞에 위치한 400년 정도 된 교회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상주하며 목회에 전념하였다.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은 여왕 궁전이 있을 정도로 자연 경관이 매우 좋은 곳이었다 보니 본인에게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목회와 학업을 한 곳으로 기억이 된다.

특히 이 교회 근처에는 영국 유일의 한국전쟁기념공원(Scottish Korean War Memorial)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 중 5만명의 참전용사 중 전사한 1,114명의 영국군인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다.

박사학위를 받으며 예장통합총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파송선교사로서 영국개혁신교회 소속 런던 서편에 위치한 세인트앤드류스교회(St Andrew's United Reformed Church London)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 영국개혁신교회는 잉글랜드장로교회의 전통을 잇는 교단으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Robert Thomas, 1840-1866)를 파송한 곳이고 런던은 초기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가 출생한 곳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정원 가꾸기와 정신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를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은 스코틀랜드 교인들의 많은 사랑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었다. 하지만 세계선교의 뜻을 품고 런던에 부임을 하고서 각종 모임들로 인하여 정신 없이 지내다 보니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곳을 가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모임들이 사라지고 하루에 한번은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어 주변에 여러 공원들을 가볼 수 있었다. 런던의 무려 40%가 녹지대였고 여왕 소유의 공원에는 사슴이 다니기까지 할 정도로 스코틀랜드 못지 않게 자연경관이 매우 좋았다.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서 교인들과 함께 그 동안 일상 생활에 바빠서 미루었던 각자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하였다. 이것은 예상 외로 교인들의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많은 도움을 주며 마을 전체로 확산이 되었다. 정원 가꾸기는 봉쇄 조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켰으며 불안과 우울증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본인은 사택 정원에 포도, 딸기, 장미, 열무, 시금치 등을 심어서 가꾸었으며, 교회 앞 정원에 꽃을 심고 야간에 교회와 꽃을 비출 수 있는 태양열 조명을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 엽서를 제작하여 봉쇄 기간 동안에 생일을 맞이한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편지와 함께 꽃을 전달하였다.



블리츠 정신

영국은 유럽 안에서 코비드-19로 인하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든 마트든 어디를 가든지 동요함이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살육과 파괴, 비참과 공포를 이겨낸 공동체 정신인 영국인 특유의 '블리츠 정신(Blitz spirit)'과도 연결되어 있다. 194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독일군 공습으로 영국 도시 곳곳이 불바다가 됐을 때, 런던에서만 3만명이 죽고 5만명이 부상당했고, 런던 시민 6분의 1인 140만명이 집을 잃었다. 이는 프랑스가 굴복하고 미국은 외면할 때였기에 일부는 정부를 원망하고 굴욕적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영국인은 자존심을 잃지 않고 공포 앞에서 질서를 지켰다.

특히 코비드-19가 영국에서 확산되어 봉쇄조치가 취해질 때에 영국 서남부의 팔머스 지역에 사는 베키 와스(Becky Wass)와 그의 남편은 소셜 미디어에 외출이 불가능해진 노인들을 위해 장보아주기, 우편 대신 보내주기, 전화해 주기 등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며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세인트앤드류스교회도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였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향유(Enjoy God)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교회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하고서 저녁 8시마다 교회 앞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의료진들과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위한 박수를 하며 격려를 하였다. 또한 교회 인근에 정신지체 장애시설에 있는 이들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를 해 주었다.

Rev 시트콤이 놓친 주제?

영국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Rev’란 시트콤이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 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BBC에서 방송이 되었던 것으로 시골에서 거의 죽어있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런던 동편’에 위치해 거의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교회로 새로 부임하게 된 아담 스톨본이란 성공회 목사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런던 동편은 여왕궁전이 위치한 서편과 달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습으로 많은 폭격을 받게 되어 심하게 집들이 파괴 되었고 전쟁 후에 주로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게 되어 주거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다문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런던 동편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런던 서편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런던 동편에 위치한 교회에 부임한 스톨본 목사는 진정한 교인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마약중독자들과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여 더 좋은 학교로 진학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 회당에 교회보다 더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제들 사이에서 많은 도덕적 도전을 받게 된다. 그의 목회를 돕는 이로는 자신의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거의 목회를 돕지 않는 사모 알렉스,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려는 평신도 리더 (lay reader) 나이젤, 언제나 교회 재정을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는 부주교 로버트 정도였다. 교인으로는 알코올중독자이자 실업자인 콜린, 목사가 설교할 때 성적흥분을 하는 중년 흑인 여성 아도하, 목사의 사택에 정기적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마이크 등이 전부였다.

스코틀랜드에서 비교적 신사적인 백인들만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Rev란 시트콤이 본인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런던에 부임하



여 목회를 해보니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 런던 목회의 현장을 담고 있는지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트콤에서는 적어도 6명은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코비드-19로 인하여 현재 3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더 악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불평등: 톨스토이와 케인즈

봉쇄조치로 인하여 교인들이 더 이상 주일에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는데 주력을 하였다. 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 찬양과 기도, 강연, 어린이를 위한 시간 등을 하였고 교회 홈페이지(standrewsbalham.org.uk)를 새로 개설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뜨개질 성경’(Knitted Bible) 이야기를 전시하였다. 특별히 홈페이지에 Covid-19 섹션을 두어서 ‘기도’(pray)와 ‘도움’(help)을 통하여 어떻게 이로 인한 재난을 극복할지에 대해 교회적 차원에서 제시를 하였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시기에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의 시기에 대응을 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 지는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건강 돌봄에 대한 윤리적 질문과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한 트라우마와 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마을 안에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영국에서 많은 독서그룹에서 흑사병 시기의 이야기 서클이었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카뮈의 『페스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이 많이 읽혀졌다. 특히 코비드-19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톨스토이 작품의 부상은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가 어떻게 삼위일체와 예수의 구속사적 사역과 부활 등을 부정하였는지를 살피며 그의 사상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였다.

추가로 코비드-19로 인하여 봉쇄 조치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소득의 80%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감염을 감수하고서라도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상당한 힘든 시기였다. 그래서 성공회 대주교를 역임했던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1950-)는 코비드-19 이후 시기에 보다 강력한 기본소득제(Universal credit)를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1930년대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며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 수요를 강조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경제이론과 연결이 되어있다. 이런 맥락에서 케인즈의 주요 저서를 분석하고서 앞으로 영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탈세계화에 맞선 세계선교: 아프리카 공공보건과 정책 저널

이미 영국은 코비드-19의 확산 이전에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고서 점차 탈세계화를 하여 민족주의(nationalism)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영국정부 내각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닌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추어져 만들어진 내각이었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화(globalization)와 불평등(inequality)에 대한 문제가 영국에서 부각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인기영합주의자들이 더욱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세계변화를 위한 토니 블레어 연구소’(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팬데믹에 취약한 아프리카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부터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으며 지금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연방에 소속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인트앤드류스교회 주위에 거주하는 영국인 의사들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가칭 ‘아프리카 공공보건과 정책에 대한 저널’(Journal of African Public Health and Policy)을 창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의사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들이 영국에 있는 공공보건 저널에 기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들이 원고를 내면 교회의 비전을 돕는 영국인 의사들이 논문 심사와 수정을 돕고 본인이 편집인으로 교회의 주도 아래 출간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선교를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고자 한다.

영국간호선교사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영국은 재정감축을 위해 국가의료서비스(NHS)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의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10만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코비드-19의 팬데믹이 발생을 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본인은 예장통합에 속한 교회들과 한일장신대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학생들 중에 영국간호선교사를 선발하여 교회 인근 대학병원에 배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최근에 한 명이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직업적인 면에서 영국에서 간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면에서도 볼 때 코비드-19 시대에 마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이다.

영국간호선교사 안을 통해 예장통합 안에 2%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세계선교와 연계하여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원 아래 영국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선교적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세계선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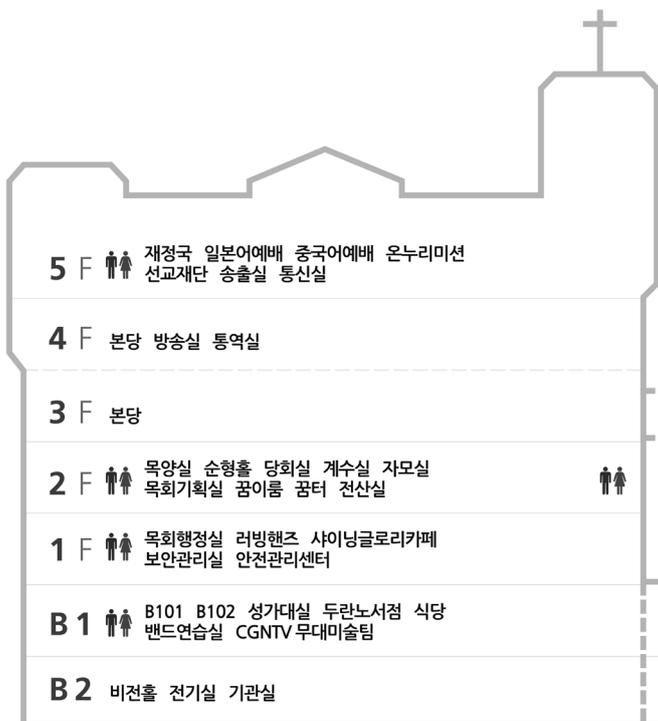
영국에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교회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영국 성공회에는 영적 송고함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의 아름다운 42개의 대성당(Cathedral)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교(Bishop)가 상주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라이트(N. T. Wright, 1948-) 목사는 더럼의 주교로 있으며 고난주간 때마다 이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였고, 로완 윌리엄스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었는데 597년도에 처음 세워져 계속 발전되어 온 캔터베리 대성당은 켄트 지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있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마이클교회도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전 담임목사 중의 한 분인 데이비드 스틸 (David Steel, 1910-2002)은 장로교가 국교답게 주일 마다 마을 전 주민들에 대한 ‘출석체크’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지도하였다.

세인트앤드류스교회에 부임을 하고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회 본당에 3배에 이르는 교회홀이 교회의 목적과 상관없이 철저히 비즈니스로 유치원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교회가 지리적으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는 하나 주민들에 의해 거의 사용되어 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바로 당회와 모든 교인을 설득하여 유치원과의 계약을 종료시켰으며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세계선교의 축이 될 수 있도록 교회홀을 런던세계선교센터(London World Mission Centre)로 탈바꿈하기로 온 교인들과 결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교회를 영국정부에 법인으로 등록을 시킴으로써 보다 폭넓게 마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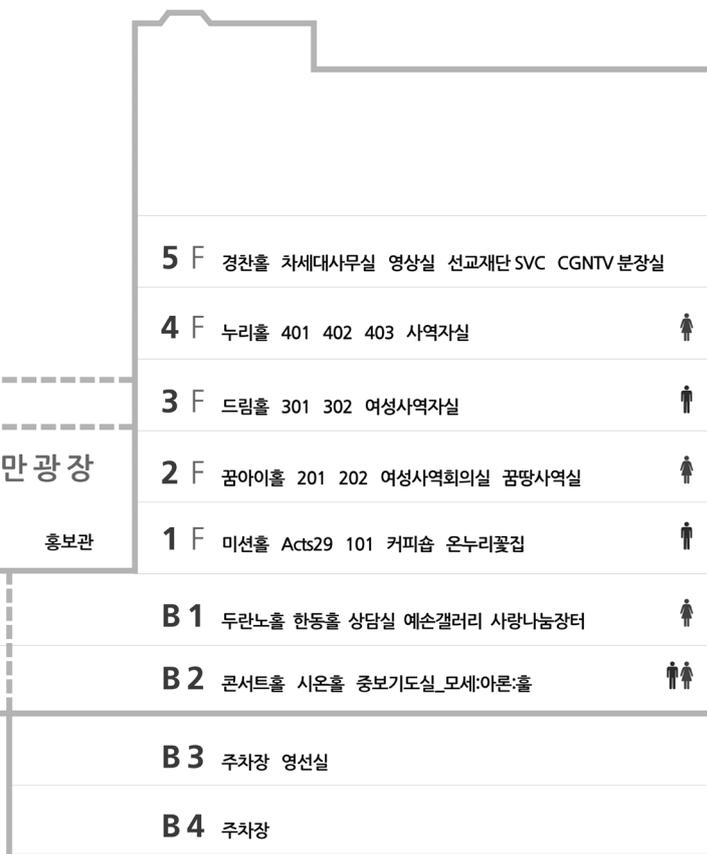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 설교도면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야외 카페를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숙사를 구성토록 하였다.

온누리교회 신관 | 본관 층별안내

Main Building Directory **본관**



선교관 Missions Building Directory



이천만광장

홍보관

Toward a Worship Community in the Digital Generation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